

쓰다, 도전하다, 공감하다
라이팅챌린지 3주 프로젝트 vol.1

LOG OF

2023/05/08-

2023/05/26

BAND



라이팅 챌린지-3주 프로젝트
2023.05.08-2023.05.26



2023/05/08

monday, am 8:01 | 62읽음
김양선

#1일차 최초

글쓰기 첫 날 키워드는 '최초'입니다.

처음이나

시작과는 어감이 조금 다르죠? 역사에서 최초의 인물, 물건, 내 인생에서 최초의 기억이나 경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최초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12시 전에 챌린지 최초의 글쓰기 잘 마무리라기 바랍니다.

(인증글은 라이팅챌린지-3주프로젝트에 올리세요. 매일 글쓰기 프로젝트 카테고리말고요..)



30



0



2023/05/08

monday, am 8:50 | 60읽음
주재형(청각학과)

#1일차 #최초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최초로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인류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그는 달 표면을 밟기 전에 '최초'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최초는 남들이 쉬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다.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 최초로 영화를 만든 사람 등 업적을 기리고자 할 때 문장 가장 앞 부분에 배치되어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한 용기와 도전 의식을 가졌다는 말이다.

업적이나 기록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최초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한다. 우린 독버섯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그 독버섯을 직접 먹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호기심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특성 덕분에, 인류는 문명을 번성시킬 수 있었다. 최초의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무언가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말이다. 자신이 가진 이론이나 지식을 증명하거나 그 자체를 얻기 위해, 혹은 성취의 감정을 느끼기 위함 등등 지금까지 최초라고 부를만한 것은 수없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임이 쉬워진다!

심지어 현재에도 최초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방식이 어떤 것이든, 우리 모두 최초의 꿈꾸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 26 💬 1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첫째 날 첫 글이네요!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우리 모두 최초의 꿈꾸는 사람으로서” 를 읽고 과연 저는 이 생애 어떤 최초의 이루게 될 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글 잘 읽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최초의 호기심이 다양한 문명을 번성시켰다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 어떠한 것이든 경험해보려는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 너무 잘 봤습니다! 꼭 대단한의미의 최초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기때문에 문명을 번성 시켰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깊었어요! 저두 앞으로 살면서 어떤 분야의 최초가 되고싶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글 잘 읽었습니다 최초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가지가 생각나는데요 글을 읽고 나에게 최초의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성(소프트웨어학부) 글 잘봤습니다! 결국 최초와 도전의식이 비슷한 결에 있다는 문장을

보며 꽤나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글을 읽게되네요 :)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는 글인 것 같아요. 최초의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글 잘 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최초의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 최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준호(콘텐츠IT) 최초라는 뜻은 결국 누구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도 도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최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글이네요! 최초의 경험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야할 것 같아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독버섯을 예시로 한 것이 새로운 것 같아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재형님은 두 번째 3주 글쓰기 챌린지의 최초 작성자가 되셨네요! 호기심과 최초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상민(생명과학과) 모두 꿈을 꾸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있을 수 있다. 는 글귀가 마음에 다가오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최초'라는 단어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스스로에게 최초의 기억, 도전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형님의 최초도 응원하겠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첫째 날 첫글 이룬시간에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단어나 문장 자체가 탄탄하고 너무 매끄럽게 연결되는것같아요 :) 재형님 글에 너무 큰 공감이 됩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사회의 문명에 발전이 크게 되지 않았을것같아요 재형님도 최초로 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3/05/08

monday, am 10:28 | 37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일차 #최초

'처음'이라는 단어는 가슴이 떨리고 긴장감이 드는 반면 '최초'라는 단어는 조금 무겁기도 하면서 웅장한 느낌이 들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흐르는 단어라 느꼈다. 사람마다 최초의 기준과 시기는 다르고 자신에게 어느 순간이 '최초'일지 혹은 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최초'는 소중하다. 누군가는 이미 최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살고 있는 한편, 한평생을 살면서 스스로에 대한 최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최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최초'가 그림자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초'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최초'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뒤를 쫓아다니며 당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니 '최초'를 찾으려고, 만들려고 애를 쓰거나 조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당신은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나와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당신만의 최초이기에 소중하다. 그 누구도 건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최초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 '최초'는 다소 무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 19 💬 14

박광성 (소프트웨어학부) 글 잘 읽었습니다! 때론 최초를 방패삼아 하는 합리화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죠. 또, 최초를 찾으려고, 만드려고 애를 쓰거나 조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왜인지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용후(법학과)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최초의 페이지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여 '최초'라고

명명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매순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하여 깨닫고,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문장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네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최초가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쫓아다니다니.. 갑자기 든든해지는데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정민(스마트IoT) 최초라는 단어를 너무 잘 표현해주셔서 인상깊었습니다.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우리는 하나씩 최초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고있다는 내용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최초라는 타이틀에 너무 목매지 않고 그 과정에 집중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스스로의 최초를 매일매일 만들고 있으니 그 과정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단어를 보고 느낀 감정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멋있는 표현들과 함께 최초의 페이지를 먼저 작성해주셔서 저도 배울 점 많은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는 소중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최초에는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네요. 넓은 세상에 홀로 나와있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최초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최고는 눈에 잘 보이지만, 최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남모르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죠! 좋은 글입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최초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그것이 저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하신 것 같아요. 최초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곁에 따라다니는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최초와 처음은 둘다 첫번째라는 의미이지만, 어감이나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잘 꼬집은 글 같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최초는 그 어떤것보다 소중한것같아요. 제 자신은 지구상에

최초이기때문에 더욱 소중히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최초의 페이지
같습니다 페이지들이 모여 멋진 인생이 만들어
지는것같습니다 :)



2023/05/08
monday, am 10:36 | 45읽음
서원준 (중국어과)

#1일차 #최초

드디어 2023년 라이팅 챌린지가 시작되었다.
최초로 시작했던, 작년은 굉장히 나에겐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였다. 귀찮아서 완주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적이 정말 많았는데
최초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최초의 보기 좋은
대상이 되고 싶어 열심히 하다보니 막바지에
댓글상도 받고! 정말 뜻 깊은 2022년을
라이팅 챌린지 덕분에 행복하게 보냈다!
이제 그 다음의 댓글상은 누가 받을까? 정말
기대된다! 최초는 처음의 시작이기도 하다.
2023년 라이팅 챌린지를 처음 참가하신
분들도 두루 계시기에 2023 최초의 댓글상,
최초의 우수상은 누가 탈지 정말 궁금하다.
나와의 싸움이기도 한 라이팅 챌린지, 뭐가
되든 도전한 여러분들은 최초의
도전자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으면 좋겠다.
화이팅입니다! 쪽 같이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봐요!

😊 21 💬 17

김시현(러시아학과) 작년 챌린지에서 댓글상을
받으셨다니 멋있어요! 이번에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조은지(철학) 작년 챌린지에서 글 자주 봤었는데
오랜만이네요!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서
완주해봅시다 화이팅!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작년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이번 활동도

화이팅이에요 꼭 완주합시다!
심지범 (경영학과) 같이 열심히 달려보아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혁 동기부여 되네요!!
3주동안 열심히 활동 합시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같이
꾸준히 해봐요~!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두번째
참가시군요! 완주를 목표로 같이 열심히
달려가봅시다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쪽 같이 달려요:)
김준호 (콘텐츠IT) 저도 작년 챌린지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뵈던분이 많더라구요!
최초의 경험이 역시 다음 도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도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파이팅 해서 이번 활동 같이
완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희 같이 끝까지
힘내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아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작년에 뵈었던
게 기억나요! 올해도 챌린지 시작하시는군요. 저도
댓글상을 받았던 거 같은데, 다들 글을 잘 써서 댓글
쓰는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유안(러시아학과) 2023년 챌린지의 첫 시작,
뜻깊은 경험을 함께 나눠주셔서 무척 감사하네요.
저도 이번 챌린지를 끝까지 완주하리라 마음을
다져봅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도 뜻깊은 경험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작년에 같이 달린 분이시군요!
좋은 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3주도 같이 잘 달려보아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작년 챌린지에 댓글상도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년도에 같이 활발히
활동해보아요 ~~
최초의 도전자이기에 최종의 도전자까지 같이
성실하게 임무를 실행합시다!!
김노연(사회학과) 댓글상이 있었군요! 작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챌린지 도전하시는 것이
멋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완주해봐요 :)



2023/05/08

monday, am 11:08 | 36원음
심지범 (경영학과)

#1일차 #최초 #最初

최초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이는 단어이다. 최초라는 뜻풀이는 가장처 처음 초 자를 써서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것이 처음 경험하는 행동일것이다.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는것도 최초일것이고 걸음마를 떼는것도 처음일것이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성공하여 회사에 다니는것도 최초일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미생”이라는것이다. 누구나 실수 할수있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좌절하지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지금 내가 라이팅 챌린지-3주 프로젝트 글을 쓰는것도 최초이기도 하다. 지금 밴드에 글을라오는것을 보면 전문적이거나 읽기 쉽도록 하는 글들이 많은데 나는 글을 쓰는거에 있어서 딱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 생각들, 내가 경험한것들로 비롯하여 글을 쓰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거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20 💬 15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도 글을 쓸 땐 제 경험 위주로 써야 글이 더 잘 쓰여지더라고요! 글 너무 잘 읽었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미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네요... 누구나 처음으로 도전하고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글 잘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글을 읽으며 저도 논평이나 소설, 일기처럼 다양한 글을 써봐야 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네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중요하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글에서 쓰신 것처럼 딱딱하지 않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역시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글이란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글에서도 딱딱하지 않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신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글을 쓰지 않아서 저에게 최초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좋은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할게요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독자가 읽기 쉬운 글이 한편으로는 가장 쓰기 어려운 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콘텐츠IT) 자신에게 있어 모든 행동은 최초가 될 수 있죠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에 가끔은 최초에 집착하기 보다 그 과정을 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한자 뜻풀이를 보니 또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라이팅 챌린지의 최초의 첫 도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길 빌겠습니다 함께 완주해요 화이팅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글은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시작하기만 하면 글을 쓴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엔 3주 챌린지를 완주했었는데, 올해가 돼서 바빠서 글을 못 쓰고 있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글에서도 댓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뜻깊게 사시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 저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시면서 여러가지 자유롭게 시도도 해보시고 편안한 방법을 잘 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이하늬 배우님이 이 나이를 먹고도 아직 처음인게 있다니 너무 신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모든 인간이 미생이라는것에 큰 공감 합니다! 최초이기에 실수할 수 밖에 없는것이 인생인가봅니다. 앞으로 지범님의 글들이 기대가 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미생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 평생을 미생인 상태로 살테니

강박을 갖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글이었어요!
김노연(사회학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말이 정말 공감됩니다. 삶과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고, 인생은 짧으면서도 기니까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어요. :)



2023/05/08
monday, am 11:09 | 36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1일차 #최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다.
러시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우는 전공을
가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 그 과 망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럴 때마다 전공 교수님은 러시아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더욱 필요하고 할 일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용기를 주신다. 나는 여기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과거 역사들을 보았을 때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최초의 발명품, 제도, 인물들이
등장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끝나면 관련 인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많아지고, 그사이에 최초로 발생하는
사건들은 무궁무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가들과 서로
협심하다보면 최초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나의
전공을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도 가져본다.

😊 17 💬 13

심지범(경영학과) 전쟁이면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글이네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것이죠. 우리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기전에 우리 국방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선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구절이 있듯이 말이죠.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 없어서 최초라는 말이 더 기억에 남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글을 읽으며 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라는
키워드를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시켜서 잘
작성한 글인 거 같습니다! 저는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주셔서 흥미롭게 읽었어요 ㅎㅎ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러우크 전쟁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분단국가라는 것에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정민(스마트IoT) 최초라는 단어를 보고 현재
사회를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새로운 관점을
전해준 글이었습니다!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키워드와
전공을 연관지어서 멋진 글을 써주셨네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꺾이지 마시고 시현님의
‘최초의’ 다짐대로 밀고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콘텐츠IT)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 또 다른 최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글쓴이분의 열정이 보이는
글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읽었네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최초랑 전공이 엮이니까 더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전공을 살린
글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현님의 글을 통해서
다시금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반가운 동일 전공자이신 분의
글 너무나 와닿고 반갑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개척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초라는 개념과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짚어서 글을 연결하신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잘 알고 계시는 영역에 대해
글로 이야기를 공유해주셔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맞이했을 때는 너무 막막하겠지만, 그 속에서 시현님이 최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도 인문학부인 영어영문학과만큼 시현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는것같아요!! 시현님의 글 덕분에 전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어학부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같이 힘내보아요 :)

김노연(사회학과)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맞아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순간이 많더라고요. 저도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2023/05/08
monday, am 11:21 | 33읽음
김유진

#1일차 #최초

'최초'

최초란 '맨 처음'을 뜻하는 명사이다. 나는 최초를 떠올렸을때 탄생, 입학, 시작과 같은 단어가 떠오른다.

내 인생의 최초의 최초는 세상에 나왔을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이다. 내가 태어나고부터 19년 동안 최초의 최초 이후 많은 최초가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말을 처음 한날, 대학교를 입학한 날, 친구와 처음으로 약속을 잡은 날 등...

많은 최초 중 의미가 있었던 최초도 있었지만, 의미가 희미한 최초도 많았을 것이다. 제일 최근의 의미가 있었던 최초는 대학교 입학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그동안의 수고에 온점을 찍는 일이기도 하면서 성인으로서 첫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준독립의 시작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교를 갓 입학한 지금이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내 가치관과 부합하는 일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 대학교 입학이라는 '최초'는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큰 상징이다.

최초는 또 다른 최초를 낳는다. 어떤 최초이든 나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최초이든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세상 모든 이들이 최초에 용감히 맞서기에 최초란 존재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챌린지에 도전하고 1일차의 글도 최초이다. 또 다른 최초의 도전을 한 나에게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기억하며 글을 써내려가고 싶다.

😊 18 💬 13

심지범 (경영학과) 초심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한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최초는 또 다른 최초를 낳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목표가 또 다른 목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또다른 최초의 도전을 한 유진님에게 저두 응원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정민(스마트IoT) 최초라는 단어의 의미를 비롯해 나의 지난 날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네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

김시현(러시아학과) 최초로 도전하는 일이 크든 작든 다 박수받을만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 챌린지 도전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성인이되어 어느정도 독립하게 되었을 때의 최초는 분명 큰 상징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정말 큰 상징인 것 같습니다..! "최초는 또 다른 최초를 낳는다." 는 말도 인상깊었습니다.

"도전은 또 다른 도전을 낳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예원(미디어스쿨) 같이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서 꼭 완주해요!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자신의 최초를 찾아감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유진님의

생각이 멋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통해 본인의 최선을 찾음으로써 성장하길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꼭 저희 함께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봐요 화이팅 !!!!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의미가 희미한 최초라는 말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챌린지 완주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같이 열심히 글 써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다양한 최초들이 모여 유진님을 만들었고 그중 하나의 최초에 함께 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3주 같이 완주합시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유진님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최초들의 일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유진님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최초는 또 다른 최초를 낳는다는 말이 정말 좋은 문장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최초는 또 다른 최초를 낳는다... 공감하고 가요! 어디서 비슷한 말을 보았는데, 일단 보이는 데까지 달려가보면 거기서 또 더 멀리 나가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또 가보면 또 여러 선택지가 보인다는 말이 있더군요. 나만의 최초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어요!!



2023/05/08
monday, am 11:38 | 34읽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1일차 #최초

나의 최초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의 최초를 떠올려본다. 기억 속을 헤집어 간신히 첫머리에 다가가보지만, 해석하게도 나의 최초는 내 기억 속에 없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나의 최초도 기억 못 하는 건 참 억울하지 않은가. 아쉬운 대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에게 들은 최초의 내 모습은 꼭

타조 새끼 같다고 했다. 입은 삐죽 튀어나와서 아빠가 무어라 말하는 걸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타조에게 첫 이유식으로 밥알을 입에 넣어주니 오물오물 잘 받아먹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하셨다. 처음으로 목욕을 시켰을 때, 작은 아기를 어쩔 줄 몰라 할머니가 도와주셨다고. 처음으로 내가 심하게 아팠을 때, 안절부절못하며 울면서 응급실로 곧장 달려갔다고. 처음으로 내가 내 이름을 뱉었던 순간, 가방을 둘러메고 처음 학교에 간다고 신나있던 순간, 나를 처음으로 혼내며 속상했던 순간. 내가 말이라 그런가 엄마는 모든 순간이 처음이라 새롭고 서툴렀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자유롭게 기르고 싶다고 하셨다. 그 때 생각했다. 처음이라 낯설고, 서툴러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대로 의미는 충분했던 최초의 순간들.

엄마에게 나는 매순간 최초였구나.

😊 20 💬 15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정말 생각 해 보니 엄마에게는 우리가 매순간 최초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어버이날을 맞아 정말 인상 깊은 글이었습니다!

이정민(스마트IoT)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이에 맞는 글이네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

심지범 (경영학과) 오늘이 어버이 날이죠 어머니 아버지 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이 글을 읽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에게 저는 매 순간 최초였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어버이날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매순간 최초였다는 내용이 너무 인상깊어요! 글 잘읽었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더 마지막 문장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매순간 최초였다는 생각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툭툭했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서 서툴렀을 것 같아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다보니 더 집중해서 읽게 되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준호(콘텐츠IT) 어버이날에 맞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일이 처음이었던 만큼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매순간 최초였을 것 같네요 인상깊은 글인 것 같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어버이날에 맞는 멋있고 감명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황정운(의예과) 잘 읽었어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엄마도 제가 처음이라는 걸 알고 이해하기까지 꽤 걸렸어요. 그 마음을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마지막 문장에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맞는 글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제 최초의 모습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 떠오르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수민님께 뜻 깊었던 가족들이 함께한 최초의 체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조 새끼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가족 분들의 시각에서 많은 애정이 느껴져 저도 함께 마음이 좋아지는 글이었습니다. 경험을 함께 나눠주셔서 무척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의 가족과 함께한 최초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 어버이날만큼 정말 의미 있는 글 같아요! 수민님에게 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것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면 옛날의 엄마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2023/05/08

Monday, am 11:58 | 26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일차 #최초

모든 것에는 최초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운명 같은 폭발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듯 말이다. 시커먼 우주 속에 최초의 별과 행성, 온갖 우주먼지가 생기는데 또 다시 영겁의 시간이 흘렀다. 지구라는 행성이 이단아처럼 등장하여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자처할 때까지 말이다. 지구에는 우주에서 반복되었듯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초의 동식물이 태어나고 자랐다. 인류는 처음 눈을 뜬 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것이며 광활한 대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을 것이다. 투박하고 굴곡진 땅과 과격하고 부드러운 물 위를 걸었을 테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은 곧 굶주림과 분노, 증오 등등을 자연스레 느꼈고, 무리로 갈라져 싸우기도 했었다. 선악과 시간 앞에선 최초가 무의미해지고 부끄러워질 뿐이다. 피와 눈물의 시대가 지나고, 암흑시대가 지나고, 이성의 시대가 찾아오고 나서야 최초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발명품과 사상,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다.



16



12

심지범(경영학과) 우리는 지금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다가 마지막을 장식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과학적이고 사색적인 글입니다! 잘 읽었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자연 앞에 최초는 의미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인상깊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최초의 시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축하받으며 존중 받아야 한다 생각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거대한 자연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찰나의 무의미한 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만의 최초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가는 글이네요!

함예원(미디어스쿨) 마지막 문장은 계속해서 기억날 것 같은 인상 깊은 문장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생명이 죽고 다시 태어나듯, 매 순간이 누군가의 최초의 시대. 그 시대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마음 가짐을 지켜야 할지 사유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표현이 특히 좋았습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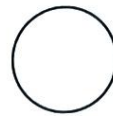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글을 읽고 충민님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궁금해서서 프로필을 확인해봤어요! 심오한 글 감사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이과적이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인 글인 것 같아요. 매순간 매분초 새로운 기술이 발견하거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최초의 시대에 살고있다는 것을 깨닫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빅히스토리, 우주사적인 관점에서 '최초'를 조망해볼 수 있게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보다 거대한 의미에서의 최초가 저희 삶에 가까운 최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문장들의 아름다움과 울림이 참 좋습니다. 거대한 자연으로 이루어졌던 최초가 어떻게 인류의 최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자연의 최초가 아닌 자신들만의 최초를 갱신해나가는 인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우리는 지금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을 보고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느껴졌어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충민님의 비유적인 문장 표현들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길지 않는 글이지만 한문장 한문장 표현에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지구상에 제가 지금 숨쉬는것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2023/05/08

monday, am 11:59 | 30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일차 #최초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걸음마를 떼는 것,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빨간 꽃(불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다.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에서 사람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갑자기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처음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킬 때에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의식도 하지 않은채로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않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두번째 사람도 하늘을 가리킨다. 이번에는 길을 건너는 두세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을 의식하며 하늘을 두어 번 쳐다만 본다. 세번째 사람까지 합세하여 세명의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을 건너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늘을 띄엄띄엄 쳐다본다. 네명째, 다섯번째부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본다.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최초라는 것은 단지 처음이 아닌 누군가로 인해 새로운 길이나 경험, 역사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도 경험을 하게 되고 최초의 사람이 개척한 새로운 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11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최초라는 단어를 단지 처음이 아닌 또다른 의미로 바라본게 인상적이네요! 멋진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인류의 문명은 계속 해서 발전하고 있죠! 글 잘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행동을 하게되면 처음엔 신경쓰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도 그 행동에 동조하죠!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새로운 개척의 길을 만들어 보는 도전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최초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뜻깊은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역시 최초가 있기에 뒤이은 도전과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최초의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것이기도 하구요! 우리도 언젠가 다른 이를 위한 도전으로 최초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교수님이 수업 시간 때 보여준 동영상이 생각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구석기 시대에 불의 명칭이 빨간 꽃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새로운 가정을 상황적 예시로 설명하는 글이라 저도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길을 한번 개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개척된 길을 따르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의 선택을 함께 따른다는 일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구요. 글을 읽으며 최초에 대한 도전정신이 생겼습니다. 그와 별개로 글에서 예시에서 나오는 상황과 최초가 단지 처음인 것은 아니라는 표현에서 무언가 좀 더 설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더 긴 글로 만나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누군가에게 최초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깊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한국 사회에서 더욱 공감어 되는 글이었습니다. 결국, 최초라는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되는 행위인것같습니다 앞으로 성준님의 글이 기대가 됩니다 같이 챌린지 끝까지 완주합시다!!



2023/05/08

monday, pm 12:35 | 46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1일차 #최초

내가 죽던 그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나만이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를 발견한 사람은 없다. 당연하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 남겨졌고, 너는 날 죽인 후 꿈꿈 숨겨냈을 거니까.

나는 나약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넌 손을 내밀어 주었고, 최초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너와 함께한 순간들은 나에게 있어 과분한 행복 같았다. 혼자 남겨졌다는 우울하고도 비참한 심정이 없어져갔다. 넌, 나에게 친구를 넘어 가족 그 이상의 의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넌 나 말고도 소중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해가 갔다.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그쯤엔 나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생겨났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넌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다. 고까워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난 너와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정말 괴로웠다. 미칠 것만 같았지만 너가 처음으로 나에게 알려주었던 「너 자신만을 생각해」 이것. 이것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자 넌 지칠 줄도 모르고 전화를 해댔고, 문자를 보냈다. 주된 내용은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데」였다. 이때 난 깨달았다. 아, 넌 내가 불쌍했구나. 너에게 있어 난 연민의 대상에 머물렀던 사람이구나. 너를 위해 나에게 다가왔던 거구나. 이 생각을 끝내기가 무섭게 넌 우리 집에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고 차를 내어줬지만, 넌 그 뜨거운 걸 나에게 붓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박살 냈다. 혐오감과 배신감에 점철된 난 결국 내 손으로 사건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널 2년 전에 죽였다. 틀림없다. 내가 너를 죽였던 방법과 처리한 과정 모두를 기억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건에 '피해자'로 너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너가 다시 돌아왔다. 내 눈앞에.

그리곤 나를 죽였다. 내가 너를 죽인 방법
그대로. 잔인한 무표정으로.
그래, 그때 너와 나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최초의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 19 💬 16

주재형(청각학과) 사건현장의 최초목격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었어요. 소설로도 라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저도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은 꼭 소설을 써보고싶네요!

이등금(정치행정학과) 하나의 소설책을 읽는 것 같았어요! 스킬러를 좋아하는 저로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시간이 흐를수록 난 나말고도 소중한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라는 구절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소설형식의 글이라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몰입해서 잘 읽었습니다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첫 줄에서부터 이렇게 매력적인 소설이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기회가 된다면 더 긴 호흡의 글도 보고싶어지네요... 제가 최초의 독자가 되고 싶어지는 욕심도 살짝 들고요

조인영 심리학과 이렇게 몰입하며 글을 읽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소설형식으로 글을 쓰실 줄은 몰랐네요 도입부터 굉장히 몰입되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소설 형식의 글이라 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읽게 되었어요!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황정운(의예과) 하지만 '너'를 죽인 방법이 실패했다는건, '나'가 죽게된 방법 또한 실패하겠단 것 아닐까요?

+) '너'와의 연애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섬뜩하네요..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인물의 ptsd적인 감정전개가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알고 있는 너와 나이에, 어쩌면 '너'와 '나'가 같은 자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너를 죽인 나도 완전히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마지막 문단을 읽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 즐거웠습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가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첫 문장부터 눈길이 확 갔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글 읽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매력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이미 죽은 자의 서술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술 방식이 오묘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글을 통해 큰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이 또한 최초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너와 나의 관계 그 밀접함과 집착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지는 글이었습니다. 최초라는 개념에 대해서 뻔하게 접근하지 않고 흥미로운 플롯의 첫 단초로 시작한 점이 독창적이라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최초'라는 키워드로 멋진 소설이 탄생한다는게 이 챌린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졌어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소설에 최초라는 키워드를 잘 녹여낸 글 같습니다 몰입감있게 잘 읽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초는 또 다른 느낌인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을 못느낄것 같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멋진 소설이네요! 결말에서 결국 화자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예상치 못해서 놀랐습니다. 화자와 친구의 스토리를 더 보고 싶어지네요. 장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 정도로 잘 읽었습니다 :)

2023/05/08
monday, pm 1:28 | 33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1일차 #최초

인류 또는 국가의 역사 속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수용한다.

하지만 개인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매순간 최초의 일들을 하고 있다.

내 역사 속에서 나는 최초의 인물이다.
내가 태어났기에 세상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한다.
양자역학에선 관측 전까지는 확률의 형태로
존재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존재들은 명확하게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최초의 인물은 최초의 울음소리를 내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다. 울고 때쓰며 어머니의
젖을
또는 분유를 먹기 위해 힘을 쓴다.

젖을 떼면 최초의 이가 자라나 먼가 씹을 수
있고
다양한 맛을 최초로 경험할 수 있게된다.

첫 걸음마는 그의 인생에서 최초이며
도전이며
더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한 초입이다.

그렇게 학교로, 사회로 뻗어나간다.

그가 경험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최초의
모든 것이다.
인간은 접하기 전까지 그 존재도, 감정도,
경험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최초의 경험이
있어야 받아들이거나 밀어내거나 부딪히거나
할 수 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최초의 경험 또는 시간을
맞이할 것인가?
또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순간들을
경험했는가.

거창한 단어보다 개인의 역사에 쓰이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 16 🗨️ 12

강민지 (사회학과) 개인의 역사도 충분히
가치있고, 중요하죠! 이 점을 상기시켜주는 글이라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거창한 단어가 아닌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으면 한다 라는 말이 심금을 울리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개인의 역사에 최초가 도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죠. 최초의 경험이 있어야
어떤일을 받아들이고 부딪힌다는 말이
공감이되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최초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개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분명 그 사람에게서 최초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어쩌면 자신만의 기네스북을 달성하는 재미로
사는걸지도 모르겠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우리 개개인의 개성 또한
최초의 걸음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저도 이 단어가 조금 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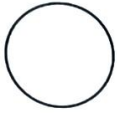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개인의 역사라는 말을
한참 곱씹어보게 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아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 읽으면서 제 20년 인생을
다시 돌아봤네요 내가 뭘 하고 자랐는지
주변사람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라는
가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글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다양한 최초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전공이 생명과학과인만큼
최초 라는 키워드를 생명과학 관점에서 잘 풀어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인간에 내던져진이상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39 | 34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1일차 #최초

살면서 한 번쯤은 기억의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더듬는데, 최초의 기억은 꽤나 소란스럽고 강렬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세 살 무렵, 엄마와 할아버지가 큰 몸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웠는지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가 심하게 울면서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던 건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게 불똥이라도 튕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블록을 쌓았다. 할머니가 말려도 싸움이 심해졌고 결국엔 할아버지가 엄마의 손에 밀려 광! 하고 넘어졌다. 엄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소리쳤었는데 넘어진 할아버지를 보고 흠칫하더니 “아버지... 괜찮은교..?” 하면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선 연신 죄송하다며 할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내 최초의 기억은 여기서 끝났다. 당시에는 무서운 거 빼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걸 보니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나 보다. 나는 무의식 중에 ‘엄마’란 존재는 태양처럼 느껴지고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엄마도 누군가에겐 자식이었고 나와 똑같은 소녀였다. 부모님에게 상처주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도 다시 사랑하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엄마는 얼마나 그 당시를 떠올리며 아파하고 있을까.



15



10

심지범(경영학과) 마음이 아픈 글이네요 지금은 극복 하셨을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최초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머리 속에 잔상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글 잘 읽었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최초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쉽게 기억을 지울 수는 없지만 다른 예쁜 기억들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어린이집에서 초코사탕을 먹던 기억이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추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준호(콘텐츠IT) 항상 최초의 기억이 긍정적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지만 그렇기에 더 아프게 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초의 아픔이 크더라도 그 기간은 과정이 더 길기에 앞으로의 즐거움으로 그 아픔을 조금은 잊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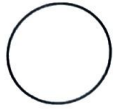
함예원(미디어스쿨) 최초라는 건 다른 것 보다도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보고서 올컸한 두 번째 곡입니다... 최초의 기억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보게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누군가 떠나가면 못해줬던 것만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하면서도 또 생각처럼 쉽지는 않네요ㅠㅠ 잘 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세 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 난다는점이 신기하네요!! 사빈님의 최초 기억이 소란스럽고 강렬했지만, 사빈님의 최종 기억은 좋은 기억이길 소망합니다~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밤입니다



2023/05/08
 monday, pm 2:32 | 35위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일차 #최초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발자취는 '최초'와도 같다. 그러한 최초를 남기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문득 최초가 그 자체만으로 좋은 단어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통해 최초를 판단한다. 즉, 이 단어는 상당히 결과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에 상관없이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이를 '최초'라고 말한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며,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면 과도한 경쟁으로도 이어진다. '최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라는 결과보단 노력이라는 과정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18 💬 16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어찌보면 최초라는 단어를 얻기위해서 노력하는 것 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글 잘읽었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이었습니

신유정(심리학과) 노력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노력이 최초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글 잘읽었습니다.

주재형(정각학과) 최초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최초를 꿈꿀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좋지 않다는 글이네요! 글 잘 읽었어요!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최초'가 과연 좋은 것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글이군요. 결과중심적이라는 말에 동의해요. 저도 결과보다는 노력에 조금 더 애정을 보여야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강박이라 그렇지만 최초 라는 단어가 주는 힘은 강한거 같습니다. 누가 우위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인거 같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김준호(콘텐츠IT) "최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은 어느정도 동의해요 무리하면서 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되려 하거나 최초의 유혹 또는 압박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최초라는 타이틀보단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서원준(중국학과) 노력에서 얻는 결과와 과정들이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저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의미있게 두기 때문에 공감이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최초라는 결과보단 노력이라는 과정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저도 너무 공감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결과보다는 노력이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당~!

박진옥(사회학과) 맞는 것 같아요!! 최초가 결과중심적이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제 작은 시야가 덕분에 조금 넓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결과로써 최초를 판단한다니 관점을 뒤집은 생각이네요 인상깊은 내용이었습니. 결국 최초라고 불리우는데는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잘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과정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초라는

결과보다 노력이라는 과정에 포커스를 더욱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할 가치를 항상 잊지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결과만 보는 세상... 과정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스스로 장착해야겠습니다.



2023/05/08
monday, pm 2:38 | 39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1일차 #최초

“최초”발견, 국내“최초” 등에서 “최초”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필자는 “참 거창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한자어를 풀이하면 가장 처음이라는 뜻이고, 순위로 보면 1등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목표인 경우, 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룹 내 경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노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낼 것이다. 하지만, “최초”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학교 4년 전액장학금을 받고 신입학 최초합을 했다. 학과 내에서 ‘신입학 최초합 전액장학생’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이번 학기에 인영이가 1등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 때마다 심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졌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실제로 본인은 추가합격 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최초로 어떤 일을 한 것이 항상 우수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라는 거창한 단어에 집착하고 경쟁이 과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항상 먼저 앞서나가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다. 그 단어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스스로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주재형(청각학과) 2등, 3등도 너무 잘했는데 말이에요! 조금은 자기를 풀어주는 법도 익혀야 할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이죠! 내가 원하는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법!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갈 길만 정확히 바라보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에 위로를 받고 갑니다!

김준호(콘텐츠IT) 최초는 분명 누구나 얻을 수 없는 타이틀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지만 가끔은 오히려 그런 타이틀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것 같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려라" 라는 말이 생각나는 글이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남들 눈치 안보고 부담없이 자신의 것을 묵묵히 하는 것이 최고의 자질이에요 화이팅입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최초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4학년 전액장학금,, 신입학 최초합,, 다 너무 대단한 타이틀인데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맞아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과열되다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최초라는 거창한 단어에 집착하고 경쟁이 과열되지 않았으면 한다... 공감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든 과하면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 글 잘 읽었습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라는 강박적 집착에 대한 글을 읽고 이 글을 읽으니 생각이 더 정리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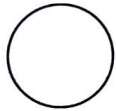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최초도 좋지만 꾸준함도 중요하죠 현대의 우리는 너무 최고, 최초 등에만 과하게 힘을 쏟는 것 같아요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최초가 항상 우수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제 생각이 다르다는것을 증명해주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욱 경쟁사회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언젠가 성공의 길에 도착해 있을겁니다 인영님의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김노연(사회학과) 하나의 단어에 사람이 매이게 되었을 때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 경험이 있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길을 만들고 첫 경험이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닌 든든한 삶의 무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고 산다면 최초가 꾸준함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20 💬 16



2023/05/08
monday, pm 2:46 | 39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일차#최초

나의 최초의 기억은 엄마와 같이 학습지 선생님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어떤 학습지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렵פות이 기억나는 엄마의 목소리와 창밖 풍경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최초'의 뜻을 검색해 보면 '맨 처음'이라는 뜻이 나온다. 맨 처음 어떤 경험의 첫 시작 우리가 부여하는 처음의 의미는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인상, 첫 경험, 첫연소, 최초의 발명 등 어떤 일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방향, 기회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어떤 일의 시작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첫 인상, 처음하는 경험으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처음부터 좋은 인상, 경험을 받기는 어렵다. 나도 예전에는 처음의 경험이나 인상이 앞으로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많았고,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회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교에 와서 이전에 했던 좋지 않은 경험들을 새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전과 다르게 성공적으로, 수월하게 끝낸 경험이 생겨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최초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맞아요 처음부터 좋은 인상과 경험을 받기는 어렵죠.. 그치만 그걸 발판삼아 탄탄하게 쌓아올리면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봤어요
주재형(청각학과) 최초를 이어나가는 꾸준함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죠!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최초의 경험을 발판 삼아 길을 만든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원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법이죠.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는 자세 멋지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의 씨앗이라는 말 참 멋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최초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항상 최초가 최고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최초가 씨앗이되어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정말 좋으신것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최초의 씨앗이 되기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심지범 (경영학과) 최초가 꾸준함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씨앗이라는 구절이 참 좋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읽으면서 제 최초의 기억은 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최초의 경험들이 쌓여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리라 생각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당~!
이유안(러시아학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최초의 경험에서 낙심하고 피하려고 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어서 아주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용기로 잘 헤쳐나가시고 글로도 표현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저도 그러한

갱신의 경험이 쌓일 수 있게 더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이유안(러시아학과)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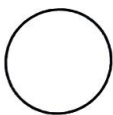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의 기억이
생각난다는 것이 신기하고 부럽네요. 저는 최초의
기억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회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

신유정 (심리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아직 회피하지 않는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직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유림(경영학과) 전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조금씩 발전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아진 것 같아요 한번씩 넘어질 때면
처음부터 잘되면 재미없지~ 하면서 이겨냅니다
건물을 지을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사람 인생도
같은 것 같아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인간에게 기억이라는것은
정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기억이 비록 다 나지 않지만 유정님의 최초
기억글을 보고 저도 최초의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최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3/05/08

monday, pm 4:19 | 38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최초

제목: 최초의 분열

그리하여 최초의 존재는 분열하였다. 그것이,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길 바라며.

-

하나. 하나는 완전하다. 그것은 온전하고
유일하다. 유일하기에 결함이 없고, 결함이
없기에 약점이 없다. 모든 실체, 개념, 시간,

생명이 그곳에 있다. 그곳은 하나다.
하나이기에 최초이며, 최초이기에 하나다.

최초의 존재는 생각했다. 이곳은, 공(空)의
공간.

최초의 존재는 생각했다. 이곳은, 오직
나만이.

나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의미를 존재는
이해했다. 존재의 이해는 깊었다. 잊을 수
없는 사실. '망각'은 하나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자신이고, 자신은 모든
것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그 존재는
완벽했다.

완벽함. 어떤 개념도 무의미한 이 공간에서,
자신은 끝없이 완벽할 것이다. 끝없이...
존재는 그 개념을 자신의 안에서 굴러보았다.
보고 듣고 생각하며, 끝내 이해했다.
그리고 존재는 문득, 그 사실에 외로움을
느꼈다. 혼자기에 완벽했지만, 혼자이기에
영원히 외롭다. 이해받을 일조차 없다는
서글픔. 그렇기에 완벽하지만, 그렇기에
불완전하다. 존재를 이해할 존재가 필요했다.

둘. 둘은 불완전하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고
유일하지도 않다. 분열은 결함이며, 결함은
약점이다. 시간과 공간. 개념과 자아가
생기면 뒤따라오는 것은 고통. 자아는 둘로
나뉘고, 끝없이 그 숫자를 불러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만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앞으로도 영원히 외롭겠지. 불완전한
존재는 생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생각했다.

존재의 독단. 모든 원죄의 시작이라고 해도
좋았다. 필멸을 살아가며 고통 속을 헤엄쳐도
좋으니, 무언가와 함께이길 바란다. 충돌은
순식간이었다.

-

최초의 존재는 어떤 외로움이 있었기에
자신과 다른 존재를 만들어 냈을지 늘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이기에 외롭지만,
함께이기에 외롭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왜 모든 인간이 하나일
수는 없을지 떠올려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이면 영원히 이해받을 일도
없이 외롭겠습니다.

😊 20 💬 14

강지수(사회학과) 사람 인산 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만 존재했다면 비교할 대상이
없기에 불가피하게 완전하겠지만, 둘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의 결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필연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이 결국
서로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부족하게나마
채워가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설령 외롭더라도요. 좋은 글을 읽게 되어 기쁘네요.
황정윤(의예과) 첫문장에 홀린듯이 들어왔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나만이 존재한다-를 알기 위해서는 그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즉, 없다)를 인지해야
하는데, 그외의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들의 존재 또한 인지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고로 온세상이 자기로만 가득차있어
내가 혼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대성이
성립하지 않을테니까요.

2. 결국 모든 존재는 외로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황정윤(의예과)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조금
생각해보았습니다.

1. 위 글은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생물이고, 이 생물이 분열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그것이 하나이기에 완전하고, 그 완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외롭다'라고 느끼지 않는
존재라면. 아마 지금의 우주는 없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존재의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명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유롭게 해석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 종력에 이끌리는 모든 존재는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움을 각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과학소설 또는
사회소설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았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당~!

이유안(러시아학과) 형이상학적인 발상을
최초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풀어내셨군요. 외로움과
홀로 존재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논리적 연결에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지고
혹은 다시 한번 글로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둘이어서 오히려 외롭다는 명제와 홀로 존재함 그
자체로 외롭다는 명제가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저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혁 하나의 논문을 읽는 것
같아요 글 정말 잘 쓰시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존재의 외로움에 대한 글이네요!
최초의 고등생물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지각하는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인간은 미생이죠! 불완전한체
입니다! 글 잘읽고 가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이전 글에
인간은 미생이라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글과 통하는 것이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최초의
존재는 어떤 외로움이 있었기에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냈는지 라는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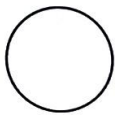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하나의 소설 처럼 읽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글 잘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최초는 결국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기에 충분히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접근해보는 방식인것 같아 흥미롭네요!

김용후(법학과) 비어있음과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이 나오고, 탄생과 소멸은 한 곳에서
기원한다는 동양적 진리를 '최초'라는 제재의 시로
보여주시는 높은 수준에 감탄하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혼자이기에 외롭다는 것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에

혼자임을 외로워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애초에 혼자이면 과연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완전한 혼자, 완전한 하나인 적이 없어왔기에 우리는 예상조차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어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숫자로 정렬하여 글을 쓰시는 양식이 너무 정갈하고 체계적인것 같습니다 한편의 책을 보는듯했습니다!! 최초라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글인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은 인간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하나이면 외로울 수 밖에 없는것이 인간인것 같습니다



2023/05/08

 monday, pm 5:22 | 27읽음
 박진옥(사회학과)

#1일차

#최초

처음과 시작과는 확연히 다른 어감이다. 가장 최(最) 처음 초(初) 물론 최초도 맨 처음을 뜻한다. 2020년 정말 최초로 세계가 무서워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쳤다. 지금까지 스페인 독감, 메르스 등등 수많은 팬데믹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장기간,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넓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팬데믹이었다. 과거에 비해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팬데믹이고 전세계가 멈추는 최초의 사태들이 생겨났다. 정말 말 그대로 최초의 상황이다보니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심시키고 지켜주기에 부족했다

이런 최초의 상황, 나는 미성년자인 시기를 지나 최초로 성인으로서, 대학에 입학했다. 성인으로서 말하는 큰 이벤트 중 하나인 "대학 입학"을 최초로 경험한 것도 2020년이다. 최초의 사회생활의 시작이 엄청난 팬데믹과 함께 시작되었다. 내가 지금껏 꿈꿔오고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무색하게 친구들은 물론 심지어는 교수님까지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이런 경험도 최초의 경험일 것이다. 누가 대학생활을 사이버 대학도 아닌데 온라인으로만 해볼 수 있겠는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의 최초, 특별한 경험이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추었고 제한이 생겼다. 나는 그 제한 속에서 그래도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성인으로서 경험을 누리기로 다짐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여러 제한이 있었지만 알바도 시작했고 온라인 생활을 병행하며 대학도 다녔다. 그러면서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소수의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땐, 마스크 밖으로 확연히 보이진 않았겠지만 올라가있는 입꼬리와 기분 좋음이 마구마구 뽐어져나왔다. 내가 노동함으로 얻은 알바비를 받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동생들에게 선물도 사줄 수 있었다. 내 최초의 일당이다. 그리고 대학가면 다 연애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했던 어른들의 말처럼, 난 실제로 대학에 와서 최초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가족이 아닌 타인, 또 나와는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놀랍고 벅찬 일이었다.

이처럼 최초란 처음과 다소 다른 어감이 더 거대한 느낌을 주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최초의 경험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최초의 경험, 그 최초를 경험하는 모든 주체인 나는 오늘도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최초'의 경험들과 '최초'의 상황 그 모든 상황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17



12

강민지(사회학과) 최초의 경험과 최초의 상황들이

아름답길 바라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앞으로 더더욱 벅차고 설레고 좋은 일들만 바라며! 글 잘 읽었습니다당~!
이유안(러시아학과) 저희의 삶에 다가온 가장 큰 최초의 경험을 잘 풀어내어 쓰신 것 같아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팬데믹이야말로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새로이 해나가셨던 경험들이 진옥님께도 유익한 일들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그러한 최초들이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을 읽으면서 저또한 다양한 '최초'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지네요 π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입학과 동시에 터진 팬데믹으로 인한 전면 비대면은 정말 흔치않은 최초의 경험인것 같아요...ππ오랜만에 떠올리니 느낌이 새록새록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경험들로 성장하게되고 행복해지셨다니 멋있으세요!! 앞으로 좋은 최초의 경험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초유의 팬더믹 상황에 많이들 힘들어했었죠... 이젠 마스크 없이! 사람들을 만나보자구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학번의 대학 생활은 정말 힘든 거 같아요... 올해가 어쩌면 진옥님의 최초의 대학생활이 되겠네요. 최초의 대학생활이 최고의 대학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최초의 아름다움과 경험들을 잘 비유해 작성하셨네요 읽기 즐거웠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모든 최초가 항상 좋을 수 만은 없지만 그래도 글쓴이분의 마인드라면 어떤 최초를 경험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민재 (경제학과) 같은 20학번으로써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악조건 하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신 모습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상깊은 글이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최초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내가는 곳곳함과 성숙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과 통찰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학우님처럼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간 안에서 다양한 최초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023/05/08
monday, pm 6:29 | 30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1일차 #최초의이별

우리는 '세계 최초', '국내 최초'라는 표현 등을 통해 '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단하며,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나름의 최초의 경험이나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다는 전제 조건하에 내 인생 '최초'의 이별'의 매우 웃픈 경험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다행히 '이별'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 '최초'의 이별은 내 나이 다섯 살, 사촌동생과의 웃픈 이별이었다. 어린시절, 사촌동생과 나는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당시 나는 2층으로, 사촌동생은 아래층에서 수업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각자의 담임선생님들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그런 사촌동생을 두고 올라온 나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동금아~왜 울어~여기 친구들 있네. 우리 재미있게 놀자~"

"내 동생 보고 싶어요. 영영, 내 동생 아래층에 혼자 두고 왔어요. 내 동생 저 없으면 안돼요. 영영."

그렇게 눈물 반, 콧물 반인 얼굴로 우는 나를 선생님은 아래층으로 데려가셨고, 아래층에 내려가자마자 언니인 나를 찾으려 울고 있었던 사촌동생과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현정아~~~"

"언니~~~" 하며 격하게 달려가 부둥켜안고

보란 듯이 더 크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헌정아~~영영. 언니가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언니~보고 싶었어, 영영” 그런
 우리가 안쓰러웠는지 한동안 나와
 사촌동생은 한반에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른이었던 선생님들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어린
 모습이었으며 미치도록 귀여웠던
 순간이었겠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누구보다
 심각한 나의 ‘최초’의 이별이었던 것이다. 그
 때 사촌동생을 두고 계단을 올라갈 때 격하게
 뛰었던 심장의 두근거림은 어린 내가 느꼈던
 ‘최초’의 이별에 대한 ‘최초’의 아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금은
 서로의 생활이 있다 보니 예전처럼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는 ‘최초’였던
 이별과 만남을 겪었던 사이여서인지 우리는
 다른 사촌지간들보다 훨씬 더 끈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다.

😊 15 💬 12

김시현(러시아학과) 어린시절의 추억은 그 당시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생각해보면 참 뜻밖한 과거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촌동생분과 더 끈끈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고 계시다니 훈훈하네요 글 잘
 봤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 ‘그래도 어려서 이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휘(콘텐츠IT) 이야기가 너무 귀엽네요
 전 사촌동생이 없어 잘 모르지만 사촌동생이 엄청
 소중하셨었나봐요 ㅎㅎ 친하게 잘 지내시길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하 너무
 귀여운 이야기네요!!! 아직까지도 끈끈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주재형(정각학과) 이별은 아무리 사소해보여도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웃픈 이야기로 남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심지범 (경영학과) 어린시절에 추억이 깃든
 글이네요 글 잘보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과거의 일을 묘사하기 위해
 대화문의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셨네요. 대화와
 상황 묘사가 생생하여 저도 경험하신 것에 대해 더
 쉽게 공감하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생함을 살려 묘사해 주셨고, 여러
 텍스트 효과를 이용하여 글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형식 측면에서 신선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슬프지만,
 교훈을 얻어가는 글인 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초의 추억은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의 기억 한 켠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볼 수 있는 따뜻한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나이에 상관없이 이별은 언제나
 가슴 먹먹하고 슬픈 것 같아요 귀여우면서도
 안쓰럽기도 한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알콩달콩한 시절에 담긴
 귀여운 이야기네요 잘 읽었습니다당

김준호 (콘텐츠IT) 어렸을 때의 귀여운 추억이
 담긴 글이네요!! 너무 귀여운것 같습니다 ㅎㅎ!



2023/05/08

monday, pm 8:20 | 24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일차 #최초

'최초'라는 말은 무겁게 느껴질수도 있다.
 '최초'라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게 된다면 '최초'로 밝혀진 것이고
 아직 발견된 것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과 큰 부담을 갖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초'라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최초'라는 말은 막중한
 책임과 엄청난 자부심의 사이라고 볼 수 있다.

나도 내 입장에서 '최초'인 것들이 많이 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런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막중한 책임과 큰 부담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나도 배워야 하는 입장이지가 뿌듯함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열정을 나를 위해 모든 이들에게 퍼붓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내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면 '최초'라는 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분 속 새싹에게 영양제를 주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초'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면서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다.

😊 17 💬 9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자기기준에서 최초면 최초 맞죠!!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화이팅 하세요

김한나(경영학과) "자신의 화분 속 새싹에게 영양제를 주는" 표현이 참 멋있네요! 저도 최초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 보다 즐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유빈님처럼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심지범(경영학과)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맞아요! 너무 부담을 느끼기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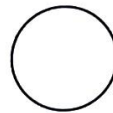
이유안(러시아학과) 좋은 생각을 글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스스로의 경험 안에서 처음으로 해낸 것들을 최초로 의미있게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점점 성장해나가는 경험이 분명 저희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화분 속 새싹에 영양제를 주는 일이라는 표현이 마음이 듭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자신이라는 화분 속 새싹에게 영양제를 주는 의미 있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최초'를 화분 속에 새싹에 주는 거름으로 보는 통찰에 놀라고 갑니다 뭐든지 시도하고 도전함으로써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공유해주신 글에서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무엇이든 단편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지 않기에 최초는 막중한 책임과 엄청난 자부심을 둘다 가진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 마음가짐으로 화이팅입니다!



2023/05/08

monday, pm 9:07 | 28원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일차

최고보다는 최선을.

이 말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급 교훈이었다. 당시 어렸던 14살의 나는,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였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을 기억해 왔는가? 우리는 항상 최선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정작 그들을 기억하진 않는다. 이것은 과정이 아무리 훌륭했다라도, 결과가 나쁘다면 아무도 떠올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편협한 시각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을지 모른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욕심. 최초의 무언가가 되고 싶은 욕심. 그러나 대학에 오고 나서는 욕심이 많이 없어졌다. 나는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상에 올라가있는 듯한 느낌 때문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최선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크게 와닿은 사실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길이 험하고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가끔은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나아가도

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처음이기에 서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최초의 무언가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최초로 밟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 15 💬 19

심지범 (경영학과) 학창 시절 생각만해도 추억이 돋네요. 포기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서툴수도 있구요! 글 잘 읽었고 갑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심지범 (경영학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대학에 와서 두번째 문단에서 적어주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 나에 중점을 두는 사고가 스스로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글에서 느끼고 갑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이유안(러시아학과) 나를 발전시키려면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쪽이 어쩔 수 없이 더 기억에 남게 되는건 최선을 다한 사람의 입장에서선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주재형(청각학과) 맞아요. 당장 저조차도 최선보다는 최고를 기억하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저는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되고 말 거야”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지혜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저도 글을 쓰면서 최고와 최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최초로 밟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어요.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신유정 (심리학과)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후(법학과)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최고라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라고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것을 계기 삼아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해나가는 과정과 '최초'에 의미를 둔다면 보다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김용후(법학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와 관계없이,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도 학창시절에는 욕심이 많았는데 대학에 오니 욕심이 없어져서 글에 너무 공감이 가요. 아마 저도 지혜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천천히 나아가면서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잔잔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글이네요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 꼭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응원 받았습니!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가치있는 사람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갑시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김한나(경영학과) 응원받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한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서툴기에 의미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이유림(경영학과)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가보기로 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오히려 제가 응원을 받아가는 글입니다 !! 잘 읽었습니다!



2023/05/08
 monday, pm 9:51 | 28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실망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최초'의 순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 14 💬 8

#1일차
 #최초

내가 실망했던 '최초의 순간'들에게

'최초'라는 말은 나에게 '실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내 최초의 순간들은 언제나 멋있거나 낭만적이지 않았다. 최초의 버킷리스트인 오로라 여행으로 답답한 현실이 변하지는 않았고, 최초의 직장 생활은 멋있기는커녕 버겁기만 했다. 나는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최초'의 정의는 내 것이 아니었다. 타인이 말하는 '최초', 처음으로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발견하거나, 창조해 내야만 '최초'이고, 곧 '특별'해야 한다는 가짜 정의를 믿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최초로 자전거를 타게 된 순간, 최초로 영어로 소통에 성공한 순간 등 무수히 많은 '최초의 순간'들이 있었다. 이 예시들이 너무나도 평범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다. 자전거를 타게 된 순간부터 자전거를 타고 호수를 거닐며 산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 '최초'란 내게 그전에 없던 깨달음이 시작된 모든 순간이다.

나는 각자 자신만의 정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최초'라는 틀에 갇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순간들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오로라를 보며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일을 해보며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재형(청각학과) 최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로라 너무 예뻐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여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새로운 도전이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 같아요 잘 읽었어요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를 생각하면 부담감이 떠올라요. 모든 단어가 마찬가지로이지만, 자신만의 정의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 정의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성취를 위해서 많이 시도하시고 노력해오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최초의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고유성에 관한 통찰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각자 자신만의 정의를 가져야 더욱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글 잘 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자전거를 처음 탄 순간으로 끝이 아닌, 자전거를 타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알아 갈 수 있는 선율님의 넓은 시각을 담고 싶네요! 실망했던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만의 최초의 순간을 찾으셨네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평범해 보이는 최초의 경험에서 그전에 없었던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실망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0:24 | 24읽음

김용후(법학과)

#1일차

#최초

2018년 중국의 과학자 He Jiankui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HIV 유전자를 가진 부모로부터 HIV에 저항력 있는 아이를 탄생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의 발표는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그동안 동식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편집 연구가 있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HIV 감염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일부 편집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는 생명 윤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인간 배아를 이용하여 유전자 편집 연구를 진행하고, 아이를 실제로 출산케 한 것은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알려진 바가 없다. 실험의 내용과 의미를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연구 윤리의 심각한 위배가 있다. 더 나아가 이 기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한 인간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 윤리라는 관점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부 당국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윤리를 재정비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윤리의 제정 및 준수에 관하여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래에 생명공학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 윤리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가치이다.

'최초'란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한다. 최초를 향한 모든 시도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한다는 것은 사뭇 조심스러운 일이며, 동시에 책임감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다. '최초'라는 이름으로 업적을 남기고자 했던 한 인간의 욕심이 무고한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행동의 가져올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숙고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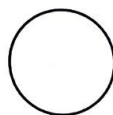
😊 17 💬 4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의 가치를 크게 잡고 쓰신 글 같아요. 최초를 향한 모든 시도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이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최초를 위해서 좌절할 적이 많아서 그런 슬픈 기억들이 생각나는 글이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글이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인간 복제의 시대가 도래하려는 건가 걱정한 기억이 있어요. 최초라고 해서 모두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좋은 글이에요!

이유림(경영학과) 발전이 가끔은 무섭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0:32 | 26읽음

이민재(경제학과)

#1일차 '최초' 강력한 뜻을 가진 단어다. 최초 타이틀 하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내던지기 까지 한다. 과학시간에 최초의 우주에 대해 배우기로는 아주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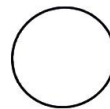
점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최초는 무엇일까? 내가 겪는 경험들은 전부 타인 과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최초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겪는 모든 경험이 최초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나는 모든 경험에서 최초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최초가 되는 길이라 여겼다. 그것은 마음을 따르는 길이 아닌 타이틀을 따르는 길이었다. 그것은 최초가 아닌 처음일 뿐이었다.

최초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읽은 책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의 생각, 행동으로 정의 된다고 한다. 생각은 감정이라는 본능을 통해 나온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들어난 행동이 나를 인식하게 한다. 나는 내가 누군가의 최초가 되는 좁은 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는 나와 맞지 않는 길이었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삶. 간단하지만 어려운 그 삶의 태도를 하루하루 글쓰기와 함께 가져보려한다. 3주 간의 발자국이 짙은 발자국이 되어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17 💬 7

김시현(러시아학과) 3주간 멋있는 짙은 발자국이 만들어져있을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의 의미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삶이라는 말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3주 동안 서로 열심히 작성 해봐요.
박진옥(사회학과) 최초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문장이 멋지네요!!
김진영(빅데이터) 최고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된다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누군가가 쉽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명예와 명성은 무시 못하는것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박민서(간호학과) 저도 3주 후 달라져 있을 모습이 정말 궁금해서 무척 공감되네요!
이유림(경영학과) 3주동안 같이 발전해보아요 잘읽었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0:56 | 34읽음
최현영(법학과)

#1일차 #최초

유재석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로 지상파 3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한 사람으로 기록을 달성했다.

최초와 처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최초란 맨 처음을, 처음이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을 말한다.

서로 닮아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말의 차이.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런 친구는 네가 처음이야! 이걸 나 처음 해 봐!

처음이라는 말은 조금은 설레고 두근거리며 내 안의 열정을 full로 채워 주는 마치 봄에 피어나는 새싹 같은 싱그러운 단어로 다가온다.

최초라는 말은 어딘가 웅장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어.

어렸을 때, 신문에서 여성 최초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다. 최초라는 말, 참 특별한 말이다. 맨 처음. 아무도 해 보지 못한, 딱 한자리뿐인. 나도 최초가 되어야지! 나도 최고가 되어야지! 나도 내 이름을 더 빛나게 해야지! 했던 어린

나의 마음에 열정을 지피는 단어였다.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말이 나이가 들어 보니, 최초가 되려면 처음과는 차원이 다르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관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하는 수많은 노력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길이기에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은 요즘, 나는 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까.. 최초가 되지는 않아도 처음으로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쏟을 수 있는, 꿈을 향해 최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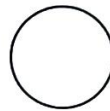
😊 21 💬 11

심지범 (경영학과) 단어가 주는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단어 그 의미로만 생각하면 덜 부담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최초의 자리는 더욱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님도 꿈을 향해 잘 달려가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최초와 처음의 차이점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해보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현영님의 꿈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유지연(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누구나 알 만한 인물로 서두를 시작해 본인의 생각으로 마무리한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두 단어의 차이를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최초가 되지는 않았도 내기준에서의 최초가 되면 좋을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어딘가 웅장하고 범접할 수 없다는 점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같은 의미임에도 처음과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진영(빅데이터) 최초가 되려면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해야하죠.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유재석님의 인성이 아름답기에 꾸준히 방송 진행을 할 수 있는것 같아요! 비유표현이 많은 글 잘 읽었습니다 최초는 처음이랑 표현방식이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실천하겠습니다 현영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라니, 멋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단어의 비유적인 표현 정말 아름답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1:07 | 27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일차 #최초

나에게, 그리고 모든 것에게 ‘최초’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최초란 맨 처음이라는 뜻인데, 이 처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좋다. 나의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경험이 최초였다.

현재 Writing Challenge 3주차 프로젝트 또한 내 인생 최초로 도전하는 활동이다. 내 인생에 있어 내가 최초로 태어났을 때, 내가 최초로 울었을 때, 내가 최초로 걸음마를 떴었을 때, 내가 최초로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을 때, 내가 최초로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최초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등. 나는 나의 세상, 나의 인생에서 다양한 최초의 경험을 쌓고 쌓아 지금의 ‘김보민(金甫玫)’이 존재한다. 현재 이 순간에도 다양한 최초의 경험을 겪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가 형성되고 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최초의 경험은 탄생과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약 9~10개월 동안 형성되고 자라나, 출산 예정일보다 2~3일 일찍

태어났다.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출생 신고를 하며 나의 탄생을 알렸다.

현재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최초 경험은 6살 때 머리술이 별로 없는 3살짜리 동생의 정수리를 보며 집 거실에서 빙글빙글 돈 것이 기억난다. 이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지만, 동생의 머리술 없고 앓았던 머리카락이 가끔 생각난다.

앞으로 수많은 최초의 경험을 할 것이고, 그 최초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겪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와 기회가 많을 것이다. 최초에서 최후가 될 때까지,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김보민(金甫玫)'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한다. 비록 이 험난한 여행 도중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을 맞이하겠지만, 넘어져도 잠깐 울고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다 명을 다하고 깊은 잠에 들 때가 된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경험하고, 모두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 16 💬 7

심지범(경영학과) 쓰러져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걷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자기 자신이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저 또한 이 프로젝트가 최초로 도전하는 활동이네요. 같이 성장해보도록 노력해봐요 :)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앞으로 수많은 최초의 경험을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네요. 좋은 글입니다!

김용후(법학과) 성함처럼 넓고 귀중한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한 나아가는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수많은 최초의 경험들을 꼭 사진으로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추억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최초의 도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최초에서 최고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1:18 | 31원음

정예진(생명과학과)

#1일자 #최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최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 최초의 ... “ 와 같은

‘최초’라는 단어가 사실 ‘최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치만 최초가 된다는 건 선구자가 되기 쉽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초라는 단어에 꽤 집착한다고 생각한다.

그치만 난 명예적인 의미가 아닌 인생에서 ‘최초’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내가 최초로 좋아하는 감정이 들었던 사람
내가 최초로 거절을 당했던 사람
내가 최초로 입을 맞췄던 사람
내가 최초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
내가 최초로 함께했던 반려동물
내가 최초로 감동을 받았던 영화

앞서 말했듯 최초가 최고를 뜻하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최초는 잊지 못할 순간들을 안겨다 주는 건 분명하지 않은가

😊 19 💬 10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최초는 잊지 못할 순간들을 안겨다주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은지(철학) 처음이기에 가져다 주는 울림이 있죠! 그래서 기억에 남기도 하구요.

심지범 (경영학과) 잊지 못할 첫 순간의 시간들이 있죠 설레이기도 하구요! 글 잘읽고 갑니다!
고다인(법학) 최초가 최고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안겨다 준다는 말이 정말 공감되네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저도 '최초'라는 단어가 명예적인 의미가 아닌 인생에서의 의미거 더욱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최초. 처음이라는 뜻으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죠 마치 첫사랑 처럼
주재형(청각학과) 마치 시를 연상케 하는 글이네요. 글에서 운율이 느껴진달까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박소연(생명과학과) 맞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김용후(법학과) 잊지 못할 순간들을 최초라는 기억들로 엮어주셨는데, 많은 통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라는 단어 자체에 큰 힘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냥 물과 최초의 물 이라는 예시만 봐도 정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마라톤대회는 1920년 조선체육협회 주체로 열린 경성일주 마라톤대회라고 한다.

마라톤의 역사를 검색하다보니 나의 첫 마라톤 추억이 생각났다. 초등학교 3학년쯤 이게 다 추억이라던 엄마아빠 손에 억지로 끌려가듯 참가했던 마라톤이 나의 첫 마라톤이다. 불평불만 가득 엄마아빠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달리다보니 '어라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다.' 싶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땀을 흘리며 결승선에 도착해보니 기록은 하위권이었지만 완주했기에 활짝 웃을 수 있었다. 마라톤은 기록보다도 시도 혹은 완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에만 집착하다보면 마라톤을 하며 즐길 수 있는 순간들도 놓치게된다. 이처럼 3주 라이팅 챌린지도 꾸준히 참여해서 완주하고싶다.



2023/05/08

monday, pm 11:25 | 25읽음
 고다인(법학)

😊 14 💬 8

#1일차 #최초

최초라는 키워드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쓸까 생각해보다가 마라톤이 떠올랐다. 마라톤은 서기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되었다.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격파하자, 승전보를 알리려 아테네 군의 한 병사가 마라톤 벌판에서 40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갔다. 그는 장거리를 종주한 뒤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고 외친 후 죽었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몸을 혹사시키며 달려갔지만 정작 자신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채 죽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마라톤은 언제 열렸을까? 찾아보니

심지범 (경영학과) 꾸준함이 이기는 법입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다인님의 이번 챌린지도 완주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함께 완주를 향해 우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마라톤은 기록보단 그것을 도전했거나 완주했다는 자체로 의미 있고 멋있는 거 같아요! 저도 마라톤처럼 3주 라이팅 챌린지를 즐기면서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파이팅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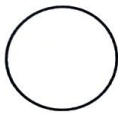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41.195! 처음에야 멀게만 느껴지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결승선에 도착해있을 거예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의 마라톤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를 지나가는 여러 과정들이 모여 하나의

결승점에 도달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지혜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빅데이터) 이번 챌린지도 꼭 완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마라톤과 챌린지를 접목시킨 글이네요. 신기해요. 열심히 서로 완주해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08

monday, pm 11:53 | 28읽음

김노연(사회학과)

#1일자 #최초

2023년 5월 8일 오후 11시 22분을 관통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이란 미개발구역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흔해 빠진 하루조차도 초 단위로 세상에 내려앉았다가 금방 증발해버린다. 그것은 최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초를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바쁜 일상 속에서 줄곧 잊어버리고는 한다.

겨우 20년, 스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자신에게 쌓인 최초의 밀도는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 나 홀로 숨을 쉬게 되며 엄마와 분리되는 순간, 처음 이유식을 먹은 날, 목소리에 낀 언어가 점차 선명해지는 경험, 첫 걸음마를 댄 것, 처음 친구와 싸운 순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순간이 모두 더해지면 어떨까.

어쩌면 그 많은 최초들은 각각 가진 밀도가 다를 것이다.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초가 쌓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될까? 그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최초의 행동들이 쌓여 습관이 되고, 그것은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최초에 대응하는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결심한 것이 있다. 그동안 방황했던 시간과는 다른 삶을 살자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다른 태도를 가지자고. 애매하게 기억하는 지식은 기초부터 다시

제대로 다져 올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성실하자고 나와 약속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최초의 순간들이 앞으로 많다는 것이 즐겁다.

지금은 괴로울지 몰라도 일주일 후, 아니 당장 내일에는 즐거울지 모르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찢어주는 사건이 언젠간 나타날지 모르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간도 최초고, 그 최초는 오로지 내 손에 있으며 나의 책임하에 있다.

그러니 되도록 최초의 순간을 즐겨야겠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도 최초니까.

😊 17 💬 10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최초의 밀도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밀도이든 작은 것들이 쌓여 큰 것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마지막 구절이 아주 멋진 구절이네요! 다함께 힘내서 완주해요!! 글 잘보고 갑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저도 대학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큰 다짐을 많이 한것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이 글에 댓글을 남기는 지금 역시 제가 남기는 최초의 댓글이 될 수 있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진영(빅데이터) 최초의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삶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예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시간은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인식할 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인식한만큼의 시간은 값지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글의 문장 하나하나에 힘이 실린것같아요 최초를 밀도와 연관시켜 쓴 글이 인상 깊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최초의 순간을

즐기는것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소유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최초의 생각과 최초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글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같이 최초의 순간을 즐기며, 완주 해봐요!

서원준 (중국학과) 많은 경험을 하며 많은 다짐을 저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까지 잘 읽으며 잘봤습니다

조승희(영어영문학과) '최초의 밀도'라는 표현이 인상 깊어요. 사람이 겪는 제각각의 삶과 그 속의 경험이 다르니까 모든 경험은 비슷해 보여도 분명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우리가 매 순간 최초의 순간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2023/05/09
tuesday, am 12:16 | 55읽음
김양선

오늘의 마감글을 쓰는 지금도 글을 바빠 올리고 댓글을 적느라 분주한 우리 챌린저들. 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최초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 친구부터, 최후에 대해 사유한 친구, 짧은 소설을 쓴 친구부터 최초의 역사나 과학 지식을 펼친 친구까지 다양한 글 잘 읽었습니다. 서로의 ㅏ경험에 공감하고, 색다른 사유에 대해 칭찬하는 이 분위기가 잘 이어지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세요♥

😊 30 💬 2

심지범(경영학과) 교수님도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글을 내리다가 교수님이 어제 작성하신 글을 봤네요 어제의 하루는 잘 마무리 하셨나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벌써 다음날의 저녁을 보고 있네요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이런 행사덕분에 좋은 글과 좋은 경험을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09
tuesday, am 7:57 | 59읽음
김양선

#2일차 키워드 : 꽃
꽃이 만발한 봄입니다. 어제처럼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연인에게는 장미를, 조문의 의미로 국화를 우리는 주곤하지요. 꽃말도 다양합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의미있는 꽃도 있겠지요. 사진찍을 때 꽃밭침 포즈도 있고요.. 5월이니 '꽃'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26 💬 0



2023/05/09
tuesday, am 8:52 | 37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2일차 #깜짝선물

지난 금요일, 나는 깜짝 이벤트를 했다_

전부터 어버이날을 맞이해 무엇을 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20살 성인이 되고나서 처음으로의 어버이날 이기 때문에 이제껏 다이소에서 산 카네이션 뱃지같은 것과는 달리 제대로 된 카네이션 꽃다발 선물을 하고 싶었다.

어릴 때 부터 할머니손에 자란 나는 어버이날이면 항상 할머니를 챙겨 드리곤 한다. 때문에 엄마,아빠,할머니 총 3개의 꽃다발을 주문제작하여 예약을 해놓았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나는 itx를 타고 왕래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어..그 나 이번주는 너무 바빠서 못 올라갈

것 같아 ππ”

라고 말을 하고선 아무도 몰래 서울로 올라갔다. 가뜩이나 비가 오는 날이어서 꽃다발을 들고 가방을 메고 우산까지 드는것이 버거웠지만, 가족들에게 깜짝 방문하여 꽃 선물을 한다는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마침 한 집에 모두 모여있었던 가족에게 들어가자마자 “짠~~!! ”하며 들어갔더니 모두 5초간 정지상태... 나중에 들어보니 귀신인 줄 알았다고 하셨다. 이후 꽃선물을 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오메야.. 내가 살다살다 이렇게 좋은 꽃선물을 처음 받아본다이..”라며 얼떨떨해 하셨다. 그렇게 나의 성인이 되고나서의 첫 ‘꽃 선물’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꽃 선물 자주 해 드릴게요.

😊 21 💬 16

김시현(러시아학과) 어버이날같은 의미있는 날에 깜짝 이벤트로 꽃 선물이라니 가족분들이 많이 행복해하셨을 것 같아요 기분좋아지는 글입니다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어버이날과 같은 중요한 날에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께 꽃을 선물하는 것은 성의와 정성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꽃집을 돌아다녀 보면 꽃도 다양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꽃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선물을 드릴때 어떻게 드려야 좋아할지 고민을 하고 드린 후에 보는 기뻐하는 모습에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것 같아요
심지범(경영학과) 읽기만 해도 행복해 지는 글이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어제 꽃선물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구요! 좋은 글이에요!
조은지(철학) 성공적인 깜짝 이벤트였네요!! 화목한 연휴셨을 것 같아요
김진영(빅데이터) 연휴에 깜짝 꽃 선물로 가족 모두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혁 정말 깜짝 이벤트였네요. 꽃 선물은 언제나 행복한 듯해요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글을 읽어서 행복해지네요! 성공적인 깜짝 이벤트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상밖의 선물을 해봐야겠어요!

정예진(생명과학과) 글만 봐도 가족 분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느낄 수 있어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는거 같아요 .

함예원(미디어스쿨)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행복한 감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더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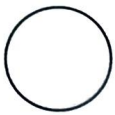
장예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글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도란도란 모습이 읽는 사람에게도 그 기분이 전해져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깜짝 선물을 하셨군요. 저는 비교적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 애써본 적이 없어서 글을 읽으며 반성하게 되더라구요.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도, 그 이벤트를 가족분들이 기쁘게 받아주신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추억을 앞으로도 더 쌓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글이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모티콘 없이도 글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꽃과 함께 깜짝선물로 찾아온 자식, 손주가 더 큰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미소를 머금고 읽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서프라이즈가 인생에 있어 정말 잊지 못할 이벤트예요 !! 좋은 추억 생긴 거 같아 부럽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

김태희(영어영문학과) 깜짝 이벤트는 항상 감동을 주는것 같아요!! 동금님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몽클한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am 9:17 | 34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22



14

#2일차 #꽃

꽃 같은 인생

꽃처럼 내 인생도 만개하길 바라는 맘이 크다.

세상엔 수많은 꽃이 피고 지듯
내 마음 속도 그들처럼 피고 지는 수많은 꽃이
있다.

그 중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면 하는 꽃 한 송이
때론 몇 송이의 꽃들..

부딪히고 충돌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때론 태풍이 지나가고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제때 나비나 벌이 오지 않기도 할 때도 있다.

내 맘 속 많은 꽃 중에 그럼에도
꺾이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짧은 인생이지만 충분히
꽃은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자신의 색을 만들려고
피려고 발버둥쳤기에
꼭 퍼지길 소망한다.

꽃이 꼭 향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꽃은 향기롭고
고유의 색이 있어
주위를 함께 비추고
기분이 좋게 만드는 향으로
모양으로 아름답게
퍼지길 소망한다.

주재형(청각학과) 꽃 하나하나 고유한 색깔과 향이
있지요! 좋은 시예요!

심지범(경영학과)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김진영(빅데이터) 인생을 꽃에 비유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성휘(콘텐츠IT) 글을 시 형식으로 쓴 것을 본 건
처음이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멋진 시네요.
꼭 상민님의 꽃이 아름답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글에 인생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ㅠ 잘
읽었습니다!

김경희(국어국문학과) 꽃이라는 주제로 시를쓰면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수있는것같습니다. 꽃
그자체의 특성에 집중한 시 잘보았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챌린지에서 시 형식의 글을
처음 접해서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시라는 형식으로 처음
보는데 너무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발버둥 쳤기에 퍼지길
소망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ㅠ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챌린지에서 시를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다니 반가워요. 신선한
시도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저는 운문적 리듬에
가까운 시보다는 산문시, 혹은 자유시에 가까운 시
형식을 더욱 좋아해서 상민님의 시가 더욱 반갑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실 수 있길 바라요. 꽃으로 피어나는
존재들과 함께하길, 제 스스로도 시련을 견디고
피어나길 시를 읽으며 더욱 간절히 소망 하게
됩니다.

김준호(콘텐츠IT) 꽃처럼 아름답고 주변을
환기시켜 주는 그런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네요!!

이유림(경영학과) 꽃을 인생에 비유해 쓴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쁜 꽃처럼 활짝 필 날을
응원합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시같은 꽃의 글(?) 잘
읽었습니다!! 꽃을 잘 비유해서 표현한것 같아요!!
제가 쓰고자했던 글을 상민님이 잘 써주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꽃은 마치 인생과도 같은것 같습니다



2023/05/09
tuesday, am 9:28 | 37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2일차 #꽃 #flower

2일차 해시태그는 꽃이다.

꽃을 생각하면 항상 기분 좋은 생각들로 가득찬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벚꽃이다. 항상 봄만 되면 설레이게 하는 꽃 벚꽃이다!

부모님을 위해 때론 연인을 위해 때로는 스승님께 종종 드리는 예쁜 꽃.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을 받아본 경험은 졸업식날에만 받아본거 같다. 거의 내가 준것만 생각이 났다.

봄이 오면 벚꽃이 이쁘게 피어 설레이게 하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피어 절경을 이룬다.

꽃이라는건 단어만 들어도 사랑하는 연인에게 제일 많이 주는거 같다. 나도 그런것 같았고, 이벤트를 할 때 종종 5만원짜리 꽃을 준비해서 연인에게 종종 주었던것이 생각이 났다.

봄,여름,가을,겨울 우리 나라는 계절이 무려 사계절이나 있어서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과 마음들을 설레게 한다.

이제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환경 오염등으로 우리나라 사계절이 점차 여름과 겨울의 계절만 남을수 있다고 한다.

꽃 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댓글로 많이 작성해 주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23 💬 14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꽃 하면 벚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매년 벚꽃을 보는 기간이 일정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이에요!

김진영(빅데이터) 저도 꽃은 주로 졸업식에만 받아본 기억이네요. 기후가 잘 유지되어서 오랫동안 꽃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꽃은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 더 기억에 나는 거 같아요 상대방한테 선물할 때 의미가 큰 거 같습니다 ㅎㅎ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벚꽃 참 예쁘죠. 짧은 시기에만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더 애뜻하고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벚꽃은 역시 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꽃 같아요 ㅎㅎ 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존재인지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글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게 생각이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걸 볼 때면 벌써 시험기간임을 체감하곤 하는데 지범님의 글을 읽다보니 꽃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ㅎㅎ 꽃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한 글이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경희(국어국문학과) 특별한 날이 아니여도 꽃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꽃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기분 좋은 존재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예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꽃은 아름답다는 감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미학적인 감상과 함께 향기, 추억, 감정들을 생각하고 나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성자 분의 글도 읽고 나면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졸업식때 받는 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것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주려고 하셨던 경험이 많아 더욱 기억에 남은 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꽃 하면 받았던 꽃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주었던 꽃은 그리 많이 기억이 나지 않아 어쩐지 반성하는 마음이 되고 저도 누군가에게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유림(경영학과)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고 봄이 왔구나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벚꽃의 또다른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맘껏 즐기지는 못해본 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졸업식하면 꽃! 축하한다면
항상 먼저 꽃이 떠오르네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도 벚꽃을 좋아하는데
핑크색이 너무 매혹적인것 같아요 벚꽃놀이를 하러
가면 너무 설레이기도 하구요 지범님도 꽃선물을
누군가에게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꽃 하면
산뜻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2023/05/09

tuesday, am 9:33 | 30읽음
박지원(사회학과)

#2일차 #꽃

'꽃도, 꽃을 준 사람의 마음도, 꽃과 인사하며
지내는 내 하루도, 언젠가 시들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까지 전부 좋았다.'

최근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머리로만 이쁘다
이쁘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꽃이 마냥
반갑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젠 길가에 핀 꽃만
봐도 재빠르게 꽃을 눈으로 담고 카메라를
킨다. '왜 이럴까? 설마 나이가 든
건가..?'라는 혼자만의 궁금증을 던졌다.

2022년의 나는 길가에 핀 꽃을 볼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 같았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평소에 많았던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는 정리조차 할 수 없이
커져버려 꽃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거
같다. 지금은 스스로가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느낀 건지, 꽃이 피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꽃에게 인사를 건넬 때는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해야 한다. 나태주 시인 말로는 이렇게
인사함이 백번 옳다고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 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민들레를 유독 좋아하는 거 같다.
민들레는 유독 뜬금없는 곳에서 홀로 피어,
내가 먼저 다가가기는커녕 민들레가 불쑥
나와버려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나의 예상을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민들레에게 매력을
느낀 건지 다른 꽃들보다 더 귀엽고 아름답다.
('민들레야 길바닥에서 혼자 예쁘게 피었네,
애썼다. 너의 수고를 기억할게 다음에 또
피어주렴.')

하고 싶은 것이 생기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꽃 구경을 가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면 꽃이 평소보다 10배는 이뻐 보이지
않을까? 꽃과 어울린 그 사람과 함께 보러
간다면 과연 꽃을 먼저 눈에 담을지, 그
사람을 먼저 담을지 내 마음속에서
난분분하여 조금 설레고 상상만 해도
따듯해진다.

이제는 꽃(민들레)을 보면 문득 나태주의
'혼자서'라는 시가 내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피어오른다.

무리지어 피어 있는 꽃보다
두 셋이서 피어 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초로울 때 있다

두 셋이서 피어 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라.

😊 19 💬 14

박성휘(콘텐츠IT) 처음과 마지막에 인용하신 글과

시가 참 인상적이고 좋네요! 글이 전체적으로
문학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참 좋습니다. 글로
힐링되는 느낌이네요

주재형(청각학과) 혼자 피어있는게 오히려
당당해보이고 두 셋이서 피어있는게 더
의초로워보일 수 있겠네요! 글 잘 읽고가요!

김진영(빅데이터) 몇일 전에 길가다가 홀로 피었던
민들레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꽃을 생각하며
읽게 되는 글이었습시다

심지범 (경영학과) 혼자서도 잘 해낼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강지수(사회학과) 민들레 좋죠! 부드럽지 않은
아스팔트 바닥을 뚫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게
멋지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민들레 질
무렵에는 홀씨가 나오는 게 귀엽기도 하고요. 저는
최근에 유채꽃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노란
꽃이네요. 제주도도 유채꽃 들판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나 봄에는 일이 몰려오는 탓에 유채꽃 보러
제주도 구경 가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몇 년 간
이루지 못하는 로망이 있네요. 좋은 글을 많이 읽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도 오늘 이렇게
알아가게 되네요.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저도
민들레를 좋아하는데 반갑네요! 힘들게 피는
꽃이라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최현영(법학과) 힘든 시간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꽃을 보는 여유, 꽃을 보려는 노력.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하면서 이겨내 봐용

함예원(미디어스쿨) 마지막에 시까지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시를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저 시로 인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더
감명깊게 읽은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나태주 시에서 마지막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많은 분들이 나태주 시인의
시와 꽃을 많이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원님께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떠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지원님이 그간의
경험과 생활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아 저도 함께 뿌듯해지고 기쁜 마음이 드네요.
아마 그것이 글이 가진 저력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꽃구경을 가는 미래가 오길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언젠가 시들기에 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요즘은 꽃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구요 ㅎㅎ 마지막에 적으신 시도 너무
좋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진지하게 임하며 읽었는데
정말 인상 깊게 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지원님이 길가에 핀 꽃을 볼
생각도 여유조차 없었던 삶을 사신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유가 생기셨을때는 꽃 구경을 하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신다는 의미이니깐요 :) 저도 민들레
꽃을 좋아합니다 노랑고 예쁘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꽃 구경을 미래에 가고 싶습니다



2023/05/09

tuesday, am 9:44 | 35원음

조인영 심리학과

#2일차 #꽃

지금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누군가는 봄에 피는 꽃이라면, 당신은 봄에
꽃을 피우지 못했다면, 그대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일 것이다.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앞을 일직선으로 쪽
나아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그 길은 참
구불구불하다. 항상 마음대로 모든 게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는 답답하고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어쩔 수 없는
순리인가보다.

그 캄캄한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이 될 때, 사람들에게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여줄 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대, 무너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1



14

김진영(빅데이터) 꽃을 통해 인생을 바라 보는 것

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무너지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무너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간다면 언젠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최현영(법학과) 봄에 피는 꽃만이 꽃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 하지 말고 각자만의 속도로 꽃을 피우자는 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봄에 꽃을 못피웠어도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일 것이다. 라는 구절이 우리에게는 두번의 기회가 있다는걸 암시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봄에 꽃을 피우지 못했다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일 것이란 구절이 깊이 남네요 글을 통해 위로받고 가요 감사합니다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일직선 같지만 뒤돌아보면 구불구불하다니 너무 좋은 말이에요! 꼭 마음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우리 모두 언젠간 피울 꽃이니 힘들어하지 말라 얘기해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네요 :)

함예원(미디어스쿨)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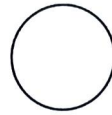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많이 힘든 하루에 위로가 되어주는 글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목표를 향해 쪽쪽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시나 경구에 같은 형식 안에서 꽃을 소재로 다루셨군요. 지하철이나 공공 시설에 붙어 있는, 저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글들과 비슷한 의미와 에너지를 가진 글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을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비유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뜻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이 글이 그러한 사례에 부합하는 글이 아닌가 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많은 응원이 되는 글이네요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필 꽃아라는게 인상깊었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도전적이고 희망찬 글이네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am 10:51 | 25월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일차 #꽃

나는 부모님이 맞벌이시라,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내 고향은 소똥 냄새 풍기고 도로에는 트랙터가 다니는 '진짜' 시골이었다. 봄에는 나비와 산새들이 꿀을 빨아먹겠다고 부지런히 날아다녔고 여름에는 하천 밑으로 물이 졸졸졸 흘렀다. 가을에는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겨울에는 월동 준비로 마을이 고요했지만 나름의 고즈넉함이 있었다.

내 생일이 봄이라서 그럴까. 나는 특히 봄을 좋아했다. 봄이 되면, 마음이 살랑살랑. 몸이 들썩들썩. 마을을 누비고 다녔다. 뛰어다니다가 입이 심심하면 진달래꽃을 뜯어 꿀을 쪽 빨아먹었다. 지금이야 온갖 환경 문제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첫사랑을 이뤄보겠다고 손가락, 발가락을 봉숭아로 다 물들이고,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평상에서 잠에 들고. 꽃을 눈으로 즐기기도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고. 오감으로 즐겼다.

이런 어린 시절이 있어서인지 대학생이 된 지금도 꽃을 발견하면 마음속으로 반가워한다. 남들에게는 가치 없이 밟아 치이는 무언가 일지 몰라도, 나에게 꽃은 특별하다. 아련하면서도 그리운 추억이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다.



18



13

심지범(경영학과) 오감으로 즐겼다 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원(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꽃이 추억을 생각나게 하다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어릴 적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이곤 했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꽃과 관련 된 재밌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유진 그런 매개체가 있다는 건 참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함예원(미디어스쿨) 봉숭아 물들이고 했던 추억이 생각나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예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작성자 분의 어린 시절을 함께 추억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고즈넉함, 그리고 찾아온 생명의 태동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꽃이라는 매개체에 담긴 감정들이 아름다워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시고 할머니 손에 컸는데 공감되네요 ^^ 글을 너무 이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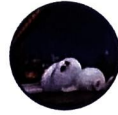
김진영(빅데이터) 봄은 꽃이 피어서 참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꽃을 통해 사빈님의 유년시절을 다는 아너더라도 떠올려볼 수 있어 글을 읽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도시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사빈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시골에서의 삶과 추억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어요. 자연에서 누리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글을 통해 생생하게 잘 표현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첫단락을 읽고 정겹고 잔잔한 시골의 풍경이 그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꽃에서 나온 낭만적인 추억소설 같은 아름다움 잘 읽었습니다

임수민(광고홍보학과) 시골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빈님은 꽃을 오감으로 경험하셨군요! 정말 부럽고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2023/05/09

tuesday, am 10:53 | 25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2일차 #꽃

세상엔 많은 꽃들이 있고 그 꽃들에는 꽃말이 담겨있다. 꽃말의 의미는 꽃이 가진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수많은 꽃들 중 잡초같은 망초꽃을 좋아한다. 망초꽃은 길가나 빈터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여름 풀꽃이다. 여러개의 꽃이 동시에 피기도 하고 홀로 우두커니 작게 피어있기도 하다. 또한 계란을 닮은 꽃이라고 해서 계란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화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엔 슬픈 역사가 담겨있다. 망초꽃은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를 부설할 때 북미의 침묵에 묻어 온 꽃이다. 철로를 따라 흰 꽃이 줄줄이 피어나자 일본인들이 시샘해서 이제 조선이 망할 징조라고 주술적 의미를 부여해서 조선이 망조가 들었다고 붙인 이름이 망초다. 이마저도 성에 안 찻는지 접두사 '개'를 붙여 개망초라 부르기도 했다. 망초는 어디든 물불을 가리지않고 자라 종종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 약재,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 아무리 흔히 볼 수 있는 잡초같은 풀도 유용한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새하얗고 노란 모습이 아름답고 순수하다.

나는 누가보든 안보든 스스로 예쁘게 피어나 버려진땅이건 조그만 틈새이건 자신의 생명력을 과시하는 망초꽃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희망, 화해, 힐링이 될 의미를 가진 망초꽃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망초꽃의 화해라는 꽃말은 쓰임이 다양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거친 바람이 불어도 망초꽃은 어디서든 춤추듯 하얗게 웃고있을 것이다. 망초꽃처럼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 끈기를 갖기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자주하곤한다.
 꺾여도 다시 살아나고싶다.
 묵묵히 나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싶다.



18



12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망초꽃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서 검색해봤는데 소박하면서도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는 꽃인 거 같아요 새로운 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지(사회학과) 이런 역사가 있을지 몰랐어요!! 덕분에 새롭게 알게되었네요

심지범(경영학과) 꽃말이라는게 두근거리죠 그 꽃을 더 이쁘게 보이게 하는 마법같은 말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망초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글 잘 읽고갑니다!

김경희(국어국문학과) 꽃말에 집중한 글 잘읽었습니다! 다른글과도 차별점이있어서 새로웠네요

장예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망초꽃이 어디에서나 피어나기에 흔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피기에 그 강한 생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초꽃의 의지가 이어져 저희에게도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요. 작성자분의 다짐과 마음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저도 그 꽃을 항상 계란 꽃이라고 부르는데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을 읽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들의 꽃말을 찾아보게 됐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진영(빅데이터) 길거리의 흔한 풀꽃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예전에 바깥에서 놀면서 망초꽃으로 반지를 만들어 노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때라 꽃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된 것은 좀 더 크고 나서였었고, 아주 깊게 꽃 자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글을 통해서 꽃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그 꽃을 통해 다짐하신 내용 또한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시현님의 노력과 묵묵한 실행을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긴 꽃이라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아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꽃이었네요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오랜만에 계란 꽃! 비슷한 사물 닮은 꽃들 찾아봐야겠어요



2023/05/09

tuesday, am 11:28 | 25읽음

김유진

#2일차

몇 주전 본가에 내려갔을 때 우리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벚꽃이 언제 피는지 관심이 없던 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었던 것이다. 우리 강아지도 생애 처음 보는 꽃보라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게 얼마나 귀여운지 보는 내가 다 행복해지는 순간이었다. 떨어져있는 벚꽃 봉우리를 주워서 강아지 머리 위에 얹어 놓고 사진도 찍고 그 덕분에 인생샷도 많이 건졌다. 벚꽃에는 이런 행복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냐 물어보면 '들꽃'이라고 답할 것 같다. 내가 들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밀조밀하게 작은 꽃들이 모여서 꽃밭을 이루고 옆에 같이 자란 토끼풀과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넓은 들판과 그 속에 숨어있는 들꽃들을 빼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직접 담는 것과 다르게 그림 만으로 표현되는 아기자기함과 서정적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제 벚꽃과 개나리, 철쭉이 차차 꽃잎이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꽃이 다가오면 또 다른 시작이 다가온다는 말이 있듯 이제 우리 캠퍼스에는 다양한 여름 꽃인 라벤더, 나팔꽃 등 봄 꽃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여름 꽃들이 만개할 시기가 오고 있다.

모두들 예쁜 여름 꽃들 보고 힐링했으면 좋겠다.



😊 17 💬 14

심지범 (경영학과) 여름꽃 기대 되는데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강아지와 벚꽃은 환상의 조합이죠.. 귀여운 강아지가 상상되네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강아지와 함께한 꽃보라 날리는 추억 글만 봐도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름 꽃들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고양이 사진이 너무 귀엽네요~ 오늘 길을 걸으며 어떤 여름 꽃이 있는지 봐야겠어요~

정예진 (생명과학과) 강아지와 꽃의 조합은 항상 최고죠 .

앞모습도 궁금해지네요 :)

여름 꽃으로 가득해질 캠퍼스가 기대되는 글이네요

~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반려견 사진이 귀엽습니다. 올려주신 사진 덕분에 힐링하고 가요!

함예원(미디어스쿨) 반려견 사진이 너무 귀엽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끝이 오면 또 다른 시작이란 말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동기부여 받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진영(빅데이터) 너무 힐링되는 사진까지 첨부하셨네요. 들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글에서 끝과 시작이라는 말에 감명깊게 책을 읽다 마지막에 고양이사진을 보니 더 힐링이 되는거 같네요!!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가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사진도 너무나 화사하고 예쁘고 글로 적어주신 추억도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네요. 이번 봄에는 여러 바쁜 일들이 많아 적어주신 글과 같은 경험을 많이 못했었는데, 글을 읽으며 대리 체험하는 기분이 들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유진님이 마주하고 그리게 될 들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보다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글을 읽으니 들꽃의 아름다움을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사진 너무 귀여워요 ㅠㅠ 강아지 머리 위에 얹어진 여름 꽃도 기대할게요

이유림(경영학과) 강아지와 꽃이라니 너무 좋은 조합이네요ㅠㅠ 토끼풀하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꽃반지가 생각났어요! 잘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사진이 정말 귀엽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우리끼리, Band!



2023/05/09
 tuesday, am 11:46 | 30읽음
 주재형(청각학과)

#2일차 #꽃 #대나무는나무가아니아

대나무 꽃은 몇 십 년에 한번 핀다!

대나무에도 꽃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기다란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나무가 단단한 외부층과 옆으로 비대해지는 형성층(나이테)가 있는데, 대나무는 단단한 외부층은 있지만 형성층이 없기 때문이에요. 위로만 크지 옆으로 크지 않아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대나무가 피우는 꽃은 50~100년만에 단 한번 개화하기 때문에 보기 쉽지 않아요. 대나무 꽃이 이처럼 쉽게 피어나지 않다보니, 꽃이 왜 피는 건지도 잘 몰라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피어나는 설~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면 피어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태양의 흑점이 증가하면 꽃이 핀다는 등! 설만 가득해요.

그런데 잠깐, 영양분이 부족해서 피어난다는 설은 왜 생겨난 걸까요? 바로 대나무는 꽃을 피우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점은, 하나의 대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면 근접한 대나무들까지 다같이 꽃을 피워서 일대의 대나무 밭이 고사해버리죠. 꽃이 피어 죽는다니! 때문에 대나무를 기르는 농가는 이 현상을 개화병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식물은 꽃들의 수분을 위해 매력적인 외형을 가지고 향기를 뿜어내요. 하지만 대나무 꽃은 아름답지도, 향기도 없어요. 보리 이삭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대나무 꽃을 보면 기개가 느껴져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한 치의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도 시듦과 구부러짐 없이 반듯하게 서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동양에는 군자의 소양을 담은 4가지 꽃이 있어요. 사군자라고 부르죠. 사군자는 매란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말하죠. 대나무가 왜 사군자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는 일이었답니다.

😊 20 💬 14

김시현(러시아학과) 대나무는 그냥 나무인줄로만 알았는데 풀이었다니 새로운 정보 얻어갑니다! 꽃이 피고 바로 죽어버리는데 기개가 느껴지다니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대나무도 꽃이 있다는 걸 재형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꽃을 피우면 오히려 죽는다는 것이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체 사라지는 대나무가 안타깝기도 하네요. 흥미로운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경희(국어국문학과) 꽃이 대나무를 죽게 만드는건지! 아니면 대나무가 죽기전에 꽃을 피우는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도 알아가는 글 잘보았습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은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성휘(콘텐츠IT) 신기하네요.. 대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되어 참 좋습니다!!

대나무가 풀이었다니...

신유정 (심리학과) 새로운 정보와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대나무 꽃의 반듯한 모습을 담고 싶어지는 글과 사진이었습니다.

강지수 (사회학과) 왓! 이런 식으로도 포스팅 할 수 있군요. 재밌는 정보예요! 살면서 대나무가 피우는 꽃을 한번이라도 실제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심지범 (경영학과) 꽃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이동금 (정치행정학과) 세상에, 대나무에 꽃이 있다는 걸 20년 인생 처음 알았어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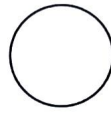
김진영 (빅데이터)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 (광고홍보학과) 대나무에 꽃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서 신비롭네요 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이유안 (러시아학과) 사진과 함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미까지 짚어주신 글이 아주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글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내용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글 구성을 아주 잘 하셔서 더욱 인상 깊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 미술을 좋아했어서 사군자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대나무꽃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도 알아가고 거기서 파생된 의미를 음미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유림 (경영학과) 대나무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었군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네요 이 글을 읽고나니 나중에 대나무에 핀 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사진 정말 잘 찍었네요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2023/05/09

tuesday, pm 12:00 | 25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2일차 #꽃

‘꽃’은 이중성을 띄는 존재인 것 같다. 꽃의 화려함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며,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마음 속에 간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픔을 대신해준다. 누군가의 아픔을 침묵을 통해 표현해주기도 한다. 꽃이 가진 겉모습만 보았을 땐 기쁨의 존재인 것 같음에도 왜 우린 슬픔도 꽃으로 대신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나는 슬픔 속에 가려진 평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면서 가는 길이 평안하길 바라는 것.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이별 속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 눈물로 꽃의 색을 지운 건 아닐까? 마지막 만남의 날에 하늘의 별로 반짝 빛나길 바라면서 평안의 꽃을 놓아본다.



16



11

강민지 (사회학과) 이중성을 지녔다는 점이 인상깊어요!)

정예진 (생명과학과) 이별 속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 눈물로 꽃의 색을 지웠다는 구절에서 하얀 국화가 떠오르며 많은 생각이 드네요... 눈물로 색을 지웠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주재형 (청각학과) 꽃도 아름다운 이면엔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함예원 (미디어스쿨) 다시 한번 무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해준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항상 예쁘고 화려함, 기쁨만 전달하는 꽃이 아닐 때도 있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 (러시아학과) 꽃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하얀 국화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우리 나라에 더이상 아픈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진영(빅데이터) 꽃에 이중성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네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꽃에 상황에 따라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진다 생각하는데 마음이 같은 것 같네요!!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맞아요, 생각해보면 꽃은 기쁜 자리에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애도하는 자리에서도 전달되네요. 미처 자세히 관찰해보지 못한 지점이었는데 글을 통해 짚어주시니 저도 새로이 꽃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갑니다. 꽃은 어떻게 슬픔을 대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두번째 문단의 설명이 제 마음에 와닿았고 조금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슬퍼지지만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꽃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유림(경영학과) 꽃은 항상 화려하고 예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생겼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12:21 | 27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2일차 #꽃

요즘 정말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라는 지수의 노래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 또한 꽃을 연관해 정말 기가 막히게 외우기 쉬운 동작으로 퍼포먼스를 하기에 더 깊이 연상된다. 그리고 항상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 릴스를 보곤 하는데 릴스에서도 지수의 꽃 노래가 실재없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정의 달에 맞게, 시기에 맞게 노래가 나온 것 같아 잘된 프로모션중 하나인 듯 하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외갓집이 시골이라 자주 꽃을 찾아보고, 키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봤는데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꽃에게도 제일 중요한 영양분인 물과 햇빛이 있다. 더불어 꽃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듯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중요한 요소들을 택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싶다.

오늘도 실패없는 대학생활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개성으로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

😊 17 💬 11

정예진 (생명과학과) 꽃이라고 해서 식물 꽃의 실제만 생각했는데 지수의 꽃이라는 노래에 대해 글 써주시게 재밌었어요. 말씀하신대로 모두 꽃향기만 가득하면 좋겠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지수의 꽃 너무 좋아해요.. 꽃향기 가득한 대학생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뭔가 시각적인 것보다 후각적인 향기가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꽃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이에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반가운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지수의 노래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 공감입니다 ㅎㅎ 꽃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듯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중요한 요소를 택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정말 희망적인 내용 같아요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지수의 꽃 노래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준님도 실패없는 대학생활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개성으로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라게요~

심지범 (경영학과) 경영학적 관점으로 글을 쓰신거 멋지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진영(빅데이터) 꽃과 대학생활을 비유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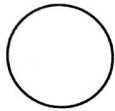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 것 같네요

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뿐 아니라 노래와 함께 글을 읽어보니 더 인상 깊게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가장 익숙하게 접한 것들이 제시어를 처음 받았을 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수의 꽃을 제시어를 받고 처음 떠올렸어서 내적 반가움이 일었습니다. 노래를 그냥 들으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저희의 사유를 한층 성장시키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이번 키워드보고 하루종일 지수 노래가 맴돌아요.. 땡땡땡하는 반주가 아직까지도 들리는 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12:28 | 29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붙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건 그만큼 붙잡기 어려워서인가? 기대와는 다르게 들려온 건 엉뚱한 반문.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닐 텐데. 그의 손에 들린 꽃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꽃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은 금방이라도 다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그만큼 그는 약하게 붙들고 있었다. 약한 붙들림이 괜한 조바심을 일으켰다. 붙잡았으니 소원을 빌어. 속삭이듯이 말했다. 명령처럼 내뱉었나 반문했지만, 한편으로 그의 소원이 궁금하였다. 그가 무언가를 빌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좋아. 순순히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그의 모습에 만족했던가.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어떤 것을 소망하는 그를 바라보며, 그리고 나는 빌었다. 그의 소원이 이뤄지라고. 그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라 생각하며. 평생의 한 가지, 작은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그 속에 들어있기를 바랐다.

봄날을 수도 없이 흩날리는 이곳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백과 적이 뒤섞인 감정의 설산... 운명을 가져온 바람과 그것의 장난과도 같은 비틀림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종용했다. 품어선 안 될 감정이 커졌던 탓일까. 이후로, 도화꽃을 나는. 수도 없이 원망했다.

그래서, 그날 너의 소원은 무엇이었나. 이제 무엇도 남지 않은 그에게 물었다. 궁금했다. 과연 그 소원 속에 자신이 있었을지. 그가 말했다. 그런 건 이미 이루었다고. 무엇을 빌었는지는 대답하지 않는군. 좋다, 내 멋대로 상상하겠다. 하지만 그도, 자신조차도 알고 있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지. 떨림이 언어를 타고 전해졌다. 나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후로는 슬퍼하지 마. 그가 말했다. 불가능한 부탁이었다. 너에게 부탁을 명한 적 없다. 이제 와 진심은 전해질 수 없어서, 마음을 베어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잘 지내. 오랜 시간을 증명하듯이 말투는 다정했고. 그리고 이제는 결말의 시간이라는 듯 이별을 말했다. 흐릿함이 그를 가렸다. 마지막을 제대로 눈에 담을 수 없었다. 눈물은 곧 후회. 후회의 깊이만큼 눈물이 흘렀다. 바람은 흩날려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제 손에 붙잡을 수가 없어. 왜 우린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저 끝에서야 전할 수 있었던 온기만이 내 심장에 눌러 붙었고. 나는 흩날리는 복사꽃이 가득한 이곳, 이 시간 속에 멈추어 있다.

#2일차 #꽃

😊 14 💬 10

주재형(청각학과) 그의 진짜 소원이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며
소원을 빌었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성휘(콘텐츠IT) 글을 정말 잘쓰시네요.. 긴 글 잘
못읽는편인데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ㅠㅠ
책으로 바로 내도 될 만큼 너무 좋은
글인것같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뭔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한편의 소설같습니다 정말 잘읽었습니다! 시간
속에 멈추어있는 나는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심지범(경영학과) 문학적인 글을 오랜만에 보는거
같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진영(빅데이터) 짧은 소설같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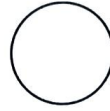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짧지만 긴 감명을 받게
해주는 글 같네요

문장하나마다 곱씹게 읽으면서 읽게 된 것 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는 아직 문학에 가까운 글을
챌린지에서 시도할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해서
문학에 가까운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반갑고
용기도 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도화꽃 혹은
복사꽃이라는 소재 때문인지 동양풍 소설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더욱 자세한 상황적 내용들이
궁금해지고 혹시 나중에 더 고쳐서 소설이나
이야기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미 끝난 관계더라도 감정만큼은 함께 했던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꽃을
소재로 아련하게 묘사하신 것 같아요. 전달되는
정서들이 인상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학교에서 소풍가서 친구들과
떨어지는 꽃잎을 잡겠다고 애쓰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좋은 소설입니다 영감을
얻어 갑니다!



2023/05/09

tuesday, pm 1:32 | 28읽음

최현명(법학과)

#2일차 #꽃

엄마 아빠가 피워주신 꽃

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엄마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한다.

덕분에 나는 언제나 활짝 피어 있을 수
있었다.

그 어떤 꽃이 있다 한들 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혹여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걸어갈 길을
닦아 주려는 부모님이 주시는 양분.

항상 감사한 마음,,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보답할 길이 있을까,,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고 병원을 찾으시는
일이 잦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겨난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이름 모를 눈물이
차오른다.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더 활짝 피도록,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넘어지는 순간 있겠지만, 나는 아름답지 않은
꽃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도
있겠지만, 풀꽃도 꽃이듯

나를 꽃 피게 해 준 부모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에 일어날 힘 얻기를..

오늘 모두 그런 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 18 💬 13

함예원(미디어스쿨)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시네요. 좋은 시입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자기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을 사랑을 양분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고 좋아보여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강수연(법학과) 나 자신이 온전한 꽃으로 될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엄마 아빠가 피워주신 꽃이라니.. 표현이 너무 이쁘네요 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진영(빅데이터) 꽃처럼 활짝 피시길 응원합니다.

박진욱(사회학과) 부모님이 피워주신 정말 훌륭한 꽃이네요 앞으로도 더 응원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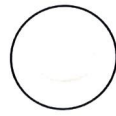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꽃이 피듯이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이번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감정들이 이 글을 읽으며 더욱 공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중한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피어난 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되새겨야할 것 같습니다. 현영님도 아름다운 꽃으로 더 활짝 피어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글에 담긴 마음처럼 되길 응원드립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살아계실때 잘해드려야 하는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현영님도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보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1:41 | 26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2일차 #꽃

나의 집은 넓은 들판이야. 수많은 존재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이지. 주위를 둘러보면 나 같은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노래를 불러. 여긴 언제나 행복해 -

하지만 때때로 무서워. 잔인한 비와 매정한 바람이 내리칠 때면 너무 어지럽고, 버티기 힘들어. 그래도 잘 이겨내가면서 성장하는 종이야.

그렇게 많은 날이 흘러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너가 찾아온 거야. 자그마한 키, 새카만 눈동자, 고집 있어보이는 앞머리를 가진 모아, 너가 말이야.

넌 몰랐겠지만 난 벌과 나비에게 인간에 대해 들은 적은 있어도,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어서 그 무서운 비바람이 올 때보다도 바짝 몸을 세우고, 긴장을 했었어. 하지만 그 긴장이 무색하게도 넌 한참 동안 새카만 눈동자로 물끄러미 나를 담았어. 너의 눈동자가 얼마나 까만지 아름다운 나의 모습까지 다 비추더라.

그렇게 넌 매일 나를 찾아왔어. 처음엔 조용했지만 어째, 날이 갈수록 조잘조잘 나에게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지. 그러곤 떠나기 전에 언제나 작별 인사로 「너의 곁에만 있으면 내가 꿈꾸던 환상 속에 들어온 거 같아. 언제나 고마워, 내일 보자」 라며, 이때만큼은 조용히 속삭였어.

그렇게 봄이 끝나갈 무렵 다정했던 너는 나에게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지. 「나랑 함께 가자」

난 당연히 당황했지. 어떻게 같이 가자는 거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넌 내 몸을 우지끈 꺾었어. 끈적한 피가 나오면서 엄청난 고통이 휘몰아쳤고,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너는 날 소중하게 쥐고 애뜻하게 바라보았지.
그런데 처음으로 말이야, 어여쁘던 너의
새카만 눈동자가 무섭게 느껴졌고 토끼같이
양증맞은 입이 벌어질 때마다 징그러워
몸서리 쳐졌어. 그러곤 이내 생각했지.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난 그 자리에
존재했을 뿐이고, 방어를 할 수 없는
몸이잖아. 너와의 만남은 필연이 아니었어.
나의 필멸이었어.」

이윽고 너의 집에 도착했지만 난 머나먼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었어. 난 날
걱정스럽다는 듯 바라보았지.
너를 보며 경멸, 배신, 연민, 사랑 따위의
무수한 감정들에 휩싸였어. 비바람이 칠
때보다도 훨씬 괴로웠고, 어지러웠어.

-
-
-

이젠 진짜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됐어, 마음을
가다듬고 너에게 말을 남길게.

「나의 햇살, 수다쟁이 아가씨 모아야-
너가 있었기에 즐거웠고, 행복했어. 색다른
흥미로움과 자극을 줘서 고맙웠어. 나의
아름답던 모습을 기억해 주는 건 너밖에
없겠지? 너로 인해, 나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조각들을 사랑해.

그런데 모아야-
나는 너가 봄마다 불행했으면 좋겠어.
그래, 너는 봄마다 불행할 거야. 대신 여름,
가을, 겨울엔 더없이 행복할 거야. 나의
사랑을 담을 거니까.
환상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모아야.
앞으로 찾아올 잔인한 봄을 잘
이겨내길바라.」

* '나' 는 자주색 양귀비. 이 친구의 꽃말은

환상입니다.

😊 18 💬 10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몰입해서 읽게됩니다!!
너와 나가 서로 어떤 존재였는지 바로 이해가 가서
매력적이네요 글 너무 잘쓰시는 것
같아요...:)모아의 대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강수연(법학과) 꽃의 입장에서 쓴 글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을
바꿔서 보니 새롭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잘 읽히는 단편소설을 본 것
같네요! 좋은 글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앞으로 찾아올 잔인한
봄을 잘 이겨내길바란다는 문장이 한참 눈에서
멤도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아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글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네요 ㅠㅠ 글 잘 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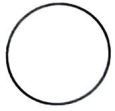
김진영(빅데이터) 따듯함이 느껴지는 짧은 소설을
읽은 기분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꽃이 겪은 일과 감정들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맛있는 초단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고조되는 감정의
전달이 아주 인상깊고 설득력있어요. 환상으로
은유되는 꽃과 그것을 꺾은 인간 소녀 모아의
관계에서 저희의 삶에서 마주하는 환상과 저희
사이의 관계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일으키는 것이
이야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글이
잘 쓰여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글쓰기도
응원드립니다!

심지범(경영학과) 함께 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글이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양귀비와 그 꽃말을 활용한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꽃을 잘 이해한 마음 따듯한
소설 잘 읽었어요!



2023/05/09
tuesday, pm 1:45 | 27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2일차 #라이팅챌린지

나는 꽃 중에서 목련을 제일 좋아한다. 중학교 1학년 3월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1학년 교실 창문으로 목련 나무가 보였다. 하얀꽃이 크고 아름다웠는데 창밖으로 볼 때도, 교실 밖으로 나와 산책하며 보아도 아름다웠다. 그전까지 꽃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도덕 시간 창밖으로 봄바람에 살랑살랑 훑날리던 목련 꽃잎을 본 순간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깊숙이 들어왔다.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잠시 넋 놓고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유정이 뭐 하니?"라고 하셨고 나는 "밖에 꽃이 너무 예뻐서요"라고 대답했다. 나에게 제일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이다.

목련은 꽃말은 고귀함이다. 봄에 피는 꽃 중에서, 내가 아는 꽃 중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목련의 꽃말이 '고귀함'이다. '고귀하다'는 훌륭하고 귀중하다. '물건 따위가 값이 귀하고 값이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꼭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살면서 고귀한 장면이나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있다면 꼭 비싸고 예쁜 물건을 많이 사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다. 그렇게 되도록 주변의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꽃



18



11

김시현(러시아학과) 살면서 주변에 무관심해지기 십상이었는데 주변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하네요! 글쓴이님의

이야기대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ㅎㅎ

강수연(법학과) 마지막 부분에 뜨끔했네요, 저는 항상 무언가의 가치를 돈처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귀하고 값진 장면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네요.)

김상민 생명과학과 많은 꽃잎들의 꽃말 중에 목련이 주는 힘과 메시지가 전해져와요. 속이 짝찬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지네요. 꽃말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재형(청각학과)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이다! 하나 알고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희 고등학교 교목이 목련이었어요! 괜히 반갑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제가 고귀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련의 꽃말 이었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진영(빅데이터) 목련의 꽃말이 고귀함이라니 너무 잘 어울리는 꽃말이네요.

이정민(스마트IoT)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다니, 정말 부러움을 느낀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값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 속에 아름다운 목련을 담는 것만으로 고귀함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변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뜻깊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정님이 쓰신 첫번째 문단에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배어 나와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봄이 지났지만 목련이 다시 그리워지네요. 좋은 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목련 이라는 사람 이름도 있지요! 고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꼭 비싼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글 잘읽고 갑니당!

이유림(경영학과) 목련의 꽃말이 고귀하다였군요! 목련은 자세히 보면 약간 비단 같은 느낌도 드는데 참 잘어울리는 꽃말같아요 잘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2:53 | 26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2일차

어느 한마을에는 꽃을 가꾸는 게 일상인
괴짜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꽃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불렀으며, 길을 가다 보면
조롱하고 비웃곤 했다. 그의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며 갖은 전쟁을 겪은 것을 아는
이라곤 한 소년뿐이었다. 소년은 어머니에게
줄 꽃을 찾아 들판을 걷던 중에 파랑고 생기
있는 키 작은 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행복도
잠시 괴짜 노인이 나타나 그를 세워두고
흔냈다. 들판을 짓밟지 말고 맘대로 꽃을 꺾지
말라는 것이다. 소년은 금방 풀이 죽었지만
노인이 준 꽃에 다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노인을 자주 찾아가
놀았다. 그때마다 꽃을 하나씩 받을 수
있었고, 그의 집은 괴짜 노인처럼 꽃밭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이 된 그는 도시로 떠나야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찾아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들판을 마음껏
거닐어도 호통 한 번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야 침대에 누운 노인을 볼 수 있었다.
청년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이
말했다.

내가 이토록 꽃을 키운 데는 이유가 있었다.
길을 잃은 딸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길을
찾을 수 있게 좋아하던 꽃들로 마을을 뒤덮고
싶었다. 나의 영혼이 영원의 꽃밭에 누울 때에
너는 마당의 꽃밭을 모조리 갈아엎어다오.

장례가 끝나자 청년은 묵묵히 꽃밭을 흙으로
되돌렸다. 주민들은 이제 그를 가리키며
바보라고 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눈물이 흘러 꽃을 적실 뿐이었다.
꽃이라고 물을 머금은다고 꼭 자라는 것은
아니었다.

😊 14 💬 9

김시현(러시아학과) 멋진 소설 한 편을 읽은 것
같습니다! 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꽃을 심었는지
생각을 깊게 해보게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기승전결이 완벽한
소설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혁 작가하셔도 되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긴 소설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물음 머금은다 해도 반드시
자라는 건 아니다.. 기억에 남는데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짧은 이야기를 쓰셨군요,
저는 이야기 쓰는 것은 어려워서 쉽게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잘 완결 지으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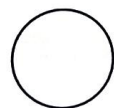
저도 마지막 문장에서 몽클해지네요. 눈물이 많이
많이 흐르지만 그 물이 꽃을 적셔도 결국 노인이
살아 생전 가꾸던 꽃밭이 돌아올 수 없고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버렸음을 한 문장으로 너무나도

절절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노인이 자신이 가꾼
꽃밭을 죽은 뒤에는 땅으로 다시 바꾸어 달라고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더 길었다면
알 수 있었을까, 아쉽고 호기심이 듭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우리 인간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고 하죠! 꽃이라고 물을 머금은다고
꼭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구절이 어릴적 부모에게
사랑을 못받고 자란 어른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죽는다는 것을 영혼이 영원의
꽃밭에 눕는다고 표현한게 인상깊은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완벽한 소설이네요
감미롭습니다 정말 잘 읽었어요!



2023/05/09
tuesday, pm 3:38 | 24읽음
김노연(사회학과)

#2일차 #꽃

꽃. 꽃을 생각하면 최근 엄마에게서 들은 말이
떠오른다.

지금이 너네가 가장 꽃같은 시기라고. 맞는 말이다. 10대라는 발아 시기를 거치고 비로소 세상을 향해 싱그럽게 피어난 꽃. 이십대 초반은 말 그대로 이제 막 피어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봉오리만 맺은 채 자신이 피어날 시기를 위해 애쓰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하여 일찍이 만개해 햇빛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각자 꽃을 피우는 시기는 다를 테지만, 언젠간 피어날 꽃을 위해 성실하게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 망울도 지지 않은, 이제 막 다시 성장하기 위해 이곳저곳 영양분을 찾아다니는 잠시 시들했던 싹이라고 생각한다. 끝없는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감각 속에서 생명 부지만이라도 하자며 자기 자신을 보채며 살아가던 지난 3년의 시간은 그대로 내 속에 자리 잡았다. 그 시간들부터 그 이전의 시간까지 합쳐서 지금의 내가 있고, 나는 이제야 걸음마를 떼고 미숙한 나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나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야 할 것들에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도 골몰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분명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여담으로 하나 더 말해보자면 나는 민들레꽃이 참 좋다. 정확히는 민들레꽃 그 이후 열매를 맺은 민들레씨가 좋다. 열매를 퍼트려서 사회에 내 이름을 남긴다든지 하는 거창한 것 말고, 그냥 그렇게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훨훨 어디든 날아다니는 것이 좋다, 자유로워 보여서. 해방감을 주는 기분이다. 그러니 언젠가 나도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어 해방될 수 있기를. 무엇으로부터? 나 자신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 16 💬 7

김시현(러시아학과) 각각의 사람마다 인생에서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내용이 인상깊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민들레 얘기 너무 인상적이네요. 저도 민들레 홀씨 처럼 어디든 날아다니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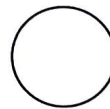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민들레는 민들레 씨가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각자의 개화 타이밍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연님도 분명 아름답게 피우실 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망울 망울 성장해나가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 먹으신 것을 이루어 좋아하시는 민들레 홀씨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의 경험도 그러한 성장이 되길 바라며 응원 전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찬란한 우리 20대를 후회없이 보내려면 늘 행동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활짝 핀 꽃과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고 어쩌면 잠시 시들지도 모르지만 꽃이 져야 열매를 맺기도 하니깐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독특하고 인상 깊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5:14 | 29읽음

박진욱(사회학과)

#2일차 #꽃

"나 원래 안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꽃 사진을 찍게된다?"

어느날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갑자기 꽃을?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다른 언니들이 카톡에 꽃 사진 프로필로 하고 꽃사진 찍는거

이해 못했거든? 근데 날씨도 좋고

지나가다보니

꽃도 보이고 나도 모르게 찍게 되더라,

나 나이들어서 그런가봐"

별 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엄마 옆으로 햇빛이 비쳤다.
화창한 날이었다.

어느날은 아빠랑 나갔다 들어오더니 아주 귀여운 것을 사왔다면서 선인장을 사왔는데 화분이 너무 귀여워서 바로 샀고, 아빠가 사줬다면 신나서 화분을 옮기던 날에도 날씨가 좋았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사준 아빠의 그 마음이 소중한데 더 애지중지하며 집에 데려왔나보다.

우리 엄마에게 작은 행복이 되어주었다. 엄마는 그 꽃이 예쁜 것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꽃을 보며 즐기는 여유, 화창한 날씨, 그 당시의 행복함을 남겨두고 싶어서 사진이라면 질색하는 엄마가 아마 꽃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나도 소중한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서 행복했던 것도 있지만 나에게 꽃을 선물하려고 생각했던 것과 꽃집에 가서 꽃을 사기위해 기다리며 내가 좋아할 것을 생각했을 그 짧은 시간들,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러오던 그 짧은 길, 꽃을 받고 행복해 웃던 나와 그것을 바라보던 너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장소까지 그날도 화창했다. 눈부신 날이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꽃에 잘 담기는 것 같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엄마와 나는 그날들에 모두 환히 웃었다.



😊 17 💬 10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꽃 사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거기에 좋은 글까지 가족에 대한 글을 읽다보니 더 잘 읽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꽃들의 사진을 보니 정말 정성가득하게 키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꽃 사진들이 너무 예뻐요 애정을 가득받은 꽃이라는 게 티가 나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아

주재형(청각학과) 우리 부모님 카톡 프로필 사진도 꽃사진인데! 꽃이 괜히 예쁘게 아님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일상에서의 경험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포착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시각을 잘 살피 이해하고자 하셨다는 것이 글에서 많이 느껴져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 속에서 뜻깊은 순간들이 많길 바라요. 사진과 함께 보니 더욱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꽃을 선물로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기뻐했던 순간을 적은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락이 참 읽으면서 인상깊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김보민(사회복지학과) 저도 꽃을 매우 좋아하고 꽃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해요.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되지만, 누군가가 꽃 선물을 해준다면 위에 써주신 글처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준 그 마음과 짧은 순간순간들이 예뻐서 좋아요.)

이다빈(경영학과) 꽃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 선물 받은 꽃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의 애정이 느껴진달까...?? 따뜻한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꽃이 주는 의미는 참 다양한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아름다운 꽃 사진 정말 잘 봤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다들 나이가 들수록 꽃을 좋아하게 되고 꽃 사진을 찍게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궁금해요 저도 점점 그렇기도 하구요! 잘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5:41 | 23일음
이유빈(사회학과)

#2일차 #꽃

세상 모든 꽃은 향기가 날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은 세상에 있는 꽃들 중 절반도 안된다. 사람들은 대개 예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꽃들을 좋아한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향기가 나지 않고 예쁘지 않은 꽃들은 왜 싫어하는걸까? 자신이 좋아하지 않아서? 아니면 본래 알던 꽃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꽃을 사람에 비유해본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칭하는 비장애인들)을 선호 하고 좋아한다. 꽃으로 치면 향기나고 예쁜 꽃들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고 성격이 모난돌처럼 삐뚤삐뚤 하고 자신과 비교 했을 때 조금의 흠이 있는 사람들(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꽃으로 치면 벌도 가지 않고 나비도 없고 향도 없고 예쁘지 않은 꽃들 말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좋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만의 특유의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

자신과 다른 꽃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의 모든 꽃들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



18



10

김시현(러시아학과) 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신 것이 인상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기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저마다의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면 조금은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글 잘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세상의 모든 꽃들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며 글 잘 읽었습니다아

주재형(청각학과) 향기가 없는 꽃도 사랑해주어야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정민(스마트IoT) 꽃과 사람은 정말 많이 연결되어있는 존재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준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사람들이 각자 형태가 다르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의미있는 꽃이기에 모두를 존중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 잘 나타내신 것 같아요. 유빈님은 유빈님의 글에서 드러나듯 평소에도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을 통해서 좋은 가치관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응원드립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어떤 생명이든간에 아름답게 봐주는 사소한 행동으로도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꽃을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군요! 마음가짐과 정신건강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하네요! 요즘 아이들!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사회의 빗대어 정말 인상 깊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꽃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글이군요 잘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5:56 | 24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2일차 #꽃

‘너는 꽃과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려
했으나
너를 표현하기엔 어딘가 허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너는 예쁜 색과 가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미였고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워내는 동백이었으며
따뜻한 봄을 안겨다 주는 개나리였고
바람이 불면 살며시 찾아오는 라일락이었다.

애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넌 세상 모든 꽃 그 자체였다.

이 정도면 너를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은 난 너에게 물망초를 건네고
싶었나 보다.

* 물망초의 꽃말은 ”날 잊지 마세요“ 입니다

😊 15 💬 9

박진옥(사회학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물망초 꽃말도 알게 되고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예진님 글 덕분에
물망초 꽃말도 알게 되어 유익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물망초의 꽃말은 잊지
못하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오, 산문보다는 운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글을 쓰셨군요. 이러한 시도도 반갑고
흥미로워요. 모든 꽃 그 자체인, 다채롭고 뜻깊은
모습의 사람을 알고 지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큰 축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너무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비유로 적어주신 장미와 동백, 개나리와 라일락
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김보민(사회복지학과) 표현이 모두 과거형으로
끝나, 뭔가 씁쓸하면서도 추억과 같은 감정이
드네요.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에 아름다움과
진심이 묻어있어, 멋진 글인 것 같아요. 마음이
따스해지는 글,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넌 세상 모든 꽃 그
자체였다라는 문장이 아련하네요...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천년이 지나도 잊지
말아달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박진영의 날 잊지마 ~? 인가
갑자기 그런 노래도 생각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마음이 간질거리는 글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6:16 | 27읽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2일차 #꽃

어릴 적 저희 집 앞 마당에는 아주 큰 목련
나무가 있었습니다. 백색의 큰 잎을 가진
목련은 꼭 만두같이 생겼는데, 활짝 피면
거대한 솜덩이 같아 몽글몽글 정말
이뻐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분은 휴대전화로 저희 집
목련을 여러 장 찍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방해가 될까 발걸음을 멈춰 한참 찍는 걸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희 집 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하던 지. 그 일은 자랑거리가 되어
하루 종일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저희 집 목련은 자랑,

자부심이었네요. 요즘은 담장 너머로 빼꼼 내민 꽃들을 구경하는 취미가 있어요. 이제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사진을 찍던 어른이 된 거죠. 예쁜 꽃을 보면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 집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기도 해요. 가까이서 봄을 느끼게 해준 것에 감사, 어쩌면 삭막했을 골목길을 화사하게 물들여준 것에 감사. 저는 꽃을 심어준 그들 덕분에 봄마다 눈이 즐겁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어릴 때 저희 집 목련도 지금 생각해보니 충분히 자랑할 거리였네요. 먼 미래에 마당이 딸린 집을 갖게 된다면, 저도 꽃을 마당 한가득 길러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제가 기른 꽃을 한참 쳐다본다면, 또 자랑하러 올게요.

😊 18 💬 10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어릴 때 꽃을 자랑하곤 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진욱(사회학과) 큰 목련 나무가 있는 앞마당이라니 완전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보고 여러장 사진 찍어보고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에세이네요. 어딘가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환해지고 잘 정돈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마음 속을 환하게 해주는 목련처럼, 다른 집 곳곳에 있는 다른 꽃나무들처럼 수민님의 글 역시 집 마당에 있었던 목련 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 너무나 잘 쓰셨어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어릴적 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한 에세이를 본거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많이 자랑해 주셨으면 해요!! 글 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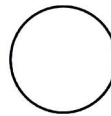
서원준(중국학과) 꽃을 기르면 힐링도 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요! 꼭 길어서 좋은 희망의 꽃이 되길 빌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꽃나무 하나가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목련이 매력적인 꽃이라는 것이 글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꽃은 그 공간을 특별하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ㅎㅎ

김한나(경영학과) 초등학생 때 학교를 대표 하는 꽃이 목련인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목련이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집 마당에 있었다니 부럽네요! 나중에 꼭 잘 길르셨으면 좋겠어요.)



2023/05/09

tuesday, pm 6:16 | 28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일차 #꽃

...

꽃을 떠올리면 따스한 봄도 같이 떠오른다. 4월이 오면 벚꽃을 기다리고, 나 또한 벚꽃이 만개하기를 기다렸다. 요즘에는 아스팔트 사이에서 잘 살아있는 꽃, 아무 식물도 없는 곳, 수많은 풀 속에서 곧게 자리 잡은 꽃. 홀로 성숙하고 곧게 자리 잡은 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꽃들을 보면, H1-KEY(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노래가 떠오른다. 이 노래는 가사가 아름답고, 괜히 마음이 찡해지며 위로가 된다.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갤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길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 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라는 가사가 가장 마음에 든다. 선천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든,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나든, 각자 자신만의 향기를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홀로 꽃꽂이 성장하는 이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게 된다. 나도 이들처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거센 태풍이 몰아쳐도 굳게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고 싶다. 정작 나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버거울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든곤 한다.

https://youtu.be/vfUAckewh_8



H1-KEY(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Rose Blossom)'



😊 16 💬 9

김시현(러시아학과)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신만의 향기를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정말 공감가요 올려주신 노래도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노래도 삽입이 가능하군요! 앞으로의 글 쓰기에 참고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은지(철학) 오 저도 이 노래 등하꽃길에 자주 들어요! 전 '고갤 듣고 버틸게 끝까지' 이 가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가사의 뜻을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덕분에 다음엔 의미를 곱씹어보며 들을 것 같네요 :)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꽃이라는 제시어를 받았을 때 최근에 들었던 노래들이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잠깐 떠올렸었는데, 이렇게 글감으로삼아 글을 쓰신 분이 계시다니 반갑네요.

해석을 아주 이해하기 쉽고 의미 있게 정리해주셔서 노래를 다시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마지막 문단을 읽고 저도 버거운 순간을 뜻깊은 것들로 잘 극복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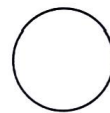
이정민(스마트IoT) 이 글 덕분에 이 노래가 생각나, 라이팅 챌린지를 흥얼거리면서 더욱 기분 좋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서민경(콘텐츠it) 지나가다 들은 곡인데 가사가 너무 예뻐서 자주 듣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가사에 더 집중하면서 들어보려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식물은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자연은 흙과 햇빛 그리고 물만 있어도 자란다고 하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노래 정말 잘 삽입했네요 ㅎㅎ 글과 함께 더불어 잘 들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덕분에 좋은 노래 알게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6:53 | 31읽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일차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떤 추억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어렵פות이 생각나는 기억이 있다. 우리 할머니 댁 앞 마당에는 항상 봉숭아 꽃이 있었다. 할머니 댁을 갈 때면, 나와 사촌 언니는 항상 마당으로 달려가 봉숭아 꽃을 꺾곤 했다. 봉숭아 물들이기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봉숭아 물들이기는 꽃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봉숭아 잎도 적당히 꺾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 초등학생의 나는 잎은 뒷전이였다. 예쁜 꽃잎만 꺾느라 할머니가 애를 먹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따온 꽃과 잎은 할머니의 손길로 곱게 뺨아진 후, 내 손톱 위에 올려졌다.

봉숭아로 물들인 손톱은 물 빠진 주황빛을

된다. 봉숭아 물을 들이고 나면, 별거 아니었던 내 손톱이 무언가 특별해진 느낌이였다. 초등학생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탈이랄까. 그래서인지 손톱에 물이 다 빠져갈 때면, 아쉬운 마음을 못내 감출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손톱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게 참 순수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 19 💬 12

주재형(청각학과)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추억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은지(철학) 저도 시골 가면 봉숭아 꽃잎 돌로 찜고 놀았는데 추억이네요~! 덕분에 저도 글 읽으면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
박진옥(사회학과) 봉숭아 물들이기 진짜 추억이네요..! 진짜 맨날 그 돌로 찜고 다같이 놀았는데 몽글몽글 추억이 떠오르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저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네요, 써주신 글 덕분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처음 배워서 다같이 유치원 친구들과 했었는데, 지혜님의 경우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했었군요, 그 역시 다정하고 따뜻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심정을 잘 되살리셔서 쓰신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스마트IoT) 완전히 잊고있던 추억인 봉숭아 물들이기를 다시끔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글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며 한번 해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어린 시절 잊고있던 추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봉숭아 물들이는 어릴적 추억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강지수(사회학과) 아주 어린 날에 친할머니 댁에서 봉숭아로 손톱 물들이기를 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요. 그 순간은 제가 늘 그리워 하는 순간이에요. 뽕은 봉숭아를 엮고, 봉지로 손끝을

둘둘 싸맨 다음에 고무줄로 고정하던 순간을요. 또 다시 물들여 보고 싶어지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황정윤(의예과) 저도 할머니께서 늘 봉숭아 물 들여주셨는데. 까먹고 있다가 글 덕분에 생각나네요! 감사해요

이다빈(경영학과) 첫 눈이 오기 전 까지 봉숭아물이 손톱에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설도 있잖아요~~ 꽃이 주는 추억과 향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심지범(경영학과) 봉숭아 손톱에 물 들인다! 진짜 어릴때 많이 했는데요! 너무 추억들을 상기시켜주어서 옛 생각들이 났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거예요 부럽습니당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어린시절 봉숭아꽃으로 손톱 물들었던 적이 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진하게 하려고 손가락 칭칭 감고 잤던 때가 생각나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09
 tuesday, pm 10:36 | 25읽음
 김용후(법학과)

#2일차
 #꽃

해마다 찾아오는 꽃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다. 꽃잎으로 가득한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샌가 '벚꽃 엔딩'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봄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의미의 '벚꽃 엔딩'을 맞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봄꽃들의 개화시기가 급격하게 앞당겨지며, 자연의 오래된 질서를 흔들어놓고 있다. 벚꽃은 올해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빨리 개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역행적 현상의 배경에는 이상 기후가 자리하고 있다.

꽃의 이른 개화는 단순한 시기의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이르게 피는 봄꽃은 꿀벌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주어 생태계

전반의 위협이 된다. 벌의 활동 시기와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르면, 벌은 꿀을 얻지 못하며, 꽃의 수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벌의 수가 줄어들면 식물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며, 이는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 활동은 기후 변화 및 각종 환경 오염을 일으켜 자연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수십 년 후에는 2월에 벚꽃이 피거나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는 벚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꽃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생명의 이야기들이 꽃필 수 없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니고, 생태계 전체의 공유 자원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만물의 영장이라면, 스스로의 행위들로 인하여 다른 생명체들의 목숨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변화를 이끌 책임이 있다.

😊 14 💬 12

김소은(미디어스쿨) 기후 위기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글이네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는 습관부터 차근차근 노력해나가면 좋을 거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금까지 꽃이 일찍 핀 걸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용후님 덕분에 이른 개화 시기가 좋은 것은 아님을 잘 알고 갑니다. 앞으로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함께의 가치를 추구하며 환경과 인간 모두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아름다운 꽃들 보호에 앞장서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유지연(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꽃과 자연의 질서를 엮으신 게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심지범 (경영학과)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꿀벌들이 없다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꿀벌들이 주식으로 삼는 꽃들의 멸망이 지구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지네요. 환경의 파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기후위기로 해마다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저 말고 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네요. 절망에 빠지지 말고 계속 나아가요 우리!

임수민(광고홍보학과) 용후님 글을 읽어보니 식물국가 얘기가 떠오르네요! 지구의 진정한 주인은 가장 널리 퍼져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식물이고, 우리 인간은 식물국가 안에서 생존중인 거래요! 식물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에 더 민감한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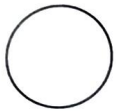
이유안(러시아학과) 정돈된 문장으로 주장을 전달하고 계셔서 글이 가진 영향력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위기의식을 느끼고 점점 나빠져가는 환경에 좌절감을 느끼곤 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연대감으로 위안과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글과 댓글에서 엿보이는 연대를 더욱 발전시켜 저희의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꽃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에 배경이 되는 환경과 자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진짜 벚꽃 엔딩이 오기 전에 지키고, 아껴야 한다는 말 너무 공감됩니다. 이번 봄 이른 꽃에 그냥 기후가 이상한가보다 하고 지나쳤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올해 너무 일찍 꽃이 피어서 이쁘다 하다가도 순간 흠칫하게 되더라구요 꽃이 일찍 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연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벚꽃 엔딩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데 여기서 보게되다니 너무 반가웠어요 벌의 수가 줄어들면 지구의 종말 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 무서워요 식물의 생존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적인 방법을 택해야겠어요!



2023/05/09
tuesday, pm 11:04 | 22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2일차

꽃, 나는 꽃에 관심이 있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꽃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이 들어올 공간은 없었다. 꽃을 접하게 되 시간은 아버지가 키우는 난꽃을 통해서 뿐이었다. 난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아버지는 들뜬 목소리로 난꽃을 소개해주신다. 굉장히 작은 꽃이지만 힘들게 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그 꽃은 아름다웠고 나를 잠깐의 사색에 빠져들게 했다.

꽃에 관해 처음 드는 생각은 다채로운 색깔이다.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꽃의 색을 통해 느끼는 것 같다.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말하기로는 집에서 우리가 티비를 보는 이유는 자연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느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자연에서 꽃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활짝 핀 얼굴로 우리를 반기는 꽃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들어서 대화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성적인 대화만 오고가는 상황에서 꽃은 감성적인 대화를 건네는 것 같다. 감성적인 영역은 자연을 통해 길러지는 것 같다. 어렸을 적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시절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행복은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이 간단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나가는 길에 활짝 보이는 꽃들이 내 감정을 툭툭 건들여준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글을 쓰는 동안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생각도 표현되어야 생명력을 갖는 것 같다.

😊 13 💬 9

심지범 (경영학과)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담담하고 잘 정돈된 문장으로 구성된 훌륭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장이 너무 짧지도 않고 흐름상 툭툭 끊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이네요. 저는 좀 더 긴 문장으로 쓰게 되는데 간결하면서도 힘있게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많이 배워갑니다. 글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화와 다름이 없고 꽃이라는 소재가 글에서도 실제 생활에서처럼 마음의 매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로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보다는 삶의 매순간에서 느껴지는 충실함의 감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님의 일상 속에서도 많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생각도 표현되어야 생명력을 갖는다는 말이 정말 공감합니다! 사소한거라도 깊이 생각해보려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꽃은 자연의 생명,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갈 뿐이죠.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며 바쁜 일상 생활 속에는 자연을 톡톡이 보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꽃에서 생기를 얻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꽃이 주는 아름다움 또한 생각하며 긍정적인 활동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화이팅입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복잡한 요즘 넋놓고 자연을 감상하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더라구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글을 쓰려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표현할 방법을 또 고민하다 보니 정말 생명력이 생긴거 같아요! 감성적인 영역은 자연을 통해 길러진다는 말도 동의해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도 꽃을 보면 다채로운 색깔에 빠져드는것 같아요 꽃과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화는 정말 중요한

소통수단 인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깨닫고 갑니다



2023/05/09
tuesday, pm 11:28 | 21읽음
고다인(법학)

#2일차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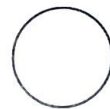
어릴적 친구네 집에 놀러갈때면 베란다 가득 채운 화분들을 한번씩 구경하곤했다. 식물에 관심이 없어서 이름도 모르지만 친구 부모님께서 꽤 애정을 쏟아 키우시는 것 정도는 알고있었다. 화분 하나하나마다 이름표도 붙여있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는 모두 식물들 차지였으니까. 반면에 우리집은 일명 식물 금지 구역이었다. 가족들 모두 식물에 큰 흥미가 없기도했고 어디선가 잘 살아남는 종이라며 나눠주는 식물들조차도 모두 우리집에만 들어오면 얼마 되지않아 시들시들 죽어버렸다. 아무도 식물에게 애정을 쏟지 않아서였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선물로 받는 꽃다발을 받는 날에는 모두 난감해 했었다. 선물 주는 이의 정성을 알지만 이걸 뭐 어떻게 잘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서였다.

식물 금지구역 우리집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데 또 다른 이유는 우리집 고양이 2마리다. 고양이에게 해로운 식물이 많아서 꽃다발이라도 받을 만한 일이 생기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곤했다. 우리집에는 고양이때문에 식물을 들일수가 없어서 보관도 못하니 꽃 선물은 괜찮다고 말이다. 고양이에게 해롭지 않은 식물이라고해도 문제가 생긴다. 온집안이 놀이터인 우리집 고양이들에게 식물이 발견이라도 된다면 분명 한 눈 판 사이에 흠바닥이 되고 화분도 다 쓰러질게 확실했다. 우리 가족은 산책할때 보이는 꽃과 나무 구경으로 충분한 것 같다. 식물키우기에 관심이 없다고 자연을 즐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을 볼 때면 기분도 좋아진다.

😊 12 💬 6

서원준 (중국학과) 춘천에도 좋은 공원과 생태공원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꼭 가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고양이가 있다면 집 안에 식물을 들이기가 어렵죠 하지만 집 안에 식물을 들이지 못한다 해서 그걸 즐기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외부에서도 좋은 식물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춘천은 공지천이 유명하죠!!! 글 잘읽고 갑니당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ㅋㅋ 고양이의 흠파기가 너무 상상되네요 ㅋㅋㅋ
이유림(경영학과) 고양이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사고뭉치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꽃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식물을 들일 수 없는점이 슬프습니다 그래도 산책할때 꽃과 나무를 자주 구경하신다니 다행입니다



2023/05/09
tuesday, pm 11:45 | 19읽음
배성준(경영학과)

#2일차 #꽃

나는 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나가면서 미소를 짓고 때론 무관심하게 비껴나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처음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만 잠에서 일어나라는 듯 따갑게 내리찍는 햇살과 나의 속살을 사랑살랑 간지럽히는 바람입니다. 어릴때부터 햇님은 나의 이유식을 만들어주신 어머니이고 비와 바람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흠뻑지를 털어 깨끗이 씻어주시던 아버지, 내 옆을 오가는 꿀벌과 애벌레와 나비와 많은 곤충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나의 벗입니다. 이따금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가하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
 뿐이었지만요. 어느 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옵니다. 다치지 말고 조심히 놀라는
 햇님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신나게 놀다
 앞사귀가 떨어지고 꽃잎이 찢어지는 상처도
 낫던 어린시절의 철없던 나였지만,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칠칠맞던 어릴
 적의 모습은 어디가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얼굴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과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햇님과
 바람은 오고가며 언제 이렇게 컸냐는 듯
 기특하게 나를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나를
 지나가면서 "이 꽃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세상에! 너무 향기로워..!"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잊을 수 없었고 달콤한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은 곤충 친구들이
 전해주기를 저 건너 언덕 너머에 나와 비슷한
 꽃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점점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며 처음으로 서로
 친구들을 통해 말을 한, 두마디 트고 나니
 이제는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점점 그 친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부풀어 갔고 한밤에 드디어 참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전하길을 그 친구도 좋다고 하더랍니다. 그날
 밤은 너무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노란 가루를 날려 행복하게 결혼식도
 하였습니다. 내 아이도 생겨 저 멀리멀리
 씨앗을 날려보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루종일
 수다를 떨고 움직여도 바닥나지 않던 체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웃음과 대화를 주고받지만
 사색을 즐기고 명상하면서 홀로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반겨준 인사와 친구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소한 대화라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겨울입니다. 몸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대화를 해도 피로하고 미소를 지을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왔던 내 친구들도 어디론가
 떠나보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오고, 또
 눈이 와, 하이얀 진눈깨비에 세상이
 하얀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식을 간간히라도 전해오던 배우자의
 목소리도 어느 시점엔가 딱 하니
 끊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자식이
 나처럼 이 세상을 경험하고 마주할 사람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돌아났던 수없이 많은
 새싹들이 이렇게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
 언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있는 힘껏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렇게 마지막 미소를 뒤로 하고 나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에 듭니다.

😊 9 💬 3

심지범 (경영학과) 요새 저도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속에 소중함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읽고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내가 꽃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꽃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경험을 잘
 서술해주셨어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자신이 꽃이 되어 1인칭의
 시점으로 쓴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한
 동화책을 읽는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은 조금
 슬프네요



2023/05/09

tuesday, pm 11:56 | 18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꽃

작년 겨울에는 이상하게 빨리 봄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앙상한 가지들이 어떻게 다시 푸릇하게 변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때 보다 더 자세히 눈에 담았다. 항상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꽃들, 매번 보는 버스 밖 풍경들. 근데 정말 서서히 변해갔다. 제일 신기했던 건 초록색 이파리들도 새싹일 때와 커졌을 때 색이 달랐다. 그리고 세상에 똑같은 초록색은 절대 없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작은 차이라서 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문득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다만, 사람은 다시 자랄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푸르른지 잊지 말고 살아보자.

14 8

심지범 (경영학과) 지금 이순간이 가장 찰란한 순간입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 (경영학과) 곧 여름이 오면 짙은 초록색이 될텐데 기대되네요

김태희 (영어영문학과)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수 없듯이, 세상에 똑같은 초록색은 절대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감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정말 신기한것 같아요 한림대 캠퍼스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며 힐링하세요:)

김한나 (경영학과) 학기가 시작하면서 밖에 풍경이 더 많이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앙상했던 가지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서 바람타고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말이 와닿네요!

주재형 (청각학과) 지금을 사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동일하지 않듯 똑같은 초록색은 없다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배성준 (경영학과) 똑같은 초록색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네요. 저도 요즘은 바쁘고 하다보니 당장 할 일에만 급급해서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나의 변화를 잘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안 (러시아학과) 자연을 두고 많은 분들이 저희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글을 쓰신 것 같네요. 선율님의 글도 짧지만 긴 여운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도 많은데 선율님의 글을 읽으니 제 존재에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 하나를 잘 살피고 그것에서 충만감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규 (환경생명공학과) 세상에 똑같은 초록색이 없는것 처럼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도 없죠. 그러니 자신만의 초록색을 가지는게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나의 초록색은 얼마나 건강한지 푸르른지를 보여주자구요



2023/05/10

wednesday, am 12:15 | 48읽음
김양선

#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꽃부터 꽃말에 얽힌 이야기, 꽃과 관련된 기억까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꽃이 주는 시각성때문인지 유독 사진도 많이 첨부해 주었네요.

대학 캠퍼스도 개나리. 벚꽃, 철쭉이 한창 피고 지더니 간간히 아카시아 향기가 맡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주는 날도 좋으니 시간날 때 천천히 걸으며 봄을 즐기길 바랄게요.

27 2

김한나 (경영학과)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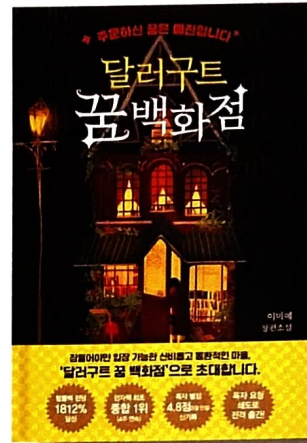


2023/05/10
 wednesday, am 7:50 | 47읽음
 김양선

#3일차 키워드 : 선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라 유난히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일이 많습니다. '선물' 여러분이 받았던. 혹은 주었던 선물을 떠올려 볼까요? 내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 써도 됩니다.

😊 20 💬 0



2023/05/10
 wednesday, am 8:47 | 28읽음
 주재형(청각학과)

#3일차 #선물

2021년에 저는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로부터 정말 멋진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핸드크림과,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인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과 쿠키, 음료 등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선물을 받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책과 핸드크림 등을 얻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친구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친구는 이 선물을 고르기 전, 제 취향과 관심사를 꼼꼼히 조사하고 찾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그 아이가 나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친구가 나를 아는 데에 감사했고, 이 선물을 받으면서 친구와 나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선물은 물질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나와 친구 간의 관계와 인연에 끈끈함을 더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저에게 여전히 정말 소중한고, 제가 받은 선물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선물의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이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상대방과의 인연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선물의 가치는 금전적인 절대적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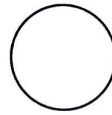
ps. 달러구트 꿈 백화점 2도 읽어봐야 하는데! 조만간 읽어봐야겠어요. 도서관에 있으려나요?

😊 15 💬 12

김상민 생명과학과 책 선뎁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와 코드가 맞다면 책을 통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된 경험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지인들과의 인연을 다시한번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0

wednesday, am 8:48 | 30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최현영(법학과) 맞아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써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서원준(중국학과) 오 좋은 책이네요 주변 사람들부터 더 잘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선물이어도 제게 의미가 없으면 감동이 덜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아

강지수(사회학과) 저도 친구와 서로 책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상대가 좋아할 법한 시집을 고른 후, 본인이 먼저 정독한 다음에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책 내용, 감상 등을 적어서 교환하기로요. 사실 5월—이번 달에 하기로 했는데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네요. 얼른 시간을 내서 그 친구와의 약속이 지켜지고 싶어지는 글이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책 읽으면 지식과 상식들이 풍부해지죠~~ 글 잘 읽고 갑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날 생각한 것 같은 기분이라서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나를 신경써준 선물을 받았을 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재형님의 글을 읽으면서 점점 커갈수록 선물을 금전적으로 생각하는 제 자신리 부끄러워지네요... 선물의 의미와 그 마음을 생각해야함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어요. 그 생각 앞으로도 잊지 말고 간직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함을 느꼈네요. 그리고 좋은 책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2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좋은 내용의 책이겠죠?? 덕분에 쇼핑리스트에 올리게 됩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인기도 많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선물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아마 학우님께 이 책을 선물해주신 분께서는 지혜와 성장이라는 뜻을 담아 선물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다인(법학) 맞아요 나를 위해 선물을 고민하고 사주는 친구의 시간과 마음이 더 소중한거 같아요~

#3일차 #선물

선물

선 : 선물한테 인격체를 부여한다면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을까?

감사함, 고마움 그 이외엔 없을까?

그리움, 애뜻함, 만남을 기약, 소중한, 사랑하는, 추억하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울림, 떨림, 순간, 행복한, 보고싶은, 설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또는 대신하는.

때론, 가벼운, 호감을 표시하는 또는 드러내는, 부담스러운, 화답해야할 것 같은, 초조함, 회피하고 싶은, 뜻밖에 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프티콘이 생기면서 우리는 선물을 먼 곳에 있어도

한국이라는 땅안에 있다면 간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전과 다르게 선물은 간편하게 때론 단순하게 전달되기도 한다.

또는 선물은 그 종류도 크기도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도와주는 호의도 선물이고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 또는 기간도 선물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볼 수 있는 기회도 선물이고 뜻하는 학업이, 취직이, 일들이 나를 선택해준 것도 선물이고

길을 헤매는 과정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도
선물이고

누군가한테 받는 선물,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갖고 싶은 물건을 주는
물 : 물질적인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소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느끼고 싶은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다.

현실은 아름답지만 때론 가혹하기에
나에게 스스로만이라도 심심한 위로를 담아
선물을 준다면
이또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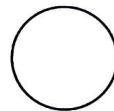
😊 14 💬 10

주재형(청각학과) 오늘도 저는 저에게
꾸준함이라는 선물을 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나은 선물을
찾지 못하겠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라혜민(사회학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마음과 사건도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처음 알았어요.
매일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글쓴이 분께도 오늘 하루가
선물같은 날이기를 바라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우리 주변에 다양한 선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잘 버티자는 자기 위로를 함으로써 작은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나에게 스스로 주는 선물도
중요한거 같아요!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인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보듬어줘야
하는 거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운동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같은 하루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2행시 대단해요...

심지범 (경영학과) 나 자신에게 먼저 선물을
해주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2행시를 이용한 글이라고
하니가 되게 참신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오늘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따스한 햇살 받으며 산책했는데 그게
선물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선물은 그 형태보다도 그 속의 뜻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님은 충분히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많은 지혜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0

wednesday, am 10:02 | 22읽음
최현영(법학과)

#3일차 #선물

어렸을 때는,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하면
답례품을 준비해 와준 친구들에게 또 한 번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를 생각하며 골라준
선물, 나를 위해 시간을 써 줬다는 고마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선물"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존경,친근,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것. 애정이 담긴 것,,
생일 축하만으로도 너무 고맙지만 선물의
크기가 작든 크든 나를 위해 돈을 썼다는 것도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징표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설렘,
감동, 두근거림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한 말들만 떠오르는 것 같다.
어제 생일을 맞이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축하를 많이 받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에게도, 예약 메시지를 걸어나 12시 정각에
축하를 받은 것도, 정각에 전화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해 준 것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의 눈물이 나왔다. 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함께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준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서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응원해 주는 이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많은 이에게 선물
 같은 사람만 넘쳐나기를 바란다.

😊 14 💬 9

김시현(러시아학과) 어제 생일이셨다니 지났지만
 생일축하드립니다!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생일 다음날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받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요! 선물을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생일 축하드려요!!! 우연의
 일치네요 주변에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축복 받은거예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나를 위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영님의 글을
 읽으면서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인복이 많은 현영님이시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생일 축하드려요.
 글만 봐도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앞으로도 주위에
 선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

함예원(미디어스쿨)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어제 생일이셨군요!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감사합니다 작성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학우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학우님이 항상 행복하시고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0

wednesday, am 10:27 | 25일음
 박지원(사회학과)

#3일차 #선물

지난주 어린이날에 동네 집 주변 디저트 카페
 사장님과 얘기를 나눴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우리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린이날을 잘 몰라요'라고 말씀하셨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다니! 아마 아이가
 알아버리면 큰일 난다는 마음이 나에게
 느껴진 건지, 조금 웃음이 났다. 사장님 이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물도 딱히
 없었던 거 같았고 선물 자체에 대해 크게
 기대를 가지는 편은 아닌 거 같았다.
 사실 얼마 전 어린이날 엄마에게 선물을
 받았다. 엄마는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직
 엄마한테는 어린이야'라고 말했다. 조금 철이
 없어 보이겠지만, 나는 행복했다.

이상하게 엄마가 나에게 한 말이 '힘들면
 언제든지 어리광 부려, 엄마한테는 어른처럼
 안 보여도 돼'라고 들었다.

아, 나는 엄마에게는 아직 애구나. 그제 너무
 힘이 됐다.

나는 최고의 어른애날 선물을 받았다.

😊 17 💬 11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고등학생이 되고나서부터
 선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른애날이라니 너무 귀엽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어머니한테는 어린이야 ...!
공감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도 엄마에게는 우리 모두 아직도 아기일 것 같아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너가 어린이도 아닌데 뭘 바라냐고 하셨지만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줬답니다 ㅎㅎ.. 모든 부모님 앞에 자식들은 다 아이인가봐요
심지범 (경영학과) 우리 부모님 눈에는 우리가 50살이 되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갓죠 ㅠㅠ 글 잘 읽고 갑니다!

정예진 (생명과학과) 우리 부모님 눈엔 저희는 언제나 어린이가 맞나봐요 ~ 그런 말들이 참 힘이 된다고 느껴져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어른애날!! 우리는 다 성장했어도 부모님 눈에는 어린 애로 보이는 것 같다는 내용에 찡찡한 단어같습니다 ㅎㅎ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로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다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저도 가족들에게 아직 어린이라는 말을 듣기에 글을 읽으며 공감이 갔어요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어머니 말씀에 든든해졌을 것 같아요 따뜻한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들어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면서 마음 깊이 공감가는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가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화목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05/10

wednesday, am 11:11 | 24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3일차 #선물

난 정말 많은 선물들을 받은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이번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즐거운 일들만 선물처럼 다가왔다. 그중에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동기들이 다 졸업하니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중앙동아리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과 친구, 동기, 선 후배들과 친해졌고, 각각의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친분도 다지게 되었다. 얼마 안가는 일회성 만남이라 생각했던 것이 나의 실수였다. 곧장 친해진 친구들과 후배들은 현재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며 학교생활의 절반을 거의 함께 지내고 있다. 나의 매력이 무엇일까? 복학생이라 별로 이미지가 안좋을 거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을 때론 했었는데 정말 의미없는 생각이었다.

열심히 대외활동과 대회에 자주 나가 노력하다보니 연말에 대회입상과 더불어 대외활동 최고의 팀으로도 선정될 만큼 선물같은 하루들이 이어졌다. 작년의 이 선물 같은 기운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선물같은 하루를 보내려 노력하고 노력해야겠다

😊 15 💬 12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복학생이라 원준님과 같은 걱정을 했었던거죠~ 하지만 사람들과 금방 친해져서 선물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었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앞으로도 선물같은 하루들이 자주 이어지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아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원준님의 하루가 매일이 선물 같길 바랄게요 물론 매일 행복하고 재밌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저는 올해 편입한 편입생인데 학교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글이네요 :) 앞으로도 선물같은 나날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

조은지(철학) 열정과 도전정신이 대단해요! 앞으로도 선물 같은 하루가 계속되길 바랄게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으세요!! 글 잘 읽고 갑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예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학교 생활을 지속하며 만났던 관계를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는 작성자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친구라면 더 친해지고 싶은게 당연하니까요.

앞으로 만들어 가실 더 큰 관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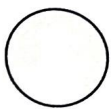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앞으로도 더 선물같은 날들이 많기를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이 글을 읽으니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글 작성자님께서 앞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하루하루가 선물같은 날들 포레스트 검프에서 말한 것처럼 초콜릿상자 같은 행복한 선물만 받으시는 하루를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가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학교생활이 그만큼 의미를 갖고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혜와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학우님처럼 열정을 갖고 학교생활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2023/05/10
wednesday, pm 12:54 | 27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일차 #선물

영화 쿵푸팬더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There is a saying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나는 우리 모두가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과거에 얽매어 있는 사람은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미련을 갖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자 노력한다. 현재의 가치를 통해 미련이나 걱정보단 지금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현재를 즐기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미련이나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자신에게 가치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 그것이 현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 15 💬 11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대학생살을 하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챌린지 또한 행복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늘 과거에 얽매어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선물을 잘 풀어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심지범(경영학과) 항상 의미있는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언젠간 행복해질겁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우리의 행복이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는 문장을 잘 새기며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자 다짐을 하게 되네요 :)

조은지(철학) 쿵푸팬더에서 그 대사 인상 깊게 봤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현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김시현(러시아학과) 평소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를 의미있게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게되는 글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Present가 현재와 선물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글 고마워요~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행복은 현재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글이네요. 순간순간을 선물처럼 의미있게 보내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함예원(미디어스쿨) 미래의 나를 위해 열심히 살며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과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선물같은 현재를 다시 감사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현재라는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를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와 미래 사이의 현재라는 선물을 다시 소중히 인식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0

wednesday, pm 12:57 | 23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3일차

도시로 이사한 청년은 목재인형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꽃같이 유연하고 생명이 깃든 것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손님들로 문전성시했다. 바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자식을 위해 선물을 사가는 부모와 애인을 위해 귀여운 동물인형을 구매하는 젊은 남녀, 모아둔 용돈으로 조그마한 장난감을 사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오직 한 명의 아이만이 남았다. 그 아이는 구석에서 무언가 계속 고민하는 듯했다. 청년이 다가가자 아이가 작은 오리인형을 가리켰다. 가지고 싶지만 노동자 계급의 아이에겐 사치였던 것이다. 청년은 아이와 인형을 데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 아이 대신 인형을 사주며 말했다. 나도 너처럼 갖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주는

어른이 있었다.
이제야 청년은 자신이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어쩐지 반갑고, 노인의 머리카락처럼 새하얗다.

😊 15 💬 8

서원준 (중국학과) 소설 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더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그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꽃같이 유연하고 생명이 깃든 것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깃든 것을 더 이상 만지지 않으려는 그의 감정을 깊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생을 이어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성장의 뜻과도 같아 보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며, 노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걸까요...

심지범 (경영학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선물을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에서 선물을 처음 주는 어른이 되어 성장함을 느꼈다는 주인공이 저에게 투영이 되었어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집중해서 읽게 되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누군가에게 받은 배려와 다정함은 닳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선물같은 마음이 돌고 돌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해주는 글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행이 어린 아이에겐 큰 선물이 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성인이 된 아이가 다시 다른 아이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선행들이 현실에서도 더욱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충민님 덕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2023/05/10
wednesday, pm 1:47 | 33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3일차 #선물 #贈物

선물이라고 하면 참 사람을 기분 좋게하는거 같다.

선물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대방이 나를 위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게 2일차 해시태그에 나온 꽃과 똑같은거 같다.

나를위해 나만을 위해 준비 하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선물이라고 하면 멜로망스의 선물 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이 글을 읽고 한 번 들어 보시면 좋을꺼 같네요!

살아가면서 내가 선물이라는 것을 많이 받아봤나? 하는 생각들로 잠시 잠겨있었는데 언뜻 카카오톡 선물 하기를 들어가 봤는데 웬일인가 내가 준 선물이 더 많았지만 받았던 선물도 많았다. 우리 인간은 해준것만 생각나지 받은걸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스승의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등 여러 선물들이 오고가고 통장이 텅장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여 선물도 좋지만, 우리의 아픈역사인 1980.0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역사적인 인물들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하다.

끝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해주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대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19 💬 13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만 생각했는데 이제 지범님

덕분에 광주민주화 운동도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범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정예진 (생명과학과) 저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보니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들을 다시 보고 기분이 좋아졌네요 :)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도 잊지 못할거 같네요 .

강민지 (사회학과) 글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좋았어요 :)

이정민(스마트IoT) 5월은 가정의달이라며, 가정만 생각하였는데 가정을 넘어서까지 생각하지 못하였군요.. 더 넓은 시야가 생길 수 있도록 한 글이었습시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까야 저도 멜로망스의 선물 노래 되게 좋아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멜로망스의 선물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글에서 보니 반갑네요:)

5월에 여러 기념일들이 많아 돈 쓸데는 많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지는 달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좋은 기억도 좋지만 기억해야 할 일들도 같이 기억하면 두 배로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저도 선물하기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내가 받은 선물이 많아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많이 고민해서 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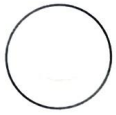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이 글을 읽고 카톡 들어가봤는데 꽤 많이 받았어서 놀랐습시다 항상 찢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세빈(미래융합스쿨) 5월은 참 좋은 달인 동시에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선물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우님 말씀처럼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기회들을 선물로 생각하고 학우님처럼 긍정적 자세를 갖는다면 의미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의미에 대한 환기까지 많은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다인(법학)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멜로망스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2023/05/10

wednesday, pm 2:17 | 25월음
강민지 (사회학과)

#3일차 #선물

「나는 고양이를 가지고 싶어」 입김이 나는 한겨울에 울려 퍼진 채나의 소원이었다. 눈을 질끈 감으며 손을 꼬옥 모으고 있는 모습에 난감해진 건 다름 아닌 채나의 엄마, 미영이었다. 「채나야 그런 소원은 빌면 안 되지」 미영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에---아빠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말이야!!!」

이에 미영은 맥이 풀리면서 아릿한 눈빛으로 채나를 바라보았다. 당연했다. 채나의 아빠는 타지에서 사고로 작년에 죽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나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고양이랑 같이 돌아오겠다고 했던 말이야. 아빠는 하늘에서 분명 내 소원을 들었을 거야. 사실 아빠가 오면 좋겠지만.....그건....」 끝까지 말을 잊지 못하는 채나가 안쓰러워 이만 들어가자고 한 미영이었다. 미영은 집에 들어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중얼거렸다. 「고양이.....고양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는 이가 있었으니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행복을 비는 꼬마 신, 일홍이었다. 「안쓰러운 것.....찾아갈 때가 되었구나...금방 가마...」 순식간에 일홍은 잠든 채나의 머리맡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윽고 고민을 했다 「흠....영혼이 깃든 건 줄 수 없는데 어찌나.....아...!!」 불현듯 벌떡 일어나 뭐라 중얼거리더니 고양이 인형을 만들어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둔 후, 잠든 채나의 머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진 뒤 하늘로 갔다. 다음날 채나는 인형을 보고 「아빠가 다녀갔어!!!! 비록 인형이지만 기뻐!!」 라며 미영에게 달려갔다. 미영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저 웃어주었다.

한 달 뒤, 채나 아빠의 1주기가 되었다. 채나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미영은 참아냈다. 채나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고 꺽꺽 거리며 말했다. 「아빠 미워... 한 번도 꿈에 나타나 주지도 않고....내가 안 보고 싶나 봐...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장 아낀다고 했는데....미워...」 끝까지 입을 다물다 지쳐 잠든 채나를 보고 미영은 가슴이 찢어질거 같았다. 「여보....오늘은 내 꿈에 오지말고, 채나에게 가줘..당신을 너무나도 보고싶어해..」 안방으로 가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트리는 미영이었다.

일홍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찾아갔다. 이내 잠든 채나의 손을 꼭 잡고 꿈에 관한 주문을 뭐라 중얼거렸다. 「아가야....아빠는 너를, 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세상 그 무엇보다 말이야. 아빠에게 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렴...」 그러곤 또다른 주문을 외워 책상에 무언갈 올려놓고 홀연히 떠났다.

다음날, 채나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깨어났다. 그리고 곧장 미영에게 달려가 말했다. 「엄마-!!! 꿈에 아빠가 나왔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나보고 씩씩하게 자라달래!」 미영은 흐뭇하게 웃으며 채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남편에게 감사를 전했다. 채나는 방으로 다시 돌아와 책상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걸 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뭐지.....? 아빠가 두고 갔나...?음...」 고민에 빠졌는데 얼마 안가 「아!!! 아빠도 참....」 이러며 물건을 들고 행복함에 빠져 빙그르르 돌았다.

* 이 물건은 거울입니다. 채나 아빠에게 있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가족이기에 채나가 아빠의 마음을 느끼고 싶을 땐 언제나 거울을 들고 「아! 아빠가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존재는 나랑 엄마지!」 라고 생각하길 바라며

일홍은 거울을 선물로 놓고 온 것 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궁금합니다

😊 13 💬 8

심지범 (경영학과) ♪ 아이가 행복하면 그만인거
같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린 일홍이 채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홍이 과연 채나의
책상에 놓은 물건이 무엇이었을지 추리하면서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감동적인 글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이정민(스마트IoT)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단편소설을 본 듯한 기분이네요! 스크롤이 많이
내려가 거울이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
거울을 알고 보긴 하였지만 그 다음으로 생각이 난
물건은 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창의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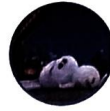
주재형(정각학과) 어제의 키워드가 꽃이라
그런걸까요? 일홍이 두고 간 물건을 빨간 장미라고
생각했어요 거울이라니 나 자신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함예원(미디어스쿨) 꼭 빠져서 읽게 되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아빠의 유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일홍이라는 이름이 적힌 아빠의 물건.
채나는 그 물건을 보고 처음보는 낯선 것이었기에
고민에 빠졌지만 아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아빠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민지님
덕분에 슬프면서도 따뜻한 짧은 소설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읽는 동안
미소를 짓게 하는 글입니다 글에서 창의적이면서
포용적이고 따뜻한 학우님의 시각을 느낄 수
있었던 같습니다 좋은 영감과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0
wednesday, pm 2:21 | 21월음
김시현(러시아학과)

#3일차 #선물

'선물' 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좋아했던
드라마의 어느 장면들이 떠올랐다.

궁녀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여인이 있었다.

'설령 사소한거라도 좋아, 선택이란 걸 하며
살고 싶어'

그런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궁궐
안에서 소박한 꿈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했다.

'하늘의 명이 내게 내려와 장차 나 한 사람이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오'
사랑보다 나라가 먼저였던, 제왕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을 가진 왕세손이 있었다.

정반대의 인생을 걷던 그들은 어릴 적 우연히
만나 끊임없는 스파크를 튀기다 서로의
운명이 되었다.

동궁과 생각시에서 왕과 후궁의 관계로...

왕은 후궁의 사후 몇년이 지나고, 그녀의
유품함을 발견한다. 그녀의 유품함에는
자신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겨있었다.

아담한 크기의 궁녀복

어린시절 벌을 내린다면 써오라던 수많은
반성문들

차마 전하지 못한 귀주머니 등등..

왕은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들을 그리워하며
오열했다.

그렇게 결국 성군이 된 후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사후에 만난 그들은 왕과 후궁이라는 무거운
신분에서 벗어나 필부가 되었다.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

이 드라마를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억들의 순간 하나하나가 선물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순간들 속 가진 물건과 상황들은 평생 잊지 못한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기억이 되기에 . 자신이 가진 추억은 누구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이다. 지금 내가 살고있는 이 순간도 훗날 나에게 아름다웠던 선물이 될 수 있다.

😊 16 💬 10

강민지 (사회학과) 맞아요! 누군가에게 영원한 기억이 되니까요 :)

조은지(철학) 좋아하는 드라마가 ‘옷소매 붉은 끝동’인가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 이 문구가 울림이 있네요. 이 챌린지도 훗날에 시현님께 선물과 같은 추억이 되길 바라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조은지(철학) 옷소매붉은끝동 맞아요!!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지님도 이 챌린지가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 ♪ 아주 설레게 하는 말이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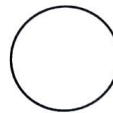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훗날 아름다운 선물처럼 느껴지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재형(청각학과) 필수필녀라는 단어를 처음 봐서 사전에 검색해보고 그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좋은 뜻의 단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함예원(미디어스쿨) 마지막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제목만 여러번 들은 적이 있고, 아직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작성자분께서 작성해주신 문장이 굉장한 울림을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좋은 작품을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옷소매 붉은 끝동이군요! 책으로도 읽었는데 또다른 울림과 여운이 남더라구요 한 번 읽어보는거 추천드려요:)



2023/05/10

wednesday, pm 2:52 | 21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3일차#라이팅챌린지

선물은 단어의 의미와 역할 자체가 긍정적이다. 물론 실제 주고 받는 사람들의 관계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단어 자체가 주는 좋은 느낌이 있다. 누군가의 생일이나 좋은날, 슬픈날 등 축하나 위로를 상대방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고 전달하고 받고나서 보이는 우호적인 반응까지의 과정이 받는 사람만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우호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서로에게 기쁜 일이다. 그렇지만 선물과 다른 기대를 함께 전달한다면 모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선물이 가진 긍정적 의미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급함, 의무감에 선물을 준다면 실제 목적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더라도 편하게 받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편리한 배달앱 서비스등 선물을 고르고 전달하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는 행위의 결정은 내가 한다. 카카오톡 알림으로 뜨는 생일로 생일을 알게 되고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평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직접 만나서, 바쁘면 편지라도 함께 전해서 나의 진실한 마음도 함께 전하고 싶다. 내가 주기만 하고 정작 내 생일날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선물한 것이 아깝지 않은, 서운하게 생각되지 않는 관계의 사람에게 최선의 다해 선물을 고르고 전달하고 싶다.

😊 13 💬 7

심지범 (경영학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욱 더 생각나게 하는 글이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내게 더 중요한 사람의 선물은 더 고민해서 주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선물과 다른 기대를 함께 전달하면 마냥 기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선물을 주면서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면 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선물을 주는 쪽에서 실망을 해버리기 마련이니까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는 선물을 할 때 쥐도 아깝지 않은 정도! 가 적정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적절한 값을 매기는 건 어렵지만, 마음적으로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거야 이정도의 마음으로요.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선물을 받으면 다시 그만큼을 해줘야한다는 강박에 갇혔었는데 다시 한번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공감 많이 가는 글이었어요. 저도 받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누군가 선물을 주면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선물을 주는 건지 아님 은혜를 갚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유정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저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0
wednesday, pm 4:19 | 29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3일차 #선물

너와 마주 앉았다.
 빛깔이 아름다운 술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

아득한 분위기와 함께
 넌 나에게 선물들을 보냈다.

형체가 보이지 않는 선물을 보며
 풀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

그런 고민을 넌 안다는 듯
 살며시 웃어 보였다.

선물을 연 그 순간,
 너와 함께 그 안에 있던 모든 게 사라졌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남은 것은 나뿐이었다.
 아, 모든 건 착각과 환상이었구나.

선물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했다.
 선물처럼 꾸며 그것을 건넨 너를 원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 17 💬 8

김경희(국어국문학과) 선물하면 보통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도 표현할수있겠네요! 창의성이 돋보이는 글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선물 개봉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후회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시예요. 잘 읽었습니다~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감정에 대한 시상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정을 연 순간 사라져버릴 그라면, 애초부터 그 선물은 받지 않는 편이 나았을까요. 좋은 시를 읽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선물이라는 소재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에게 품은 마음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진님의 글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심정들을 선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풀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물은 기대가 고조되었다가 지극한 기쁨을 맞기도 하지만 실망을 얻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망은 주로 사람에게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판도라의 상자가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읽다보니 어떤 상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절대 열어서는 안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 열어보는 판도라 상자를 표현한 시를 표현한 느낌도 드네요. 처음엔 따뜻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환상으로 끝나면서 허무함만 남게 되는 반전의 시라고도 생각되네요. 시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사랑뒤엔 한명만 남게 되죠..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감정에 대해 자세하게 공감이 되네요



2023/05/10
wednesday, pm 4:25 | 27읽음
이유빈(사회학과)

#3일차 #선물

여러분들은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시나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항상 주변에서 생일 전에 가지고 싶은 것을 물어본다면 없다고 해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치만 나도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친한 사람의 생일 2달 전부터 생일 선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주면 곤란해 하면서 좋아하신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선물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선물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선물을 해 줄 때에는 손편지도 잊지 않고 써준다. 요즘은 스마트폰 SNS 사용으로 손편지 쓰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선물을 줄 때 거의 써줄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뭔가 손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벚꽃이 만개한 봄날 돛자리를 깔고 누워 벚꽃비를 맞는 기분이지 않는가! 선물과 같이 주는 편지로 인해 그 선물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소소한 선물과 함께 짧은 손편지라도 좋아하는 그(또는 그들)에게 전달해준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상대도 나도 오늘 하루는 설레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이들에게 소소한 선물과 함께 따스한 말 한마디를 전할 예정이다.

😊 15 💬 10

주재형(청각학과)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무엇이 좋으냐 물으시니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네요. 선물해주기를 좋아하시는 유빈님은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생일에 저도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선물도 좋았지만 같이 받은 편지도 정성이 들어간거여서 소중한거 같아요.)

짧은 손편지를 써서 소소한 선물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유빈님의 선물과 따스한 말을 전달받은 분들은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겠네요
박소연(생명과학과) 저는 손편지는 오글거리는 편이었는데 지난번에 진심을 다해 쓴 적이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카톡에 비해 손편지가 정확히 감정이 더 깊게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글에 적힌 비유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손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벚꽃이 만개한 봄날 돛자리를 깔고 누워 벚꽃비를 맞는 것과 같다"고 쓰신 부분이 정말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선물은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득 무척 바빠져서 봄 나들이를 갈 틈도 없었던 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벚꽃비를 맞는 것 같은 선물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빈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온기를 전할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손편지를 쓰는 것은 조금 더 예쁘고 멋진말을 쓰기위해 고심하게 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받는것보다 주는것을 더 좋아해요!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상상하면 설레더라고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요즘 저도 손편지 대신 문자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손편지를 받았을 때가 뭔가 더 설레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유빈님의 글을 읽고 나서 나에게 선물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오랜만에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따스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법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소소한 선물이라도, 온 마음 다해 상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모습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아마 오늘 유빈님의 마음을 받게 될 이들은, 유빈님 덕분에 충만한 하루를 보낼 듯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서원준 (중국학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편지 한번씩 써봐야겠어요 ㅎㅎ



2023/05/10
wednesday, pm 4:26 | 26일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3일차 #선물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살아 남고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는 그 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도대체 그 운명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지?'

믿는 신은 없지만,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인간의 운명을 정해주는 걸로 혼자 답을 내렸다.

살아가다가 아찔한 순간들이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것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균형을 잡았던 적이나, 차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해서 놀랐던 순간들 말이다. 그럴 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순간 운명에서 살아남았던 것 아닐까?

그리곤 다시 생각했다. 그 운명을 이름 모를 신이 정해준 거라면, 우리의 삶도 이름 모를 신이 준 선물인 것 아닐까?라고. 그래서 나에게 내일은 선물이 되었다. 매일 눈 뜨는 게 나에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축복일 것이다. 우리가 내일이란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아찔한 운명 속에서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내일은 열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 가끔 내용이 궁금해지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 같은 존재이다. 때로는 내일이라는 선물이 실망스러운 날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좋은 선물을 받은 날 그 기쁨을 배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울적할 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일이 기다려지면서 꼭 선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선물같이 느껴지는 나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16 💬 12

주재형(청각학과) 존재의 의문에 고찰한 글이네요. 저도 제 삶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민님도 선물같이 느껴지는
하루들이 많아지길 바랄게요!

김시현(러시아학과) 과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위급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살아났던게 어쩌면
저에게 내일이라는 큰 선물이 왔었던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박소연(생명과학과)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니 내일도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고의 전환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덕분에 내일의 하루를

기대해보게 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세빈(미래융합스쿨) 내일이 선물같은 존재라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진욱(사회학과) 오늘만 생각했지 내일을
기대하고 그런적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을 선물같이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챌린지에 참여한 여러 분들에
글에서 감사와 삶에 대한 긍정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민님의 글에도 그러한
삶에 대한 긍정과 낙관,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저도
용기와 힘을 많이 받아 갑니다. 글을 통해서 너무
진부한 말이지 않나 싶었던 말을 다시금 새로이
되새기고 의미를 살려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수민님이 쓰신 이 글이 참 좋고 반갑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항상 내일이 있는 삶을
생각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이글을 읽고 현재는 풀어본
선물이지만, 다가올 미래는 아직 풀어보지 않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하루하루 살아있는것도
선물이예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삶은
생(Birth)와 사(Death) 사이에 선택(Choice)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록 삶과 죽음의 시점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주어지지만, 그 제한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 의미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삶은 진정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통찰이 담긴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선물 같은 날들이 항상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2023/05/10

wednesday, pm 4:30 | 28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3일차 #선물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곡의 가사
일부분이야.

세상의 작은 것들이 '너'로인해 크게 보이고,
평범했던 내 일상이 특별해 졌어.

선물이라는게 물질적인 선물도 있겠지만,

'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선물이야. 대학에 와서 처음 만났지만 10년

친구처럼 잘 맞는 우리가 난 너무 신기할

따름이야. 나도 너에게 '선물'같은 존재의

친구가 되게끔 노력할게.

대학와서 사귀 정말 소중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형식으로 써 보았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각자 '너'라는 부분에 생각나는 사람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19



11

강민지(사회학과) 애뜻해지는 글이네요 :) 잘
읽었습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준 글이네요 :) 반대로 누군가 '너'를
떠올릴 때 저를 떠올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

김시현(러시아학과) 너라는 친구의 존재가
글쓴이님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우정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멜로망스의 선물을 일주일 전 한
교외프로젝트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더
보게 되네요. 동금님과 친구의 오랜 우정을
응원해요~!

김한나(경영학과)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이 부분이 와닿아요! 선물이란 노래로 대학친구에게 편지형식으로 전하는 글도 새롭네요! 제게 선물 같은 사람을 떠올려 봤는데 오늘 평범했던 제 일상도 특별해지는거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이런 소중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만큼 가깝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니 동금님의 우정이 부럽습니다. 친구분이 어떤 분인지 글을 읽으면서 저도 상상해보게 되고, 분명 좋은 분이실 것 같아 동금님의 우정을 더욱 응원하고 싶네요. 친구분과의 소중한 우정 오래 지속해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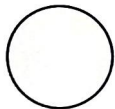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항상 같이 있어서 즐거운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존재자체가 선물이라니 정말 아끼는 친구이신가 봐요 잘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동금님에게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글 잘읽고갑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그 친구분이 이 글을 꼭 보셨으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서원준(중국학과) 사랑스러운 글이네요 정말 잘 읽고 갑니당



2023/05/10

wednesday, pm 5:05 | 29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벌써 10년인가.

그러게.

아빠, 안 오겠지.

응.

19살밖에 안 먹은 애가 벌써 세상을 다 산 눈이다. 아직 학생인 녀석이. 기운 좀 내라며 가볍게 장난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나조차 기운이 나질 않았다. 어젯밤도 야근. 급한 연락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밀려 내가 만든 약속에 내가 못 나올 뻔했으니 말 다 했다. 지각생도 끈기 있게 기다려 준 녀석을 탓할 순 없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동생이었다. 늘 상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으나, 우리의 세상엔 여유가 없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동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1년마다 하나씩 오던 영상 편지. 올해로 꼬박

10개였다. 마지막이 주는 무게는 꽤

무거웠다. 이 무게는 아쉬움의 크기인가.

나는 묵묵히 화면을 재생시켰다.

"오늘은 A-82 행성을 조사해. 이곳에 어떤 유기체가 있으리라 기대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인류의 정착지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지. 후보군이 많이 없어서 팀원들이 조급해하고 있어. 나도 느긋하게 마음먹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 벌써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을까 봐 두렵거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영상 속의 사람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지쳐있는 걸까. 하지만 흐린 화면 속에서도 그

사람의 눈만큼은 밝아 보였다. 그건 확실한

목표가 있는 눈. 나와는 다른 눈이었다.

"조종사가 곧 우주선을 착륙시킬 거야. 부디 이번에는 괜찮은 행성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희를 볼 날이 가까워질 테니까. 보고

싶어, 우리 공주님들. 이런 엄마라서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언젠가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단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할게."

까만 화면이 우리를 비쳤다. 끝난 걸까.

동생이 물었다.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허무함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엄마와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5년을 희망 속에, 5년을 절망

속에 살았던 나는 무엇을 보답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 감정을 앞에 있는 동생에게 보여줄

순 없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분명 영향을

받을 테니.

이게 끝이야. 나는 담담한 척 말을 이어갔다.

내뺨은 말과는 다른 손길로 화면을 멈추려는 순간, 영상이 바뀌었고. 흔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헉, 헉. 가쁜 숨소리. 어딘갈 다치기라도 한 걸까? 숨 쉬고 있는 산소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둘 다? 뇌리를 울리는 경고음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 소리에 나는 화면 속 사람처럼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얇은 창을 앞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나는 여기서 아마 끝이겠지. 곁을 떠났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니, 후회하진 않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직접 생일 축하를 못해주는게... 생일 축하해, 내 아이들아. 태어난 날마저 같은 너희가, 나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나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다라는 사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중요했던건... 너희라 이 우주에 나온 거란다. 그래서 미안해. 생일 선물이 이거라서."

"다음 행성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일 거야."

영상은 그곳에서 끊겼다. 나와 동생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마주쳤다. 이곳은 엄마가 남겨두고 간 마지막 선물. 엄마가 없었다면, 마지막까지 지구에 남겨졌을 우리를 위해...

엄마가 필요해. 나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해. 어디에도 닿지 않을 마음이 전파처럼 우주에 퍼졌다.

오늘의 키워드인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먼저 이 내용을 접했는데, 이야기 속 '마지막 선물'의 의미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영화도 책도 정말 좋으니 한 번 추천해 봅니다. 정작 오늘 쓴

소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요.

선물의 의미란 각자에게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받고 싶은 건 받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3일차 #선물

😊 16 💬 8

주재형(청각학과)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역설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설을 흥미롭게 써주셨네요. 글 잘 읽었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마지막까지 지구에 남겨졌을 자식을 위해 엄마가 준비한 선물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지만 결국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게 슬프게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오며 살았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들고... 여러생각이 드는 묘한느낌의 단편소설이라 매력적이네요!! 너무 잘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문단으로 인해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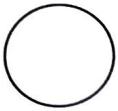
이유안(러시아학과) 예진님은 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 전공중이셔서인지 콘텐츠로서의 이야기를 잘 써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늘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전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SF소설들도 점점 다른 매체들과도 협업이 많아지고 파급력도 더 생긴 것 같은데 예진님의 글도 이번 챌린지가 더욱 발전되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남은 자녀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그저 어머니라는 엇갈린 상황적 설정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 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 좋아하는데 최근에 다시 봤는데 전과 달리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우리의 미래는 더 큰 선물이 도착할거예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민재 (경제학과) 어렸을 때 부분적으로 봤던
영화인데 이번에 책도 읽어봐야겠네요
추천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책 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쉬는 날에 한번 찾아 읽어봐여겠어요



2023/05/10

wednesday, pm 6:58 | 41읽음
박진욱(사회학과)

#3일차 #선물

선물하면 떠오르는 날이 생일이다.
이건 생일선물에 관한 소중한 특별한
기억이다.
내가 건넨 선물과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너,
그런 너를 보는게 내 선물이었다.

생일에 뭐하고 싶어? 받고 싶은 선물은
있어?하는 물음에
생일을 잘 챙겨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생일은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매일 오는 하루와도 같았고 단지
축하인사가 몇개 오는 정도로
생일에 될 한 기억도 없고 잘 챙겨보지 않아서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에게 생일이란 축하받고 일년에 한번뿐인
아주 큰(Big) 이벤트인데.. 케이크와 함께
소원도 빌고 촛불도 끄며
선물까지 받는 세상 제일 특별한 날이다.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생일을 그냥저냥 보냈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이번 생일을 평생동안 기억할 수 있게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한달전부터 선물을 고민했다. 뭘
받으면 좋아할까?

어떤걸 선물해야 내 마음이 잘 전해질까?
수백번은 고민하고
바뀌가며 선물을 고르고 또 골랐다.
삐뚤삐뚤하지만 마음을 꼭꼭
눌러담아 편지도 적었다. 케이크에 함께 꽃을
예쁜 초도 준비했고,
파티용 풍선도 하나씩 붙어나갔다. 좋은
노래를 선곡하고
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에 맞춰서
조명도 세팅하고 촛불도 켜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너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부족한 것 같은데 행복할까? 뭘 더
했어야 되는데하는 생각들로 너무 떨렸다.

문을 열고 내사랑이 들어왔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건 눈치챌겠지만 이런건
줄 몰랐는지 놀란 것 같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라고 했다.
어리벙벙하면서도 하라는대로 소원도 빌고
초도 켜다.
언제 준비했냐는 너의 궁금에 대답도 하지
못한채
고르고 골라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너의 손에
꼭 맞는 반지였다.
반짝이는 반지가, 내 손에도 있다는게
벅찼다.
반지를 선물하는게 처음이라, 누구보다
생일을 잘 챙겨주고 싶은
욕심에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이렇게까지
눈물을 쏟는 너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너의 생일 축하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행복해서 눈물 흘리고
고마워하는 너를 보는게 내가 받은 제일 큰
선물이다.

너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길어진다.
늘어나는 글만큼 난 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내 선물같은 너,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 15 💬 13

강지수(사회학과) 고마워 하는 너를 보는 게 내가 받은 제일 큰 선물이다. 이 부분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네요.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진한 농도의 감정이 밀려오는 기분 말이에요. 예쁜 반지를 보여 저도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사랑하는 분과 앞으로 더 많은 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글 감사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긴 호흡으로 선물과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 대해 적어주셨네요. 짧고 간결한 글도 좋지만 필요한 내용을 차분하게 길게 적은 글도 절절한 마음을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함께 벅차는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예쁜 사랑하고 계시고 예쁜

사랑을 사랑하는 분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글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예쁜 사랑 하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예쁜 사랑을 응원하게 되는 글이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와,, 진짜 요 글 보여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주고 받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이유림(경영학과) 어떤 특별한 선물보다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예쁜 사랑 응원합니다~

유지연(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소중한 마음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글을 읽으면서 괜히 마음이 몽글해지네요. 진옥님의 그 심정이 백프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생일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보니 애인 분이 정말 좋으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두 분이 너무 예쁘게 사랑하시는 커플인 것 같아 저도 언젠가 그런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다들 응원해주신 덕분에 듬뿍 사랑받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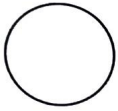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진짜 예쁜 사랑하시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다빈(경영학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한 사랑 이어나가셨음 좋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것 보다 즐거우면서 고민되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예쁜 사랑 하시기를 바라요!

김경희(국어국문학과) 글도 예쁘고 이야기도 너무 예뻐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예쁘고 멋진 사랑 응원합니다



2023/05/10
 wednesday, pm 8:10 | 21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3일차 #선물

...
 ‘선물’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로도 무언가 설렌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손편지이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했을 그 소중한
 시간과 그 예쁜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할지 고민하고, 손편지에는 글씨도
 신경쓰며 최대한 정성을 담는다.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 한 칸도 존재하는
 것 같다.

나의 시간과 정성, 진심을 가득히 담아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의
 상대방의 반응에 깊게 집중하게 된다.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다.

값비싼 선물보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중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저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선물은 무엇인가요? 혹은 받았던
 선물은 무엇인가요?

😊 13 💬 8

유지연(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저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손편지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상자에 모아 보관하고 있어요!
 몽글몽글한 마음이 드는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생일에 받았던 아빠의
 손편지가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아빠
 글씨체가 참 멋진데 가득 차있는 종이가 참
 좋더라구요

이다빈(경영학과) 나를 생각해서 챙겨준 선물도
 좋지만, 글자 한 자로 감정을 가득 실은 종이 한장이
 오는 존재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심지범(경영학과) 저는 손편지 쓰는걸
 좋아하는데요! 내가 정성스럽게 써서 상대방의
 행동을 기대되고 기다리게 되는 생각으로 쓰는거
 같아 더 좋은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친구에게 베스킨라빈스
 패밀리를 준 기억이 있어요! 민트초콜을 넣는
 바람에 조금 행복하지 않은 친구의 얼굴은 기대
 밖이었지만요!

이세빈(미래융합스쿨) 저도 손편지 받는 것, 쓰는
 것 모두 좋아해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써내려가는

손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손편지를 안 쓰게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편지대신 문자나
 전화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보민님의 글을 읽고 나니 편지 속에
 담겨있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정성
 때문에 손편지가 더 가치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는 인연이라는 선물을 받은
 게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2023/05/10
 wednesday, pm 8:24 | 21읽음
 김유진

#3일차

선물, 듣기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이다. 선물을 조금더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면 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나였다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 내가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바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일기 프로젝트이다. 내가 감사일기를 신청하게된 계기는 학교에 입학해서 시간에 남아돌때 한림대 공지사항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감사일기 멘티를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발견했고 입학해서 뭐하도 해보자 싶었던 나는 곧바로 감사운동 멘티를 신청했다. 처음에 감사운동 시작했을때는 매일매일 써야하는 귀찮음이 굉장히 컸다. 하지만 일단 신청했으니 해보자 해서 강의 쉬는시간, 공강시간, 짬짬이 시간 날 때 꼼지락 거리면서 작성하였다. 그렇게 시작하니 감사운동 측에서 권유하는 독후감도 매달 쓰게 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공모전도 지원하게 되는 선순환을 몸소 느끼게 됐다.

😊 12 💬 7

이유림(경영학과) 매일 참여해야 하는 활동은 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보면 참 의미있는 것 같아요 이 챌린지도 그렇구요!

이다빈(경영학과) 어떤 목적이든, 계기로든 모든 것은 선물로써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아~~

심지범(경영학과) 저도 감사일기를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요 먼 훗날 나에게 돌아올 복을 위해 우리 끈기 있게 써보아요! 글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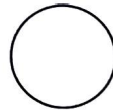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적응이 한번 되고 나면 오히려 안할 때가 더 어색한 느낌이라랄까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매일 참여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처음의 어려움을 갖지만 계속 하고 적응 하다보면 더 재미를 찾으며 거기에서도 행복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좋은 글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감사일기에 참여하려다 매일 써야한다는 게 걱정되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라이팅 챌린지를 참여할 거였으면 그것도 신청해볼 걸 후회되네요 ㅎㅎ 그래서인지 유진님의 그 선택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꼭 다음에 감사일기하는 것에 참여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감사운동 하고 있는데 매일 힘들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같이 돕고 노력해요!



2023/05/10
 wednesday, pm 8:46 | 29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3일차 #선물

13살 무렵. 엄마가 혼자인 나를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지인으로부터 입양해 왔다. 하얀 포메라니안이었다. 이름은 ‘강이’, 나이는 2살. 동물을 워낙 좋아했던 나이에 일주일 전부터 설레서 잠을 못 잤다. 드디어 강이를 만나러 가는 날. 난 솔직히 좀 실망했다. 내가 상상한 모습과 달리 어딘가 우울한 표정에 털도 아무렇게나 잘라 들성들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린 마음에 그냥 귀여운 강아지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하필 이런 강아지를 데리고 오다니...’하는 못된 생각도 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강이는 온갖 사고를 쳤고 엄마한테 혼내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강이를 외면하곤 했다, 혼나던지 말던지. 강아지를

입양한 주인 혹은 가족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내게 강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엄마에게 혼나서 울 때면 강이는 조용히 자기 엉덩이를 내 옆구리에 갖다 붙였다.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위로해주었다. 내가 강이에게 무관심했던 거와 달리 강이는 나를 끝없이 사랑해줬다. 나는 그런 강이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고 힘든 학창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강이는 어느덧 노견이 됐다. 요즘은 잘 서 있지도 못한다. 하지만 강이는 항상 나를 잊없이 사랑해준다. 이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는 요즘. 강이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15 💬 10

심지범 (경영학과) 아고 진짜 없으면 안될 친구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박소연 (생명과학과) 강이 너무 귀여운데요. 집에 가면 기다려주느누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강이 정말 넘넘넘넘 귀엽네요! 이럴 때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넘 귀여워요. 가족이라는게 정말 참 멋진 선물이네요!!
이세빈(미래융합스쿨) 강이를 보니 초등학생 때부터 고3까지 함께였던 우리 강아지가 생각나요. 우리 강아지도 아빠가 사주신 선물이었죠. 돌이켜 보니 강아지와 함께한 시간 모두 선물같은 날들이었더라구요! 강이와 예쁜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재형(청각학과) 포메라니안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강이야~ 오래 오래 살아야 한다~
이유림(경영학과) 조건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게 반려견들의 사랑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브님 곁에 있으면 좋겠네요 귀여운 강이 사진과 글 잘 봤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강아지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조건없는 사랑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인것 같네요 좋은 글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김소은(미디어스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네요. 강아지가 참 귀여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부럽네요 !!!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ㅎㅎ 오래오래 좋은 추억 쌓으며 행복하게 살길 빌겠습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강아지 사진 보자마자 숨땀 ...



2023/05/10
 wednesday, pm 9:25 | 18views
 조인영 심리학과

#3일차 #선물

선물하는 물건의 가격은 그것이 지닌 가치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상대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물건에 모든 내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과 어버이날에 비싼 물건들을
해드리는 것보다,
평소 전화로라도 안부인사를 드리는 것.
부모님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것.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평소 멀리 떨어져 지내는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가끔이라도 연락하며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것.

연인과의 기념일을 성대하게 차리는 것보다,
그에게 평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의지가 되어주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동은 잠시지만,
실재하지 않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임팩트는
더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ps. 여러분들께 선물같은 글을 쓰고 싶어서
아침에 주제를 본 순간부터 쪽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양질의 글을 쓰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 13 💬 10

강민지 (사회학과) 맞아요! 정신적인 것에 대한 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충분히 선물 같은 글입니다

박소연(생명과학과) 맞아요. 때론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때보다 힘이 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이세빈(미래융합스쿨) 공감합니다! 큰 선물보다
다정한 말 한 마디가 더 기억에 오래 남는법 같아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남은 오늘하루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재형(청각학과) 임팩트가 오래간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잔상이 깊게 남죠 확실히! 선물같은

글을 쓰고 싶었다면 성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부모님에게 전화 한통이 힘이
될 수 있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인영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값진 글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값진 글 나누어요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말 한마디의 힘이 정말
무섭고 어쩔때는 정말 감명깊게 나 자신한테 오는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말한마디의 고마움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김용후(법학과) 양질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물질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진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연락 또한 중요하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당

함예원(미디어스쿨) 선물 같은 글이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05/10

wednesday, pm 10:43 | 18읽음

주재형(청각학과)

#3일차 #미션인증

<https://band.us/band/91073213/post/232>



#3일차 #선물 2021년에 저는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로부터 정말
멋진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3일차 밴드인증 카테고리에 글을 적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댓글 써주신 분은 다시
안써주셔도 돼요!

😊 5 💬 2

심지범 (경영학과) 글 잘보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다시한번 읽고 송
갑니다 화이팅!



2023/05/10

wednesday, pm 10:56 | 16읽음
김용후(법학과)

#3일차
#선물

상대방을 떠올리며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즐거운 과정일 것이다. 이처럼 선물은 주고받는 이들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매개가 된다. 우리는 선물에서 상대방이 갖는 애정과 관심, 감사와 존경, 존중과 신뢰를 느낄 수가 있다. 만일 상대방이 당신의 인생에 정말로 의미 있는 날에 돈으로 선물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는가, 아니면 약간의 아쉬움 또는 실망감이겠는가. 이는 마이클 샌델이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 경제적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현금은 최고로 효율적인 수단이 되겠지만, 우리가 선물을 통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 최적화가 아닌 상대방이 당신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관련하여 생각해 볼 사건이 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한 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물건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당해 사건은 사실상 내연관계에 기한 선물과 다르게 볼

사정이 없어 청탁과 수수한 물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대법 2013도363판결). 당시의 법률로는 결론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16년에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 등이 공공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받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 조치에 취하고 및 수취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갖는 의의는 그것이 경제적 대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지위 내지 권한 자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수수는 공정성의 증대를 위하여 예방적으로 제한된다는 데에 있다. 과거에는 관행 또는 편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청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부패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이 제정된 후 7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형태의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적 제재만으로는 청렴 사회의 완전한 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사후적 대처보다도 문제의 예방이 중요하며, 단순한 법의 집행보다도 법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중요하다. 우리는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최고의 선물은 상점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라는 사라 데센의 말에서, 진정한 선물은 감사의 마음이 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선물의 본질에 대한 이해, 사회적 신뢰의 제고, 사회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익을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투명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건전한 존속을 위하여 투명성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 안에서 비로소 정의와 번영을 논할 수 있다.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선물의 본질적 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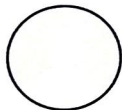
😊 8 💬 4

주재형(청각학과)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선물의 정도가 제한되어버리니 일상생활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이거 받으면 김영란법으로 잡혀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픈 이야기예요. 깨끗한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요!

심지범 (경영학과)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법이 생긴 후로 오히려 선물의 가격에 신경쓰게 되는 점은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청렴한 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글 잘 읽고 갑니당



2023/05/10

wednesday, pm 11:19 | 16읽음

김노연(사회학과)

#3일차 #선물

선물.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일 선물이 아닐까.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친구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친구가 먼저 편지까지 써주며 내 생일을 챙겨주어도 정작 나는 친구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해주고 챙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중학생 때는 인간관계가 더욱 좁아져서 겨우 2명에서 3명의 친구들의 생일을 어떻게든 챙겼다.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1학년 때 사귄 친구들의 생일을 챙겨주었지만 그 친구들과 2학년, 3학년 반 배정을 모두 떨어지고 그 이후로 챙겨주지 않았었다. 심지어 그중 한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시로 자주 선물해주고, 심지어 자신이 그린 그림까지 선물해주기도 했다. 그런 친구의 마음을 나는 너무 가볍게 여겼었다. 배은망덕하게도 보답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니까.

엄마의 생일 선물은 매년 챙기긴 했지만, 내가 직접 고심해서 홀로 선물을 골라

서프라이즈를 해본 적은 없다. 그저 엄마께

엄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고는 했다. 주변을 보면

어머니 생신이라고 오마카세를 모시고 간다

거나, 부모님께 애교 많고 효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왜 그럴까? 아니, 정확히는 왜

그랬을까? 나는 누구보다 친구들과 엄마에

대해서 골몰하는 아이였는데.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용기조차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래, 그렇기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멈추기 어렵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을 많이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느라 주변의 응원과

관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래서 이번 년도부터는 친구들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엄마한테도 서프라이즈를

해 드릴 것이다. 이번 주 본가로 내려가

엄마께 직접 쓴 편지를 드릴 것이다.

좋아해주실 모습이 눈에 선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도 주변과 상호작용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나의 서툰고 미숙한 모습을 서서히

발전시켜나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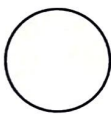
😊 9 💬 4

주재형(청각학과) 선물도 어느정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같네요..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요!

심지범 (경영학과) 우리 인간은 미생입니다 서툴고 미숙해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잘못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첫걸음이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요!

서원준 (중국학과) 먼저 다가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도전해야합니다!! 같이 도전해요 화이팅 ㅠ



2023/05/10
wednesday, pm 11:22 | 18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3일차

나에게 한림대 생활은 선물이다. 고등학교 시절, 높은 대학을 바라보며 공부하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 방향에 빠졌었다. 주위의 말들은 들리지 않았고 패배자라는 마음에 휩싸여 자기혐오에 빠졌던 것 같다. 아버지의 완고한 판단에 결국 대학은 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코로나를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학업을 놓아버렸다. 그렇게 1년 후 군대를 가게 되었다. 군대를 마치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할 때가 되었을 때도 머리에서는 학교를 안 가야하는 수많은 이유가 떠올랐다. 온갖 방향의 시간을 거쳐 23년에 복학했고 혼자 고민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만약 내가 자퇴를 결정했었다면 집에서 혼자 자기혐오에 빠져있었을테지만 학교에 나와 여러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대학교 사람들을 보며 내 마음 속에도 조금 씩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나는 인생에 답이 정해져있고 이 길 위를 벗어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는 곳이라 생각했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벗어난 길 위에도 선물은 놓여있었다. 남은 대학생활은 그 선물상자를 천천히 열어보고

싶다. 나의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나와 같이 어두컴컴한 길에 들었던 누군가의 앞에도 선물상자가 놓여있길 바란다.

😊 9 💬 7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올해 복학했습니다! 선물상자를 여는 방식 중 천천히 열어본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같이 화이팅!

김노연(사회학과) 저도 과거엔 그렇게 성적 때문에 많은 방향을 했어서 공감이 가네요! 대학교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극받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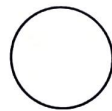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일이든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님의 생활 속에서 보람과 성장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제 인생 앞에도 선물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있을 대학생활도 행복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방향했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선물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힘든 시기를 자 꺾어 내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가득하실겁니다 화이팅 !!



2023/05/10
wednesday, pm 11:28 | 15읽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3일차

누구나 하루쯤은 손뼉아 기다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만큼은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을 것이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루일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바로 생일이다. 아마 생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내 생일은 겨울의 한 가운데인 12월이다. 날카로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날씨가 되면 그것은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뀔 때 즈음 나는 묘하게 들뜬 기분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이 가까워질수록 나와 비슷한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받는 선물을 기대하며 생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인드를 바꿔준 친구의 선물이 있었다. 바로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사실 그 친구와는 편지를 주고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친하다는 이유로 진심을 외면했기 때문일까. 항상 비싸고 좋아보이는 선물들로 내 진심을 왜곡하곤 했다. 그러나 친구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고,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좋아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동안 선물을 받고 싶어 생일을 기다렸던 내가 부끄러워진 순간이기도 했다. 그 뒤로 나는 아끼는 친구의 생일엔 편지를 쓴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나는, 친구의 생일을 목 빠지게 기다린다. 생일은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이기 때문이다. 편지는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편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이다. 받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정에 따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편지는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9 💬 7

주재형(철학학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언어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예은(간호학과) 저도 이번 생일에 받은 선물들 중에 진심이 담긴 편지가 가장 기억이 남는 선물이었어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떤 물건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사실 편지는 종지와 글씨들뿐인데, 받으면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한자한자 눌러담았을 그 마음이 참 예쁘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생일에 받은 선물들은 더욱 기억에 남죠!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는 생일을 별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글을 보고나니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네요 진심이 담긴 편지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ㅠ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고 챙겨줄 수 있는 인연들을 가짐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일과 같이 매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ㅎ

우리끼리,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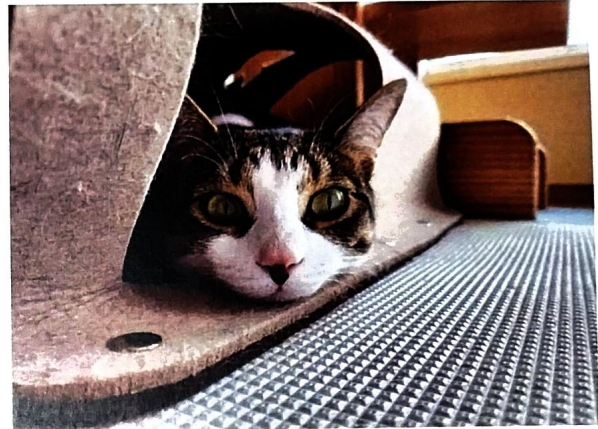
2023/05/10
 wednesday, pm 11:37 | 15읽음
 고다인(법학)

#3일차#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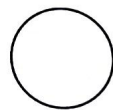
3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한참 제빵에 빠져있을 때라 제게 선물로 직접 만든 쿠키와 빵을 자주 주곤했는데, 그 날은 식빵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식빵 하나를 들고 누텔라를 펴바르고 먹으려는 순간 우리집 첫째 고양이가 달려오더니 앞발을 툭 올려서 발도장을 찍더라고요. 첫째 고양이는 평소 빵냄새를 엄청 좋아해서 빵을 먹을때마다 기웃거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고양이한테 위험한 초코를 바른 빵에 발도장을 찍고 도망을까 혹시 훔아먹기라도 할까봐 누텔라바른 빵을 공중에 우선 집어던지고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첫째고양이를 바로 검거해서 발을 씻기고 돌아왔는데 빵은 저멀리 떨어져있길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멀뚱히 떨어져있는 빵을 사진찍어서 빵을 만들어준 친구에게 보냈더니 친구도 웃긴지 둘이 같이 한참 웃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빵을 구워 선물해준 친구의 마음도 고맙고 웃음을 준 첫째 고양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식빵을 먹을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피식웃게되더라고요.

+첫째 고양이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공중으로 던져진 누텔라빵을 생각하니 웃프네요 ㅎㅎ 첫째 고양이가 별 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 이유림(경영학과)** 고양이 미모가 너무 예뻐요ㅠㅠ 선물도 좋은데 고양이 덕에 더 행복한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 심지범(경영학과)** 냥이 미모가 뽀뽀하네요! 글 잘읽갑니다!
- 김한나(경영학과)**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놀랐어요 ㅋㅋ우선 집어던지고 쫓아갔다는 말이 웃프네요 저도 같은 상황이면 그랬을거 같아요 친구가 준 선물이 고양이도 맛있을거 같았나봐요.)
- 서원준(중국학과)** 냥이가 정말 귀엽네요 아름다웠던 추억 공감하고 갑니당



2023/05/10
 wednesday, pm 11:39 | 16읽음
 배성준(경영학과)

#3일차 #선물

선물... 선물하면 저는 생일선물이 생각납니다. 어릴때는 생일이었는데 친구에게 생일선물 좀 못 받았다고 서운해할때도 있었고 부모님께 선물을 받고 싶다고 조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면 제가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하기 보다는 불평불만하고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부정적인 것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홀로 생활하고 나를 성찰하다 보니 내 주변에 있던 것들은 절대로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세상의 것들에 감사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것만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 선배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 어린시절의 추억, 내 인생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 어릴때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리웁니다. 어릴때의 추억... 그 당시에는 마냥 즐거웠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 내 인생... 하나뿐이고 소중합니다. 나와 맞지 않았던 사람들, 실수해서 화가 났던 경험... 모두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선물입니다. 지금보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선물을 받았습니. 나는 비록 아직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해주고 선물도 미리미리 챙겨주고 싶습니다. 다른 의미로 선물은 받기만 원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8 💬 6

심지범 (경영학과) 오늘 직업 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하신분 맞으시죠? ㅎㅎ 내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상대방도 챙겨 주는것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배성준(경영학과) 심지범 (경영학과) 우왁 맞아요!! 감사합니다 ㅎㅎ :)
주재형(청각학과) 어릴 적에는 다 철이 없고 천진난만한게 자연스럽게 전혀 이상한게 아니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줬는데 받지 못하면 서운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는 것이 좋은 말인 거 같아요! 물론 받은 선물도 기분이 무척 좋지만 성준님이 좋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아직은 주지 못했어도 이제부터 시작 할 수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먼저 다가가려는 도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야겠어요!



2023/05/10

wednesday, pm 11:52 | 16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선물
 #

이번 학기 생리 심리학을 배우며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감탄했다. 정말 작은 부분에 미세한 문제라도 생겼더라면 감각을 느끼거나 움직임은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나는 정말 운 좋게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까지 100%의 나를,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다.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져 매 순간 잊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선물, 좋은 날 마음을 전하는 의미의 선물 모두 좋지만 내가 가진 것을 예쁘게 포장해 선물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는다.

😊 7 💬 6

심지범 (경영학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선물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글을 읽고 보니 사실 당연하기보단

선물 같은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간 그 자체만으로 선물이라는 선율님의 말에 선물의 의미를 한 번 더 깨닫고 가네요! 보이지 않는 것도 선물이지만 인간 그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건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90%정도? 누리고 살아가는 듯 해요 나머지 10%는 목표를 위해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무수한 경우의 수를 뚫고 탄생한 생명들을 보자면 저절로 경외와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선물은 삶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소중한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예상치 못한 선물이 켈 기억에 오래 남죠 ㅎㅎ 좋은 글 잘 읽었ㅇ어요!



2023/05/11
thursday, am 12:10 | 38읽음
김양선

#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이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아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말을 남긴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각을 응원하며 선물같은 오늘도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 22 💬 0



2023/05/11
thursday, am 12:31 | 54읽음
김양선

#중간공지 ; 인증글쓰기와 관련해서 안내 겸 공지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1. 인증글을 쓸 때는 오른쪽 상단 밴드명 옆의 글쓰기를 누르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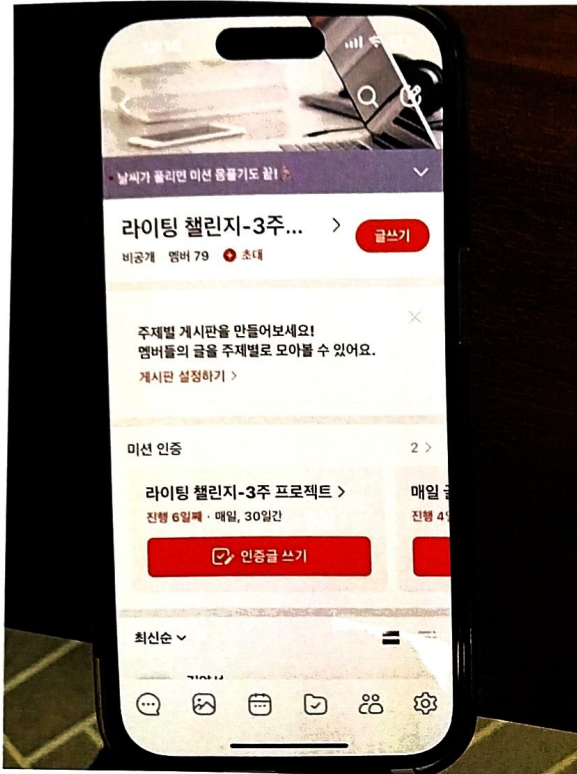
2. 아래 미션인증 보시죠? 라이팅챌린지 3주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보면 주황색 '인증글쓰기'가 있어요. 거기를 꾸욱 누릅니다. 그러면 글쓰기 창이 열리고 해시태그#와 글쓰기 날짜가 저절로 뜹니다. 거기에 이어서 글을 쓴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폭죽이^^ 터지고 미션완료가 됩니다.

3. 첫날 시험겸 미션인증 '매일글쓰기'를 만들어놓고 미처 삭제를 못했어요. 이 카테고리는 오늘자로 마감변경 후 닫을 생각입니다.

4. 여기서, 잠깐!! 그럼 그냥 글쓰기를 눌러 쓰거나, 매일 글쓰기에 남긴 건 카운트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수작업으로 카운트 합니다.

5. 매일글쓰기나 그냥 글쓰기에 들어가 써서 '라이팅챌린지-3주 프로젝트'로 들어가 쓰려고 하니 해시태그 뒤 숫자가 1이나 2로 나와요 ㅠ 이 경우 하는 수없이 숫자만 수정해 주세요. 내일 기준 4가 되겠죠?

이상 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17 💬 2

서원준 (중국학과)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교수님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2023/05/11
thursday, am 12:59 | 53원음
김양선

'매일 글쓰기'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인증글 많이 쓴 멤버를 소개합니다!

- 김소은(미디어스쿨): 3일 인증
- 김용후(법학과): 3일 인증
- 배성준(경영학과): 3일 인증
-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3일 인증
- 이세빈(미래융합스쿨): 3일 인증
- 이유림(경영학과): 3일 인증
- 함예원(미디어스쿨): 3일 인증
-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 인증
- 서민경(콘텐츠it): 2일 인증

- 정지민(언어병리학과): 2일 인증
 -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일 인증
 - 라해민(사회학과): 1일 인증
 - 신유정 (심리학과): 1일 인증
- 모든 멤버의 인증순위를 확인하려면



멤버들의 인증 순위 보기
매일, 4일 간 (2023.05.8 ~ 2023.05.11)

😊 8 💬 1

김양선 매일글쓰기 카테고리를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쓴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걱정마세요 내일부터 '라이팅 챌린지~~'에 글쓰면
됩니다



2023/05/11
thursday, am 7:35 | 47원음
김양선

#4일차 키워드 : 라면
이 키워드를 쓰는 순간 갓 끓인 라면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라면 소비량
1,2위를 기록한다고 하죠.(참고로 최근에는
베트남이 한국을 앞섰다고 해요.) 식사
대체품일 뿐인데, 건강에도 안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라면을 사랑(?)합니다.
'라면'과 관련된 이야기, 맛있게 끓이는 비법.
아무거나 좋습니다.

😊 20 💬 0



2023/05/11
 thursday, am 9:10 | 35읽음
 주재형(청각학과)

#4일차 #라면
 #라면을먹으면얼굴이붓는이유

라면을 안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1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겠죠! 그만큼 라면은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데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이자 얼큰하고 따끈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출출함을 달래주는 고마운 음식이에요.

하지만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낮은 ‘Junk Food’라는 오명도 존재해요. 야식으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다음날 퉁퉁 붓는 얼굴이 두려워 라면 먹는 것을 참는 기억이 다들 한 번 이상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라면은 정말 야식으로는 피해야할 음식일까요?

밤에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붓는 이유는 라면 속 나트륨 때문이에요.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혈장은 혈관 내에서 영양소나 호르몬, 노폐물을 몸 곳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때 수분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압 때문에 혈관을 돌아야 할 수분들이 세포에 머물면서 일시적인 붓기가 생기는 것이죠.



붓기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방법

1. 국물을 포기하세요.
 라면을 먹은 뒤에 남은 국물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라면의 나트륨은 대부분은 국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을 먹지 않는다면 나트륨 섭취량도 절반가량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2. 나트륨을 빠르게 배출하세요.
 매일 밤 라면의 유혹을 참을 수 없다면, 우유, 바나나와 같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하세요.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맞춰서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3. 나트륨 함량이 낮은 라면을 택하세요.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면발도 면발이지만 국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마련이죠. 국물을 포기할 수 없는 소비자는 애초에 나트륨이 적은 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국물이 없는 라면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팔도비빔면, 짜파게티, 라볶이 등등이 있어요.

4. 스프량을 줄이세요.
 대부분의 라면은 조미 분말과 농축액, 향미 증진제 등이 포함된 분말 스프를 동봉해 국물 맛을 낸다. 이 같은 조미 분말에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스프를 다 넣지 말고 자신이 느끼기에 싱겁지 않을 정도의 스프량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국 국물도 스프와 물을 합친 것이니, 스프량을 반으로 줄인다면 국물을 먹어도 1번 방법과 똑같은 나트륨 섭취량을 보이겠죠? (단, 싱거울 수 있어요..)

밤에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붓는 이유는 나트륨 때문이랍니다. 만약 라면에 국물까지 모두 먹어버렸다면! 2~3시간 동안에는 잠을 자지 않는 것이 다음날 얼굴에 붓기가 생기는 일을 막는 일이에요

모두 다음날 얼굴이 붓지 않도록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해주세요~!
밑에 간단하게 설문 비슷한걸
만들어보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의 종류를 말해주세요!
저는 팔도비빔면을 제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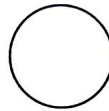
😊 18 💬 14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라면을
먹으면서 국물을 포기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붓기를 예방해야 하는 날이면 한 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장지은 (언론방송융합전공) 오..... 완전 유익한
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라면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 (영어영문학과) 사실 예방법을 지키면서
먹으면 라면을 배신하는 것 같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재형님의 글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ㅎㅎ 저는 웬만한 라면은 다
좋아하는데 진라면을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어떤 재료를 넣어도 가장 잘 어울리는 라면
같더라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어쩐지.... 맨날 얼굴이
붓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시현(러시아학과) 덕분에 라면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알아가게되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라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유익한 정보글이네요 근데 사실
밤늦게 먹으면 뭘먹든 웬만하면 붓는 것
같아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중요한 날 전에는 꼭 밤에
야식으로 라면이 생각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꿀팁이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음 어찌보면 정크푸드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라면 못끓어요 ㅋㅋㅋ

강민지 (사회학과)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권장 섭취량보다 나트륨이 많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적게 먹기가 어려운
같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좋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2023/05/11

thursday, am 9:20 | 22워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4일차 #라면

어렸을 적 한강에 있는 수영장에 가족들과
갔을 때
우리 가족은 컵라면을 챙겨갔다.

물 속에서 신나게 놀고
밖에 나와 조금 쉴 때면
부모님께선 먹고 놀라며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붓고
우리에게 주었다.

차가운 물 속과 대비되는
뜨거운 라면.

더 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잠시 쉬면서 먹는 라면은 소소하지만
행복감을 준다.

간편함 속에 올라오는 연기 너머로
가끔은 과거가 회상되고
추억이 아른거리며
감정은 연기처럼 공기 속에서 동요한다.

먹는 것은 추억이고 감정이며
현재 나를 만드는 과정 속의 친구이다.

😊 14 💬 14

주재형(청각학과) 어제의 키워드가 꽃이었을 때 향기가 기억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한다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맛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장소를 기억하는 라면의 맛이 어떤 건지 추측해볼 수 있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제 학창시절마다 있었던 라면 !! 추억을 함께 공유한 사이네요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과학전공) 어릴 적의 추억이 눈 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특히 2연의 내용에 크게 공감합니다.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은 왜 그리도 맛있었을까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컵라면이 제일 맛있을 때는 수영하고 나서 바로 먹는 컵라면인 것 같아요 >_< ♀ ♂

심지범 (경영학과) 크 놀고 먹는 라면이 꿀맛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티비를 보다보면 저도 꼭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똑같은 라면에 단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인지 모르게 한강 라면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구 ㅎㅎ 상민님의 글 덕분에 제 인생의 또 다른 추억거리가 생길 수 있게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도 항상 물놀이를 하고 쉴 때 부모님께서 컵라면을 주셨어요~ 뜨거워서 허가 데일 때도 있지만 따뜻한 걸 먹으면서 배도 채울 수 있는 음식이기에 뭔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이다빈(경영학과) 물놀이 하고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라면인데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이상하게 더 맛있는 느낌..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한강에서 라면먹어본 적 없는데 다음에 가게된다면 먹어봐야겠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글을 읽고 물놀이 후에 먹던 맛있는 컵라면이 생각났어요 잘 읽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 진짜 최고의 맛이죠! 먹는 것은 추억이고 감정이라는 말이 감동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왓 물놀이 하시니 저도 수영장이 생각나요! 항상 수영하고 나서 먹는 라면 정말 꿀맛이었어여

김용후(법학과)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셨네요 적절하지 못한 비유이겠지만 사우나의 찬물과 더운물을 오가면 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라면도 온도의 대비가 더해지면 또 다른 맛을 낼 것 같네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05/11

thursday, am 9:38 | 26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4일차 #라면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라면, 학식으로 라면, 저녁으로도 라면, 음식점 가서도 라면을 먹듯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라면을 많이 볼 수 있고, 먹을수도 있다. 또 라면하면 떠오르는 장소, 휴게소! 아 휴게소 하니 갑자기 학교 자체휴강하고 놀러가고 싶다 ...!

신라면 진라면 사리곰탕 신라면 블랙 참깨라면 불닭 팔도 비빔면까지 정말 좋아하는 라면 수가 굉장히 많다 !라면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라면 먹는데에도 스타일이 다르다.

해장하고 싶을 땐 얼큰한 신라면, 신라면 블랙, 건강하면서 사골곰탕 먹고 싶은 사리곰탕 , 고기와 함께 하면 신세계인 팔도비빔면까지

지금 쓰는 이 순간에도 정말 먹고 싶어진다 라면 그 이름, 라면!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 지 묻고 싶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당 ~!

😊 17 💬 11

주재형(청각학과) 어째 다 먹어본 라면들.. 라면이 정말 대단한 음식인듯 합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다

먹어본 걸 보면요..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저는 열라면이랑 불닭을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 위를 고문시키는 취향이었네요 ㅎㅎ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저는 해장하고 싶을 때 틈새라면을 먹는데 역시 얼큰한 국물이 땡기는 건 모두 똑같나보네요!

심지범 (경영학과) 가볍게 허기질때 먹는 라면 존맛탱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라면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인지 라면이 매력적인 녀석이라 생각이 들고 끌리네요.. 저는 불닭을 좋아해요. 오늘도 아자아자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라면은 진심으로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면 자체가 유탕면이라 기름기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특히 우리나라 라면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원준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배에서 소리가 나네요 ㅎㅎ 참고로 저는 진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이다빈(경영학과)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지는 글이네요.. 저는 꼭 사리곰탕을 먹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휴게소 가면 라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는 우동시키고 한 입씩 뺏어먹던 기억이 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글을 읽다보니 새삼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라면을 먹고 다양한 장소에서 라면을 접할 수 있다는 걸 다시한번 느끼게되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ㅋㅋ 라면 진짜 많네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흰색 장르(?)를 선호합니다 나가사키, 사리곰탕 등등 (근데 흰 건 연달아서 먹으면 급속히 물리더라구요)



2023/05/11

thursday, am 9:53 | 22원음
박지원(사회학과)

#4일차 #라면

라면하면 떠오르는 것! 만화 검정고무신 속 라면 먹방 장면이 아닌가..

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많은 추억이 있는 존재이다. 좋아하는 상대에게 '라면 먹고 갈래?'와 같이 상대를 유혹할 때, 한강 가서 먹는 라면, 새벽에 먹는 라면, 휴게소에서 먹는 라면, 아빠가 끓여준 라면 그리고 한입만 라면까지(이 글을 읽는다면 공감할 것이다, 한입만 라면은 온 우주를 넘어 정말, 미치고 끝장나는 맛이다.)

일반적인 라면을 넘어 볶음면, 김치찌개, 짬뽕 등 다양한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세상에나 정말 다 맛있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 라면이 생각난다.. 보글보글

라면하니까 악동뮤지션 노래가 생각난다. 라면인건가 라면인건가 오늘 점심은 라면인건가~.

😊 13 💬 12

서원준 (중국학과) 라면은 정말 어디가나 빠지지 않는 거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보글보글 ㅋㅋ 너무 귀엽네요 오늘 키워드를 보고 검정고무신 라면 생각도 했었죠 ≈ ≈

강지수(사회학과) 캠핑용 냄비에 직접 불을 붙여서 끓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죠! 직접 해보니 결국 제일 맛있는 라면은 남의 라면을 한입 뺏어먹는 거였지만요. 마침 광고로도 라면이 떠서, 먹고 싶어지네요. 즐거운 글이었습니다!

본지어린플라젠, 라면 

플라젠식용 전문!

취향은 플라젠을 넘어 만든 특별한 라면. 건강하고 맛있는 간래!



면 동해풍은상회

해곡해 필수 코스 북송 맛집 북송향민집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검정고무신 속 라면 먹방... 생각하니 또 침이 고이네요... 오늘 점심은 정말 라면을 먹어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ㅋㅋㅋㅋ 한입만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저도 오늘 야식은 라면으로 정했어요 후후...

심지범 (경영학과) 캠핑 갔을때 끓여 먹는 라면이 생각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라면은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게 분명 누군가가 끓이기 전에는 안 먹고 싶다가도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나면 어찌나 먹고 싶던지... 가끔 저도 한입만은 외치긴 하지만 미안한 맘도 들어서 그냥 새로 하나 끓이는 경우가 정말 많네요 ㅎㅎ 지원님을 글을 읽다보니 괜스레 라면이 더 먹고 싶어져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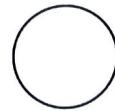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오늘 키워드보고 악뮤 노래도 생각났는데, 돌리 라면송이 생각났어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라면인건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추억이네요!!

박진옥(사회학과) 저도 검정고무신 라면 먹방 장면 생각했는데!!! ㅋㅋㅋㅋ신기하네요. 라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는게,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앗 오늘 점심 라면이신건가요..? 저도 야식으로 !!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는지라 검정고무신 TV로 보면서 컸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무튼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1

thursday, am 10:28 | 24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4일차 #라면

라면은 참 오묘하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그 당시의 감정마다 다른 음식이 된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들 하지만 무난하게 맛있다고 여겨지는 음식이다. 낮에 먹는 라면은 밥도 제대로 못 챙겨먹는다는 오해와 함께 남들의 걱정을 가져다주고, 밤에 먹는 라면은 안 좋은 식습관이라며 잔소리를 얻게 된다. 피시방이나 찜질방에서 먹는 라면은 별미고 집에서 먹는 라면은 그저 그런 맛이다. 시험에 망치고 우울한 감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속이 쓰릴 정도로 매운 맛이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는 달콤한 맛이 된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배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라면. 더 이상 배를 굶지 않음에도, 라면을 찾고 있다. 라면은 우리 일상 많은 부분에 녹아 내렸다. 그만큼 다들 많이 먹은 음식이라 그저 그런 음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라면의 맛은 먹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내가 가진 감정과 기분. 그 당시의 분위기와 시대상. 그 모든 것을 라면에 담아 라면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라면의 새로운 면을 만나게 될 것이다.

😊 15 💬 11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사빈님의 글을 읽고 나니 정말 라면이 오묘한 음식이라고 느껴지네요. 저도 오늘만큼은 감정과 기분을 담아 라면을 먹어보려고요. 과연... 어떤 맛이 느껴질까요...?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집에서 먹는 맛은 그저 그런데, 피시방이나 찜질방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먹는 라면은 꿀맛인 거 넘 공감이요

심지범 (경영학과) 농심의 최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다 똑같은 제품으로 만든 걸텐데 왜 제가 만든건 밖에서 만든 맛이 안나는 건지 종종 생각하게 돼요. 좋은 글 감사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시간이나 장소마다 라면 맛이 달라진다는 사빈님의 글에 공감이 가요! 따뜻한 집에서 끓여먹는 것보다 조금 추운 밖에서 끓여먹는 라면이 더 꿀맛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단순한 음식임에도 가끔은 복잡한 감정이 들도록 하는 음식이 라면의 매력인가 싶기도 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모든 음식이 그렇긴 하지만 라면은 특히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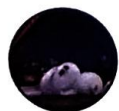
박진옥(사회학과) 라면이 참 모두에게 오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은 생각할수록 신기한 음식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라면을 먹는 장소 시간 감정마다 다른느낌이 든다는게 어떻게 보면 라면은 참 여러모로 신기한 음식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유난히 맛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엄청 배고프면 넘나 맛있어

김태희(영어영문학과) 그러고보니 사빈님 글대로 라면은 오묘한것 같아요 다양한 음식이 되니깐요 상황에 따라 쓰이는법도 다른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적 수영후 먹었던 육개장 라면이 제일 추억에 남는것 같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정보와 따뜻함이 담긴 글 잘 읽고 갑니다



2023/05/11
thursday, am 11:41 | 24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4일차 #라면

2013년 겨울, 나는 내 인생 첫 해외여행을 엄마와 튀르키예로 다녀왔다. 첫 여행인지라 그 나라의 여러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 여행 짐을 싸고 있던 엄마를 보고 놀랐다. 웬걸? 옷이나 다른 생필품을 챙겨도 캐리어가 팍 찢텐데 김치와 컵라면을 가득 챙겼던 것이다.

"음식도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어?"

"가방 무거워서 못들고 다녀ㅠ"

"입국심사에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괜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엄마한테 먹히지도 않을 걱정가득한 잔소리를 펼쳤다. 이땐 알지 못했다 엄마의 선견지명을.

튀르키예에 도착 후 첫 저녁식사, 나의 외국음식에 대한 자신감은 쥐구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첫 에피타이저로 나온 강낭콩토마토소프부터 최악이었다. 오기 전 엄마가 챙긴 라면이 급 생각났다.

아닐까다를까, 엄마도 입맛에 튀르키예 음식이 안맞았나보다. 그래도 다음날부터는 점차 나아진 듯 했지만.

우리는 결국 호텔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창문을 열고 김치와 라면을 끓여먹었다. 외국의 야경을 보며 먹는 라면은 황홀했다. 역시 엄마의 세월에서 우러나온 준비성은 정말 남달랐던 것이다.

나는 평소에 라면은 몇개월에 한번씩 먹을까 말까할 정도로 친하지 않은 음식이었다. 밥이 더 건강할텐데 굳이 왜 먹는걸까? 싶었다. 이러한 나에게 해외에서 보고 먹었던 한국음식은 왜이리 반가웠던건지 모르겠다. 여행예능프로나 실제 해외마트를 가보면 한국과자부터 술, 라면들까지 마치 한국마트의 한 코너를 보는 기분이다.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일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라면이란 자극적인 한국의 매운 맛을 한번에 그리워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 13 💬 9

주재형(청각학과) 외국에 가본적은 없지만 만약 가게 되면 한식은 꼭 챙겨가려구요! 입맛이 안

맞으면 기분이 다 망가져버릴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진짜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 여행에 갔을 때 현지에서 파는
 컵라면을 먹었는데 와... 한국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맛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일본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아서 한국라면이 크게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한
 두개라도 가져갈 걸 생각해요. 아무리 음식이 입에
 맞아도 한식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라면은요 ㅎㅎ 시현님 글을 읽다보니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무조건 라면에 김치는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오랜기간 해외에 계신 분들께
 라면은 정말 필수품이겠네요. 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해외여행 갈때는 한국 음식이
 정말 그리운데 라면만큼 간단하게 가져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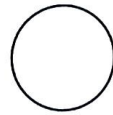
박진옥(사회학과) 어머니랑 여행간 것이
 부러우면서도 그 안에서 어머니와의 추억 한편에
 라면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을 통한
 추억을 덕분에 저도 떠올려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ㅋ 맞아요 저도
 여행가면 라면과 캔으로 된 볶음김치 참치
 챙겨가요ㅋㅋ 그게 가장 꿀맛입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여행에서 우리나라 김치와
 라면이 생각나는것이 당연한거 같아요 느끼한것을
 잡아주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외국여행가면 진짜 빨간
 국물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ㅠㅠ

함예원(미디어스쿨) 저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먹으면 반가워서인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2023/05/11

thursday, pm 12:07 | 26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4일차 #라면

오늘은 꼬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글을
 써보고자 한다. 사람마다 각자 ‘라면’을 먹는
 스타일이 있듯이 나 또한 그렇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후추다.

사실 라면에 후추를 꼭 넣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에는 라면에 후추를
 넣으면 그 본질의 맛이 흐려지는게 싫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먹은 적이 더 많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보다가 라면에 후추를 넣어서 먹는 걸 보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였다. 배에서 배고프다고 요동치는
 소리와 함께 손은 이미 냄비로 향하고 있었다.
 결국 후추가 들어간 라면을 위해 야밤에 물을
 올리고 말았다. 면이 어느정도 익은 후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후추를 조금 뿌리고
 나서 설레는 기분으로 식탁에 가져와 한 입
 먹어본다. 와... 나도 모르게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내 걱정과는 달리 라면 본질의
 맛은 전혀 잃어버리지 않은 체 오히려 후추가
 그 풍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딱딱 해치운 후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라면에 후추는 필수라고.

그 이후부터 내가 끓인 라면에 후추가 빠지는
 절대 없었다. 후추가 들어가는 양도 처음보다
 더 많이 늘었다. 앞으로도 후추를 손에 꼭 쥐
 체 라면을 끓여먹지 않을까 싶다. 혹시 나처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먹어보길 추천한다.

여러분들은 라면 먹을 때 꼭 넣는 것은
 무엇인가요?

😊 10 💬 8

주재형(정각학과) 라면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레시피가 있으시네요. 감미로운 조미료를 넣으면 종종 맛있어지죠~

최현영(법학과) 저는 청양 고추를 꼭 넣는데 후추도 한 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넣고 기본으로 먹는 편이 많았는데 후추 넣은 라면도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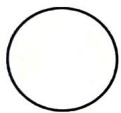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라면에 후추를 넣어드시는군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걸 좋아해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는 콩나물 파 양파 가득 넣어먹는거 좋아해요! 물론 대부분 양파만 넣고 끓이지만 있으면 콩나물 넣으면 면이랑 함께 아삭해서 맛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후추!! 생각만해도 재채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ㅋㅋ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처음엔 후추 넣어 먹는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번 맛보고 나니까 꼭 넣어 먹어야겠더라고요 ㅎㅎ 후추랑 청양고추 조합도 맛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저는 계란 꼭 넣어서 먹어요 ㅎㅎ



2023/05/11

thursday, pm 12:57 | 23읽음
최현영(법학과)

#4일차 #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열라면이다. 비가 올 때도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생각나고, 한 끼를 빨리 해치워야 할 때도 먹는 간편하지만 만족도 최상인 식품.

라면,,

원래도 면을 좋아해서 종류 상관없이 다 좋아하지만 특히 간편함이라는 최고의 장점이 있는 라면을 특히 좋아한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고 알바까지 하니까 여유롭게 식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 풀리는 단순한 나라서 먹는 게 참 중요한 사람에게 여유롭지 않은 식사는 여간

속상하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 때는, 열라면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먹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라면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라면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도 라면과 같이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쁜 짓만 하려고 전전긍긍하며 내 시간을 나에게 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인데 나를 싫어하는 이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애쓰던,,

그 때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말해 주고 싶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나에게만 써도 모자란 시간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내 인생에서 끌고 가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간관계만큼 복잡한 것도 없다.

연인 사이에서도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다가도 헤어지자는 네 글자만으로 그 사람과의 모든 추억이 사라지고 허무함, 상실감만이 남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방어기제 같은 것이다.

라면처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나로서 충분하다고 모두에게 말해 주고 싶다.

잘하고 있다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 13 💬 8

주재형(정각학과)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라면개발이 정말 다행이었을 듯 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매운 걸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열라면을 찾는 편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먹어봤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떤 라면은 그냥 맵기만 한데 열라면은 매우면서도 엄청 맛있었어요! 글을 쓰면서도 먹고 싶네요 ㅎㅎ 그리고 현영님의 글처럼 우리 모두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언제 어디서나 빛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수고했다고 꼭 말해줘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저도 열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상당히 많은 라면이 있는데 같은 라면을 좋아하시네요 !!

이다빈(경영학과) 매운 걸 잘 드시나봐요 매운 걸 못 먹는 저로써는 부러워지네요ㅠㅠ 현영님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라면은 호불호가 덜 나뉘는 음식이지만, 종류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게 중요하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모든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건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어느새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범(경영학과) 열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여름에 먹으면 땀뻘뻘 흘리면서 먹을꺼 같아요..ㅋㅋ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열라면 엄청 맵던데 ㅎㅎ 부럽습니다 맵찐이는 ㅠㅠ



2023/05/11
thursday, pm 1:12 | 20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4일차

라면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 저절로 군침이 돈다. 국물이 있는 라면부터 비빔라면까지 종류가 다양하여 절대 질리지 않는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정해진 레시피는 없다. 누구는 파를 넣고, 누구는 계란과 고추를 넣고, 누군가는 온갖 재료를 거침없이 넣는다. 무엇이 되었든 라면은 늘 맛있다. 그것이 라면의 묘미이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이유가 되리라.

라면의 맛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이 맛있거나 등산 후 먹는 라면이 맛있다는 등등의 의견이 존재한다. 봉지라면이 맛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컵라면이 맛있다. 이러한 오묘한 매력이 있기에 라면에 더 이끌리는 것이 아닐까.

😊 13 💬 8

주재형(청각학과) 힘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먹는 라면이 또 일품이죠! 좋은 글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 글처럼 라면은 오묘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이 있는 음식 같아요. 오죽하면 라면도 요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밖에서 먹는 라면이 훨씬 더 맛있어서 종종 나가서 먹곤 하는데, 아무리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라면은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없을 때 금방 해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구요! 설거지가 귀찮을 땐

컵라면을 먹곤 하는데 충민님 말씀처럼 컵라면이 더 맛있을 때가 있었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괜히 파송송 넣은 라면이 인기 있는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른 라면!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 정말 맛있죠ㅠㅠ 특별히 더 넣은 것도 없는데 꿀맛이에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ㅎㅎㅎ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심지범(경영학과) 저는 군대에서 야간 초소 경계를 마치고 먹은 라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ㅎㅎ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묘한 매력을 제발 그만 줬으면 하는 라면 ㅎㅎ 잘 읽고 갑니다



2023/05/11
thursday, pm 2:28 | 24읽음
이유빈(사회학과)

#4일차 #라면

한가로운 날 여유롭게 일어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라면이 있는 공간의 문을 연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넣고 끓인다. 그런 다음 부엌에 드리우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라면을 먹는다.

그렇지만 집에서만 해당되는 한가로운 모습이다. 기숙사에 사는 나는 매주 매번 지겹도록 라면을 먹는다. 집에 있을 때는 여유롭게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먹고 싶을 때 먹지만, 기숙사에 사는 나는 여유를 잊은 채 라면으로 허기진 배만 채운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오면 맛있는 것, 건강한 것들을 먹으라면서 냉장고를 채워놓으시지만, 집만 가면 기숙사에서 지겹도록 먹던 라면이 왜 그렇게나 먹고 싶은지 말을 듣지 않고 라면을 끓여먹는다.

하지만 오늘은 라면이 아닌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집밥 한끼를 먹고 싶은 날이다.

😊 15 💬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라면이란 게 참 신기하죠?? 유빈님 글처럼 여유롭지 않을 때는 배라도 채우려고 먹는 음식인데.... 막상 밥 먹으라고 하면 뭔가 라면이 더 땡기는 느낌..?? 그게 라면이 가진 오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이 전 좋습니다 ㅎㅎ 그럼에도 가끔은 유빈님처럼 집밥이 먹고 싶기도 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치킨, 피자를 많이 꼽지 라면이라는 대답은 잘 들지 못한 것 같아요.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집에서 해먹는 밥 만큼은 당해내지 못할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라면이라 생각하면 간단한 음식이지만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면서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게 해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좋은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이다빈(경영학과) 집에서 먹는 라면과 기숙사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는 밥을 먹어야 하니까 가장 간단한 라면을 먹지만, 집에서는 라면을 땡기게 하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공감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인스턴트 음식만 먹다보면 결국 집밥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최고는 집밥이죠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집가면 라면 많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주구장창 먹어서 안먹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간편함이 가장 좋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집밥 한끼가 소중하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집밥은 항상 그렇고 먹고 싶어요 ㅎㅎ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3/05/11

thursday, pm 2:38 | 26읽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4일차 #라면

‘슈의 라면 가게’를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키워드 보니까 라면 가게 사장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물론 컴퓨터 화면 속 얘기랍니다. 게임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팔아 목표 금액을 넘기면 되는, 무척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어린 저에게는 은근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었거든요. 게임 오버 화면은 항상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해 설거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냄비도 엄청 태웠습니다. 어릴 때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게 억울하기도 하고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라면 끓이는 방법은 정말 쉬운 일인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한참 커서 오랜만에 노트북으로 그 게임을 다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또 설거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두 번 세 번 하니깐 드디어 설거지행을 벗어나 목표금액을 넘어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뭐라고 엄청 뿌듯하더군요. 이제야 진정한 라면 가게 사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쉬어 보여도 막상 해보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슈의 라면 가게처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침내 등극한 라면 가게 사장처럼요! 종종 일이 안 풀릴 때, 시간을 두고 다시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도전은 분명 라면 가게 사장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거 예요!

-라면 가게 사장 드림-



17



1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수민님 덕분에 오랜만에 슈라는 이름을 들어보네요 ㅎㅎ 저도 어렸을 때 그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목표액은 커녕 제대로 된 라면 하나 만들지 못한 채 그만두었던 기억이 나요ㅠㅠ 고작 게임인데도 어찌나 분하던지... 그 이후론 슈 게임은 거의 안 했는데 그래도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은지(철학) 세상에! 그 게임을 클리어한 사람은 실제로 처음 봐요. 저도 늘 설거지행이었거든요. 끈기를 갖고 도전을 반복하다보면 해결 되는 일도 있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추억의 플래시 게임 슈의 라면가게! 저도 어릴적에 냄비를 참 많이도 태워먹었죠. 한 두번 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기억을 내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심리학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시간을 두고 다시 해보면 해결되는 경험이 저도 종종 있어서 공감이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인영(심리학과) 추억의 슈게임 ...! 저는 1500원 정도 밖에 못 벌었던 기억이 나네요 맨날 냄비를 태워버려서 ㅎㅎ 게임 하나에 깊은 뜻을 전달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어릴적 슈게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데 어릴적 게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면서 그 시절 기억이 생각나서 추억에 잠기게 되네요

좋은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적 추억이 생각나게 해주는 글이였어요^^

이다빈(경영학과) 향수병을 일으키는 슈게임! 어릴적 저는 타이머로 인한 조급함 때문에 겁만 먹고 구경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든 끊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노연(사회학과) 슈게임... 저는 매일 설거지만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추억에 잠기게 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어릴때 슈의 라면가게 열심히 했었는데 추억이 샘솟는 글이에요 다양한 게임이 많았는데 저는 라면가게 게임을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덕분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옛날에 해본 적 있죠 ㅎㅎ 생각
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대로 성공해 본 기억이
거의 없네요 엄청 공감아 갑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는거 같아요
가끔은 여유를 갖고 수민님 말처럼 시간을 두고
다시 도전하는 방법도 좋은거 같아요!

박소연(생명과학과) 슈게임! 저는 샌드위치
만들기인가? 그게 생각나네요. 오랜만에 추억의
쥬니버가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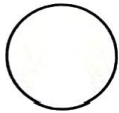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 슈게임 진짜 많이
했는데 추억이에요 ㅎ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글 읽고 라면 가게 창업 할뻔
했습니다! ㅋㅋ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세상에 너무 오랜만의
슈인데요 ㅎㅎ 여동생이 자주해 옆에서 보곤
했는데 추억이네요 ㅎ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했던 것 같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조리한 음식도
라면이었을 만큼 좋아했는데 '신라면'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난다. 그 이후에는 하얀 국물
라면 많이 나오면서 즐겨먹기도 했었고,
지금은 볶음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다양한
면요리가 있지만 그 요리를 간단하게 집에서
비슷한 맛, 같은맛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라면뿐인 것 같다. 쫄면, 라볶이, 짜장면
심지어 파스타까지 다양한 맛과 형태로
나오는 라면은 자취생인 나에게 식당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면요리를 집에서 맛볼 수 있게
하는 고마운 음식이다. 나는 한 음식에 빠지면
그것만 먹는 편인데 라면도 그렇다. 그렇지만
다양한 라면의 종류가 있는 만큼 올해는
새로운 맛의 라면을 많이 도전해 보고 싶다.

😊 11 💬 8



2023/05/11

thursday, pm 3:19 | 18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4일차#라이팅챌린지

우리나라 라면의 역사는 1963년
경제개발계획으로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혼분식 밀가루와 쌀, 보리 등을 섞어서
식사하는 것을 장려했다. 그러면서 라면
소비량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출시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다. 처음에는 닭육수를
활용한 하얀 국물이었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춧가루가 더 첨가되어 지금의
빨간 라면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라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라면은 전세계 많은 국가
나라 수출되고 있고 영향을 받은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을 만큼 맛있고 다양해졌다.
나의 라면의 역사는 한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하면 라면! 이라고 했을 만큼 라면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라면을
먹은 기억이 난다. 매운 것을 잘먹지 못해서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라면을 처음 접했을 땐
신라면을 가장 좋아했어요! 어린 저에게 조금 맵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맛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신라면은 맛이 조금 변한 건지 예전의 그 맛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진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ㅎㅎ 유정님 덕분에 라면의 역사도
짚게 알아보고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출시 당시 10원짜리 라면이
지금은 육개장이 1000원이 되었네요. 라면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라면의 역사에 대해서
적어주셨네요 뭔가 색다로우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좋은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이다빈(경영학과) 60년이 지나고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출시 당시
10원이라니 감도 안 오네요.. 유정님 덕분에 라면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짬게나마 라면의 역사를 알게되니 흥미롭네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약간 라면의 가격이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 응원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라면의 역사도 짧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1

thursday, pm 3:20 | 23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4일차 #라면

10년 전 필리핀으로 영어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영어수업이 스파르타 코스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매주 용돈을 받아서 pancitcanton이라는 필리핀 국민 볶음라면을 먹으며 힐링했던 그 때가 가끔은 그리더라. 요즘은 해외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굳이 필리핀을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지만, 배송비가 너무 비싸 구매할 계획이 여태 없었다.

그러다 친구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괜찮으면 그 라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스쳐지나가듯이 했는데, 친구가 부탁을 들어주어 10년만에 그 라면을 먹었다.

라면 끓이는 그 냄새를 맡고 한 입 먹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감동이 벅차올랐다.

웬만해선 음식으로 몽클해하지 않는 나인데, 아마 그 라면으로 추억속에 잠긴 것 같다.

그 한 입에 내 필리핀에서의 삶이 담겨 있던 것이다.

나의 추억이 라면에 담겨있어서 다행이다.



13



9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외국 라면은 웬만해서 맛있는 건 못 먹어봤는데 그 볶음라면은 인영님의 추억의 불씨를 만들어낸 것처럼 맛있나봐요!! 나중에 필리핀 여행을 하게 되면 꼭 먹어봐야겠네요 ㅎㅎ 추억이 담긴 라면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한국라면만을 먹어본 저에게 외국라면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 맛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맛도 맛있지만 추억 그 자체인 라면이라 몽클하셨던 것 같아요 ㅎㅎ 저도 볶음라면 좋아하는데 필리핀 여행갔을 때, pancitcanton 라면 꼭!! 먹어볼게요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외국라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데 먹어보지는 못했어도 글로만 해도 먹어보고 싶은 감정이 드네요^^

외국 라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해주는 글 잘 읽었습니다 재밌는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해외라면은 한 번도 안먹어봤는데 이 글을 읽고 궁금해졌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먹어보고 싶네요 잘읽었습니다!

박소연(생명과학과) 해외라면이라 ...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엄청 추억의 맛이겠어요.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 어쩌면 생각했던 것 보다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추억으로 먹는 음식이 된 것 같아 더욱 귀할 것 같아요

심지범 (경영학과) 필리핀 한 번 가보고 싶은데요! 안무서우셨는지!!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추억의 라면 소소한 기억들이 행복을 주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1

thursday, pm 4:24 | 26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진짜입니다. 이번엔 분명 도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패기롭게 호언장담하는 시종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다. 매사에 출랑거리는 녀석이라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심 집사로서 침울한 지금의 주인님은 견디기 힘들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더더욱 그랬다. 여태까지 유능한 자신이었을 텐데도.

최근 도련님의 부탁은 생소한 것들이었다.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 요리도 그랬다. 매번 힘없는 얼굴로 만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았다. 주방장은 신경쇠약에 걸려 며칠 밤을 새우고, 시종들은 사방 팔방으로 그 '비법 재료'를 찾기 바빴다.

오늘이야 말로 한 시종이 그 소문의, 전설과도 같은 '비법 재료'에 대해 들고 온 참이었다. 누군가와 의 도박으로 얻어왔구나. 도박이라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결과만 좋다면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이건가?"

상념을 끝내고 빠른 걸음으로 주방에 향했다. 마침 요리가 막 완성된 참인지, 주방에선 독특한 향신료의 냄새가 났다. 후각을 직접 강타하는 것 같은 이 향은.... 매웠다! 통각과도 같은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기침을 할 뻔 했지만, 정말 가까스로 참아냈다. 도련님은 대체 왜 이런 요리를 찾으시는거지?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 맞아, 그거야. 아마도 확실할 걸, 정말 도련님이 말씀하신 그맛 그대로니까. 나도 놀랐다, 원 놈의 비법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맛이던데. 뭐, 아무튼 이번엔야말로 도련님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 이것을 두번 더했다간 진짜 죽어버릴테니..."

그가 쾅한 눈으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말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가 며칠 밤을 새었던가. 일종의 유대감마저 생겼다. 고생했습니다, 짧게 인사를 마치고 그 요리를 들었다.

"입맛에는 좀 맞으십니까, 도련님."

요리를 들고 올라가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생기 없어보이던 도련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어떤 일로? 싶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손에 들린 그 요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냄새가, 익숙해. 그가 중얼거렸다. 이번엔 정말 성공인 걸까? 해냈어! 이젠 잘 수 있다! 주방장과 시종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고 그에게 요리를 건넸다. 부디 이 요리가 입맛에 맞길 바라며.

그리고 수저를 들어, 국물을 뜨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다.

"누가..."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쾅그랑!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는 방 안을 울렸다. 기대했던 맛이 아닌건가?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맛이었나? 주방장, 우리 실패야. 안녕 나의 휴가... 짧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나는 서둘러 수저를 주워 새 수저를 건네며, 그 분에게 다가갔는데.

... 처음 봤다, 도련님의 저런 표정은.

"누구지? 누가, 누가 만든거야?"

그는 혈떡이듯이 말했다. 사막 속에서 물

한줄을 발견한 사람이 이런 모습일까.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여 서둘러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으십니까? 금방 주방장을 불러오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나 혼자가 아니었어... நீ이 나간 얼굴로 혼잣말을 하는 그를 뒤로 하며, 나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4일차 #라면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잘 읽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면이란 식사 외에도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가 향취라고 생각해서, 이번엔 그리운 라면의... 그 맛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 13 💬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은근 재밌어요!!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 내용일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읽었네요 ㅎㅎ 특히 휴가가 날아갔다는 표현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도련님 맘에 안 들면 어떡하나하고 걱정했네요 ㅎㅎ 재밌는 소설 잘 읽었습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절로 보이는 소설이네요 ㅎㅎ 재밌는 글 읽고갑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소설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간단한 소설같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네요!! 재밌는 글 잘 읽고 갑니다 재밌게 글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라면을 들고 가니 벌떡 일어서는 도련님이라니 얼마나 라면을 잘 만든건가요! 소설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가 라면 처음 먹고 반하던게 생각나는 글이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소설을 어찌이렇게 잘 쓰셨죠,... 부럽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재미있는 문학 소설이네요! 글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등장인물들 성격들이 확고하게 나타내는 소설이네요 ㅎㅎ 잘 읽고 갑니다



2023/05/11

thursday, pm 5:35 | 18읽음
 어민재 (경제학과)

#4일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김밥천국 라면이다. 어떤 비법이 들어간지 모르겠으나 집에서 먹는 라면은 이 맛이 나지 않는다. 이 라면과 참치 김밥을 먹으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비법을 알고 싶어 주방을 훑기 보기도하고 라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한다. 관찰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파였다. 일반 봉지라면 후레이크에는 송송 썰어진 파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김밥천국의 라면에는 파가 놓여져있었다. 나는 백종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파기름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부어 라면을 끓였다. 그 결과 라면이 맛있어지긴 했지만 내가 원하던 맛은 아니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라면을 끓여본 경험에 따른 맛 차이인 것 같다. 김밥천국에서 요리하시는 아주머니들은 나보다 수십배는 많은 라면 조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경험에서 나온 맛의 차이는 내가 지금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먹었던 그 라면은 수십년 간의 노력을 거쳐 나온 라면이었다.

경제학에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기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 0이 된다는 이론이 있다. 이 라면 요식업은 사실상 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시장에 어느 누군가도 똑같은

라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먹었던 그 라면은 그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아 이윤을 창출하게된 라면이라는 것이다. 내가 집에서 만든 라면 또한 패배한 것이다. 그분 들께서 끓이시는 라면의 가치는 나의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해주신 김밥천국 아주머니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생각난 김에 오늘도 라면 먹어야겠다.

😊 13 💬 9

임선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분식집 라면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 맛의 깊이를 따라하긴 쉽지 않죠! 경험과 관찰, 전공지식이 합쳐진 민재님만의 시선 너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라면에 김밥이라니.... 탄수화물 투머치.. 크흠 **주재형(청각학과)** 장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직업으로 삼아도 될만큼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우러나오는 실력인 듯 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밥천국 라면을 먹어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식집 라면들은 다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조만간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어요 ㅎㅎ 그리고 라면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민재님의 생각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요리는 같은 재료로 하더라도 어디서 먹는지 무슨 도구로 조리했는지 누가 조리했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하더라고요 김밥천국에서는 한번도 라면을 안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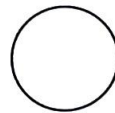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분식집에서 라면을 별로 안먹어봤는데 궁금해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라면에서 나온 연륜이란,, 글 잘 읽었습니다아

심지범 (경영학과) 남이 끓여준 라면과 직접끓인 라면의 맛은 차이는 분명히 있죠! 글 잘읽고 갑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글을 보고 생각해보니 김밥천국 라면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모님들의 스킬에 의해 제품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지혜와 신선한 접목에 놀랐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김밥에 라면 카 ...생각나네요 ㅎㅎ 좋은 글 잘 읽었어요!



2023/05/11

thursday, pm 6:14 | 20읽음

김노연(사회학과)

#4일차 #라면

라면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떠오르는 많은 기억들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엄마는 약 2년 정도는 거의 대부분 밤 11시 즈음에 들어오곤 하셨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매일 삼시세끼를 홀로 해결해야만 했고, 그런 나에게 가장 쉬운 요리는 아무래도 라면 아니었을까. 나는 컵라면, 봉지라면. 두 종류의 라면 모두 잘 먹었는데, 봉지라면이 더 싸다는 이유로 봉지라면을 더 자주 먹었던 것 같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봉지라면을 끓여서 먹을 정도로. 심지어 그땐 길을 가면서 라면을 먹기도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길을 가면서 라면을 먹다니, 주변이 의식되지 않았던 것일까. 다시 생각해보면 참 기행이다 싶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라면을 자주 먹지 않았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는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엄마도 그것을 원했다. 엄마는 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어하셨다. 그것 역시 엄마의 유년기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엄마께 정신적 애정을 지원받는 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주신다는 것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니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더욱 와닿는다.

초등학생 때에는 라면을 꽤나 좋아하고 자주

먹었지만, 중고등학생을 지나 성인이 된 지금은 라면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우선 먹으면 염분 때문인지 몸이 순식간에 피곤해진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보다 몸이 둔해진 느낌이 들고, 속도 편안하지 않다. 컨디션이 저하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걸 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라면같은 인스턴트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더 맛있다고 느낀다.

그래도 간짬뽕은 진짜 맛있다. 내일 간짬뽕 먹어야지. 하하하.

😊 13 💬 8

김한나(경영학과) 마지막이 반전이네요! 저도 어릴때 라면을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점점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라면을 안 좋아하는거 같아요! 그래도 다들 인생라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죠! 저는 너구리 좋아하는데 노연님은 간짬뽕을 좋아하시는군요;) 나중에 한 번 먹어 보고싶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소화를 시키느라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정말 없는 저는 고칼로리 음식 먹으면 항상 힘들어해요 간짬뽕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맛있나요? 궁금하네요

주재형(청각학과) 간짬뽕이 진짜 맛있다는 마지막의 글 때문에 너무 웃었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크크 간짬뽕 맛있게 드시길 !!

박소연(생명과학과) 간짬뽕에서 웃었습니다. 즐거운 저녁되길 바랍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짬뽕... ㅋㅋㅋㅋ 넘나 맛있죠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신세계였어요

심지범(경영학과) 건강한 음식만 드셨으면 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오 널 편의점 가서 먹어봐야겠는 걸요 ??



2023/05/11
thursday, pm 6:55 | 26원음
김유진

#4일차

나는 모든 음식에 진심이 편이다. 그리고 특히 라면을 먹을 땐 정말 어떤 음식보다 정성을 들이는데 나만의 특별한 라면 레시피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먼저, 다른 접시에 떡을 불러놓는다. 대파와 식용유를 이용해 파기름을 내고 물을 라면 봉지에 써있는 만큼 넣는다. 한번 끓으면 안성탕면 스프를 넣고 면을 넣는다. 그리고 까나리 액젓을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넣는다. 라면 끓이기 전에 불러놓은 떡을 넣고 이제 계란 하나를 넣고 푼다. 그리고 대접에 만든 라면을 다 옮겨 놓으면 완성이다. 이 레시피에서 핵심은 까나리 액젓인데 이 액젓이 라면의 감칠맛을 극도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다른건 다 못 넣더라도 액젓을 꼭 넣는 편이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 이 라면을 먹을수 없는데 본가에 가면 집밥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만든 라면이 가장 먹고 싶다.



😊 14 💬 11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라면에 떡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까나리 액젓은 넣어 본적이 없는데 궁합이 잘 맞다니 한번 꼭 끓여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헉 떡라면 진짜 맛있어 보여요.. 까나리 액젓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나중에 넣어봐야겠어요 ㅎㅎ

이유림(경영학과) 파기름까지 내서 라면을 드시다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와.... 진짜 사진 맛있게 잘 찍으시네요.. 떡라면 먹으러 갑니다아!

조은지(철학) 파기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도 다음에 시도해봐야 겠네요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라면 너무

맛있겠는데요 ... !? 사진만 봐도 침이 고여요

박소연(생명과학과) 아 배고픈데... 반칙입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떡 .. 라면,, 맛있겠어요 ㅎㅎㅎ 어디선가 액젓 넣는거 본적이었는데 맛있군요!

심지범 (경영학과) 떡라면.. 쉘름... 저도 기회가 된다면 끼리주세요~~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맛있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사진을 볼 때 백종원님 저리가라 하시는 요리 실력을 가지신 듯 합니다 놀라고 갑니다 :)

서원준 (중국학과) 배고픈데 이 야밤에 .. 낼 먹도록 참아볼게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맛있어보인다. 맛있어 보여서 가끔 라면을

끓여서 먹게되면 처음엔 생각처럼 너무 맛있다. 한입 두입 먹다보면

나도 모르게 금방 질리고 처음의 그 감동만큼 맛있진 않은 것 같다.

물론 배가차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엄청난 감동을 주고 그 뒤로는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감흥으로 약간은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

라면은 나의 일상과도 비슷하다.

언제나 있지만 때로는 엄청난 감동을 주기도,

때로는 심심하게

느끼게도 한다. 또 여러가지 토핑을 넣어 먹을 수 있듯이

일상 속에 토픽처럼 수많은 이들과 만나게 된다.

어떤 라면을 먹을지 내가 결정해야하듯

일상도 내가 결정하는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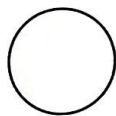
움직이게 된다.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은, 그러나 언제나

매일 찾아오는

우리 일상처럼,

😊 13 💬 8



2023/05/11

thursday, pm 7:55 | 18읽음

박진옥(사회학과)

#4일차 #라면

라면하면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있는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둘리에서 나오던 라면송이나 검정고무신에서

허겁지겁 라면을

먹는 장면 등 만화에서 나오던 라면이 많이

생각난다.

영화나 만화처럼 티비 속에서 보는 라면은

정말

김시현(러시아학과) 라면을 일상의 흐름에 빗대어

표현하신 것이 인상깊어요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앞으로 진옥님 일상에

더 재미난 토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ㅎㅎ

박소연(생명과학과) 참치+라면은 못참는

조합이죠.

주재형(청각학과) 검정고무신에서 나오는 라면이

제가 본 최초의 라면 이미지였죠. 어찌나 먹고

싶었는지 군침을 흘렸더라니까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검정고무신에서

나오면서 맛있게 먹는게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검정고무신을 오래만에sns로 보면 라면이 땡기는 생각이 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tv에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면 어찌나 그리 맛있게 먹는지 꼭 먹고 싶더라구요 하지만 항상 먹고나면 후회한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공감합니다 지금도 꿀일까 고민중입니다만 ...



2023/05/11

thursday, pm 9:06 | 25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4일차 #라면 #농심 #오뚜기 #추억
오늘은 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4일차 해시태그는 라면 이네요!
라면을 생각하면 빙상경기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스케이트를 땀 나도록 타고 나서 먹는 육개장
사발면이 생각이 나네요. 육개장 큰컵은 맛
없는거 다들 아시죠?!

지금은 나이를 먹다보니 육개장이 너무 짜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잘 안먹게 되고 진라면
매운맛을 찾게 되는데요!

라면 하나까 떠오르는 대사가 파 송송~ 계란
탁~ 노래 아시나요? 노래는 아닌데 영화
대사로 유명하죠! 라면은 우리 몸에 나쁘지만
허기질때 먹으면 포만감이 장난 아니죠!

김치에다가 먹고 마지막으로 밥 말아 먹으면
하루 한끼로 든든 합니다! 라면 하면 서민의
음식이기도 하죠. 또한 해외여행갔을때
우리가 찾는건 고추장과 컵라면이죠! 항상
우리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음식들이 우리
나라에 많은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 고유의
김치도 말이죠! 요새 중국 사람들이 김치도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음식이라고 우기는데
그런일은 절 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라면이라는게 어찌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라면 하나가 생명 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부대찌개가 우리 나라에 왜
성황했을까요? 모두 못먹던 시절에 미군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가지고 그거를 합쳐서
먹었던게 부대 찌개 인데요! 모든 세상
음식들은 누가 먹는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틀려지는거 같습니다!

항상 하루 하루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기를!



12



10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지범님 글 기다렸어요

ㅎㅎㅎㅎ

빙상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많이 타셨군요! 저도
수영을 해서 운동하고 먹는 라면맛 너무
공감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와 맞아요 스케이트장은 좀
추워서 그런가 열심히 타고 나와서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글쓴이님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ㅎㅎ

고다인(법학) 와 저도 스케이트타고 라면을
사먹고는 했어요 ㅎㅎ 추억이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옛날과 달리 육개장이 조금
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선보다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먹습니다 ㅎㅎ 잘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부대찌개가 그런 상황에서
나온거였군요. 처음 알았어요. 지범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루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한나(경영학과) 오옷 저도 라면을 먹는다고 하면
진라면 매운맛을 먹습니다:) 파송송~계란 탁!
라면을 더 맛있게 해주는 주문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힘이나네요! 지범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김한나(경영학과) 다시 찾아
보니 파 송송~ 계란 탁~ 이었네요! ㅎㅎ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경희(국어국문학과) 댓글에서도 글에서도
존재감이 있어서 지범님 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ㅎㅎ 색다르고 밝은글 잘읽고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지범님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밤 되세요

정예진 (생명과학과) 스케이프 타고 먹는 라면
정말 맛있죠.
매우 매우 공감 합니다 :)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



2023/05/11
thursday, pm 9:23 | 21views
고다인(법학)

#4일차#라면

몇년전에 대만 타이페이로 여행갔을때, 대만 친구들이 맛있다고 추천해준 컵라면이 있었다. 만한대찬이라고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이제는 꽤 유명한 라면이다. 여러가지 맛 중에 super hot이라고 써져있는 빨간색 패키지가 가장 맛있었는데 말만 super hot이지 전혀 맵지는 않다. 귀국할때 아쉬운 마음에 만한대찬을 팩으로 사서 가끔 생각나면 끓여먹고는 했었다. 한국 라면이랑 다르게 소고기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 가족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던 라면이다. 고등학생때 몇 번 더 대만을 놀러가고 놀러갈 시간이 없었는데 올해 2월에 친구들을 만나러 또 대만을 가게되었다.

3년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들과 놀고나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만한대찬을 하나 사서 먹었는데 여전히 맛있었다. 또 몇 팩 사서 가야지 생각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제는 육류가 들어간 음식은 한국에 반입이 안된다고 나왔다. 한국 편의점에도 만한대찬을 팔지만 뭔가 나중에 대만을 또 놀러가면 그 때 사먹자 생각이 들어 손이 가진 않았다. 혹시 대만으로 놀러갈 학우들이 있다면 대만 향신료에 조금 지칠때 만한대찬 하나 사먹으면 좀 도움이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 11 💬 9

- 김시현(러시아학과) 대만 가본 적이 없어서 대만라면 실물을 처음보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뭔가 포장지의 이미지가 한국 컵라면과 비슷한것같은 느낌도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 이유림(경영학과) 편의점에서 봤었는데 이게 대만 컵라면이었군요! 한 번 먹어봐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외국 컵라면은 이런 느낌이군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얼큰한 맛이 느껴질 것 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심지범(경영학과) 저도 하나 사먹어 봐야겠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 조은지(철학) 저도 편의점에서 본 적 있어요! 한국에 들어올만큼 유명한가보네요. 대만에 가본 적이 없어서 향신료 맛이 궁금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외국 컵라면은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데 맛나셨다고 하니 궁금해져요:)
- 서원준 (중국학과) 와 저 이거 디게 좋아하는데 ㅎㅎㅎ 공감하고 갑니다당
- 정예진 (생명과학과) 최근에 대만 타이베이가 가서 사먹어봤어요.. 보고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사서 먹어봤는데 한국 라면이랑은 다른 느낌으로 맛있었어요 :) 사진으로 보니 되게 반갑네요
- 김한나(경영학과) 나중에 대만 가보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한국에 반입이 안되는건 너무

아쉽네요ㅠ 한국에서 파는 건 조금 다르겠죠?
한국라면만 보다 외국라면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2023/05/11

thursday, pm 9:36 | 19views
강민지 (사회학과)

#4일차 #라면

Q는 신참 스나이퍼이다. 신참 중에서도 여러모로 사고를 많이 쳐서 모두에게 욕을 먹고있다. Q는 「재는 어떻게 스나이퍼가 되었을까....? 왜...어째서..?」 에 '재'를 맡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제부터 가장 어이없게 끝난 사건에 대해 서술하겠다.

세 달 전, 12월 중순이었다. XX 주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살고 있는 AK 그룹의 회장, 아케드영감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Q에게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다. 이에 Q는 「에이 걱정 마세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서 올게요-!」 라며 씩 웃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Q는 대저택의 옆쪽에 위치한 (사실 어마하게 떨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이다.) 낮은 빌라의 옥상에 도착했다.

「하...너무 멀다... 근데 진짜 너무 추운데....」 아주 먼 거리지만 혹여나 들킬까 Q는 얼음을 물고, 덜덜 떨며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벌써 오후 7시 30분이 되었다. 토요일엔 늦어도 오후 3시까지 돌아오는 아케드 영감이 이상하게도 집에 오지 않았다.

「아씨....이 망할 영감탱이가 왜 이렇게 안와...배고파 죽겠네....」 잔뜩 성이 난 Q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뿜었다. 더군다나 아까부터 라면 냄새가 나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진 터였다.

이때, 아케드 영감의 차가 들어왔다. Q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목표물을 바라보았다.

Q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차분하자....차분하자....내리면 단번에 끝내는 거야.....」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몇번씩 되새겼다. 마침내 아케드 영감을 태운 차가 차고 앞까지 도착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 순간, 문 바로 밑에 있는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허허 문 잠그는 거 깜빡했다!! 이런 미친!!」 Q는 식은땀을 흘리는 동시에 욕설을 마구 내뿜으며, 총이고 뭐고 싹 다 정리했다. 순식간에 정리를 마치자마자 앞을 보니 그곳엔 라면이 담긴 커다란 냄비를 들고 올라온 아저씨, 미니 난로와 담요를 들고 있는 아들, 그릇과 나무젓가락 그리고 김치를 가지고 있는 딸이 있었다. Q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곳에서 사는 사람이라며 반갑게 인사한 다음 서둘러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아저씨가 합석을 권유했고, 어린 딸마저 같이 먹고 가라 성화였다. 마지못해 Q는 떨떠름하게 평상에 앉았다.

아저씨는 그릇에 라면을 덜어주며 많이 먹으라 했다.

「그래...배도 고팠고...하...모르겠다...」 속이 썩쓸해진 Q는 얼른 국물부터 마셨는데, 알 수 없는 전율이 그의 온몸을 훑었고 입 안에선 폭죽이 터졌다. 정말 미친듯이 맛있었던 것이다. 허겁지겁 김치와 함께 라면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다 해치웠다.

「아저씨....너무....너무 맛있어요...어떻게 끓인건가요....?」 Q는 감동적이라는 듯 아저씨를 향해 물었다.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라면봉지 뒤에 나온 레시피를 완벽하게 지킨다고 했다. 그게 최고라나 뭐라나 배가 불러 한껏 기분 좋아진 Q는 본인의 일도 잊은 채 그들과 실컷 떠들고, 논 다음 본부에 돌아왔다. 그런 다음은 뭐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여하튼 Q는 이때 먹은 라면이 본인의 인생라면이라며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이후로 라면을 끓일 때면 두 가지를 꼭 지키는데 첫 번째는

봉지 뒤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끓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겨울엔 무조건 집 베란다에 나가 추위를 만끽하며 먹는다고 했다. 실수나 하고 라면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 말하는 꼴이란.....어이가 없어 뒤로 자빠질 일이 아닐 수 없다.

😊 13 💬 4

김시현(러시아학과) ㅋㅋㅋㅋㅋQ의 어리바리한 모습이 선배 스나이퍼들에게는 답답했겠지만 임무수행하러갔다 라면 얻어먹은 썰을 당당하면서도 부끄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귀여워하지 않을까싶어요 또 촌데레처럼 잘 대해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Q의 상황을 다 눈치 챘을텐데도 라면을 나눠주는 아저씨도 훈훈하네요
주재형(청각학과) 힘든 와중에 처음 느껴본 맛의 라면을 먹은 Q의 첫 반응이 너무 귀엽네요 ㅋㅋ 재밌는 소설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재미있는 소설 웃으면서 보았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ㅎㅎ 감사해요 좋은 밤 보내세요!



2023/05/11
 thursday, pm 10:07 | 20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4일차 #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열려라 참깨라면’ 입니다.
 신라면, 진라면 처럼 흔한 라면은 아니지만 한번 쯤 보이면 사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요 :) 열라면과 참깨라면이 섞인 라면인데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고소해 균형이 정말 좋은 라면이에요 많이 맵지도 않아서 매운걸 못드시는 분도 드실 수 있을거예요.

두번째로 좋아하는 라면은 ‘진짬뽕’ 인데요.

가끔 색다른 맛의 라면을 먹고 싶을 때 자주 찾는 라면이에요. 면발이 두껍고 국물도 얼큰해서 해장할 때도 참 좋습니다 :)

제가 좋아하는 라면들을 소개해봤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한번쯤 보신다면 이 글을 떠올리시고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12 💬 11

김시현(러시아학과) 참깨라면 먹어본 적은 없지만 광고 속 노래가 계속 맴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반갑네요! 다음에 꼭 먹어봐야겠어요
심지범 (경영학과) 키키 내일 사먹어 봐야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열려라 참깨 맛있어요 :) 진짬뽕도 맛나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열려라 참깨라면은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네요!! 가끔 학교에서도 참깨라면을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예진님이 소개해주신 걸로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요새 오투기 짜장라면에 빠졌는데 예진님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팔도비빔면을 좋아합니다. 참깨라면은 진짜 군대에서 100개는 먹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ㅎㅎ 글 잘 읽었어요!
김경희(국어국문학과) 챌린지에서 무게감있는 글만 보다가 분위기가 환기되는 글인것 같습니다!!
조은지(철학) 열려라 참깨라면은 처음 들어요. 다음에 마트에 가면 라면 코너를 유심히 봐야겠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시원 (글로벌학부 정보법과학전공) 헉 저 오늘 점심에 열려라 참깨라면 먹었는데!! 운명적인 글이네요... 열려라 참깨라면은 열라면과 참깨라면의 맛이 적절히 잘 섞여서 정말 맛있죠... ㅎㅎ 같은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요!

서원준 (중국학과) 계란이 들어간 해장 지대로 되는 참깨라면 !!! 저도 좋아해요

이유림(경영학과) 참깨라면은 아는데 그 노란색 참깨라면과는 다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름이 열려라 참깨라면인걸까요? 노란색 참깨라면은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정예진 (생명과학과) 이유림(경영학과) 노란색 참깨라면과 열라면이 콜라보한 라면으로 참깨라면 좋아하신다면 열려라 참깨라면도 좋아하실거예요 :)



2023/05/11

thursday, pm 10:23 | 19읽음
김용후(법학과)

#4일차

#라면

국내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약 50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라면은 언제부터 한국인의 열렬한 사랑을 얻게 되었을까. 그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비 대신 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그 과정에서 라면이 등장하였다. 조리 시간이 짧고 조리 방법이 간편한 데다가 상대적으로 길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라면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라면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소비재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라면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점점 라면을 구매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작년과 작년을 지나며 라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라면 가격이 인상되는 주된 요인으로는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곡물, 유가 및 기타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라면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관련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이 '엔겔 지수'의 개념이다. 엔겔 지수는 전체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총지출액 대비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식료품의 필수재로서의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 식품 가격이 오르며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체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식료품에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지출할 수 있는 실질소득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경제 전체에 퍼진 현재 상황에서, 라면 등 식자재 가격 인상은 서민경제의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최근에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 더하여 공공 서비스 가격의 인상도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담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한 번 올라간 물가 수준은 이전 수준으로 빨리 복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부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적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 당국은 먼저 라면, 쌀, 우유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 동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격 인상의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급망을 정비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아진 경제적 취약계층이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식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들 소외계층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11 💬 8

김시현(러시아학과) 요즘 정말 물가상승이 장난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덕분에 새로운 정보들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지(철학) 맞아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식품의 경우 정말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덕분에 경제적 정보도 얻어갑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심지범(경영학과) 물가 상승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거 같아요. 점차 점차 국민들은 물가상승에 익숙해 질것이고 또한 우리의 월급도 같이 올라야 수지타산이 맞겠죠!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앵겔지수에 관한 정보를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었네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물가상승에 대한 저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학생인 저희들은 더 민감한데 ㅋㅋ 글 잘 읽었어요!

김용후(법학과) 서원준(중국학과) 제 주머니가 아직 살아있는지 슬며시 확인해보게 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편의점 가는데 삼각김밥에 라면만 먹어도 비싸더라고요 ㅋㅋ

이유림(경영학과) 요즘 물가 상승 진짜 손 떨리더라고요 육개장 사발면이 1000원 넘어간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버는 돈에 비해 너무 비싸서 많이 망설여지는 요즘이네요 잘읽었습니다!



2023/05/11

thursday, pm 10:45 | 16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4일차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먹은 음식 '라면'

면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로써는 라면을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가족 곁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하며 수업들으랴, 과제하랴, 동아리 활동하랴, 학생회 활동하랴, 과제하랴, 빨래하랴 정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듯 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쌀은 커녕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매우 많이 먹게

된다.

“난 라면 맨날 먹어도 안 질릴걸?”이라고 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정말 질리도록 먹었다.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먹는 집밥이 얼마나 맛있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또한 소중하다고 다시금 느꼈다. 내일이면 본가인 서울로 올라가는데, 집밥을 맛있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할 생각을 하니 힘들었던 오늘 하루가 힘들지 않다.

😊 9 💬 14

심지범(경영학과) 저는 춘천에서 자취 하는데요 가끔은 그림습니다! 집밥이! ㅎㅎ 글 잘읽고 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심지범(경영학과) 집밥 짱..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밥심!! 라면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도 챙기셨음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용후(법학과) 아이구 감사해요 ㅋㅋ 옹후님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서원준(중국학과) 어서 생각날 때 집으로 떠나요 !! 글 잘 읽었어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서원준(중국학과) 당장 집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음식에 쉽게 질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한달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주재형(청각학과) 세상에 그래두 가끔씩 쌀밥 챙겨 드세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한동안 질리도록 먹은 것 같아요 ㅋㅋㅋㅋ ㄱ

이동금(정치행정학과)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편의점에서 안먹어 본 라면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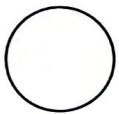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왓 저두 새로운거 나오면 고거 먹는 느낌으로 한동안 진짜 많이먹었는데 ... 질리더라고요 ㅋㅋ

이유림(경영학과) 자취하거나 기숙사 사는 친구들을 보면 빠르고 편하게 먹기 위해 라면을

많이 먹더라구요 집밥이 그림다고 말하던 게 생각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동금(정치행정학과) 이유림(경영학과)
감사합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동금님 말에 큰 공감합니다
저도 해외생활과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라면입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매일 떼워서 내 몸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집밥이 그림기도 하구요



2023/05/11
thursday, pm 10:56 | 16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4일차 #라면

‘라면’이라는 단어를 보자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떠올랐다. 편의점에 들려
불닭볶음면과 같이 먹을 음식들을 샀다.

불닭볶음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사 먹었던 추억이 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던 나는 가족 중 제일 늦게 다 먹었다. 그
시절에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지 않아서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도 않았다. 그때 처음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며 매워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서로 매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던
기억이었다.

한 번 먹고 가끔 생각이 나서 사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고등학생 때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습관이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닌, 그저
맛을 즐기며 불닭볶음면을 먹는다. 오랜만에
오늘 라이팅 챌린지 주제 덕분에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불닭볶음면을 먹는다.

이번 동계방학 때 일본에 갈 계획인데,
일본에서 라면(라멘)과의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당신은 라면과 관련된 추억이 있는가?

😊 11 💬 8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라면도 드시고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신라면에
청양고추 엄청 넣어서 먹으면 화가 좀
내려가더라구요 무튼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새벽에 나가 일본라면 먹은 게
젤 기억에 남네요

주재형(청각학과) 라면을 끓여 방으로 가고 있는데
발목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침대사이에 부와악
썬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 한숨이 나는 기억이에요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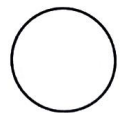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불닭 볶음면... 그다음날 아침이
너무 고통이에요..ㅠㅠ 글 잘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불닭 나온지 10년
넘었던 거 듣고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구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나여

이유림(경영학과) 방학 때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시군요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불닭 화끈하게 맵죠 ㅎㅎ
알바할때도 가장 인기 많은 라면이 불닭이었어요!
애기들도 매운데 잘 먹더라구요 스트레스 풀 때
짱인거 같아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불닭볶음면은 볶음면
중에서 제일 진리인것 같아요 맵지만 자극적이고
마라탕과 같은 존재인것 같아요 일본에서 먹었던
돈코츠 라멘도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일 추웠을때 야외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었던
라면이 가장 따뜻해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



2023/05/11
thursday, pm 11:12 | 20읽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4일차

우리 가족은 라면을 좋아한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적어도 이 주일에

한 번씩은 라면을 먹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라면이 없으면 집 앞 슈퍼에 가서 사 올 만큼 라면을 좋아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말이다. 그때마다 아빠는 커다란 냄비에 계란도 안 하고 대충 물을 부어 넣었다. 항상 신기했던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맛은 훌륭했다는 점이다. 나는 아빠가 라면을 끓일 때 옆에서 라면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물이 채 끓기도 전에 한 번에 뜬어 넣었다. 아빠가 스프를 벌써 넣으면 어떡하냐고 잔소리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집은 라면에 항상 계란을 넣는데, 가족 모두 완숙을 좋아해서 계란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면은 조금 불기도 했다. 그래도 난 그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나 이렇게 4명이다. 그러나 오빠는 현재 군대에 있고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가끔 본가에 내려가도 나의 알바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날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난 가끔 오순도순 라면을 먹던 예전이 그리기도 하다. 일요일 아침, 동물농장을 틀어놓고 졸린 눈을 비빈 채 먹었던 그 시간이 말이다. 그때는 그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행복이었던 것 같다. 소중한 행복을 놓친 채 살아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라면이 생각난다.

😊 12 💬 11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동물농장과 조합은 자못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작지만 사실은 큰 행복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어릴때 일요일에 아점으로 가족 모두 모여 라면을 먹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점점 커가면서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일도 어려워지는거 같아요.. 지혜님 글 덕분에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화목한 시간이었던걸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별거 아닌거 같은 소소할 일상에 가끔씩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죠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라면이 간단하지만 추억이 제일 많은 음식인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가요!!

정예진(생명과학과) 저희 집도 라면을 참 자주 먹어요 ~

가족 모두 라면을 좋아해서 주말 일요일 아점은 라면을 자주 먹었어요 :) 지금은 기숙사 생활로 자주 그리진 않아도 가끔 집에 가서 먹는 라면은 언제나 맛있는거 같아요 .

심지범(경영학과) 가족과 함께한 라면 추억 여행이 생생하게 들리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라면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족끼리 도란도란 먹는 기억에 더 맛있게 느껴진건 아닐까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저의집도 아빠가 이것 저것 넣은 라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희 가족도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가요 노란 냄비에 끓이는 라면이 진리라는데 왜 그런걸까요?

지혜님이 말하신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행복을 이루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

서원준 (중국학과) 그런 소소한 일상은 곧 돌아올 거예요!!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저희 가족이랑 비슷한 추억인 것 같아서 공감이 갔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05/11

thursday, pm 11:59 | 19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라면 #

이번 학기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라면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통 라면은 '밥 대신 먹는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차려진 식단 밥 보다 라면을 선택한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간편하고, 저렴한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요리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라면을 주제로 올라온 글들을 읽으며 라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또 한번 흥미로웠다.

😊 10 💬 7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도 학생 식당에서 라면을 줄곧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면과 국물이 항상 생각나서 다시 찾게되요 K-푸드의 자랑인 라면이 너무 좋습니다 선율님 글 잘 보고 갑니다~

심지범(경영학과) 학생식당 라면 괜찮죠!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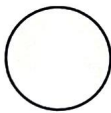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와중에도 배식봉사를 하시는군요 학우님의 따뜻한 마음씨 덕택에 다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심시일반이었나요? 비슷한 글을 본 것 같아요. 바쁜 점심시간대 봉사를 직접 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세요..!

이유림(경영학과) 학생들은 라면을 더 많이 선택하는군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봉사라니 멋져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누군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는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님 간편함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간편함이 더 클것 같기는 하지만요

서원준 (중국학과) 봉사해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화이팅!



2023/05/12

friday, am 12:00 | 22위음

배성준(경영학과)

#4일차 #라면

라면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다. 물론 나는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아 라면을 잘 먹지 않지만 본가에도 라면은 3봉지씩 있고 할머니덕에도 라면이 몇 봉씩 쌓여있다. 먹는 연령대도 매우 다양하다.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등등등... 지금 따져보자면 우리나라의 소울 푸드는 김치와 밥 뿐만이 아니라 라면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처음 라면을 맛 봤을때가 기억난다. 처음에는 너무 맛이 짠데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한 개를 클리어 했던 기억이다. 아플때도, 피곤할때도, 입맛이 없을때도, 배를 채울 때도, 뜨끈한 국물이 필요할때도, 식비가 부족할때도 라면이 있다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루는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장은 보러가야하는데 귀찮았던 적이 있었다. 남은 것도 시금치, 치커리, 브로콜리, 고구마 밖에 없었다. 배는 또 고파서 일단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부터 끓였다. 그 다음에 '뭐 맛은 있겠지' 하면서 집에 남아있던 재료를 다 때려부었다. 다 끓인 후의 라면 이름은 "시금치 치커리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카레 파슬리 라면!" 이었다. 한 손갈 입에 넣어서 맛을 봤는데...

그 순간 인도의 부처님이 "그래, 이 맛이야!"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맛은 마치 인도의 정통커리?를 먹는 느낌이였다.

정말 라면과 섞이면 아무리 각각 맛이 제각각이고 이상하더라도 맛없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각각의 재료들을 조화롭게 버무린 그 맛은 환상적이다.

정말 라면은 하늘이 내려 주신 선물 같다.

여러분은 라면에 어떤 재료를 넣어드셨을때 맛이 좋았나요??

😊 12 💬 8

심지범(경영학과) 우리 나라 소울 푸드에 넣어야 하는거 적극 추천합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도 라면을 처음 맛
봤을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쫄깃한 면발과
국물 너무 맛있어요 라면은 누구에게나 소울
푸드인것 같아요 저는 치즈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카레 라면도 좋아합니다!!

김준수(광고홍보학과) 라면이 참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서 가격도 착하고 소소한 추억도 많은 음식
중 하나인것같아요 진짜 소울 푸드에 넣어야
하는거 적극 찬성합니다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가요!!

주재형(청각학과) 맛에 대한 비유가 정말
웃기네요 ㅎㅎ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라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ㅋㅋ 어떤 맛일지 감히
상상이 안되고 +결코 저는 해먹지 않을 조합인데요
..? ㅋㅋㅋㅋ

김한나(경영학과) 라면이 여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들어간 라면 신박한데요?!
라면에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해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거 같아요 저는 계란을 잘 넣어 먹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전 기본 라면이 쫄 맛있는 거
같아요



2023/05/12

friday, am 12:12 | 39읽음
김양선

#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얼추 다 언급된 것 같네요.
다양한 요리법, 가족과의 추억, 라면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등 잘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면의 유혹에 빠져 물을 끓이지는 말고,
편안한 밤 보내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나 물
한잔이 좋겠죠??

😊 21 💬 3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오늘 주제보고 이미
저녁으로 물을 끓였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김태희(영어영문학과) 저도 주제보고 저녁을
라면으로 선정했습니다! 무거운 키워드가

아니어서 더욱 신선했던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서원준 (중국학과) 행복한 밤 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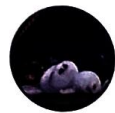
2023/05/12

friday, am 7:55 | 37읽음
김양선

#5일차 키워드 : 도서관

도서관은 지식의 저장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요즘, 도서관은
시험공부를 하는 곳, 학우들과 스터디를 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지역 곳곳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오디오도서관도 있지요. 여러분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도서관
특유의 분위기나 냄새,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
등등 오늘은 도서관에 대해 써봅시다.

😊 16 💬 0



2023/05/12

friday, am 8:28 | 19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5일차 #도서관

일송기념도서관은 한림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문을 바로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서관 앞의 조각상이
있는 큰 분수는 여름에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리고 한림대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서관 입구 앞의 다비드 조각상!
이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사오신 거대한
조각상이라 들었는데 정성이 대단하시다.
또한 도서관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1층에
박물관까지 있다니 도서관에 들인 공이 많이

느껴진다. 리모델링을 종종 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다. 점점 복합공간이 되어가는 것일까.
 낮에 보는 우리 학교의 도서관도 아름답지만 밤에 보는 도서관 전경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의 사진 명소다.

도서관의 분위기를 참 좋아한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특유의 오래된 책 냄새는 괜히 더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된 것만 같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곳이기에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의 질서정연함과 백색소음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발자국 소리 .. 필기하는 소리.. 책 넘기는 소리 등등...
 도서관 안의 열정적인 모습들은 나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준다. 또한 건물의 구조도 정말 멋있지 않은가? 특히 한쪽 면의 거대한 유리창!
 유리창으로 보는 학교 밖의 짹하고 파란 하늘과 구름은 평소에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지나친 자연을 다시 한번 감상하게 해준다. 사계절의 풍경을 감상하기 최적의 장소. 뭔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라 좋다. 바쁜 현대사회에서의 잠시 휴식을 갖는 기분이다.

사람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다. 여름엔 에어컨이 빵빵해 더위를 피하게 도와주고, 겨울엔 따뜻한 그곳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지상낙원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평소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시험 기간에는 북적거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학교 도서관은 아니지만 여러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도서관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은 어릴 때 말곤 거의 가보지 않았는데, 오늘 글쓰기로 종종 다시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일단, 도서관으로 가보자! 그럼 당신은 도서관의 각양각색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 12 💬 11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도서관이 좋아요. 우리 학교 도서관의 매력이 다양하니까 많은 학우분들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주재형(청각학과) 1층의 정면 유리창을 보면서 공부하면 정말 분위기 있죠. 저도 종종 그곳에서 공부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오래된 책 냄새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해요... 저희 학교 도서관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것들이 다 멋있지만 특히 유리창이 정말.. 모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일층 가장 좋아해요!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함예원(미디어스쿨) 도서관에서 찍은 친구들 사진을 보면 정말 멋있더라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전 그런 매력을 다시 찾아 기말고사를 향해 달려가야겠어요 ㅎ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는 내심 시험기간이 아니면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 쾌적하고 넓게 공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도서관의 존립을 위해서는 제 생각이 좀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ㅎ ㅎ ㅎ 오늘 글에서 묘사해 주신 쾌적하고 좋은 도서관에서 이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글에서 묘사해주신 내용들을 온전히 느끼며 글을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해요!

심지범 (경영학과) 도서관의 묘미는 빠지면 빠질 수록 흥미롭죠! 글 잘 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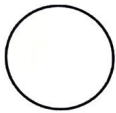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저도 도서관이 저희 학교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건물 덕에 학교 풍경도 예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희 학교 도서관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시헌님 글처럼 밤에는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어

밤에 도서관을 나올 때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비록 너무 고요한 도서관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도서관에서 풍기는 그 느낌이 좋아
요즘들어 자주 가는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강민지 (사회학과) 괜히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에 심히 공감합니다 :)



2023/05/12
friday, am 8:34 | 17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5일차#라이팅챌린지

도서관은 나에게 쉼터이다.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는 밖에서 오랜 시간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 도서관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숲속을 헤메다가 들어간
오두막집처럼. 책이 가득한 도서관 구석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책도 많고
넓고 튼튼한 책상도 있고 안식처로 삼기에
안성맞춤이다. 도서관을 생각하며 시를
써보았다.

도서관
신유정
수많은 책장
여러개의 책상
적당한 온도

많은 과제
불안함 불편함
답답함 피곤함

그럴 때는 그곳으로 간다
숲속을 헤메이다 들어간

오두막집 처럼

나에게 안식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
그리고 도서관이다

😊 12 💬 10

김시현(러시아학과) 와 도서관을 숲 속의
오두막집이라고 비유하신 것이 인상깊습니다
멋진 시 잘 읽고 갑니다!

주재형(정각학과)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정말
맞는게 책넘기는 소음이나 필기구 소리만 들리니까
시끄러운 외부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좋은 시 잘 봤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맞아요.. 숲속의 오두막집!
정말 도서관은 또 다른 세상인 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약간 갈 곳이 없으면
가장 편안한 공간이 도서관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저랑 같은 생각이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 또한 책을 통해 내가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다른 세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시로 읽으니 유정님이 느끼신
도서관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연이 마음에 들어요.
안식처이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적은
부분이 저에게도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님에게도 언제나 도서관이 안식처이자 오두막
같은 공간으로 잘 남아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시험기간만 되면 압박감이 너무
느껴지는데요! 저도 덩달아 같이 공부하게 되는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도서관을 안식처로 비유한게
인상적인 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너무 고요한
도서관보단 사람들이 토론하는 소리가 들리는
도서관을 더 좋아하는 데 그런 곳에 가면
유정님처럼 제 안식처같이 느껴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편안함.
그래서인지 도서관은 이름은 딱딱한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ㅎㅎ 시 정말 잘 읽었습니다!



2023/05/12
 friday, am 8:41 | 22읽음
 주재형(청각학과)

#5일차 #도서관
 #일송기념도서관은대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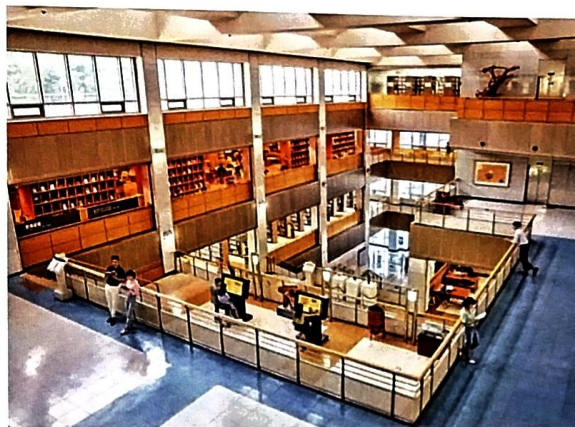
지식의 보고이자, 수많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의 문화, 학습, 관심사에 맞는 책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허무맹랑한 상상을 하는데요. 만약 저에게 무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송도서관 내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 지 상상해보곤 해요.

일송도서관을 포함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도서관은 그 설립주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종류를 나눕니다. 국가가 설립했다면 국립도서관(우리나라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3곳 존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공립도서관, 법인 소속이 설립하는 사립도서관, 일송도서관 같은 대학도서관,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학교도서관 등등 이외에도 전문,콘텐츠,특수도서관이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도서관 이용객 중 모두가 건물로 된 오프라인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바로 온라인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전자책과 온라인 자료들도 IT기술에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어요.

위치적 제약으로 접근성이 낮은 오프라인 도서관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도서관은 추가적인 학습활동을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나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도서관이 온라인도서관보다 자신의 주위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부분에선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죠.

또 도서관은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교육과, 지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사회적인 연결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처럼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이자, 학습의 장소로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가야하는데 여러분도 다들 그러시나요? 공부도 좋지만.. 솔직히 금요일에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 14 💬 10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유익한 글 같습니다:)
 전...일송도서관에 있는 책 죽기 전까지 다 못읽을

그런데도 ㅋㅋㅋ 단서점이 이렇자 평생에도 평생
해독해 나날다들 건 지음 읽었는데 덕분에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전자책보단 종이책이 최고라고
생각할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자책만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이책이 최고죠, 책장
넘기는 소리, 책 냄새, 밑줄 긋는 소리까지!! 아-
저도 접 가고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행리학과) 저도 약간 책을 구매했던
시기의 사람의 문화와 생각이 책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종이를 만지고 넘기는 것 자체가
내가 읽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좋은 것
같아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좋은 정보가 담긴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도서관에 가는 행동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음 이 글은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글로 작성하셨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글을 쓰는 시도를 빨리지에서 접할 수 있어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글에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목적이 더욱 대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학습
이전에 독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말씀해주신 논점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금요일에 본가는 못참죠!! ㅋㅋ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재형님의 글 중 도서관이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에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그동안 도서관은 지식의 창고로서 배움을
경험하는 장소라고만 생각했을 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이라능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지식을
나누며 배울 수 있는 공간. 그건 도서관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네요! 덕분에 잘 배워갑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고다인(법학) 오 도서관이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은 생각 못했네요 글 잘읽고가요~



2023/05/12
friday, am 9:10 | 19888
박지원(사회학과)

#5일차 #도서관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우리 학교
도서관은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요. 학교
셔틀버스를 저녁마다 이용할 때 도서관을
지나서 정문을 나서는데, 창가 너머 불이 켜져
있는 도서관의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이 그저
빛이 나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도 정말 좋아해요.
책으로부터 오는 편안함 때문인지 도서관
혹은 그 서점만의 독특한 냄새, 조명, 나무..
정말 좋아해요.

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찾을 때 조금
스릴 넘치면서 재밌는 거 아시나요?
도서관이나 서점을 들어서는 순간 책과 나,
둘만의 게임이 시작돼요. 바로 이 친구(책)와
나, 둘만의 숨바꼭질이 시작되거든요. 가끔
높은 선반에 있을 때는 '너는 키가 작아서 못
잡겠지?'라고 나를 약 올리는 기분도 들고,
책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때 '야
여기 있잖아!'라고 자기를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힘들게 찾은 책이랑은 더 깊은 애정이
가는 거 같고 끈끈한 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독립서점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책 한
권씩 사 가세요! 독립서점을 방문한 당신의
기억과 그날의 계절, 독립서점의 특유한 냄새
그리고 그 시절 당신의 마음과 사랑이 그 책
속에 담겨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럼 안녕! :)

😊 14 💬 9



김시현(러시아학과) 책 찾을 때 진짜 책이랑 숨박꼭질 하는 느낌이에요ㅋㅋ 분명 맞는 청구번호 구역으로 왔는데도 보이지않았다가 알고보니 눈앞에 있기도 하고 너무 높거나 낮은곳에 있기도 하고... 공감합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숨박꼭질이라니 정말 좋은 표현인것 같아요. 저는 어떨때는 뭘 빌려야지 생각을 안하고 좋아하는 번호(저는 800번대랑 심리...? 요쪽을 좋아해요) 거기가서 책장을 훑고 책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책을 고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ㅎ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으려면 방대한 도서관의 공간 속에서 숨박꼭질을 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숨박꼭질을 비유해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잘 봤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독립서점 꼭 한 번 방문해보아야겠어요! 오늘 지원님의 하루도 안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라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공간들을 너무 좋아해서 언급해주신 도서관, 서점, 독립 서점에 대한 생각들이 무척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적어주신 글을 보니 독립 서점이나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 잘 건축된 도서관들을 누비고 싶어져 서울로 갈 계획을 급히 짜보고 있습니다 ㅎㅎㅎ

심지범(경영학과) ㅎㅎ 올 학교 도서관 야경도 이쁘죠!!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책이 가득한 곳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냥 종이에서는 날 수 없는거라 좋아하는 편이에요 학교 도서관 야경도 예쁘죠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원님의 말처럼 저희 학교 도서관은 언제나 예쁘지만 특히 밤이 되면 그 아름다움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은은한 조명에 비치는 건물이 어찌나 반짝 빛나던지...!! 그래서 도서관 마감시간까지 있다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ㅎㅎ 그리고 요새 저는 책을 서점보단 인터넷을 통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님의 글을 읽고 나니 오랜만에 서점에 가보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2
friday, am 10:46 | 18읽음
김유진

#5일차

나는 대학교 들어오긴 전부터 '대학교 도서관'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대학교 도서관은 보통 수많은 논문과 대학교 교재, 다양한 소설들이 있을것 같다는 환상이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는 나의 그 환상과 기대에 완벽히 충족해주었다. 어딜가도 책이 있고 어딜가도 공부할 곳이 있는 정말 대학교 도서관 다운 대학교 도서관이었다. 특히 시험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공부하는 학우들이 많아 정말 내가 대학교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은데 열정 넘치게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진다. 시험기간에 자리가 없는건 좀 슬프지만.... 무엇보다 우리학교에서 도서관은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공부가가장 잘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시험기간에는 항상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불태운다. 이번 시험기간도 잘부탁한다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게 전해주고 싶다!

😊 11 💬 9

주재형(청각학과) 시험기간에는 자리를 좀 어떻게 늘려줄 수는 없는건지 ㅜㅜ. 저도 림대도서관을 보고 넓은 공간과 멋진 디자인에 넋이 나간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 뭔가 대학 도서관은 중고등학교 도서관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었어요 이번 시험기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다음 기말고사도
화이팅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한 번도
시험기간에 도서관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말고사에는 가봐야겠어요!

함예원(미디어스쿨) 저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대학을 오면서 학술적인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시설이 좋은 도서관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서 무척 기뻐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유진님이 쓰신대로 가슴이 몽글몽글해진다
표현이 무척 공감 많이 됩니다. 이번

시험기간에도 저희 모두 도서관에서 힘내 보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저희 학교 중에서 도서관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뭔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아도 제가 엄청난 일을 한듯한
느낌이랄까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저도 이번 기말을 잘 보고
싶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새내기 시절에
도서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저희 학교
도서관이 그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서관 가는 횟수가 늘자
유진님 글처럼 저희 학교 도서관이 공부하기 정말
좋은 곳임을 알았죠. 오히려 도서관에 오는 것을
늦게 시작한 제 자신이 후회될 정도로요 ㅎㅎ
그래도 이제부터 열심히 다니면 되겠죠??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2
friday, am 11:39 | 17 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5일차 #도서관

요즘 정말 나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 3학년이
되고나니 도서관이 내 집 같고, 안가면
불안하고,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진

느낌이 괜히 들고 ... 취업준비 단계에
들어서니 별 소리를 다한다. 한편으론 정말
없을 게 없어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한 덕분에 여태까지 좋은
성적을 얻었고, 팀플회의를 할 수 있는
스터디방에서 집중한 덕에 입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4층 씨스퀘어는 정말 잘
만든 거 같다 시간표를 정말 잘못 짜 우주
공강일 때가 더러 있는데 항상 편하게 가
비디오룸에서 비디오도 보고, 소파에 앉아
편히 휴식도 취하고!

아직까지 단점보다 이점이 더 많은 도서관!
난 오늘도 그 도서관에서 장점을 길러가는
중이다!

다들 목표 이룰 때까지 화이팅 ...!

😊 12 💬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씨스퀘어에
비디오룸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Neon 방 예약해서 스마트씽
기능 이용하니깐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기도
좋더라구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도서관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 괜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의 계획하신 목표들도 잘
이루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는 비디오룸을 아직까지
이용해본 적이 없었는데, 원준님의 글을 읽으니
비디오룸을 이용하고 싶어졌어요.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시설과 기능들이 원준님의 미래에도
더욱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게 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4층에 리모델링한 공간을
가보지 못했는데 궁금하네요 친구가 진짜
좋아졌다고 하는데 한 번 가봐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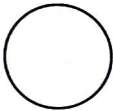
심지범 (경영학과) 저도 3학년인지라.. 동질감이
느껴지네요..ㅠㅠ 한림대 비컴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원준님도 많이 찾아보시면 꿈에
한발자국 다가 갈것입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도서관이 내 집 같다는
원준님의 글에 저는 아직도 배울 점이 많이

사람임을 깨닫게 되네요.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집의 개념보단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휴식공간처럼 인식되어서 아주 가끔씩 방문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인데, 원준님의 글을 보니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하나 더 배워갑니다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법학) 오 씨스퀘어에 비디오룸도 있는지 몰랐네요~다음에 시간이 비면 가봐야겠어요



2023/05/12

friday, am 11:48 | 17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5일차 #도서관

나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읽고 싶은 책은 네모난 기기 안에 다 담겨 있으니 더더욱 도서관을 갈 이유가 없다.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시험공부를 한다거나 조별과제를 위해 스터디룸을 빌리는 정도다. 나에게 도서관은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내 생각이 요즘 들어 바뀌는 것 같다. '북클럽'을 하게 되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된 게 원인이었다. 친구들과 상의 하에 책을 선정했다. 책을 읽으려고 내가 구독한 전자책 앱에 접속했더니 전자책으로 출간하지 않아 읽지를 못한다는 팝업이 떴다. '당연히 있겠지?' 하는 내 생각을 비웃는 팝업창이었다. 조금 당황했지만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했고, 다행히도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도서관을 가는 것이라 책 번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대출 방법도 몰라 검색을 하고 갔다. 막상 번호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책이 찾아졌다. 심지어 책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책도 찾을 수 있었다. 책장을 지나갈 때마다 '오~ 오?!' 감탄사를 내뿜었다. 한 권을 빌리러 왔지만 도서관을 나올 땐 세 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도서관의 매력을 알아버린 나는, 벌이 꿀을 찾는 것처럼 도서관을 들락거렸다. 전자책 앱을 쓰는 것보다 종이책이 재밌게 느껴졌다. 책장에 꽂힌 책을 둘러보고,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마치 보물찾기처럼 느껴졌다. 읽을 책을 직접 빌리러 가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일지도 모르나, 다들 한 번쯤은 도서관에 가서 책장만이라도 둘러봤으면 좋겠다!



11



9

주재형(청각학과) 심비우스 북클럽을 공지사항에 봤는데 미처 그건 신청하지 못했네요. 다음 학기에는 꼭 신청하고 싶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종이책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북클럽 신청해봐야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오늘 당장 도전합니다 ㅎㅎ 학교거든요...ㅎㄷ

이유안(러시아학과) 심비우스 북클럽을 하시는 종이신가봐요. 사람 모으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사빈님의 글을 읽으니 도전함으로써 얻게되는 값진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는 꼭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사빈님처럼 전자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자책을 시도해 봤지만 너무 집중력이 안 생겨서 포기했는데, 그래서 반대로 저는 전자책 환경에 좀 더 익숙해져 보고 싶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원래 무조건 종이책이었는데 요즘 전자책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서.. 스스로 조금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전자기기로 글을 읽으면 눈이 아파서 태블릿이 있어도 프린트하는 걸

좋아해요 책도 사락사락 넘기며, 제가 읽은 책이
왼편에 쌓이는 걸 보면뿌듯해서 무조건 종이책을
선호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종이책이 주는 감동은 다른거
같아요! 우리기 어릴때부터 종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전자책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궁금해서 한 번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종이책보다 깔끔하게
사용도 가능하고 밑줄치는 것도 정갈하데 할 수도
있구요. 그럼에도 종이책을 이기지 못하는 건 책 한
권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찾기까지의 과정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인지사빈님의 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전자책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손이 무거운 느낌과
사락 사락 넘어가는 책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오! 하는 모습에 공감합니다
ㅋㅋㅋ 어느새 제목에 끌려서 빌리게 되는 맛이
있죠!



2023/05/12

friday, pm 1:18 | 15읽음

이유빈(사회학과)

#5일차 #도서관

초등학생, 중학생 때 나도 나름 도서관도 자주
다니고 독서 관련 동아리도 참여했던
다독왕이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치여(핑계일지도 모르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책에 손을 대는 일이 수행평가나
과제 때문에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면 느낌이 달라진다. 뭔가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손에
대지도 않는 책을 읽고 도서관 속 여유를

느끼려고 한다.

현대인들은 바쁜 사회 속에 치여 여유를
잃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하는
여유도 잃어버린 기분이다. 책을 읽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단 도서관은 없던 여유도 만들어주는
신비한 공간인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잠시의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만약 일상에 치여 여유를 잃어버렸다면
도서관에 가서 잠시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 그렇지 않다면 집에 작은 자신만의
도서관을 만들어 그렇게라도 여유를
느끼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 10 💬 9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대학와서 저만의
시간을 많이 못가졌던 것 같네요! 어서 지금이라도
잡아요 ㅎㅎ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책을 읽고 싶는데 워낙에
핸드폰과 다른 매체들의 방해가 워낙 많아 제대로
된 집중력 있는 독서를 할 수 없을 때면 도서관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중해서 책에 몰두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도서관이 정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ㅎㅎㅎㅎ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와닿았어요. 저도 저만의 집중할 수 있는
서재를 나중에 제 집이 생기면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ㅎ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책을 읽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방문해서 여유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용후(법학과) 책과 차분히 마주하다보면 어느새
지식이 내재화되고 그것이 모여 통찰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지적 성장을 위해
독서하시는 학우님 멋지십니다 :)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 T_T 도서관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정말 좋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도서관에 가면 신기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도서관이 주는 여유로운 분위기 덕이겠죠?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도서관에서의 여유라 우리학교 도서관이라면 더욱 여유를 즐길꺼 같네요!

오하영 (영어영문학과) 저도 유빈님처럼 도서관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문하고 싶네요. 다만 너무 고요한 도서관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책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말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답답해서 얼른 빠져나가고 싶거든요 ㅎㅎ 유빈님의 글을 읽고나니 도서관에서 여유를 찾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 (언어병리학과) 목적 없이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정말 책 읽으로 가는 곳이 도서관이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유빈님 말처럼 한번 여유롭게 둘러봐야겠어요



2023/05/12
 friday, pm 1:38 | 19읽음
 정충민 (융합신소재공학)

#5일차

정부가 책들을 불태운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다. 무지가 힘이라는 사상이 퍼져 망설임 없이 사람들은 책을 불구덩이에 던졌다. 도서관의 사서는 주민들이 책을 마구 가져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식의 보고가 거덜 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책을 꼭 쥐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은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사서의 앞에 모여 위협했다.

사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책을 놓지 않았다. 그의 굳건한 의지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엉덩이는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젠

책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사서가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글을 써 내려가자 사람들이 물었다.

왜 이토록 책을 중요시합니까? 우리는 책보다 당장 눈앞의 삶이 더 중요하단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러자 사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실은 불타는 도서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불타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며 책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인간성을 잃은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반응하듯 부엉이 한 마리가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펴리라.*

*마지막 경구는 헤겔의 <법철학>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11 💬 9

서원준 (중국학과) 오 좋은 내용이네요 쉬는 시간에 잘 읽고 갑니다

이유안 (러시아학과) 책을 불태우고 반지성주의로 향하며 실용을 외치는 모습에서 문화대혁명이나 분서갱유, 혹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시절이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로 제게는 읽혔던 것 같습니다. 짧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무척 흥미로워요. 새로운 시도로도, 내용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도 훌륭한 글이 아닌가 하네요. 저도 이야기 속의 사서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재형 (청각학과) 책이 종이로 만들다보니 불에 타는 이미지가 더 파멸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소설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 (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유로이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가 역사적으로는 오랜 투쟁을 거쳐 얻어졌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김시현 (러시아학과) 지식은 불타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며 책이 그 역할이다... 너무 멋진 문장이네요 사서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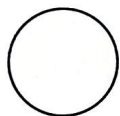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한 소설의 예고편을 본 듯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나온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책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죠!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무지가 힘이라는 총민님의
글이 생각의 반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잔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지라는 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늘어날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총민님이 쓰신 생각의 반전을 일으키는
글이 책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어쩌면 불에 탄 우리의
서책, 잃어버린 고서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침략에 의해서 왔을 때 태워 버린 것은 어느정도
총민님이 말하는 이유 때문에는 아니었을 까
싶기도 하고요! 잘읽었습니다



2023/05/12
friday, pm 2:48 | 20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5일차 #도서관

초등학교 때부터 도서관을 들락날락 거렸다.
그림있는 책들이 좋았던 초등학교 시절
그때 좋아했던 캐릭터는 강아지, 공룡, 악어
등
동물들을 좋아했던 나.
한 권씩 읽는 재미를 느꼈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부터는 많은 책 중에서도
좋아하는, 관심분야의 책들이 있는 코너로
가서
한 권씩 빼서 일정 시간동안 읽으려고

노력했다.

1년에 많은 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손가락보단
많이 읽었던 기억으로 남는다.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도서관에서 과학
이외에 코너에 있는
책들의 표지라도 보았다. 관심있는 단어가
있다면
책을 빼서 목차와 대강 어떤 내용인지
좋아하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읽었다.

정말 많이 읽었던 순간은 군대였다.
그때부터 책에 흥미를 느껴 정말 마구잡이
식으로 읽으려
애썼던 내 모습이 보인다.

책에 대한 회상을 할 때면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난다.
집 근처에 생긴 국립도서관에서 열리는 행사,
학교친구들이랑 시간 날 때 방문하던 공간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 이외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추억을 담은 공간이었다.

공간이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도서관과
책이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느낀다.

좋았던 공간에 행복한 감정이 담기고 추억이
만들어진다.

여러분은 좋았던 감정이 담긴 공간이
있으신가요?

😊 14 💬 10

서원준 (중국학과) 와 군대에서 책 읽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일송도서관 1층 정문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면 시원하면서도 뽕뽕린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오 줄바꿈이 있는 것을 보니 자유시나 운문 형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셨나봐요. 확실히 줄바꿈이 있으니 좀 더 리듬감이나 의미 전달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군복무중에 책을 읽는데에 열정적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 엄청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시절의 독서가 상민님께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새로운 분야에 책을 고를 때 관심있는 단어부터 보고 목차를 꼭 확인하곤 합니다:) 저는 도서관이 주는 안정감과 고요함이 좋더라고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초등학교때 외국소설 한국소설에 빠져서 한창800번째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났고요:) 아직도 관심있는 분야만 읽어서 공감이 가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옆동네 큰 도서관 4층이요! 카페도 있고 책상과 의자도 있는데 야외 테이블에서 바람 맞으면서 공부하고 수다 떨던게 생각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도서관에는 항상 소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까지도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비록 그 근처에는 절대로 안 갔지만 가끔씩은 소설을 한 편 꺼내어 몇 시간이고 읽었던 기억도 있네요 ㅎㅎ 상민님의 글처럼 도서관 자체만의 공간이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추억이 남겨져있어 저도 거부감 없이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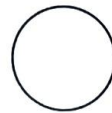


심지범(경영학과) 저도 책을 군대에서 많이 읽어서 휴가를 받은 기억이 남네요! ㅎㅎ 글 잘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주로 추리소설 또는 이별 에세이를 많이 읽어요! 상민님의 소중한 추억 공유 감사합니다아 ㅎㅎ

박소연(생명과학과) 저는 예전에는 판타지 추리서적류 읽다가 자기계발서-철학-인문학

루틴을 타고 있습니다. 대개 판타지, 추리소설로 입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023/05/12
friday, pm 3:38 | 20읽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5일차

도서관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에게 도서관은 재미없는 존재 그 자체였다. 어릴 때부터 나는 책 좀 읽으라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겐 그것이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에 불과했을 뿐이다. 혹시 당신은 창체 시간을 기억하는가? 초등학교에만 존재했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줄임말이다. 우리 학교는 창체 시간에 항상 도서관에 갔다. 나는 창체 시간이 싫었다.

시간은 내가 초등학생 때로 되돌아간다. 우리 학교 맨 위층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텃밭이 있었다. 그 텃밭에는 바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있었다. 배경으로는 아이들이 심은 상추, 가지 같은 채소들이 선선한 바람에 부딪혀 게으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공간이 좋았다.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보다는 그 공간을 좋아했던 것 같다. 책을 싫어했던 나지만, 바깥 공간에서 읽는 책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책이 술술 읽혔다. 이렇게 말해봤자, 그때의 나는 무지개 물고기나 구름빵 같은 조금은 시시할 수도 있는 책을 읽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창체시간을 좋아하게 됐다. 그때의 경험은 고작 8살의 내가 공간이 주는 울림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 14 💬 10

주재형(청각학과) 텃밭이 있는 도서관이라니

독특한 도서관이네요.. 어릴적에는 창체시간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창체라는 말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요. 창체 시간과 도서관, 책에 대한 지혜님의 기억을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추억의 도서인 무지개 물고기나 구름빵 같은 책의 제목도 반갑게 다가옵니다. 묘사해주신 학교 위층 도서관과 안쪽 뒷밭의 풍경도 무척 책 읽기 좋은 환경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지혜님 학교는 창체 시간에 항상 도서관에 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창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니 각자 과자를 가져와서 영화를 본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혜님 덕분에 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추억의 도서관 이야기네요 ㅎㅎ 공감하면서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오히려 책은 읽으라고 하면 더 읽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 책을 찾게 되더라구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도서관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초등학생 때도 곧장 도서관에 가서 아주 얇은 책 하나를 골라 들고 친구와 함께 읽으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지혜님의 글을 읽다보니 어쩌면 도서관 그 자체보단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아서 도서관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네요 ㅎㅎ 그럼에도 그때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 도서관에 거부감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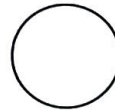
심지범 (경영학과) 저는 창체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요!! 바로 탄짚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도서관 안에서만 책을 읽기 보다는 벤치에 앉아서 읽는 책을 더 좋아해요! ㅎㅎ

박소연(생명과학과) 책에 빠져드는 계기는 저마다 다른 것 같지만 꼭 한 번 쬐음은 있죠. 저는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책에 미쳐있을 때라

밥도 거르고 종일 도서관에 있었네요. 그 덕분인지 책읽는 거 좋아하는 기호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도서관에 에 2층에 테라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파라솔과 꽃들이 심어져 있던게 기억에 나요!



2023/05/12

friday, pm 4:18 | 18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5일차 #도서관

우리는 흔히 도서관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서 인식하곤 한다. 마음의 양식을 한껏 얻을 수 있는 책들이 가득한 세상. 하지만 나는 우리 마음 속에 늘 도서관을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기억을 만든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특별한 일까지 전생애 걸쳐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채워나간다. 이 중에서 잊지 않고 간직하는 기억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좋은 기억은 밝고 명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나쁜 기억들은 우울한 감정이 가득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나라는 하나의 책이 완성된다. 즉,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직하던 기억들이 각 분야별로 나뉘어 하나의 책을 이루게 된다. 아마 이 책들 중 자신의 마지막을 담은 이야기는 죽기 직전까지 미완성일 것이다.

삶의 책들이 모이고 모여서 추억이라는 도서관에 하나씩 채워짐으로써 아주 특별한 공간이 완성된다. 삶이 힘들 때마다 이 도서관에 방문해 자신의 기억들을 읽어나가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2



9

주재형(청각학과) 도서관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책으로 바꾼 장소가 아닐까요 책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있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삶과 연계해 굉장히 교훈 넘치는 글이네요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장소라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을 하나의 비유법으로 표현하신게 좋네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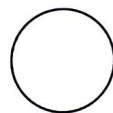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추억은 하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로 인생이라는 책을 써내려가는 우리는 정말 도서관같아요! 비유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 인생을 자서전으로 만든다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어떤 말로 맺어질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소연(생명과학과) 갑자기 저도 도서관에 에세이같은것으로 자취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도서관 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 대한 방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 성장기록과, 특정한 시기의 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의 책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쌓여지는 것을 나는 원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책과 도서관을 빗대어 사람의 삶에 대해 설명해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전에 듣기로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에서 착안하여 사람을 책으로 빗대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공공 시설에 초빙하여 강연의 형태로 삶을 이해하는 독서를 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구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프로젝트의 전제가 하영님이 글에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많은 부분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 돌아와 저의 인생은 어떤 책의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상상해보게 되네요.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2

friday, pm 4:20 | 25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5일차 #도서관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 독서를 즐겨하던 친구와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즐겨 읽었다. 에세이, 소설 등 각자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 책을 골라 읽었다. 창가 쪽에 앉아 책을 읽으며 생각할 때 창문 밖 하늘과 건물을 유심히 보곤 했다.

현재 학생들은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는 것보다 공부하러 가는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다. 현재 우리 학교만 해도 도서관 건물에 회의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C 스퀘어 공간과 열람실 등이 존재한다. 대학생이 되고 나는 도서관에 잘 가지 않았다. 책을 읽을 여유 시간도 없을뿐더러, 책을 읽으러 가기에는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도서관의 고요함과 동시에 답답함이 물려오는 탓에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한림대학교 도서관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홈페이지를 통해 따뜻한 조명과 함께 깔끔하고 정돈된 도서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1학년 때 도서관에 아침 일찍 가서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내 로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느새 독서가 아닌 공부나 회의의 공간으로 자리잡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한 편으로는 안타깝다.

종이책보다 전자책,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매체에 관심이 더 많은 현대사회로 변화된 것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더 미래에 가면 종이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한다. 종이책의 매력은 다양하다. 종이책 특유의 향과 페이지 넘김의 촉감, 다양한 표지와 속지의 촉감,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해두는 것 등. 종이책이 더 익숙하고, 종이책에 더 마음이 가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휴학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게 된다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에세이와 소설책을 읽고 싶다. 나는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읽을 여유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에 실제로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 '요즘 바쁜 현대사회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도서관에 공부보다 독서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도서관은 수많은 분야의 정보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신비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 혹은 의미인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 15 💬 11

주재형(청각학과) 저에게 도서관은 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장소이고, 미래의 꿈을 이루어도 계속해서 다녀야할 장소죠.

도서관이 주는 편안함은 다른 데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종이책의 매력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에겐 아름다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곳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학교 도서관이 리모델링하고 분위기가 더 좋아진거 같아요! 저도 1학년때 도서관 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던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전자책 보단 종이책에 더 마음이 갑니다:) 저에겐 도서관은 안정감을 주는 곳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옛날과는 달리 도서관은 참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보민님의 글을 일다보니 저도 도서관을 독서하는 곳보다는 공부방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이미지로 바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조용한 도서관보단 어느정도 말소리가 들리는 곳을 좋아해요.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 아니라 책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곳 말이지요. 그래서 도서관 씨스퀘어가 저에겐 너무 반가운 곳이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도서관의 활용은 무궁무진하죠! 글잘읽고 갑니다!

김경희(국어국문학과) 고독을 활용할수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보민님 글 덕분에 제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저도 요즘은 공부하러 가는 공간이 된 것 같은데 조금은 책을 읽으러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봐야 겠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보민님도 독서와 종이책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이 글에서 느껴져 공감되고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읽었어요. 사진에 나와있는 책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비교적 책을 가까이하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책에 대해 권할 수가 없는 것이 각자의 삶이 바쁘게 꽉 차있고 여유가 없으면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도 사정을 고려못한 강요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보민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되길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2023/05/12

friday, pm 5:40 | 27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5일차 #도서관 #일송기념도서관

#일송윤덕선총장

우리 한림대학교의 심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림의 자랑인 일송 기념 도서관!강원도내 대학 중 제일 멋진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일송 기념도서관 일송 아트홀 왜 앞에 일송이
붙는거 인지 아실까요?그건 바로 최초 한림대학교를 설립하신
윤덕선 총장님의 호 인데요!'호'란? 본 이름이나 자(字) 외에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이라고 명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한림대학교를 대표하는 건물
이름 앞에는 윤덕선 총장님의 호를 떼와서
일송이라고 부르는것이죠!멋진 분수대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공수해온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이
우리 도서관의 미학을 더해주소!도서관이라는건 저에게 설레게 하는
곳인데요!중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우와 연애 했던게
생각이 나고 또한 도서관 매점에서 저녁을
때우기도 한 생각이 나네요! 정작 공부는
뒤틀렸죠..무튼 저에게 있어서 대학 도서관은 낭만 그
자체 인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씨스퀘어가
너무나도 멋진 곳으로 바뀌어서 도서관을 더
찾게 되는거 같습니다! 지식과 역사 또한
여러 상식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 도서관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먼저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책들이 우리들을 더 성장하게
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해 도서를 태블릿으로
많이 보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 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읽는것이 더욱 제 마음속에 꽂히는거
같습니다! 그 뭐랄까 전율감이라고

해야하나!?

우리는 많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
넣을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책들을 찾아 읽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인생이 분명 행복해 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길 바라며!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운영을 안하니깐 이틀 동안 푹
쉬시고 그럼 우린 다음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17 💬 12

서원준 (중국학과) 오오라 되게 좋은 정보네요 !!

지범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저희 학교 도서관은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 하더라구요!! 특히
요번에 리모델링 한 씨스퀘어가 정말 좋아서 자주
이용하게 돼요 ㅎㅎ 지범님 글처럼 요즘
스마트북이 더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종이책의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도서관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이유림(경영학과)**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고학번인지라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가는게 아쉽네요 잘읽었습니다!**주재형(청각학과)** 일송기념도서관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게된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지범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김시현(러시아학과)**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시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내용들을
구별해 찾아읽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글 잘읽었습니다!**김경희(국어국문학과)** 새롭게 알게된 정보도
담겨있고 글자체도 너무 재치있는 글이어서 잘
읽히는것같습니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원가 리포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ㅎㅎ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보아요~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우리 학교 도서관
갈때 마다 자부심을 느껴요. 전국 대학 도서관을
비교해봐도 좋은 곳들 중 상위권에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학우님께서 학교
도서관에 대해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일송기념도서관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한번도 왜 일송인지 생각 못해본 것
같아요..! 덕분에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ㅋㅋㅋㅋ 불금이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너무 책이 많아서 우리 학교
도서관의 책의 양에 압도 될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좋은 책을 찾아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지범님에 글에서 지범님이
남겨주시는 댓글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활기가
느껴져 저도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일송기념도서관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얼핏 누군가의 자, 혹은 호에서 따온 것만 알고
있었는데 글을 통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 지범님도 즐거운 금요일, 불금
보내셨길 바라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세빈(미래융합스쿨) 저는 책에 필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책을 꼭 사서 읽곤 해요! 특히 도서관에서
읽는
책이 정말 재밌죠 ㅎㅎ 도서관에 다양한 추억이
있다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공부하거나 책 읽던
기억밖에 없어서...



2023/05/12
friday, pm 7:51 | 23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5일차 #도서관

나는 일송기념도서관에 나의 발자취를
남겼다.

시험기간만 되면 새벽에도 열람실에 자리가
없었던 1학년,

코로나19로 인해 그렇게 붐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홀로 도서관 4층에서 여름
내내 공인영어 시험을 준비하던 2학년,
1년 휴학 후 학교에 돌아오니 한림대 정문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게 인테리어된
2층을 마주했던 3학년,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4학년,
대략 3년 반 동안 봐온 도서관을 이제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속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학교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것 같다.

처음 학교들 들어왔을 때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시키게 도와준 우리학교 도서관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남은 기간동안 도서관 자주 가서 최대한 많은
추억을 남기며 공부할 것이다.

😊 13 💬 11

이유림(경영학과) 1년 지나고 돌아오셨으면 꽤
많이 달라졌겠네요 저도 휴학 끝나고 복학해보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ㅎㅎ

주재형(청각학과) 졸업을 하면 일송도서관이랑도
헤어지는 거겠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후회없이
다니다주세요!

심지범(경영학과) 공인영어..저도
공부해야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대학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쉬지 않게 도서관을
좀 더 자주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학교 도서관에 인영님의
대학생 시절이 담겨있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요!
저는 도서관을 올해부터 자주 이용하기 시작해서
1,2학년 때의 추억이 없어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덕분에 인영님의 도서관 추억 대리만족하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도서관에 많은

추억을 남겨야겠다고 다짐해보며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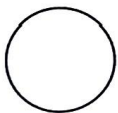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졸업을 앞둔 시점 공부하기에 그리고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서 쉬기를 좋아했는데 너무 아쉬운것 같아요

박소연(생명과학과) 저도. 학교 건물 중 도서관이 가장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행복한 추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도서관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셨군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이유안(러시아학과) 도서관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군요. 그간의 노력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인영님께도 좋은 자양분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남은 시간동안 인영님을 본받아 도서관에서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저의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네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2

friday, pm 8:48 | 21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예약 도서가 도착했습니다.]

선배가 책을 다 읽은 걸까. 예약 도서 알림을 보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겼다. 도서관에 빨리 도착하고 싶었다. 아직 남아있겠지. 그 사람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기 전에 책을 읽고 싶었다.

작고 남루한 시집. 그 사람이 매일 들고 있던 책.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은 책의 겉표지를 작게 살펴보았다. 느껴질리 없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기분.

'이 시집은 나야.'

... 이 책으로 선배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의 세계에 자신이 침범하길 바란다. 시집은

초석이었다. 침략을 위해 쓰여진 글이 아니었지만, 나는 감히 불순한 의도로 순수한 글을 읽어냈다.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는 필요 없었다. 그저 단 한권의 책이면 됐다. 손끝에 부자연스러운 감각이 느껴졌다. 무언가 끼워져 있나? 종이를 몇장 넘겼다. 별같은 꽃이 점점이 흐드러져있는 책갈피였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 왔던 건 보라색의 색채... 그건 선배의 색이었다. 무언가에 붙들린 듯 책갈피를 들었다. 라일락 향. 그 향이 나의 세계를 채웠다.

#5일차 #도서관

😊 14 💬 9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 시집은 나야' 라고 표현한 예진님의 글을 보며 책으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도움이 되는 책'을 생각했을 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책'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갑니다!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첫 번째 문장부터 이목을 끄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아

박진옥(사회학과) 책을 통해 선배를 이해하고 싶다는게 멋진 마인드 같아요! 멋진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예진님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고민했을 표현들이 보여서 더 잘 읽히는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감명 깊은 글 잘 읽었어요 ㅎㅎ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예진님은 정말 제시어를 통해 많은 이야기 쓰기에 도전하시는군요. 꾸준히 양질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무척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해내셨다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멋져요.....저는 지금까지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 이 짧은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 닦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선배가 대출한 책을 예약
신청해서 그 다음 순서로 받아본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분명 이야기의 서술자처럼
여기저기서 선배의 흔적을 더듬어 보려 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라일락의 향 너무

좋아하는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예약도서가 도착했습니다

딱 뜨는데,, 혹시 우리 학교에서 책을 신청해

보셨나 싶었어요!!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단편 소설을 읽은 기분이에요 잘
읽히는 글이라 좋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2

friday, pm 9:45 | 21읽음

정예진(생명과학과)

#5일차 #도서관

며칠 전, 비는 시간이 생겨서 아무 목적 없이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던 중
문득 내가 도서관을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도서관이 참 예쁘고, 잘 되어있다는
걸 익히 들었지만
수업을 듣느라 바빠서, 책 읽는 시간을 내지를
못해서와 같은 이유로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았다.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공부를 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서관을 구경하고 싶었다.

책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주었다.
어떤 책들이 있나 하나하나씩 책 제목을 보던
중
예전에 친구가 나에게 추천해 주었던 구병모
작가의 '아가미'를 찾았다.

추천만 받고 읽어보지 않았기에 이 기회에
읽어보았는데
읽고 나니 뭔가 심연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도서관이 뜻밖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준 것
같아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아무래도 도서관을 더욱 찾게 될 거 같다.



14



13

김수연(일본학과) 다음에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가끔이면 또 그 매력이 있죠 ㅎㅎ 저도 잘안가는
층에 가보곤한답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새내기 시절에는
도서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서야 도서관의 매력을
알게 된 건가 조금 후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주 가려구요!! 과제나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예전님처럼
구경하러 가는 것도 해보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책들이 정렬되어있는 모습들이
안정감을 준다는게 너무 공감합니다!! 도서관은
구경만 하러 가도 참 좋은 곳 같아요

박소연(생명과학과) 안정감 때문이었나봐요.
도서관을 그래서 좋아했나봅니다. 몰랐었는데

박진옥(사회학과) 도서관을 구경한다는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을 잘 안가는
편인데, 도서관을 구경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구병모 작가의 책 '아가미'를
읽으셨다니 반갑네요.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뭔가 심연에 빠진 느낌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도
와닿고 공감이 됩니다. 때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소소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느끼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아가미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서

숨을 깊이 참아보는 느낌인 것 같이 정말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구병모 작가님 파과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ㅎㅎ

서원준 (중국학과) 도서관의 매력에 빠지셨네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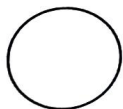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바쁜 일상 속에서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시간내어 찾는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도 도서관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특정 책을 읽고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바뀐게 인상적이네요 아가미라는 책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한 번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아가미 정말 좋아해요! 섬세한 그 작가님의 한 문단이 정말 매력적이기도 하고 계속 곱씹게 만드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디오 북으로 들었는데 그리고나서 작가님께 빠져서 거의 대부분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전 구병모 작가님 파과!! 추천드립니다!

심지범 (경영학과) ㅎㅎ 도서관이 주는 감정과 명감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조만간 도서관 한번 구경하러 가야겠어요 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아~!



2023/05/12

friday, pm 10:07 | 18위음
박진옥(사회학과)

#5일차 #도서관

도서관은 나에게 가깝고 친숙한 장소는 아니다.
누군가는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저마다의 목적으로 도서관에 간다.
요즘에는 특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조용해서 가는 걸까?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더 집중이 잘되서 가는걸까?

나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카페나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그냥 집에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

조용한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내가 내는 소리가 너무 클까봐

더 조심하고 신경쓰게 되다보니 오히려 더 집중하느라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카페는 도서관에 비해 가끔 가긴하지만 카페도 잠깐 애매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함이지 오롯이 공부를 목적으로 가지않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약간의 소음도

있으면서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원하는 문제집이나 교재도

손만 뻗으면 다 있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있고 프린트도 있고

공부하다 지칠 때면 잠깐 환기시킬겸 티비도 볼 수 있고

편한 침대도 있다.

와이파이도 있고 없는게 없다.

워낙 계획을 못하는 성격이라 공부도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아서

언제 무엇이 필요할지 모른다.

계획없이 하더라도 집에서 하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면

집중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하는 편이다. 나에게 있어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집중이 온 것 같은 그 느낌! 딱 뻐이 와야 속속속 착착착

잘 할 수 있다.

느낌이 안왔는데 어영부영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더 잘 안가는 것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 등, 나가서 공부하면 짐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한다는게 가장 싫다. 잘 챙긴다고
챙겨도
꼭 공부하다보면 필요한게 없고 그렇다...ㅏ
이때가 제일 의욕
떨어진다..

다들 도서관에서 공부 하시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와는 다른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겠죠!..ㅎㅎ

😊 12 💬 8

서원준 (중국학과) 그냥 다 같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러는 거
같기도 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집에서 공부를 주로
하긴하지만 너무 자유로워서인지 할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ㅏㅏㅏ도서관이 주는 묘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공부를 하게 자극을 주는 것
같아 공부를 하지않나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역시 환경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공부하니 내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이 필요하면 바로 근처에
있으니 바로 뽐을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집에서 주로 공부하는
편인데 공부가 안될 때 환경을 바꾸려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내가
여기까지 시간내서 왔는데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 저도 환경이요.. 다들
공부하고 침대가 없다는 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ㅎㅎ

심지범 (경영학과) ㅋㅋ진옥님 엠비티아이가
안봐도 비디오처럼 무엇인지 알거 같아요!!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도서관보다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아ㅎㅎ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는 도서관을 스터디카페나
집보다 선호하는 편이에요. 도서관이 스터디카페와

집 사이 스펙트럼에 알맞게 위치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너무 옥죄는 분위기로
극도로 조용해야해서 긴장이 되어서 좀 힘들고
집은 오히려 너무 풀어지는 분위기라 그것대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옥님이
풀어주신대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단점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도서관 공부가 별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지고 계신
취향에 대해 글로 풀어 나눠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취향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2023/05/12

friday, pm 10:09 | 15읽음

고다인(법학)

#5일차#도서관

지금은 사실 독서와 거리가 조금 있게
살고있지만 초등학교때까진 아파트 안 작은
도서관에 매일 들러 마법천자문같은
만화책도 빌려오고 어린이도서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난다. 어릴때 마법천자문과
그리스 로마신화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다음
권을 빌리러 갈 다음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열리는 도서 대출왕에
뽑히겠다고 무리하게 책을 빌리다가 결국 다
읽지못하고 반납했던 웃픈 기억도 있다.
그리고 중학교때부터 유튜브와 이런저런
재밌는게 너무 많아져서 독서가 점점 내
일상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학교에서
수업진도로 나가는 문학정도만 겨우
읽을때도 있었다.

책을 읽어야겠다고 느끼긴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있었는데 그때 엄마께서 같이
한 달에 1권만 읽어보자고 제안하셨다. 매월
1일 한 달 동안 읽고싶은 책을 빌리러 같이
도서관으로 갔고 책 이름, 지은이, 독서
목표같은 간단한 나름의 신청서를 작성해
카톡방으로 공유하곤했다. 한 달이 끝날무렵
목표한 책을 다 읽지못한 사람은 카페에서

음료와 샌드위치를 사주는 별책아닌 별책을 수행하기도했다. 독서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느낄수록 이상하게 책장은 넘어가지 않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얇은 책이라도 하나 정해서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독서챌린지를 진행하면 좀 독서가 재밌어지지 않을까싶다. 나는 이번달은 소설책 한 권을 정해서 읽고있는 중이다. 이번엔 누가 커피를 사게될까? 아니면 엄마와 나 모두 책을 끝내서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 12 💬 7

서원준 (중국학과) 자신과의 싸움 꼭 이길 응원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처음에는 독서가 어렵다가도 일단 한번 적응되면 익숙해져서 책을 정확하게 집중되게 읽는 노하우나 느낌을 찾는 듯 해요!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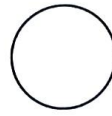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혼자 시작하기에는 힘들지만, 누군가와 함께한다면 조금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모녀사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누군가 같이 읽게 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마법천자문 그리스 로마신화... 저는 WHY? 라는 책이 너무 생각이 나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인님이 지금 읽고 있는 소설책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아!

이유안(러시아학과) 추억의 책 이름들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 책들은 모든 어린아이들의 도서였군요 ㅎㅎㅎ 어머님과 하는 챌린지에서도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인님이 정하신 소설책도 어떤 책인지 궁금해집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설책들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05/12

friday, pm 10:33 | 19읽음
김노연(사회학과)

#5일차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을 거의 매일 가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다.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와 밖에서 뛰노는 것이 더 좋아 점심시간에 가끔씩 친구에게 이끌려 방문하고는 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읽는 책 영역과 선생님들을 위한 책 영역이 따로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린 마음엔 어른스럽고 싶었던 나는 부러 선생님들을 위한 책들 중 하나를 뽑아 사서 선생님께 대출해달라고 했더랬다. 선생님은 "이거 어려운 책인데 괜찮겠니?" 라고 말하셨고 나는 그 말에 더욱 신이 나서 당연하다며 으쓱거렸다.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은 <데미안>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쉬는 시간에 그 책을 톱툰히 읽으면서 그전까지 읽어보지 못했던 유려한 문체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의미들을 해독하려 골머리를 썩히곤 했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시선에서 본 데미안은 아주 근사하고, 멋졌던 기억이 있다. 아직도 기억하는 문장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 문장이 그 때 당시에도 정말 멋져보였다. 데미안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이해한 지금도 그 문장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장이다. 어쩌다보니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이란 곳이 주는 분위기는 전부 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책장 안으로 뻗뻗하게 채워진 세로 결들을 바라만 보아도 충족이 되며 어쩐지 차분하게 가라앉는 마음. 나는 도서관 특유의 냄새도 참 좋아한다. 오래된 책 냄새들과 새로운 책 냄새가 뒤섞인 안정된 냄새. 정돈된 냄새다. 아, 도서관을 생각하니 도서관에 가고 싶다.

질리도록 간 학교 도서관 말고, 본가 근처의
공립 도서관으로.
내일 그곳으로 가서 전에 빌려놓았던 책을
읽어야겠다.

😊 12 💬 9

주재형(청각학과) 11살에 데미안을 읽으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뭘 읽었더라.. 그리스 로마신화를 봤던 것 같은데요. 비록 데미안을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노연님의 글을 보니 정말 좋은 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책 냄새 너무 좋죠! 데미안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질리도록 가셨다니 ㅋㅋ 웃기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데미안 어렵기로 유명한데 대단하십니다 전 그때 영미소설 읽고 다녔거든요



서원준 (중국학과) 데미안 후덜덜 생각만 해도 후덜덜 이지만 부럽네요 ㅎㅎ
배성준(경영학과) 저도 어릴때 가끔 도서관에서 책 읽을때 멋있어보이려고 어려운 책 골라서 읽으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ㅋㅋㅋㅋ 물론 세쪽 넘기다 말았지만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담긴 추억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데미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ㅠ 다만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무튼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아직 데미안은 너무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ㅠ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아!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이셨군요. 어린 나이임에도 데미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얻어가셨을 수 있으셨다니 무척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의 책이라고 여겨지던 책을 알게 되면서 읽고 탐색하게 되면서 사고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경험이 분명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 아주 극적인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제 사고의 지평을 책을 통해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05/12
friday, pm 10:33 | 18읽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5일차 #도서관

가장 쉽게 여름을 맞이하는 방법

학교 도서관 5층 창문을 따라 동그란 책상들이 놓여 있는 곳. 내가 이맘때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다.

오후 3시쯤, 들러 서재에서 제일 진한 파란색의 시집을 골라잡는다. 오른손에는 파란색의 책 한 권, 왼쪽에는 연한 갈색의 얼음이 가득한 커피를 들고 햇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책상을 골라 자리에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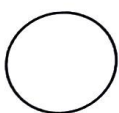
조그마한 창문을 두 개 열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과 여름 냄새를 만끽한다. 창문 너머로는 책 표지만큼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가 가득한 산, 손에는 창문 너머보다 더 푸른 광경이 펼쳐진다.

어제 도서관 5층에서 여름 냄새나는 시집을 골라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글로 한 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도서관에서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름 냄새나는 시집도 추천하고 갈게요! [여름 키코, 여름 상설 공연,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 11 💬 9

주재형(청각학과) 좋은 시집 추천받고 갑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시들이네요!
이유림(경영학과) 5층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궁금하네요 곧 여름이 오니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글에서도 새벽 여름냄새가
 풍기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시집 좋아하시는군요! :)
정예진(생명과학과) 추천해주신 시집 읽어볼게요
 ...
 글 잘 읽었습니다 :)
서원준(중국학과) 오 추천하신 시집 꼭 찾아
 보겠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시집이
 불러오는 상상의 세계와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색깔로 잘 대비되어 드러나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피해 책이 이끄는
 지식의 세계로 피서를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수민님이 추천해주신
 시집 꼭 읽어볼게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여름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꺼이 수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여름을 맞이하고 싶어지네요.
 글에서 쓰신 표현에 색채가 아주 선명하게
 느껴져서 저에게는 더욱 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채로운 표현으로 좋은 시집들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려요!



2023/05/12
 friday, pm 10:54 | 19읽음
 최현영(법학과)

#5일차 #도서관

놀이터보다도 더 자주 갔던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을 떠올리면 재미없고 따분한
 느낌이 아니라 설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의 장소이다.
 어린 시절, 철원에 살았던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놀이동산을 가는 것도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쉽게 갈 수 없었기에
 매일이 익숙하고 똑같은 풍경이었기에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도서관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다.

도서관을 가면 특유의 책 냄새와 함께 많은
 이와 공유하는 넓은 탁자식 책상이 도서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쇼파에 반쯤 몸을 눕히고 만화책을 읽는
 사람도 정자세로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도 많은 이로 북적이지만 책
 넘기는소리만이 들리는 이곳,,
 도서관은 계절의 움직임,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추위를 나게 해 주고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 주는,, 방학의 무료함을 달래
 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어린 내가 갈 때마다 꼭 읽는 책이 있었다.
 동물대백과사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나 고양이,
 소, 닭 정도였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김새의 동물을 본다는 건 어린 나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그 책을 유독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기
 나무늘보 덕분이다.

동물백과사전을 처음 펼쳤을 때, 코알라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멍한 표정을
 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작디작은 동글동글한 손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후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고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늘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

나무늘보를 볼 생각에 도서관에 간다는 말이
 설레고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어디를 가던지 그 지역의 도서관을 들르는
 습관 아닌 습관이 생겼다.

철원교육도서관은 워낙 내가 어릴 적부터
 가던 곳이기 때문에 편안한 곳을 꼽으라면
 여기만 한 도서관이 없다.

어느 위치에 무슨 도서가 있는지 이 책은
 어디에 꽂혀 있어야 하는지 눈 감고도 알
 정도로 익숙한 곳.

중학생이 된 나는 화성으로 전학을 갔다.

화성의 작은 도서관은 사서도 에어컨도 히터도 없는 협소하고 열악한 곳이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나만의 비밀기지가 생긴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줘서 너무 좋았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곳이 제일 시원해 더위를 피하러도 많이 갔다. 신간도서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도서관이라서 덕분에 기존에 있는 책들을 더 많이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도서관의 산책로는 정말이지 내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야자수가 자라고 있었고 돌하르방이 있었다. 명소 못지않은 도서관의 풍경에 또 한 번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나에게 도서관은 수많은 책 만큼이나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그래서 주제를 본 순간, 하고 싶은 말, 적고 싶은 말이 많아 손이 멈추지가 않았다.

각자만의 추억의 공간, 나의 안식처 같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 12 💬 8

주재형(청각학과) 안식처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익숙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 구석에 아무도 앉지 않는 곳을 점찍어두고 계속 그 자리에 있거든요. 항상 자리가 비어있어서 안식처같은 느낌을 줘요!

심지범(경영학과) 놀이터 보다 도서관을 더 가셨다는게 놀라운데요!?!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도서관에 참 많은 추억이 있으시군요 글을 읽으니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도서관이 생기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정말 많은 추억이 있으시군요

김한나(경영학과)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해요:) 저도 방학 때 도서관을 많이 찾았던거 같아요 나무늘보 하니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가 생각나네요!

나중에 제주도 도서관에 가서 돌하르방도 구경해보고 싶어지네요 ㅎㅎ

서원준 (중국학과) 4층 씨스퀘어 같아요 ㅎㅎ 안식처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기 담주에 실천해봐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동식물에 관심이 없어서 여태껏 한 번도 동물대백과사전을 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도서관에 갔을 때 동물대백과사전을 한 번 봐야겠어요 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아!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책과 도서관에 얽힌 추억을 읽다보니 저도 함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입니다. 어떤 곳에서든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이 현영님께 뜻깊은 공간이었다니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기숙사에 살다보니 도서관이 공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영님이 묘사해주신 추억과 안식처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도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추억에 대해 잘 적어주신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2
friday, pm 11:04 | 18읽음
김용후(법학과)

#5일차

#도서관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계층이 처음부터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 초기에는 종이의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독서는 곧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그 후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책을 제작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었고, 대학과 공공 도서관이 점차 건립되며, 독서 문화는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현대에 와서 독서 문화는 IT기술 발달을 맞아 변화의 운명을 맞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독서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사진과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매체들이 보편화되며 활자

형태의 소통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책의 가치는 간과되기 쉽다. 실제로, 2021년에 이루어진 국민독서실태조사(문체부)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 중 일 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7.5%로 조사되었는데, 그렇다면 성인 인구의 나머지 절반은 일 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독서가 없는 지식 문화는 위태롭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지식'에만 의존한다면, 정보의 풍요에도 오히려 지적 빈곤에 빠질 수 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기술은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책은 종이책과 구분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매체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두 요소가 조화될 때 비로소 독서 개념은 다채로워진다.

그렇다면 현대의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가. 책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경험의 집약체이고,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다. 우선, 도서관은 책을 보존, 대여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 창구가 된다. 이에 더하여,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교환하는 네트워크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지식의 교류는 사고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적 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의 근간을 확고히 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책과 디지털 자료를 결합하고, 복합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도 요구된다.

우리는 도서관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이를 존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없어지면 그 안의 책과 책을 읽는 문화도 같이 사라진다. 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더 큰 지식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도서관은

지식의 교류, 확충, 창조가 일어나는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다. 작은 시내와 강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 책과 책 읽는 경험들이 모여 지식의 바다를 이룸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 13 💬 7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시 공간적 측면에서 정말 다양해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무거운 책이 아니라 가벼워지고, 글자를 크기조절해서 눈이 잘 안보이는 분들도 더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재형(청각학과) 미디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책장을 넘기면서 직접 책을 읽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독서가라고 말할 수 없는 듯 해요.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글을 써줘서 고맙워요!

이유림(경영학과) 다양한 남녀노소가 지식을 얻는 등 여러 이유에서 도서관은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글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도서관이 갖는 문화적 가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중국학과) 오 지식의 바다!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인스턴트 지식.....!

너무 공감되는 말이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잘 쓰인 논설문을 읽게 되어 저도 고민하고 있던 주제들이 명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리있게 글을 써주셔서 저의 생각도 함께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독서의 가치, 도서관의 필요에 대해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신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읽으며 많이 감탄했습니다. 그만큼 용후님도 독서와 책을 가까이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앞으로의 챌린지에서도 좋은 글로 만나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3/05/12
 friday, pm 11:26 | 19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5일차 #책의시점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지런히 정리된 책꽂이에서 아침을 맞는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지 기대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벌써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하나 둘씩 대출되어 가고 나 홀로 사람을 한없이 기다린다.

그순간, 정치행정학과의 한 친구가 내게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나를 애타게 손짓한다. 발이 없는 나는 그 친구에게 뛰어들고 싶었다. 겨우겨우 나를 꺼낸 친구의 손끝은 경련으로 인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다음번 사서가 정리해 줄 때는 나를 조금만 더 아래층으로 옮겨 달라고 해야겠다.

가끔 내가 베스트셀러 도서가 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한 달정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서서히 잊혀져 가는 친구들 보다는 나야말로 영원한 베스트 셀러가 아닐까? '정치'가 존재하는 이상 난 꾸준히 있을 것 이니까,

전공수업 때문에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빌리러 갔었는데, 워낙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은 책이라 혼자 쓸쓸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책의 시점에서 글을 써봤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어서 까치발 들고 고생했던게 생각 나네요.. 여러분들은 도서관가면 어떤 종류의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 알려주세요

😊 14 💬 10

심지범 (경영학과) 정치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죠! 글 잘읽고 갑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좋은책이나 어려운책이 먼지가 많이 쌓여있거나 높은곳에 있으면 안타까워요. 어려운책도 조금씩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책을 의인화하여 책이 느끼는 심경을 글에 담아 주셨군요. 저도 어쩐지 책의 심정에 이입하게 되어 글을 읽으며 감정이 짙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설득력 있는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설과 인문 계열 책들을 원래 많이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도 독서 편식으로 문학과 인문 계열 책들을 즐겨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도서관 위치상으로 5층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가 모든 인문, 문학 계열 책들이 있어서요 ㅎㅎㅎ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우님께서도 변치 않는 진리로 모두에게 항상 인기를 얻는 스테디셀러가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j.s.mill, a. smith, a. schopenhauer 같은 분들의 고전이 시대를 떠나서 생생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좋더라고요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이번주 5.18기념으로 관련된 책이 전시되었었는데 저는 그 책들 중 한권을 빌려봤어요. 5.18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보려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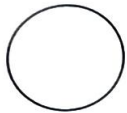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책의 시점에서 쓴 글이라니 신박하고 재밌네요 저도 한번 책이 되어본 상상을 해봤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책은 되고 싶지 않아요...ㅎ

주재형(청각학과) 군대에서 군주론을 절반정도? 읽은 기억이 있네요. 참 어려운 책이라 읽기가 힘들었죠.. 책의 입장에서 동금님의 행동을 묘사하니 정말 재미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에세이 많이 읽는 거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책의 시점으로 재밌게 쓰셨네요:) 군주론 어렵죠,, 저는 요즘 시집을 주로 찾아서 읽고 있어요! 금방 금방 읽을 수 있고 책도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무조건 추리소설 아니면 이별 에세이만 읽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05/12
friday, pm 11:27 | 24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5일차 #도서관

나는 이곳, 아르 도서관 3층에 존재한다. 늦은 밤에 마지막 사람까지 다 나가고 나서야 커다란 통창을 통해 달빛이 들어온다. 달빛을 받은 우리들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색들로 힐싸이고 이내 엄청난 소음을 내며 튀겨져 나와 땅에 발을 디딘다. 때론 엉덩이로.

이 찰나의 시간이 지나가면 미친 듯이 시끄러워진다. 여기가 도서관인지 야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다. 뭐, 그래도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해진 사람이 많으니 나름 만족한다.

「디아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헤르미온드는 특유의 푹부러지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꾸물거리다가 늦었지. 그래도 최대한 빨리했다고 -근데 해리랑 론은?」

「아, 개들은 오늘 퀴디치 연습하느라 안 나왔어!」

「아쉽네. 같이 설록 아저씨한테 가자고 하려 했는데」

「앵? 왜?? 그 아저씨 뭔가 이상해서 좀 그런데...」

「푸흐흠, 아니 그게 아저씨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해서 말이야! 그리고 설록 아저씨보다 지킬 박사님이 더 이상해」

「그건 뭐, 완벽하게 맞는 말이지.」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저씨를 찾아다녔다. 그때, 우리랑 눈이 마주친 레스트레이드 아저씨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디아나 양, 홈즈 씨가 오늘 중요한 사건을 해결해야 하므로 못 온다고 전해달래요. 아! 일주일 뒤에 만남을 갖자고도 했어요. 그럼 이만 -」 아저씨는 바쁘지 속사포처럼 말을 쏟고 곧바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황당해서 3초간 멍 때리다 발걸음을 옮겼다.

「진짜 바쁘신가 봐. 그럼 우린 어디로 가볼래?」 헤르미온드는 느긋하게 물었다.

「글썸.....그냥 오늘은 정처 없이 돌아다녀 볼까?」 「좋아!」

그렇게 우리는 에르퀼 푸아로 아저씨를 만나 ABC 살인 사건의 범인을 전해 듣고, 욕을 했다. 또한 필리어스 포그 씨에게 인도여행에 있었던 일을 듣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며 헤르미온드에게 마법으로 같이 가보자고 했다가 정신 나갔나며 욕을 먹었다. 마지막으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나 친해지면서 3일 후에 만나자는 약속까지 잡았다.

재밌는 일들이 시계 초침을 저 멀리로 밀어 버렸나 보다. 벌써 새벽 5시가 되었다. 곧 들어갈 시간이다. 헤르미온드와 짧은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이제 해가 밝아온다. 나는 들어갈 시간이다. 오늘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보고 행복했으면, 얻어 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치자마자 내 몸은 빨리 들어갔다.

😊 13 💬 9

심지범 (경영학과)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도록 해요~~~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도서관에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죠 글 잘읽었습니다.

김용후 (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서관은 학교가 등장하는 많은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안 (러시아학과) 와 저희가 즐겨 읽는 명저에 나와있는 인물들이 모두 한 글에 모여있는 세계관의 글이군요. 이야기에 도전해보셨다니 대단합니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각자의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히어로들이 한 영화에 모여 상호작용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올스타전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재미를 이 글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민지님도 책을 많이 읽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러한 세계관을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더욱 다독하고 싶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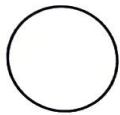
이유림(경영학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글이네요!

주재형(청각학과) 여러 인물들이 하나의 이야기속에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네요.! 민지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감사해요 ㅎㅎ 도서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죠!

김시현(러시아학과) 도서관 안의 새로운 세계관이라니! 익숙한 이름의 인물들도 많이나와서 반갑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한 편의 소설 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2

friday, pm 11:52 | 19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5일차

한창 책에 빠져있었던 적이 있다. 동네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에 밥 먹듯이 갔다. 대부분 자기계발서를 읽고 책을 찾으려 책장을 누볐다. 다양한 책들의 제목을 보며 속으로 내용을 상상해보았다. 낡은 책들에는 손이 가지 않았고 깨끗한 표지의 책들에만 손이 갔다. 고요한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으면 다른 공간에 있는 기분이 든다. 마음이 차분해지며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진다. 어렸을 때는 도서관에서 만화책만 골라 봤었는데 크고나니 글로 된 책만 보게 되었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축적된 경험들이 그 글들을 만화로 그려주는 것 같다. 집과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의 차이점은 무게감이다. 집은 자유롭다 보니 지식들이 응축되지 않는다. 반면에 도서관에서는 반듯하게 앉아서 책을 읽다보니 책 속 내용이 잘 묻쳐서 읽힌다.

요즘에는 도서관을 잘 안 가게 된다. 신간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다보니 옛날 책들이

많아서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인터넷에서 사서 읽는 중이다. 지식의 창고의 역할이 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도서관에 가면 한참을 탐색한 후에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한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 영화는 술과 같지만 책은 물과 같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경험 즉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지식을 찾는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 인 것 같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경험인가를 대답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우리에게 훌륭한 경험을 주는 점에서는 같다. 일주일간의 글쓰기를 통해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고 주말을 푹 쉬고 다음 글쓰기를 준비해야겠다. 행복한 주말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

😊 13 💬 7

심지범(경영학과) 도서관이 주는 의미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같이 따라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변하면 좋겠지만 너무 앞서가면 탈이 날수 있으니깐요! ㅎㅎ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원하는 책이 없다면 신청해서 볼 수 있어요! 새책을 먼저 받아서 읽으면 그것 나름 기분이 좋답니다 다음에 한 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영화는 술과 같지만 책은 물과 같다는 말 좋네요. 어떤 분이 하신 말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도 교양수업 때문에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소설을 전자e북으로 구매한 적이 있어요.! 민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서원준 (중국학과) 민재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무게감의 차이라는 문장이 너무 공감돼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유안(러시아학과) 민재님도 책을 아끼시는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술과 같지만 책은 물과 같다는 표현도 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책을 가까이 해야하는데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네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민재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05/12

friday, pm 11:59 | 20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도서관 #

도서관은 참 신기한 장소이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막상 도서관에 발을 들이면 분위기에 맞춰 자신이 읽을 만한 책을 고르고,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펴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런 순간에는 도서관에 가는 걸 추천한다. 고른 책을 통해 현재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취향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이의 생각을 배우면서 나를 알아가는 장소라니 참 신기한 곳이다.

😊 14 💬 9

이유림(경영학과)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죠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도서관은! 글 잘읽고 갑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고른 책을 통해 현재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다는 문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나 돌아보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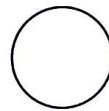
주재형(청각학과)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수업도 분명 좋은 경험이지만 책을 통해 얻는 배움도 있는 법이죠~

서원준 (중국학과) 여러 매력이 존재하죠 ㅎㅎ 잘 읽었습니다!

조은지(철학) '고른 책을 통해 현재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지혜로운 해결방법이네요! 저도 한 번 시도해볼게요.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있고 보고자 하는 것들에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 공감아 됩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글을 읽으며 깨닫게 되네요. 귀한 시각을 전해주는 글이 아닌가 합니다. 도서관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내일은 도서관이 휴관이라 아쉽지만 다시 도서관이 열리는 화요일에 저도 도서관을 방문하여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3/05/13

saturday, am 12:09 | 23읽음
배성준(경영학과)

#5일차 #도서관

어릴때부터 나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도서관에 가는 것은 뷔페에 가는 일과 비슷했다. 여러가지 책의 종류들이 있었고 그 책들은 표지디자인이 각각 독특하고 달랐다. 어떤 것은 딱 봤을때 시름할 것 같다는 인상도 있었고 어떤 책은 달달콤콤해보여서 손이 가는 책도 있었다. 책을 열었을때 두번째로 하는 일은 코를 갖다대는 것이었다. 어릴때 종종 그랬어서 부모님이 이상하게 보실때도 있었다. 냄새를 맡아보면 뭘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일이었다. 보통 나는 책을 읽을때 첫장을 이해하는데 에너지의 절반을 쓰는 편이었고 첫장을 어찌저찌 넘어간 후에는 편하게 책을 눈으로 훑으면서 읽었다. 책을 읽을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주인공이 직접 모험을 떠나거나 악당과 맞서싸우는 등 주인공이

맞이하는 모든 사건과 행동들이 그려졌다.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책속에 내가
 들어가버려서 두 세시간은 책만 들여다
 보았다. 그렇게 책을 좋아하던 내가
 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니 책에 점점
 흥미를 잃으면서 이제는 책을 세 달에 한 권도
 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면서
 씁쓸하게 느껴졌다. 책을 음미하던
 어린시절을 회상하면서 내일은 할일도
 없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냄새라도 맡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 15 💬 9

심지범 (경영학과) 책냄새가 주는 영감도 있는거
 같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도서관은 뷔페라는 단어도 잘
 어울리는거 같아요! 점점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드는게 쉽지 않은거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널 꼭 가봐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읽는 여유도 행복하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책에서 느껴지는 새 종이냄새가
 그리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맛에 대한 비유도
 좋았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책냄새 좋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조은지(철학) 맞아요 책마다 냄새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적 향수가 느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종이책은 그
 특유의 질감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 자연스레 지식의
 향기도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응원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도서관에 가서 책냄새
 잘 맡고 오셨나요 ㅎ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아!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책에서 나는 갱지의
 냄새나 잉크의 냄새를 좋아했던 경험이 있어서
 글을 써주신 내용이 반갑게 다가오네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책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ㅎㅎㅎ 그런데 직접
 해보셨다니 더욱 공감이 됩니다 ㅎㅎㅎ 이번
 연휴동안 도서관에서 책 냄새를 음미하셨기를
 바랍니다.



2023/05/13

saturday, am 12:21 | 53읽음
 김양선

#5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과연 도서관에 가는 친구들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글쓰기와 사유를 즐기는
 챌린저들답게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고, 서로
 읽은 책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
 꽂여있는 책장 사이를 유영하는, 새로 바뀐
 공간에서 친구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5일간의 글쓰기 활동 어땠나요? 얼굴은
 모르지만, 비슷한 취향의 친구들을 만나
 친밀감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주말 잘 쉬고
 다음주에도 이 분위기 쪽 이어갑시다!!

😊 27 💬 2

김용후(법학과) 5일간 쓰기는 익숙해지기 위한
 워밍업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좋은 글 많이 읽게 되어 즐거움이 큼니다
 p.s. 재미없는 제 글도 읽어주시는 학우님들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챙겨봐주시는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
 좋은 주말 되세요



2023/05/15

monday, am 7:46 | 46읽음
 김양선

#6일차 키워드 : 돌보다
 사람을, 동물을, 식물을 돌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돌보는 일이 즐겁고
 보람있지만, 때로는 의무가 되기도 하지요.
 요즘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분들을 돌봄노동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돌보는 일을 해야겠죠?

오늘은 내가 돌보는 일을 했던 경험, 돌봄을 받았던 경험, '돌보다'는 단어가 주는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18 💬 0



2023/05/15
monday, am 9:01 | 19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6일차 #돌보다

"돌보다"라는 표현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신경쓰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지지와 관심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또한 협력과 협조의 기반을 형성하며, 상호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지도 나타낸다. 상대방을 돌보는 마음가짐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 중 하나다. 이에 상대방을 돌보는 행위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서로 무관심해져가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한사람의 작은 돌봄은 큰 인류애를 느끼게한다. 솔직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 많을텐데 말이다.

과거에 본 뉴스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두발벗고 뛰어들어 나서는 모습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았다. 이것도 돌봄의 한 종류 아닐까?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데, 돌봄을 직업으로 갖고있는 분들이 존경스럽다.

오늘의 글쓰기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다시 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13 💬 10

심지범 (경영학과) 따뜻한 사회를 우리 먼저 실천해 보아요! 글 잘읽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삶에서 필요한 돌봄의 가치에 대해 조리있게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성이 아주 좋아 잘 읽히는 글이었습니다. 시현님이 표현하신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길,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시현님의 글은 돌봄 노동이나 관련 직업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첫 단원에 활용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살기 팍팍한 현대사회에서 순수하게 타인을 위한 행동을 보면 나도 그래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도울거예요.

서원준 (중국학과) 인류애에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시현님의 글을 읽으면서 돌봄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라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가네요. 저는 그저 관계 속의 돌봄만 생각했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로서 나뉘는 개념이라 생각했는데 시현님의 글처럼 그 속에서도 공동체라는 가치가 피어나있는 것 같아요 ㅎㅎ 특히, 요즘같이 자신만 아는 세상에서 가끔씩 작은 돌봄이 가져오는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회라는 가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오늘 하루는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게 참 의미있는 말 같아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 갈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돌봄에 시작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김한나(경영학과)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한 사람의 작은 돌봄이 큰 인류애를 느끼게 한다는 말이 공감이에요:) 길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 인류애가 생기곤 하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 또한 꼭 필요한거 같아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박혜윤(사회학과) 돌보는 것은 상대방을 신경쓰고, 지지하며, 관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돌봄이라는 것이 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존경합니다 희생이 동반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am 9:52 | 23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6일차 #돌보다 #돌봄서비스#성장

6일차 해시태그는 돌보다 인데용!

돌보다 라는 뜻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은 모두 살아가면서 돌봄은 필수입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요! 우리도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우리가 먼 미래에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키울때도 돌봄이 필요하죠! 누군가를 돌본다는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하는데요!

요새 제가 즐겨하고 관심있게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고딩엄빠라는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다는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020년 기준 한 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총 120명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에 고딩

엄빠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막중한 병원비와 먹을거리 등등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작은 생명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겠죠! 하나의 조그마한 개미도 소중한 생명이고 이 세상 누구나 숨을 쉬고 살아간다면 크든 작든 소중한 존재 이죠!

끝으로 오늘은 한림대학교 개교 기념일 입니다! 저는 서울을 놀러가는데요! 꼭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 14 💬 11

김시현(러시아학과) 돌봄에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부분이 많이 와닿습니다. 정말 그러하기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을 상정해두고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서울 놀러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어제 베이비박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범님의 글에서 다시보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네요. 그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베이비박스 오랜만이네요
πππ 아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라는 지범님의 말에 크게 공감해요. 인간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돌봄은 무게감 있는 단어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ㅎㅎ 그리고 저도 고딩엄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결국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 돌봄의 힘은 대단하구나하고 느껴지네요. 아마 사랑에서 비롯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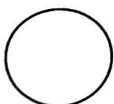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돌본다는 것은 엄청난 큰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저를 돌보기 위해 큰 책임을 지시고 키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태어나면 돌봄이 필요하고 살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조 아 요



김한나(경영학과) 고딩엄빠 가끔 보곤 했는데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부모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대단하기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직도 베이비 박스에 애기를 두고 가는 사람이 120명이나 있는 줄 몰랐네요.. 생명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소중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박혜윤(사회학과) 고딩엄빠가 자극적인 장면들로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돌본다는 점은 좋게 보았으면 해요.
박진옥(사회학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어려운데 돌봄인 것 같아요.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am 9:58 | 20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6일차 #돌보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주는 따스함과 손길 그리고 함께 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같다.

돌봄 서비스가 정책으로도 사용되는 워딩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는 것으로도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가끔은 돌보다라는 단어를 해주는 사람 입장이 아닌 받는 사람이 듣는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감사할까? 아니면 미안할까? 또는 불편할까?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돌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받는다면 감사한 마음이 클 것이고 미안할 것이고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찾아 올 것이다. 과거의 내 모습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수긍하는 내가 비참하다고 느껴지진 않을까? 싶다.

세월이라는 풍파를 거쳐 몸은 마모되지만 마음은 더욱 성장하겠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엔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땐 스스로 마음을 돌봐줘야지.

지금도 타인을 돌보는 것, 타인이 나를 돌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부터 하고 싶다.

돌봄은 애정이고 사랑이고 기대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돌봄은 어떤 감정이신가요?

😊 13 💬 12

심지범 (경영학과) 돌봄이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감정인거 같아요~ 글 잘 읽었고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신 부분이 인상 깊고 아주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처한 어려우면서도 미묘한 심정이 일상을 지내며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도 하더라고요. 상민님이 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려운 지점들에 대해 잘 써내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돌봄을 받는 사람은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노력에 미안함,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내용이 공감가네요ㅠ 나 자신을 먼저 돌봐주고 돌봐준 사람에게 나도 돌봐줄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능동적인 돌봄의 입장이 아니라 수동적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의 감정을 다뤄주시는 글을 써주셔서 역지사지의 입장을 추측할 수 있었고 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았어요. 좋은 글 고마워요!

서원준 (중국학과) 행복을 키워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쓸쓸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상민님의 글이 조금 슬퍼지네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을 땐 쓸쓸한 마음보단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럼에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상민님의 글에 크게 공감해요!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을 잃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울감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고자 노력해요. 그게 반복되면 언젠가 더 성장한 자신이 되어있지 않을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 또한 돌봄이란 무한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에게 돌봄이란 사랑을 주면서 눈으로만 예뻐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도 예뻐하는 것 같아요. 바라만 본다고

해서 돌봄이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해요. 어찌 되었던 자신이 행복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요고 받아요~



박혜윤(사회학과)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직은 당연시 여겨질 수 있지만 언젠간 쓸쓸한 마음이 온다는 점이 슬퍼지네요. 한번도 미래의 제가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그럴 때의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진욱(사회학과) 저는 내가 나를 돌보는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ㅠㅠ 지금이라도 알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애정이고 사랑이고 기대인 돌봄,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사랑과 관심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am 10:32 | 28읽음
주재형(청각학과)

#6일차 #돌보다 #마라톤

오늘의 키워드가 동사이다보니, 바로 어원을 검색했어요.

‘돌보다’는 동사 ‘돌다[回]’와 ‘보다[見]’가 만나 이루어진 합성어로 돌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보았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더라고요



마라톤을 생각해볼까요? 마라톤의 긴 트랙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호음이 탕 울렸을 때, 마라토너들은 앞을 보고 달리죠? 처음부터 벌써 지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자신의 페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옆과 앞에는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시야에서 줄어들거예요. 내 뒤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없는지는 마라토너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체상태와 앞으로 남은 거리에 비례해서 페이스 조절을 하는 데에 집중하죠.

하지만 어떤 참가자는 뒤를 돌아보기도 할 거예요. 멈추기도 할 거고, 심지어 뒤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줘요. 자신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완주하는 데에 의미를 둔 사람들이예요. 조금 더 힘내보자, 같이 가보자라는 말로 다른 참가자의 마음을 응원하죠. 굳이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힘이 나면 뛰기 시작하는 거고요.

마라톤 방송을 보면 대개 1등에서 10등까지 그 선수를 소개하면서 등수를 예측하곤 해요. 이외의 선수들은 거의 중위권, 하위권을 보여줄 때 찝막하게 지나가죠. 인생에서도 이와 다르게 별로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높은 등수를 유지한 마라토너들일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지 명백해지죠.

그러니 내가 달리는 이 트랙의 앞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말고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신경써주세요.

내가 지치거나 넘어졌을 때 도움을 바랄 수 있도록.

😊 15 💬 15

심지범 (경영학과)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것! 넘나 감동 받네요! 글잘읽고 갑니다!
김시현 (러시아학과) 돌보다라는 동사가 돌다+보다가 합쳐진 거였다니 처음알았네요...! 맞아요 앞만보고 달리는 사람만 있다면 사회는 여러모로 불균형을 이룰 것 같아요 주변을 많이 살펴봐야겠네요... 멋진 글 잘읽었습니다
최현영 (법학과) 돌보다를 돌아보다로 해석한 부분 인상깊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오 새롭게 보게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당
장지은 (언론방송융합전공) 돌보다의 어원까지 알려주시다니...!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오하영 (영어영문학과) 돌봄을 마라톤에 비유한 재영님의 글을 보며 하나 더 배우고 가네요! 다만 유명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들어 스타강사 이지영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독한 말을 하며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뒤를 돌아 학생들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혹은 넘어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앞서 달리던 사람도 항상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인생에서 보았을 때 혼자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중 결과가 좋은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사회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깐요! 재형님 덕분에 저도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한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과거를 되짚어보는 일이 더 많았겠네요. 이지영 강사님을 떠올려보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돌보다의 어원을 알려주셔서 하나의 지식이 쌓였네요.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마라톤을 이끌어내고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신경쓰라는 재형님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어원과 비유를 통해 아주 잘 풀어나간 글을 쓰셨네요. 글이 너무 멋지고 글이 주는 메시지도 너무나 뜻 깊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하게 된다면 아마 자질이나 능력상 가장 선두로 뛰는 사람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순위권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달리는 위치에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만은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 역시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타협하지 않는 최선의 원칙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마라톤의 의미는 앞의 길을 보고 종착지 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역시 누군가 함께 달려주고, 의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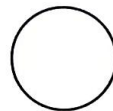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주위를 돌아 보았을 때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같이 전진해 왔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인생에서도 마라톤에서도 자신에 페이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뒤도 돌아볼 여유와 힘이 생기는거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박혜운(사회학과) ‘돌보다’가 ‘돌다’ + ‘보다’의 합성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돌보다의 어원을 처음 알게 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돌봄을 돌아보다라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네요!! 마라톤에 비유하신 것도 너무 찰떡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마라톤에 비유하며 쓴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am 11:09 | 21원음
최현영(법학과)

#6일차 #돌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다.

이웃집 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웃집 이모와 친해서 이모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시곤 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이모는 엄마 개가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토해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했다.

그런 이모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안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잘만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고 귀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모는 꿀이 떨어지는 내 눈을 보시고는 한 마리 데려가라고 하셨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결국 뒤처리는 엄마가 해야 된다고 한사코 반대하시던 엄마가 웬일인지 허락해 주셨다.

대신에 너 혼자서 알아서 키워 보라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말을

마쳤다.

너무 설렌 나에게 이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드디어 강아지를 키우게 되다니!!

그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설렌 마음으로 강아지를 골랐다.

하얗고 예쁜 강아지들도 있었지만 초코를 온몸에 잔뜩 묻히고 눈 주위까지 짙은 검은 강아지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름도 “쭈글이”로 지었다.

호기심이 많은 쭈글이는 싹룩싹룩 잘도 걸어 다녔다.

당장은 강아지 집도 밥도 없는데 정보마저 없던 나는 멘붕이 왔다.

아쉬운 대로 화장실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 놓고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쭈글이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건지 저녁 내내 계속 울었다. 안고 있어야 잠이 들어서 품에 꼭 끌어 안고 쭈글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 침대로 돌아왔다.

이게 새벽 7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 먹었는지 토하고 코도 축축해야 하는데 말라 갔다.

이러다가는 내가 이 작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설렘을 뒤덮기 시작했다.

내일은 어떻게 쭈글이를 보살펴 줘야 하지...?

하는 막막함과 함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되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아 오자마자 쭈글이를 들고 이모네로 향했다.

삼촌이 나와 계셨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 채 울먹울먹하며 강아지를 돌려 드렸다. “못 키울 것 같아요...”

호기롭게 시작한 쭈글이 키우기가 흐지부지 끝이 났다.

집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쭈글이와 함께한 공간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막중한 책임이 든다는 것.

그 후로 나는 엄마한테 한 번도 무언가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 13 💬 8

심지범 (경영학과) 생명을 키운다는건 막중한 책임이 생기죠! 글 잘읽고 갑니다!
주재형 (청각학과) 키우다라는 말과 돌보다라는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죠. 사람을 돌보거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이 어느 것 하나 쉬운게 없어요. 쭈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막중하고 신중한 책임감에 대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 (언론방송융합전공) 이름 너무 귀요워요 ㅋㅋㅋㅋ 쭈글이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 댁에서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하루종일 엄마 보고 싶다고 짹짹 거리길래 다시 엄마 곁으로 보내준 경험이 있어요
오하영 (영어영문학과) 어린 나이임에도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은 현영님의 글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초3이면 책임보단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할 나이고 쭈글이도 그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점점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상황이 오죠. 하지만 현영님은 어린 나이에도 오로지 자신의 손을 통해 책임을 배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점이 정말 어른스럽다고 느껴지네요 ㅎㅎ 가끔은 저도 제 손을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현영님의 글을 읽으며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읽으면서 책임감의 무게와 걱정했을 어린 현영님의 마음에 이입이 되어 마음 한켠이 아리더라구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셨군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텐데 지금 이렇게 글로 반추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책임의 무게만큼 행동하고 어떤 대상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고, 저는 부끄럽게 책임지지 못했던 어린시절도 있었네요. 현영님의 어린 시절 태도에서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뒤늦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무척 감사드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워본적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야 생명의 무게를 알아가는 것 같은데 현영님은 정말 어린시절에 알게 되셨군요. 그 때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만약 키우게 된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떠나보낸 경험을 통해 돌봄에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겪어봐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am 11:44 | 18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6일차 #돌보다

대학생활에 있어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정말 돌봐야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나부터 돌보고, 가꾸는 습관이 중요하다. 즉

자기계발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난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좋아하고, 운동을 즐겨해 항상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런닝과 더불어 공운동을 자주 즐겨한다. 두번째로 나의 꿈을 향해 열심히 어학공부를 하며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성격이라 항상 주변 친구들과 교감을 나누는 등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아래 나를 가꾸고 있다. 나를 가꾸고 돌본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 지금 하는 이 챌린지 또한 나를 가꾸고 돌보는 길중 하나라고 생각한달려 여러분도 하루 빨리 내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

😊 14 💬 10

김시현(러시아학과) 자기계발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돌봄이 될 수 있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요즘 자기관리에 폭 빠져있는데요 ㅎㅎ 공감가는 글이라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원준님 글처럼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이기에 스스로를 돌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건 나를 위한 돌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죠. 그래서 요즘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화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걸 사먹거나 ㅎㅎ 원준님 덕분에 이런 삶이 얼마나 가치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심리학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돌봐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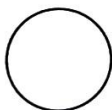
이유안(러시아학과)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장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때로는 스스로를 좀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글을 읽으며
반성하게 되기도 하였어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저를 돌보는 루틴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메시지로
와닿는 글이었네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스스로 가꿀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티가 나기 너무 쉽기도 한
것 같아요

김한나(경영학과)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취미, 꿈, 성격, 역량 등을 잘 파악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거 같아요! 저는 아직 스스로 못 찾은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am 11:52 | 21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6일차 #돌보다

누군가를 '돌보다'는 건 항상 희생이
수반되는 것 같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을 삶을 희생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돌봄을 단순히 보살핌의 개념으로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다. 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봄은 나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다. 나를 희생해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마음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나조차도 부모님에
의해 돌봐지고 있다. 이토록 어려운 것을
당연하듯이 행동하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사랑이다. 희생 속에서 사랑이 단단한
뿌리로서 자리잡고 있기에 돌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돌보아지고 있는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익숙함에 의해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외치자, 늘 감사하다고.



13



12

서원준 (중국학과)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또한 감사운동도 열심히 실천해여겠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돌봄은 늘
책임감이 같이 수반되죠. 글 잘 읽었습니다아~!
주재형(청각학과) 누군가에게 신경쓴다는 건 그
시간에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죠.
희생의 감사함을 강조해주시는 말에 적잖이 말에
무게가 다가왔네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항상 나를 돌봐주는 주변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까운
부모님부터도 엄청난 희생이 수반된다고 생각하니
뭉클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심리학과) 돌봄은 사랑이 수반되는
행동이죠. 저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을
잊고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글을 읽으니 독립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도 사실 과거
여러 사람들의 돌봄과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닐까, 그런만큼 더욱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에
감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장을 하여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사람이 되자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누군가를 구하고 돌본다는건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죠! 글 잘 읽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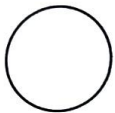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누군가 돌봄을 해준다는
것은 희생과 관심을 동반한게 아닌가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보살핌을 넘어 헌신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인상깊네요 어쩌면 일상에 당연시했던 것들에 있는 헌신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운(사회학과) 특히나 노인 돌봄에는 더욱 희생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옥(사회학과) 한 생명을 다루는 일하기에 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이 무겁지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더라고요 처음은 낯간지러울지 몰라도 자주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pm 2:29 | 18읽음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6일차 #돌보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땐, 술 먹는데 돈을 다 써 할머니가 샴바느질을 하며 가장 노릇을 했다. 술에 취해서 돌아올 땐 폭력적으로 변해 가족들을 괴롭혔다. 술만 먹는다면 모를까. 할아버지는 여자도 가까이하셨다고 했다.

내가 할머니 집에서 살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전날부터 어지럽다고 하더니 뇌졸중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의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었는데 뇌졸중이 사람을 아무것도 못 하는 어린애처럼 만들었다. 횡설수설했고 자기 딸마저도 잊게 되었다. 계속 누워있게 되어서 등과 엉덩이엔 욕창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뒤로 2년 동안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누워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셨다. 몸도 안 좋은데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간호를 했고 매일 간이침대에서 잠들었다. 할아버지의 똥오줌을 손으로 받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끔 물수건으로 몸을 꼼꼼히 닦았다. 할아버지 장례식날 나는 그렇게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빨리 죽어야겠다 하신다. 나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젊었을 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그 아픔을 다 감수할 정도로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삶의 동반자로서의 동정이었을까.

😊 13 💬 10

서원준 (중국학과) 미래를 먼저 상상하게 되네요 ..ㅎ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받고, 잘 읽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마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다 있지만 사빈님이 나눠주신 사빈님 가족분의 이야기는 마음이 아프고 저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심정이 되네요. 정말 할머니께서는 어떤 심정이셨고 가족분들은 어떤 심정이셨을지.....이렇게 글로 담담하게 적어서 쓰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텐데, 가족분들과 사빈님께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좋은 일이 앞으로 더 많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집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할머니의 할아버지를 향하였던 지극정성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정말 대단해요.. 돌봄이라는 말보다 헌신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빈님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더 나은 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빈님의 글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네요.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하셨던 할아버지 곁에 결국 끝까지 남아있었던 건 할머니이셨다는 게 할아버지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를 향한 할머니의 큰 사랑을 할아버지께서도 아셨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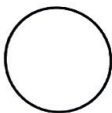
심지범 (경영학과) 한마디로 정이죠! 글 잘 읽고 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진옥(사회학과) 할머니의 돌봄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그 아픔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게 돌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할머니께서는 희생과 돌봄 그 사이를 행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이 글을 읽고 돌봄과 희생이 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pm 2:31 | 19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6일차 #라이팅챌린지

내가 생각하는 '돌보다'는 상대에 대한 사랑도 수반되어 있는 동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삼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챙겨주는 것, 아껴주는 감정이라 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안쓰러워하는 것은 돌보는 것과도 같다. 싫은 감정이 생겨도,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외면하지 않고 관계가 끝나지 않도록 유지되는 이유는 서로의 노력이 있는데 그것에는 상대방을 돌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맹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마음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그 마음을 동정심이라고 생각했다.

동정이라고 하면 마냥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부정적인 측면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돌보다'의 어감은 따뜻하다. 그리고 품고 있는 느낌이 든다.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고 돌봄으로써 또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힘을 얻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몸짓의 양분이 되어 사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아직 따뜻함을 느낀다.

😊 13 💬 10

서원준 (중국학과) 힘든 세상을 함께 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돌보다의 정의에 대해서 유정님이 해석을 풀어서 설명해주신 것을 읽으니 저도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감정인지에 대해서 다시 새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이라는 주제도 언제나 공감하는 주제였는데 유정님이 언급해주셔서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돌보다의 어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품고있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주재형(청각학과)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돌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주셨네요. 저도 돌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참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이 인간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유정님의 글에 깊게 공감합니다. 돌봄은 결국 사랑을 동반한 희생에서 비롯되고 이는 책임으로 이어지기에 인간의 마음에 따뜻함이 없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난무하는 지금 사회 속에서도 이따금씩 따뜻함이 느껴지는 게 돌봄 때문인가 봐요 ㅎㅎ 유정님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어떤 광고에서 치매인

자신의 어머니를 처음에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봤어요. 마치 아이처럼 생각하면, 치매인 할머니를 조금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저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구요. 아기로 삼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정말 돌보나라는 단어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돌봐주는 행위도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안하게 되는데, 타인을 돌봐줌으로써 살아갈 힘과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옥(사회학과) 사랑이 수반되어있기에 그걸 받는 사람이, 돌보나라는 어감이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 그 사랑이 담긴 돌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사랑이 담긴 돌봄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조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돌보나라는 단어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5

monday, pm 5:29 | 21views

이유빈(사회학과)

#6일차 #돌보다

엠티를 다녀온 후 열이 나고 기침이 이어지고 아마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어젯밤 기숙사에서 룸메없이 혼자 열을 나서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다. 집이 아닌 타지에서 그리고 기숙사 방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아프고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났다.

내가 만약 집에서 열이 나고 아팠다면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회복 하고 있었겠지?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서 내 몸 하나 나 스스로 돌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고 외로웠다. 아프니까 뭔가 집이 아닌 곳에서는 아프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니까.

나중에 영영 출가를 해서 집을 나온 후, 아프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준다는 것은 정말 신이 주신 선물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 12 💬 10

서원준 (중국학과) 이럴때일수록 항상

부모님에게 잊지 말고 안부전화하면 좋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정각학과)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건강이죠. 평소에는 아프지 않다가 어딘가 아파지면 건강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깨닫곤 해요. 감기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자신의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 바로바로 약먹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프지 마세요!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기숙사에 있을때 가장 서러운거 몸이 아픈 일 같아요...ㅠ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돌봐줄 대상이 가까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작성자분께서 혼자 아프다는게 외롭다는 걸 알기에,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따뜻하단 생각이 듭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부모님이 가장 필요하고 혼자가 가장 외로운 순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면 평소에 괜찮았던 마음도 울컥해지면서 나를 돌봐주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그리워하게 되죠. 저는 유빈님처럼 기숙사생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자주 접하진 않지만 중학교 때 부모님 곁을 잠시 떠난 후 아픔을 겪었을 때 느꼈던 그 그리움은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 이후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더 잘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유빈님처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아프다는 일의 괴로움과 서러움에

대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야말로 돌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 상황일텐데 챗봇지도 계속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모쪼록 잘 나오시고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며 댓글로나마 응원과 인사 보내 드립니다. 기운과 건강이 돌아오길!!

김수민(언어병리학과) 혼자 있는데 아프면 너무 서러운 것 같아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취하면서 아프면 문득 가족들의 보살핌이 그러운 적이 더러 있더라고요 또 지나다보면 나름대로의 적응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모쪼록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돌봄을 받는 것 자체를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되네요 ...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유림(경영학과) 아플때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우리가 소방관 구급대원이 아니라고 사람을 못구하는건 아니죠!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5

monday, pm 5:47 | 19읽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돌보다

비가, 지구의 모든 걸 씻어 내릴 듯이 내리던 날이었다. 회색빛 도시의 깊고 깊은 어두운 골목길.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1.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그것을 보며 막연하게 생각했다. 꽤 무거웠기에, 욕실로 옮기며 땀을 진탕 뺀 참이었다. 그대로 내버려 둘 걸 그랬나. 잠깐의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아마 사람이었어도, 나는 안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안쓰럽게 덜덜 떨고 있었다. 추위를 타는 걸까. 욕조 안에 물을 틀어, 나의 체온에 온도를 맞추었다.

이 온도는 어때. 해칠 의사가 없다는 듯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것의 팔-아마도 팔로 추정되는-을 잡아 조심스럽게 물 안에 넣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욕조를 같은 온도로 가득 채웠다.

2.

무언가를 돌본다는 건 꽤 많은 진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늘다니. 나는 나 자신 하나도 신경 쓸 수 없이 바쁜데. 그런 나에게 이상하게도, 그것을 돌보는 일은 싫지가 않았다. 기묘한 동거. 의사를 물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욕조 속에서 날 기다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먹을거리를 사 들고 가는게 일상이 되었다. 좁진 않을까, 오래된 집이라 협소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했다.

3.

돌봄이란, 한 쪽의 요구가 아니라 삶의 조율이라고 하던가. 그날 골목길에서 죽어가던 건 나의 욕조 속 동거자만이 아니었다. 그것의 곁에 머물며 필요를 채우는 일은, 나를 채우는 일이기도 했다. 죽어가던 걸 살렸으니, 남은 건 다시 살아가는 일뿐.

또다시 진탕 땀을 빼며. 나는 바다로 갔다. 쉽지 않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갔다.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건, 그런 거니까.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이라는 영화를 떠올리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 15 💬 7

서원준(중국학과) 오 이 영화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못봤어요 이렇게라도 알게되니 다행이네요 나중에 꼭 한번 봐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댓글상처럼 소설상이 있다면 예진님의 몫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필력으로 소설을 써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예진님이 꾸준히 짧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주제를 풀어 나가고 계신 것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후에도 이러한 글쓰기가 발전되어 작품이 되길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챌린지에서 보여주시는 글들에 대해서도 응원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정서를 자아내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장을 따라가며 저도 낯선 존재이지만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의 삶의 조율로 비유하신 예진님의 글을 보며 하나 또 배우고 가네요. 저는 그동안 돌봄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상대방과의 삶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돌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진님의 글을 읽고 나선 그러한 조율이 있기에 인간은 협동을 하고 협력을 이루어내며 그 속에서 돌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돌봄은 진짜 힘이 많이드는 것 같아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지 못하여 내용을 찾아봤는데, 독특한 소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고 있네요 보살핌과 사랑은 물처럼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며, 물결같은 떨림으로 전달되는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네요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영화내용이 궁금해지는 글이네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잘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pm 5:59 | 20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6일차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고령화, 아동학대, 청소년가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 중 하나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돌봄'이 될 테다. 돌봄은 자신의 일부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만큼 어렵고 대단한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을 받고 성장해왔으므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돌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지만 돌봄은 상대에게 일부가 동화되어 그들의 삶에 들어간다. 이는 좋은 감정을 얻기도 하지만 나쁜 감정도 고스란히 공유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두 스스로 돌보기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

😊 13 💬 7

주재형(청각학과) 돌봄받기로 시작해서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기위해서 자기를 먼저 돌봐야겠죠. 여건을 만들어놔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테니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요즘 불안한 사고들도 많고 한데 내 자신 먼저 돌봐야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돌봄의 과제가 정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못 가르치고 있는 사회도 함께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거대한 문제이고 저 또한 자유롭지 않은 문제라 때로는 어떻게 다뤄야할지 막막하지만 충민님의 글에서 나타난대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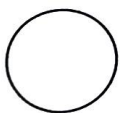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맞아요 자신도 중요한 돌봄의 대상이죠,,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충민님의 글에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충민님이 언급하신 고령화, 아동학대, 청소년 가출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린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큰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도 공감이에요. 특히 돌봄의 초점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 맞추어져 있기에 발생한다는 것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큰 깨달음을 얻게 됐네요. 충민님의 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모든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 돌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pm 6:03 | 19읽음
배성준(경영학과)

#6일차 #돌보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 돌봄의 대상은 꽤나 많았습니다. 옛날엔 작은 금붕어 몇 마리가 저의 돌봄을 받았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주고 먹이도 자주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허브와 로즈마리였습니다. 두 친구들을 열심히 돌보고 지속적인 관심도 주니 무럭무럭 잘 자랐고 제 성취감도 열심히 무럭무럭 싹틔웠습니다. 얼마 뒤에는 햄스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보니 엄청 들떠서 잘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사료도 열심히 주고 잘 씻기겠다고 다짐 했었습니다.

햄스터가 항상 사료를 편식하고 해바라기씨만 골라먹어서 골머리를 앓았던 적도 있었지만 햄스터도 제가 돌봐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지속적인 돌봄이 부족했는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그 후로는 동생도 돌보았고 가족이 아플때 돌보았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한때는 돌보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돌봄은 내가 돌봄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관심을 주고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속에서 상대방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때는 최근에 나 자신을 돌보았을 때입니다.

나를 돌보다라는 것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돌보는 것은 상대방을 돌보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크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신경 쓰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고 공감해주다 보니 마음속에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것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한번씩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경험을 하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 13 💬 10

이유안(러시아학과) 성준님의 글을 읽으니 뭔가 몽클한 마음이 되네요. 그만큼 글에서 진실된 마음과 돌봄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돌봄에 대해 떠올리기에 제가

부끄럽거나 부족했던 때가 많아 제대로 반추해보지 못했는데 진솔하게 반추하시고 글을 쓰신 것 같아 존경스럽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잘 해내고 싶어 집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제 첫 반려동물은 초등학교 앞에서 500원에 팔던 수평아리였어요. 그땐 병아리가 살 수 있는 온도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되지 않던 때라 얼마 살지 못한채 무지개나라로 떠났었죠. 저의 어린시절 첫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나서 조금은 아련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경험 실천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저도 햄스터 키우 적이 있어요! 한 달도 못 있다가 다리를 건넜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생각해보면 다양한 돌봄의 대상을 거쳐간 것 같아요. 저도 식물을 키우고, 물고기를 키우고, 사슴벌레를 키우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도 상대방과의 신뢰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성준님의 글에 정말 깊게 공감합니다. 돌봄에는 큰 책임이 따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마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돌본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방과 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돌봐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성준님 덕분에 다시 한번 돌봄 속의 신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돌봄의 관계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보살피고 바로 설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삶의 지혜도 덕분에 새기고 갑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빈(경영학과) 돌봄은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이다 곱씹어 보니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돌봄에는 소통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는 것도 나 자신과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돌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자기자신이 단단히 서야 돌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pm 6:58 | 25읽음

김용후(법학과)

#6일차

#돌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맞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였다.

전문가들은 2025년경에 이 수치가 20%를 넘겨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곧, 고령화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노년기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은 빈곤, 질병, 외로움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우선, 수입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 수명은 길어졌지만, 노인은 다양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몇몇 질환들은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거나, 막대한 간병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홀로 사는 많은 노인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우울과 외로움을 가져온다.

관련하여 '노인 돌봄'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 '돌봄'이란,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노인도 건강한 삶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돌봄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인 돌봄은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보살핌 작용을 의미하게 된다. 노인 돌봄은 간병, 요양, 생활 지원, 재정 지원 등이 합쳐진 'total care' 활동이다. 곧, 노인을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가 각 분야에서 노인 돌봄의 주체가 된다. 국가, 지자체, 가족, 봉사자, 돌봄 종사자, 민간 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는 '노화'라는 공통의 사회 문제에 맞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 돌봄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지방에서도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 돌봄의 수요는 '공공 재정의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의 충당과 적절한 비용 부담 수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논의를 펴야 한다. 다른 차원에서는 '노인'과 '노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며,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100세의 삶이 더 이상 드문 경험이 아니게 될 것이다. 장수가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 돌봄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나이를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노인의 문제는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노인 돌봄, 나아가 노인 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화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노인들의 생활에 관한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응하여야 할 책임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된다면 고령화 한국의 장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12 💬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장수가 축복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인 돌봄이 적극적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용후님의 글에 공감이 되네요. 저출산이 현실이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우린 그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순간에서 가장 적합한 게 노인 돌봄이죠. 아마 노인 돌봄도 시설 돌봄이나 또는 커뮤니티 케어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옳은 지는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옳은 것은 자신에게 맞는 돌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 그것이 노인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용후님이 언급하신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 층에서도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저울은 기울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덕분에 돌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주재형(청각학과) 100세 시대라는 말보단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명보단 삶의 질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복지적 국가는 노인과 사회배려층을 얼마나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으로 결정되어진다고 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혜운(사회학과)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일 것 같아요. 결국 지금부터 노인 돌봄 체제나 정책 등을 마련해야 후대에도 복지가 튼튼히 이어질텐데 아직은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는 다소 아쉬운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돌봄 등 관련 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매우 많은 것 같아 속상하고 그러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것 같아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장수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머리를 땀하고 울리게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고령화의 속도가 심상치않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미래일텐데 ! 우리도 하루 빨리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 미래도 편하니깐요

자해나 피해의식, 대인관계에서의 위치 등등 나는 나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감정을 헤아리고 또, 나를 어떻게 보듬어 줘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잘 돌볼 것이고, 사랑할것입니다.

😊 13 💬 9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에 진심이 담긴다는 건 겉보기엔 쉬운 말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심이 담겨있다는 건 내 반쪽과도 같은 의미여서 어느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나 자신을 위한 돌봄이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단 남을 생각하는 일이 많다보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위한 돌봄을 진심을 담아 해보려고요. 유진님도 저도 언젠가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돌본다는 생각은 미처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신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돌봄과 키움의 차이는 정말로 뭐라 정의하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가족을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족돌봄의 예시라고 생각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정말 많이 키워봐서 공감이 되요 어찌면 저는 아빠 엄마가 돌본 식물과 생물을 관찰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ㅎ



2023/05/15
monday, pm 7:18 | 24위음
김유진

#6일차

인생을 20년 살면서 무언가를 키워본 경험은 참 많습니다. 구피라는 열대어도 키워봤고, 다육이도 많이 키워봤고, 방울토마토, 달팽이 등을 키워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심으로 무언가를 '돌본' 경험은 많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삶에서 돌봤던 경험은 지금 키우는 반려견과 저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둘도 사실 잘 돌봤는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반려견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줬을 것이고, 산책 나가기가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 저녁에 나간 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은 20년동안이나 해왔지만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의

박혜은(사회학과) 방울토마토는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되짚어보니 저도 수박을 돌봤던 적이 떠올랐어요. 저도 진심으로 돌봤나 라고 생각해 보면 돌봄보다는 키움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키움이 돌봄의 요소일까 궁금해지네요..
이유림(경영학과) 처음은 어렵겠지만 작은 것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정말 약속 꼭 지켜야 해요!! 잘 읽고 갑니당

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지원님처럼 오늘도 돌봄을 받았어요. 아마 내일도 받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돌봄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익숙해져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지원님도 저도 앞으로의 인생에 돌봄을 받는 일이 많겠지만 우리 그 소중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5
 monday, pm 8:23 | 22읽음
 박지원(사회학과)

#6일차 #돌보다

누군가를 돌볼 때는 사랑으로 상대를 돌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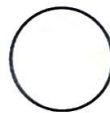
내가 받은 돌봄은 무엇일까. 오늘도 본가에서 기숙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기숙사 가기 전 친구를 만나 영화를 봤는데, 정신이 팔려있어 엄마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5통이나 왔었다. 엄마는 나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며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돌봄의 결과가 아닌가.

돌봄은 애정, 사랑이다.
 나는 오늘도 역시 돌봄을 받았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돌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감사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원님의 글처럼 보고싶다는 그 한 마디가 돌봄의 의미를 너무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별 거 아닌 말임에도 그 속엔 걱정과 사랑이 담겨져있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주재형(청각학과) 어머니의 부재중 5통을 보고 사랑받는다라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서 저까지 흐뭇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희 엄마도 하루에 한 통 꼭 전화를 해야 안심 하시고 주무셔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전화를 주고받고자 하는 가족의 마음만큼 돌봄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때가 또 있을까요. 글을 읽고 있으니 어쩐지 저도 함께 마음이 몽글해지고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애정어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지원님의 삶에도 주고받아지는 돌봄이 항상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부모님의 돌봐주심을 생각하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ㅜ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 전화통화 하나로 기뻐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유림(경영학과) 한편으로 어머니는 왜 전화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ㅎㅎㅎ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어머니와의 소중하고 애뜻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



2023/05/15
 monday, pm 8:32 | 21읽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6일차

내 나이 스물 한 살, 벌써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돌봄에서 독립해야 하는 존재 같다. 그러나 돌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의 손길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한 게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게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노인이어도 상관없이 말이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성립되는 행위이다. 그렇지 않다면 돌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 속에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는 날 깨우는 아빠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고, 엄마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 뿐인가? 염증이 난 내 귀를 보고 걱정해주는 친구와 헤어질 때 조심히 가라며 손짓하는 친구의 돌봄을 받고 헤어졌다. 돌봄을 받은 만큼, 나도 같은 돌봄을 베풀 것이다. 흔히 돌본다고 하면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으로 치부되는 행위가 아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행위이다.

😊 12 💬 11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이 항상 부모님에 한정되어 생각했을 뿐지혜님처럼 친구라는 건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지혜님의 글을 읽다보니 친구를 통해서도 소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돌봄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지혜님의 글에도 공감해요. 돌봄은 사랑으로 피어난 책임이 따르게 되니까요. 덕분에 큰 깨달음도 얻고 공감도 하고 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나무도 실상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우리가 홀로 선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보살핌의 토양 속에서 자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보살핌을 다시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성휘(콘텐츠IT)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라는 말이 참 인상깊네요. 저도 돌봐진 것은 어렸을때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용돈을 받거나 본가에 갔을때 부모님께서 밥을 해주신것도 나를 돌봐준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무엇보다 바라지 않는 이타적 행위의 끝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돌봄이 아닐까 싶어요. 걱정도 하나의 돌봄이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아직까지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요구하는 어른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하루동안 어떤 도움으로 지내올 수 있었는지, 무엇을 감사해야할지 돌아보는 순간이 무척 귀하고 스스로를 둘러싼 돌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베풀고자 하는 태도 또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챌린지 주제를 통해 여러 학우분들의 삶에서 느끼는 감사와 사랑, 돌봄에 대해 읽으며 저도 많이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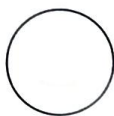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돌봄은 그 대상에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동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돌봄을 받으며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일상 속에서도 돌봄을 찾으셨군요! 저도 다시 한번 곰곰히 오늘 하루의 돌봄은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정예진(생명과학과)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말이 공감가네요 :) 제 주위에서 저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글이었어요 .

서원준(중국학과) 순수한 행복, 행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2023/05/15
monday, pm 9:29 | 25읽음
 강민지 (사회학과)

#6일차 #돌보다

뼈와 연골을 갈아 넣어서
 성대를 갈아 넣어서
 시간을 갈아 넣어서
 웃음을 갈아 넣어서
 슬픔을 갈아 넣어서
 분노를 갈아 넣어서
 애정을 갈아 넣어서
 우주를 갈아 넣어서
 나를 갈아 넣어서

너를 키운다.
 너는 나의 집합체이다.
 너는 사랑의 집합체이다.

😊 13 💬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되게 몽클한 시 같아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오 시를 시도해보셨군요. 갈아 넣다는 표현이 정말 돌보다는 말에 적합한 희생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희생 하여야만이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네요. 마지막연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모여 응축된 돌봄의 대상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줄 수 있는 모든 걸 갈아넣는 건 자신의 일부까지도 희생한다는 각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좋은 시 잘 감상했어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뭔가 부모님이 생각나네요... 시 너무 멋져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 진짜 부모님이 쓰셨을 것 같은 시예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민지님이 쓰신 갈아 넣어서 라는 표현에서 사랑이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도 모르게 시를 읽으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어쩌면 제자 부모님과 대입해서 읽어서 그런가봐요. 나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을 갈아 넣다하는 표현으로 읽으니 온전히는 아니어도 부모님이 날 키울 때 어떤 감정으로 키우셨을지 이해가 되네요. 덕분에 돌봄은 다른 표현으로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읽으니 조금은 슬픈 것 같아요 갈아넣는다는 표현 때문에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ㅠ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와 정말 임팩트 강한 시네요 잘 봤어요



2023/05/15
monday, pm 9:36 | 16읽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돌보다 #

나는 능동적인 느낌의 단어를 좋아한다. 돌봄은 돌보아주는 존재가 없다면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한 주체나 객체가 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보다’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나 또한 그랬고, 받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게 되었다. 돌봄은 어쩌면 무언갈 능동적인 존재로 바꾸는 단어일 수 있다.

😊 9 💬 8

주재형(청각학과) 서로가 있어야 완성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건. 돌봄을 받는 존재를

능동적인 존재로 바꾸려는 행동이 바로 돌봄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돌봄은 무언갈 능동적인 존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습니다! 우리도 돌봄을 받아왔기에 능동적으로 변해가며 성장한 것 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무언가 능동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단어일 수 있다는게 참 꼼꼼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돌봄을 받았기에 능동적인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누군가 있어서 돌봄이 완성된다는 선율님의 글에도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돌봄도 돌보과의 개념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율님이 찾아주신 사전의 뜻에 대입해보면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로서 스스로를 위한 삶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처럼 되더라구요. 결국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돌봄의 한 형태로서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선율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 번 자신의 돌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특히 돌봄이 무언갈 능동적인 존재로 바꾸어줄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깨닫고 갑니다! 글 잘 읽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내가 보잘 것 없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돌봄을 능동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다니 시각이 넓으신거 같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능동적인 단어도 또 하나의 심도 있는 표현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는 돌봄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장애학이나 복지의 관점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터라 그래서 선율님의 돌봄은 어떤 존재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단어라는 표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5
 monday, pm 10:21 | 17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6일차 #돌보다

“넌 진짜 어른 같아”

중고등 학교때에 많이 들었던 말이다. 나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 도맡아 하거나, 친구들과 돌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항상 사고치면 도와주고 보필하는 일을 계속 해오다보니, 정작 나를 돌보는 것에는 미숙한 것 같다. '나를 돌 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리고 무식할 정도로 바쁜 일정에 또 나를 돌보지 못한다. 어쩌다 조금 이나마 휴식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쉬어야 할 지를 몰라 제대로 쉬지 못한다. 쉬는 방법을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정신 없이 보낸다.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들 한다. 예전의 나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순간 '내가 너무 뻑뻑하게 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삶이 아닌 나 스스로 도움 되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 10 💬 6

김시현(러시아학과) 맞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살면 나만 지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인상깊습니다 잘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보다 스스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자신을 돌볼 때에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진정 나를 위한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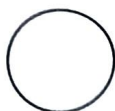
무엇인지 고민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열심히 살다보면 그게 뻑뻑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더라고요. 저도 동금님처럼 그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어서 공감이 가네요. 그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은 기분... 근데 알고보니 열심히가 아니라 뻑뻑하게 살아온 거였고 저를 혹사시킨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동금님도 저도 앞으로의 삶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전 그럴때 그냥 다 놓고 쉬어버리기도 해요 놀랍도록 아무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무한 공감하고 갑니다



2023/05/15
monday, pm 10:41 | 15읽음
 김노연(사회학과)

#6일차 #돌보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다. 세상에는 받는 것이 더 잘 맞는 사람과, 주는 것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물론 그것만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보니 떠오른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지금껏 부모님의 돌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전자에 속할까? 아니면 동물들을 가끔 돌봐주며 얻은 행복을 소중히 하기에 후자일까?

사실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는 모두 돌봄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돌봄은 일방적인 헌신에 가깝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무언가를 돌볼 때 돌봄의 대상으로부터 위로 또는 보람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간다.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간을 돌보며 인간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제대로 고백하자면 나는 아마 받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더 익숙해진다면 분명 주는 기쁨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지금껏 응원해오고 세심하게 살펴주며 얻은 따뜻함을 나는 안다. 사람은 온전히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서로 돕고 돌보며 사는 사람들을 나는 응원한다. 인간은 언젠간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 9 💬 7

김시현(러시아학과) 마지막 문장처럼 인간은 언제나 약해지기 마련이기에 돌봄을 받고 돌봐주는 매 순간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약간 받는 것이 더 잘 맞고 주는 것이 더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었기에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았기에 다시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사실 돌봄이 더 필요한 나이지만 조금씩 돌봐주게 되는 나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여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받는 것이 더 잘 맞는 사람은 주는 것을 노력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를 노력해야 해요. 기브 앤 테이크의 성격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나 타인을 위해 정성을 쏟는다는 것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좋은 글 감사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연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쪽에 속할까 고민해봤어요. 저는 단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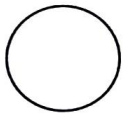
나오더라구요 ㅎㅎ 저는 돌봄을 받는 쪽이었어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책임을 가지고 헌신했던 기억 대신 내 앞 길을 돌봐주길 바라는 기억이 더 많아서인 것 같아요. 노연님의 글처럼 사람은 돕고 돌보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돌봐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때 이 글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는 돌보는 것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글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김경희(국어국문학과) 받는것이 더 잘맞는다는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것도 같습니다. 돌봄 되어지는 것에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되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오락가락하는 편인데 사람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잘 읽고 갑니다



2023/05/15

monday, pm 10:56 | 16views
박진옥(사회학과)

#6일차 #돌보다

“배만 봐도 남자 아이네, 태몽도 남자아이야!!
막내는 남자라 다행이네~축하해!”

모두가 남자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해 봄 남자아인 줄만 알았는데, 6남매 중에
막내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평범한 집안에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그저 조용한
이장님 덕 막내딸이었다.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대로
살아오던 막내딸, 나는 23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다.

23, 대학을 다니던 중에 교환학생을 떠나기
몇달 전,
내가 볼 때 어른 같고 나와는 다른, 멋진
남자와
우리의 아이가 생겼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다...
아이는 너무 예민했고 남편의 불같은 성격이
힘들었다.

지쳤다. 안우는 때가 없을 정도로 울었고
남편은 그런 나에게
아이를 좀 잘 보라고 했다.

당장 돈이 많이 없었지만 남편은 화가 나면
일을 가지 않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참지 못해 싸우고 들어올
때가 많았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 나는
크게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나는 그저 엄마이자
아내이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잘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부족한 살림은 녹록치 않았다.

여기 저기 돈을 빌리기 위해 물어봤다..

‘언제쯤이면 나아질까’

매일 생각한다.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
-
-

나는 불같은 아빠 주눅든 엄마 그 사이에
태어난

예민하고 예민한 첫째 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않은 집안도 싫었고
화내는 아빠와

주눅든 엄마를 보는게 너무 싫었다. 화를 내는
아빠도 싫었지만,
아무말도 안한채 눈물만 흘리는 엄마가 더
미웠다.
눈치보는 동생들까지 있는 우리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성인이 되었다.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다.
악착같이 일했다. 달마다 주말을 모두 버리고
하루종일 일을 했다.
평일에는 마감알바까지 병행했다.
운 좋게도 좋은 일자리를 구해 수입이 정말
많았다.

돈을 벌게되자
동생들 독서실 비용을 내줄 수도 있고, 사고
싶은 옷도 사줄 수 있고,
카드값 때문에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엄마의
카드값도 내줄 수 있다.
내가 돈을 번 후로 매달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함께 내주니까
엄마는 한없이 고맙고 미안해한다..

엄마랑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진 딸인데 심지어
첫 아이라
엄마가 힘든게 너무 많았을거다. 성격 상
누구에게 힘들음
털어놓고 나누지도 못한 채 혼자 삭혔을 우리
엄마다.
답답하고 미웠던 주눅든 그 어린 나이의
엄마에게 미안하다.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돌봄에 보답하고
우리 엄마를 돌볼거다.
내가 해줄 수 있는건 돈을 벌어 보탬이
되어주는 것 밖에 없다.
이마저도 항상 미안해하는 엄마를 계속해서
돌봐줄거다.

엄마가 나를 낳아 엄마가 되었던 23살, 나는
지금 23살이다.

😊 10 💬 6

주재형(청각학과) 글을 읽으면서 점점 위화감을
느꼈는데,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반전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강한 글이네요. 진옥님의
어머님이 한 돌봄의 가치가 이 글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느껴요. 좋은 글 고마워요

김한나(경영학과)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개의
알바를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대단한거 같아요! 엄마의
힘듦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딸이 있어서
어머님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돌봄에 보답하고 돌볼거라는 마음가짐을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진옥님이 돈을 버는 것이 보탬이
되어주는 것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옥님이 지치지 않게
스스로도 돌봐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엄마가 엄마가 된 나이가 지금의
저의 나이라면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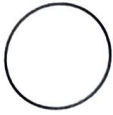
김경희(국어국문학과) 돌보다 라는 키워드에 너무
걸맞는 글인것 같습니다. 감정까지 전달이될수있게
잘 써주셔서 몰입도 잘됐구요. 돌봄에 대해서
보답하고자하는것도 진심이있어야 가능하구나
생각도 드는 글인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진옥님의 글을 읽으며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사셨을까 하는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네요. 저도
언젠가 저희 엄마처럼 엄마가 될 나이가 오고
엄마가 되어 있겠죠. 그때의 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이따금씩 진옥님의 글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덕분에 좋은 글 접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말
부드럽고 이해가 잘 되게 작성하셨네요! 잘 읽고

갑니당



2023/05/15
monday, pm 11:02 | 20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6일차 #돌보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신비롭게 느껴짐과 동시에 어렵게 느껴진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것, 생물을 돌보는 것.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무수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본가 집에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밥도 주고 산책도 하고 씻기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옆에 꼭 붙어서 잠을 취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학업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바쁜 삶의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곤 했다. 어느새 강아지 산책은 동생이 갔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산책을 동생에게 떠맡기곤 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삶과 인간의 삶은 다르다. 크게 살아가는 시간대가 다르다. 그래서 더욱 잘 돌봐주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는다. 어떤 존재이든 그 존재를 돌본다는 것은 시간, 마음, 신체, 돈 등 생각보다 많은 것을 헌신해야 한다. 아직 나에게 이 많은 것을 헌신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본가를 가게 되면 산책도 하고 놀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내 나름대로 여러 노력들을 한다.

항상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절대 잊지 못할 친구들이기에 좋은 추억 남기고 이 친구들의 시간이 끝나가기 전에 미안함보다 고마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돌보다’라는 키워드가 어렵게 느껴져 여러 번 쓰다 고친 글이지만, 글이 정돈되지 않고 투박해보여 아쉽다.

😊 10 💬 6

주재형(청각학과) 우리 모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게 사랑을 쏟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나를 보는 표정을 보기 위해 동물들을 보러 가야 하는 거죠. 좋은 글 고마워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마음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참 어렵기도 복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마음처럼 되지 않을때가 많죠, 그럴때마다 짜증도 나고 너무 공감이 갑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투박해서 더 매력있는 글이었습니다 아직 친구들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낌없이 사랑해주세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보민님의 글처럼 돌본다는 건 책임이 있는 헌신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는 행동이기에 절대로 쉽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죠. 하지만 쑥스러워서 표현을 자주 하진 못해요. 보민님의 글 덕분에 인생은 짧은데 이를 표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는 생각과 함께 꼭 표현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아니에요 정말 잘 읽고 갑니당 글 자체만으로도 용기와 정성입니다!



2023/05/15

monday, pm 11:07 | 20읽음

조인영 심리학과

#6일차 #돌보다

곰은 자기 새끼를 돌볼 때 단순히 먹이만 갖다주지 않는다. 먹이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 곰이 나중에 죽고 없을 때 그의 새끼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당장 코 앞의 생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먼 훗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것 같다.

비록 나는 아직 먹이를 잘 잡지 못하는 곰의 새끼에 불과하지만, 부단히 능력을 키워 새끼곰을 키울 수 있는 어미곰이 되고 싶다. 그저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닌, 더 큰 사회를 돌볼 수 있는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취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자기개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 11 💬 8

주재형(청각학과)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일종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회를 돌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여 결국 성인이 되면 독립하게 되는 것 처럼 천천히 자립하는 능력을 기르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진옥(사회학과) 먼 훗날의 미래를 대비해주는 것도 돌봄이라는게, 돌봄은 생각하면 할수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거겠죠?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돌보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읽었습니다!

박혜운(사회학과) 곰의 돌봄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내셔널지오그래피 영상을 찾아보고 싶은 글이에요!

김시현(러시아학과) 돌봄이 먼 훗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같다는 내용이 정말 인상깊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돌봄은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위한 길을 터주는 행동이라는 인영님의 말에 깊게 공감이 되네요. 직접 비유해주신 곰을 보니 그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더 잘 이해가 됐어요. 부모님을 살펴봐도 내 앞 길을 위한 돌봄을 말없이 묵묵히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인영님 덕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훗날 더 멋있고 성장하는 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2023/05/15

monday, pm 11:14 | 18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6일차 #돌보다

처음 만난 너
큰 눈망울이 불안하다는 듯 떨리던 모습
온몸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던 모습

그런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며칠이 지나고 었을까

이내
떨리던 눈망울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떨리던 온몸은 사랑스러운 털의 가득함으로
말려있던 꼬리는 사랑스러운 살랑임으로
건조하던 코는 사랑스러운 촉촉함으로
무섭던 이빨은 사랑스러운 하얗음으로
쳐져 있던 귀는 사랑스러운 쫄긋함으로

난 널 잘 돌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넌 어떨니

너의 삶에서 내가 널 잘 돌본 주인인지 궁금해 하늘에서 만나면 꼭 대답해 줘 내 작은 친구야.

😊 11 💬 5

주재형(청각학과)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하나 장면을 연상케 하네요. 글 속의 작은 생명은 분명 하늘에서 좋은 주인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유림(경영학과) 반려동물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시네요 다양한 묘사가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한 생명은 분명 글쓴이님이 돌보며 쌓아왔던 추억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움으로 변했으니 잘 돌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작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입장에서 뭉클해지네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추억이라 생각이 들어요!



2023/05/15
monday, pm 11:43 | 16읽음
고다인(법학)

#6일차#돌보다

예전에 위탁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가족이 없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날때까지의 과정을 함께 해주는 가정을 말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입양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잘 키워주면 다가 아닌가 싶을수도 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는 작은 아기를 분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며 내 아이처럼 사랑을 주며 하루하루 키워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의 입양결정은 확정이 되기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떠날걸 알면서도 정성으로 돌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고양이

한마리를 하루 돌봐줘도 애정이 생기는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이를 매일 돌보다가 떠나보내는 마음은 감히 헤아릴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아이가 어느날 입양이 결정되어 며칠만에 떠나보낸 가족들은 슬퍼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겪게된다고 한다. 아이를 돌보며 만들었던 추억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된다니 기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걱정되고 많이 그리울 것이다. 단순히 아이를 예뻐하고 돌보고싶어서 위탁모를 했던 사람들도 몇 번 아이를 입양보내고 공허함과 슬픔때문에 더 이상 위탁모를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아이가 입양간 가정에서도 위탁모와 자주 연락하고 아이의 성장을 가끔씩이라도 공유해준다면 안심이 될 것 같다. 돌봄이라는건 참 다양한 감정을 가지게하는 단어인거같다.

😊 12 💬 6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새로 알고 가네요 진정 애정을 갖고 보살폈기에 그로 인한 허전함이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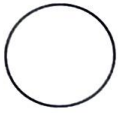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위탁모 참 좋은의도인데 헤어짐이 무척이나 힘들게 예상 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위탁모가 아이를 애정으로 돌보았는데 반드시 정들기 마련이죠.. 아이는 분명 행복해지러 가는 것일텐데 위탁모의 입장에서선 마냥 행복하지않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시각에서 돌봄이라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정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니까요ㅠ 잘 읽었습니다!

조은지(철학) 정은 떼기 보다 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다양한 감정 돌게 하는 단어 저도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2023/05/15

monday, pm 11:47 | 14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6일차

돌봄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그 흐름에 뒤쳐진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잊혀진 존재들이 사회적 돌봄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돌보아야 할 인구가 훨씬 많아졌다. 이와 함께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가지만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다.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와는 맞지 않다. 이제부터 한국의 인구수는 감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연금 재원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 기초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개혁은 쉽지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국민 모두가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할 때이다. 사회적인 담론이 없어진 요즘 국민연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 돌봄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전체 속에서 개인의 책임은 사라진다. 그 희미해진 우리들의 책임감을 되살리고 우리사회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

😊 11 💬 8

김시현(러시아학과) 갈수록 고령화가 더 심해질텐데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은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 기초보장 제도들에 우리는 관심을 더욱 가져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프랑스나 서구권 국가에서도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분담 문제, 복지혜택의 범위 등을 놓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빨리 진행한다고 하니 면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프랑스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어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할텐데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조금은 같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은지(철학) 국민연금도 그렇고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점과 관련 정책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덕분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곰곰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한국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정보와 공감가는 글입니다! 잘 읽었어요!



2023/05/15

monday, pm 11:53 | 15읽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6일차 #돌보다

'돌보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할머니가 떠올랐다. 어릴 때 단팥처럼 할머니 옆을 붙어 다니던 내가 자라면서 할머니의 주름도 어느새 늘어갔다. 늘 씩씩하던 할머니는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할 때면 눈가가 축축해지셨다. 나이가 들수록 아기가 된다는 말이 맞는 건지, 할머니는 부쩍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걸음도 느려졌다. 그러다 점점 할머니는 혼자 계실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셨다. 우리 가족 모두 할머니가 걱정됐지만,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할머니 옆을 하루 종일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모두들 바쁘게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느라 꼼짝없이 할머니를 돌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노인주간보호 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요즘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듯 보호 센터에 다니신다. 우울해하셨던 할머니는 센터를 다니시면서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가고 계신다. 요즘은 만나서 센터 생활에 대해 여쭙면 신나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고, 전화드리면 센터에 출근하느라 바쁘다고 하신다. 할머니가 밝아지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바쁜 시대에 누구를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할머니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이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관련 복지나 기관이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12 💬 6

김시현(러시아학과)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진정한 선진국은 복지국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반열에 올라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좀 더 소수자를 위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은지(철학) 할머니께서 밝은 모습을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글을 읽으니 복지 제도가 개인과 가족(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복지국가의 성장 길입니다 잘 봤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할머니님과 많은 추억이 있으시군요! 늦었지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6
tuesday, am 12:13 | 42읽음
김양선

#6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돌봄 시스템에 대한 고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 가족을 돌보기, 무엇보다 나자신을 돌볼 필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눈에 띄네요. ‘돌보다’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 이번 주는 동사나 형용사 중심으로 키워드를 제시해 보려 합니다. 개교기념일이라 여유가 있었던 월요일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 17 💬 0



2023/05/16
tuesday, am 7:54 | 43읽음
김양선

#7일차 키워드 : 걸다

전화를 걸다, 목숨을 걸다, 돈을 걸다, 옷을 옷걸이에 걸다 등등. 그리고보니 ‘걸다’는 항상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군요. 최근에 혹은 오늘 자신이 한 행동 중 무엇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잠깐!! ‘걸다’가 아닙니다. ‘걸다’입니다.

😊 13 💬 0



2023/05/16
 tuesday, am 8:38 | 26읽음
 주재형(청각학과)

#7일차 #걸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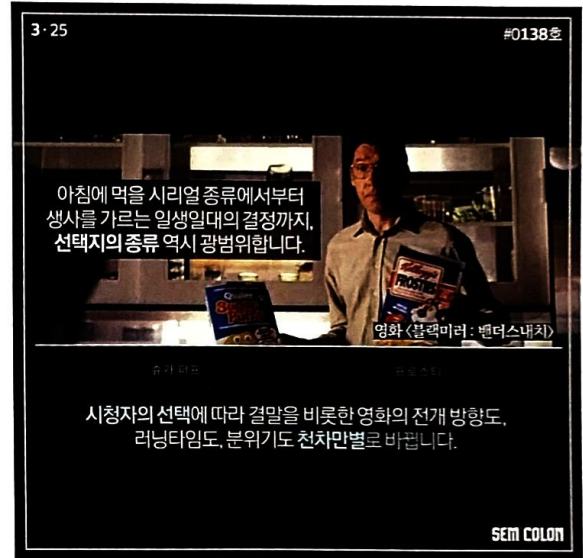
오늘의 키워드는 걸다예요. 걸다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말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어떤 것, 가령 영화라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터랙티브 무비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독특한 장르의 영화예요. Inter(상호간의) + Active(작용 활동) 즉,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해 반응하는 콘텐츠예요.

이러한 영화는 관객에게 말을 걸어요. "어떻게 할래?" 대개 두가지의 선택이 나오고 관객은 어떻게 할지 제한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죠. 영상이 나오는 도중 시청자는 다음 행동을 선택해야하고 시청자의 선택이 이야기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인터랙티브 장르는 그 시작이 영화는 아니었어요. 많은 콘텐츠를 만들수록 좋은 건 게임회사들이었죠. 모든 선택의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러 회차를 진행해야했고 그 결과 많은 플레이타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였어요.



게임은 직접 내가 '플레이'하는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르가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영화는 달랐어요. 영상을 보는 행동에 나의 의지가 극 중 인물에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인터랙티브

무비는 달라요. 마치 의문을 던지는 것 같죠. 네 선택은 뭐냐고, 뭘 고를래라고 말을 걸어요. 제한시간 내에 선택지를 고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시청자와 영화 내 인물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해서 몰입감을 더 끌어올려줘요. 한 예시로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밴더스내치(BlackMirror Bandersnatch)를 볼까요? 10초 남짓한 선택의 순간에 시청자들은 집중하고 또 고민해요. 한 순간의 결정이 주인공의 운명을 좌우하기에 다른 영화들처럼 두 손을 놓고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피아노 모양으로 생겨 밟으면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나는 계단이나, 행인의 몸짓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류장 광고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요소들이 크게 각광받지 못했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방향 미디어에 훨씬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말을 걸다의 두 음절을 생각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을 걸고,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 15 💬 9

서원준 (중국학과) 오 정말 임팩트 강한 좋은 정보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걸다'를 말을 걸다로 해석해서 글을 쓰신 게 인상깊습니다! 글쓴이님의 글들을 보다보면 몰랐던 유익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소개해주신 영화 블랙미러도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시간 날 때 블랙 미러 한 번 봐야겠어요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터랙티브라는 말을 재형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흥미로웠던 점은 정해진 답이 아닌 관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 글을 읽으면서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네요 ㅎㅎ 사실 지금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재형님이 알려주신 블랙 미러를 한 번 보고 싶네요. 관객과의 상호작용은 실제로 진행하는 연극 등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아주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저는 '걸다'라는 단어와 영화를 생각해보면 'hook'이 떠올랐는데 요즘엔 선택하는 방식의 영화도 있군요? 미디어 학과로서 유용한 글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이번에 단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걸다 정말 사용을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안(러시아학과) 영화에게 말을 건다는 발상이 아주 신선하네요. 이러한 개념과 관련 작품을 설명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해요!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챌린지를 통해 새로이 알아가는 것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네요. 보다 밀도 높은 상호작용, 말을 걸다는 표현에 걸맞는 새로운 영화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저도 넷플릭스에서 소개해주신 작품을 찾아보려고요!

이유림(경영학과)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영화도 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법학)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2023/05/16

tuesday, am 8:44 | 19읽음

서원준 (중국학과)

#7일차 #걸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나의 일정을 신중히 선택해 이렇게 하면 완벽할 날이 될 지 오늘의 기회를 걸고 다닌다. 인생에 있어 도박도 있고, 내기도 있고 모든 경쟁을 할 땐 무엇을 걸고 진행하는 형태가 많은데 난 이외로 나와의 싸움을 걸어 이길 서 있을 지, 나의 계획에 승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난 요즘 토익과 HSK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년도까지 따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걸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면 언젠가, 아니 이번년도 안에 꼭 행복한 기회를 걸고 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11



10

주재형(청각학과) 원준님의 앞길에 성공만이 가득하길 축복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저는 글쓴이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가에 걸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원준님의 목표를 응원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나 자신과 약속을 걸음으로써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원준님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약속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고 특히 나와의 약속은 깨버려도 아무도 제지하는 경우가 없어

쉽게 깨지거나 애초에 걸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원준님의 글을 읽다보니 그랬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덕분에 내 미래 더 나아가 현재의 행복을 위해 약속을 걸고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진옥(사회학과) 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시원님도 토익 준비하시는군요!! 응원드립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걸다는 말은 정진하는 태도와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희생해서 얻는다는 의미가 노력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학 자격증을 저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따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쉬운 시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한가지는 안정적으로 성공, 다른 하나는 조금 미흡하게 아슬아슬하게 달성했었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에 잘 수행할 수 있어서 여전히 좋은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원준님의 계획도 그렇게 풀리길 바라며 응원 전할게요!

이유림(경영학과) 두 시험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고다인(법학) 토익과 hsk 모두 원하는 점수까지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글 잘 읽고가요~

박혜운(사회학과) 두 시험 모두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요!!

구름, 새, 태양, 달, 행성, 별, 오로라, 전기줄, 때론 비행기, 헬리콥터, 눈, 비 등 다양한 것들이 하늘에 걸려 우리의 마음에 닿게 이어주는 매개체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걸다’ 라는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전시가 있다.

작년 건대에 있는 CxC Art Museum에서 진행한 헬가 스텐첼 사진전이다.

그녀는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평소보던 사물의 모습에서 동물 또는 사람 등의 형태를 본 것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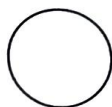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건 빨랫줄에 옷가지를 ‘걸어’ 다양한 동물들을 담았다.

소, 얼룩말, 티라노사우루스, 말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을 옷의 색깔 그리고 질감으로 표현해 신선한 즐거움을 주었다.

건다는 행위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보며 내가 하나의 실에 어떤 것을 걸 수 있다면 무엇을 걸고 싶은지 상상하며 보낸 추억이 떠오른다.

헬가 스텐첼 사진전 보신 분 계신가요?

😊 12 💬 12



2023/05/16

tuesday, am 9:31 | 19읽음

김상민 생명과학과

#7일차 #걸다

우리 주변엔 어떤 것들이 걸려있을까?

하늘을 보면 수 많은 것들이 걸려있다.

주재형(청각학과)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을 테죠. 예술이란 마지막에 창작물을 거는 행위로 완성되는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처음 들어보는 사진전인데, 네이버에 한 번 검색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등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걸어 놓으면 그 대상 자체를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색감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거는 행위를 통해 예술을 나타낸다는 건 정말 기발하면서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습을 거는 행위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 작가의 창의력을 보며 예술은 멋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상민님 덕분에 좋은 작가와 작품 알게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사진전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잘 없었는데 소개해주신 사진전 가보고 싶어집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상민 생명과학과 김시현(러시아학과) 그 사진전 끝나서 아쉽지만 블로그에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서원준 (중국학과) 소개해주신 정보 잘 보고 갑니당!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빨래에 보이는 모양이라니 너무 신기 합니다. 구름에서 모양을 찾는 것 처럼 사진작가님도 멋진 장면을 찍으셨을 것 같아 신기하네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걸려있다는 표현이 실제 세상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민님의 설명으로도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소개해주신대로 시각 예술로 나와있는 실제 작품이 있으니 그 작품을 보고 싶어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사진 전시도 좋지만 좋은 기회로 그림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채색도구 각자의 질감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림이 걸린 전시도 보기실 추천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상민 생명과학과 이유림(경영학과) 감사합니다 ㅎㅎ
 추천해주실 전시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려요 ㅎㅎ
박혜윤(사회학과) 예전에 사진전 갔던 기억이 좋게 남아있어서 글 써주신거 보고 헬가 스텐첼 사진전

찾아봤는데 가고싶어졌어요!! 요즘 마침 전시회에 가고싶었는데 헬가 스텐첼 전시에 가야겠어요!!!



2023/05/16
 tuesday, am 10:44 | 27읽음
 심지범 (경영학과)

#7일차 #걸다

오늘의 해시태그는 걸다! 인데요!
 걸다 라는 뜻의 정의들을 처음으로 찾아본거 같아서 찾아봤는데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더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온 것을 한 번 눈으로만 읽어 보셔봐요!!

1.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벽에 그림을 걸다.
 2.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정문에 자물쇠를 걸다.
 3. 술이나 냄비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아궁이에 냄비를 걸다.
 4.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물레에 솜을 걸다.
 5.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문단에 이름을 걸어 놓은 작가는 많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6. 기계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다. 차에 시동을 걸다.
 7. 다른 사람이나 문제 따위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자기 일에 다른 사람을 걸고 나왔다.
1. 그는 지나가는 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벽에 그림을 걸다.
 2.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정문에 자물쇠를 걸다.
 3.
 솔이나 냄비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아궁이에 냄비를 걸다.
 4.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물레에 솜을 걸다.
 5.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문단에 이름을 걸어 놓은 작가는 많지만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6.
 기계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다.
 차에 시동을 걸다.
 7.
 다른 사람이나 문제 따위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자기 일에 다른 사람을 걸고 나왔다.
 1.
 돈 따위를 계약이나 내기의 담보로 삼다.
 노름에 돈을 걸다.
 2.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그는 부당 해고라고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3.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마술사는 비둘기에게 마술을 걸어 개구리가 되게 만들었다.
 4.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
 아들에게 기대를 걸다.
 5.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그에게 운명을 걸다.
 6.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여자에게 말을 걸다.
 7.
 전화를 하다.
 회사에 전화를 걸다.
 8.
 긴급하게 명령하거나 요청하다.
 소대원들에게 비상을 걸었다.
 9.
 다리나 발 또는 도구 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그는 지나가는 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단어의 뜻이 많은 단어들을 이번 계기로 인해 찾아 봐야겠습니다! 걸다 라는 단어 들을 보고 생각하는게 지금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국어사전의 뜻만 찾아 보았으니 한번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터 한림대학교 축제입니다~~ 혹여나 저를 보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12 💬 11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범님도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 즐기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글을 잘 쓰기 위해선 다양한 단어를 아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범님의 글을 통해서 걸다의 다양한 의미를 알게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이렇게 보니 걸다의 의미가 정말 많네요 해봤자 대여섯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많은 정보 알아갑니다! 축제 즐겁게 즐겨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걸다에도 생각보다 많은 뜻이 있었네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라이팅 챌린지가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에 여유 시간을 건 게-걸다/bet-아니신가
생각해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그동안 걸다를 어떤
물체를 벽 따위에 걸다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범님의 글을 보니 걸다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인증글을 올리긴
했지만 생소한 의미의 걸다로도 글을 써보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덕분에 걸다의 다양한 뜻 알고
갑니다!! 글 잘 읽었어요!!



박진옥(사회학과) 이렇게 많은 뜻들이 사전에
있는지 몰랐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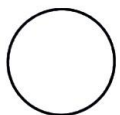
김시현(러시아학과) 걸다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었네요!! 글쓴이님도 행복한 축제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오우 정말 다양하네요 글
행복하게 잘 읽었어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의미는 많은데 정말
이번에는 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ㅎㅎ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지범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한국인이라서 오히려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어서 뜻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새삼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날씨에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 축제를 잘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이번 키워드를 보고 쉽게
떠오르지 않아 검색해봤는데 단어는 하나인데 정말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잘 읽었습니다 축제
재밌게 즐기길 바라요!



2023/05/16

tuesday, am 11:08 | 21views
김사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7일차 #걸다

나는 요즘 자칭의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은 나에게 꽤 많은 깨달음과

영감을 준 책이라 이번 기회에 소개해보고자
한다. 저자 자칭은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생의 공략집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수익자동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책의 제목 '역행자'는 순리를 거스르는 자를
의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전자에
새겨진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 중산층의 부모님에게 태어난 자식은
중산층에서 벗어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지만 결국
순리대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자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의식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자신의 한계다. 예를
들면 아무 노력도 안하면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 정도 회사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이 자의식을 깨트리는 게 중요한데,
자칭은 자신을 믿는 대신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한다고 한다. 책을 쓰기로
했다면 담당자에게 "2주일 안에 원고를 다
쓸게요. 못 쓰면 정말 1000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일을 벌려 놓는 것이다. 그
뒤로 자칭은 정말 2주 안에 이 책을 다 썼다고
한다.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공부하듯이
읽었지만 나는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항상 목표를 정하면 일주일도 못 갔기
때문이다. 성공했다고 보이는 자칭도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했다. 그래서 나도 라이팅
챌린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무언가를
걸어보고자 한다. 3주 동안 글 쓰는 것을
실패한다면 친구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사주겠다!

😊 11 💬 9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예단하여 규정짓지 않고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보는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네요 학우님의 도전과
역행의 의지를 응원합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친구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일은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겠는데요? 라이팅 챌린지를
응원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무언가를 거는 것 만으로는 목표를 이루는
것 쉽지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때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모님이 전교 10등 안에 들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는 것 등의 상품을 걸음에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 이유는 목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단순히 무언가를
거는 것보다는 목표에 대한 의지 혹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사빈님 덕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거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무언가를 거는 것 만으로는 목표를 이루는
것 쉽지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때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모님이 전교 10등 안에 들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는 것 등의 상품을 걸음에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 이유는 목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단순히 무언가를
거는 것보다는 목표에 대한 의지 혹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사빈님 덕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거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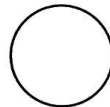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라이팅 챌린지의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

김수민(언어병리학과) 3주동안 잘 쓰실 것 같아요
이미 반 정도 왔으니,, 남은 반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라이팅 챌린지가 꾸준히
무언가를 유지하고 실행해본 귀한 경험으로
사빈님께 남기를 실패하지 않으셔서 친구들에게
커피를 사지 않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물론 커피를
사주는 우정도 좋지만요 ㅎㅎ, 무엇보다 사빈님이
챌린지를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많이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역행자라는 책의 내용들에 대해
들으니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도 떠오르네요. 아마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책에는 비슷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 그런가 싶습니다. 어떤 틀과 계층의 벽을 깨고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무척 어렵지만 분명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빈님의
도전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한 번 역행자
읽어봐야겠습니다 벌써 절반 가까이 왔네요 끝까지
함께해서 친구들한테 커피 사는 일 없길(?)
바랍니다!

박혜윤(사회학과) 흥미롭게 읽을만한 책을
추천받은 기분이에요! 3주 동안 글 쓰는거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2023/05/16

tuesday, pm 12:12 | 15워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7일차 #결다

우리 집에는 가족사진이 없다. 사진 대신
선반이 그 자릴 차지하고 있거나 그저 벽지만
보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
친구에게서도 나는 향기가 온 집 안에
묻혀있었다. 항상 말았던 향기라 그런지 내
집같이 편안했다. 신발을 벗고 내 집인 것
마냥 쇼파에 앉으려던 찰나 나에게는 낯선
물건이 보였다.

“저거 뭐야?”

“아, 우리 집 가족사진. 너 뭐 먹을래?”

당연한 걸 물어보느냐는 듯한 친구의 행동에 난 조금 당황했다. 친구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도 내 시선은 그 사진에서 떠나질 않았다.

“보통 집마다 가족사진이 있나?”

“보통은 그렇지.”

“왜?”

“음...글쎄... 뭔가 가족소개 같기도 하고...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갑자기 왜?”

“그냥...”

고작 사진 한 장이 가족의 유대감을 나타낸다는 친구의 말은 나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 말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맛있는 집밥 냄새가 나를 반겼다. 평소라면 애교를 떨며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물을 나지만, 내 시선은 행한 벽지로 향했다.

“갔다왔니?”

“응...”

“네가 웬일로 메뉴를 안 물어보냐?”

무슨 일이 있었나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던 엄마에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엄마, 우리 집도 가족사진 찍을까?”

내 말을 들은 엄마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바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그래, 한 번 찍어보자.”

행동대장인 우리 엄마는 내가 찍자고 말한 그 날, 사진관에 전화하더니 주말로 예약을 잡았다. 주말을 기다리는 내내 가족사진은 어떤 것일까하는 의문이 나를 조금 설레게 만들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오고 우리 집은 분주했다.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모두가 꾸미고 있었다. 준비를 다 마친 후 사진관으로 가는 차 안은 긴장과 더불어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도착한 사진관. 들어서자마자 사진사가 우릴 반겼고, 긴장을 풀 틈도 없이

우리 가족은 카메라 앞에 섰다. 다들 처음인지라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다.

“아이~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좀 붙어서 서보세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붙어선 우린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방구가 나오고 말았다. 내 방구 소리에 사진사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만, 우리 가족은 나를 보더니 방구쟁이라고 놀리며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해맑게 웃는 가족을 보면서 나도 같이 웃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본 사진사는 이때다 싶었는지 사진기를 눌렀다.

찰칵

며칠 뒤,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리며 사진이 배달왔다. 다들 설렌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이 보였다. 아빠는 맘에 들었는지 바로 망치와 못을 가져와 벽에 사진을 걸었다. 행한 벽지에 가족사진이 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한참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말도 주고 받지 않았지만, 서로 어떤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서야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다. 가족사진이 가족의 유대감을 나타낸다는 것.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며 한 번 더 찍겠다고 다짐한다.

저희 집엔 실제로 가족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사진에 대한 글을 한 편 써보고 싶었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 8

주재형(청각학과) 저희 집도 생각해보니

가족사진은 없네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이 있다면 좋을텐데요. 이번에 본가에 내려가면 한 번 꼭 찍어보라고 말해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가족사진을 찍고 걸어서 구경하는 글쓴이님 가족분들의 화목한 모습을 상상하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가족사진 저희 집도 어서 가서 찍어봐야겠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왓 너무 감격하며 읽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쓰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니 어쩐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만큼 실감나게 이입이 되게 잘 쓰셨기에 더욱 그런 것이겠지요 πππ 이야기가 완결성있게 잘 이루어져 있어 정말 실제 있는 일을 서술하신 것 같았어요. 특히 사진 촬영을 위해 분주한 가족의 모습들, 사진관에서 함께 웃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글이라고 느꼈어요. 예전에 저도 친가족 식구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하영님의 글을 읽으며 그때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않고 싶었던 순간인데 하영님 덕분에 상기할 수 있었네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진짜 있던 일 같았어요. 저도 친구 집에 가면 가족사진이 멋지게 걸려 있는 친구네 집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πππ

이유림(경영학과) 저희 집도 제대로 된 가족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집에 가서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언제 한 번 시간내서 같이 찍으러 가자고 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법학)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박혜운(사회학과)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도 가족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번에 할아버지댁에서 간단히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라도 걸자고 해야겠어요

지형을 관찰했다. 나는 대답 대신 다음 일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었다. 무언가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진 것 없는 내가 걸 수 있는 건 달려있는 모가지 하나였다. 수만의 왜군이 수십만 백성을 살육했다. 임금도 달아난 지금 무자비한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길 수나 있을까.

출진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대장선에 탑승하여 격군과 사수들을 격려하고 장군의 명령을 기다렸다. 울돌목의 좁다란 바다에 적의 배는 거대한 산 같았다. 이미 죽은 목숨 같았고, 우리 배를 제외한 배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뒤로 물러났다. 장군은 이를 예감이라도 한듯 아무 말 없이 서있었다. 깃발을 올려 아군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적들도 알고 있는 듯했다. 우리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장군의 부름에 얼른 장대將臺로 올라가 방패 뒤에 몸을 수그렸다. 그는 다시 한 번 내게 물었다. 대의를 위해 무엇을 걸겠느냐고 말이다. 이제 무엇인들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목숨, 목숨을 걸겠다고 답하자 그는 흐뭇해하며 끝까지 배를 묶어둘 것을 지시했다. 왜선이 우리 배에 부딪치고 백병전이 시작됐다. 칼과 칼이 부딪침이 두 인간의 영혼의 울림처럼 다가왔다. 승리를 위해 적에게 달려들었고 배가 파도에 휩쓸려 엉키기 시작했다. 장군이 직접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적이 아니면 내 손에 죽으리니 맞서 싸워라!

😊 11 💬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충민님이 의도하신 바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다보니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다만 시점이 장군이 아니다보니



2023/05/16
 tuesday, pm 1:29 | 16월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7일차

대의를 위해 무엇을 걸겠느냐. 장군의 말에 주춤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압적인 풍채의 그는 울돌목 앞바다에 매일 같이 나와

굉장히 신선하게 읽히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배우는 역사는 영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영웅 옆을 지키는 병사에 대해선 그저 행인1처럼 보는 경우가 보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충민님의 글을 읽으면서 주연이 빛나기 위해 조연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인지 영화 명량을 장군의 시점이 아닌 병사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장군을 따라 목숨걸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마치 전쟁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글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명량과 한산 영화를 정말 기대했고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어 충민님의 글이 더욱 실감나게 시각화되네요.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걸 수 있다면 모두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싸우고 투쟁할 수가 없죠. 곧 노량이 나올텐데 정말 기대되네요



서원준(중국학과) 오 활기차게 생생하게 기억남네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깨끗한 기상과 고전적인 기개가 느껴지는 글이네요. 저는 예전에 역사소설을 읽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 충민님의 글을 읽으니 그때의 즐거웠던 시간이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소재를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이야기를 짧게 완결성 있게 써내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과거에서만 대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관념이 더 희박해진 것 같아서 이야기 속 과거 사람들의 이상과 대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마주할 때마다 반성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가치가 오늘날 저희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아마 충민님의 글도 그러한 귀감을 주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소설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쓰는게 상상으로 잘 묘사하기 어렵더라고요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사극드라마 한 편이 눈에 그려지는 듯한 글이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2023/05/16
tuesday, pm 1:45 | 16읽음
이유빈(사회학과)

#7일차 #걸다

오늘의 주제가 '걸다'인줄 알았는데 '걸다'였다. 걸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제일 먼저 '액자를 걸다'라는 것이 생각난다. 요즘은 액자를 거는 것보다 핸드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액자를 거는 일은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가서 집을 둘러본다면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을 부모님께서 액자에 끼워넣으셔서 걸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다. 액자 속 아기 때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때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가 된 요즘 집에 액자 걸 일이 별로 없다. 액자를 걸려면 벽에 못을 박거나 벽지가 훼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액자를 건다는 건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벽에 액자를 걸지 못한다면 작은 액자에 자신의 추억과 좋아하는 것이 담긴 사진을 담아 책상 위에나 잘보이는 곳에 올려두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면 디지털 시대 속 푸른 초원에 잔뜩 피어있는 꽃들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다.

😊 11 💬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빈님 글처럼 사진기로 사진을 찍기 보단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벽에 액자를 걸기보단 스마트폰 갤러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워낙 익숙해져있고 저희 가족도 그렇기에 집에 액자가 보이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가끔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내 추억이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유빈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끔은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싶기도 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그리고보니 요즘엔 정말 액자에 사진을 거는 일이 드문 것 같아요... 핸드폰 갤러리에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핸드폰이 고장난다면 사라질 수 있지만 액자에 담긴 사진은 보다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소장 가치가 많다고 느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제 어린시절, 유아 때의 기억은 없지만 사진을 통해 그 기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 저땐 저런 옷을 입었구나. 저런 행동을 한채로 사진에 찍혔구나 등등 정말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하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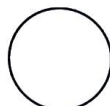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가족사진, 제 사진, 추억이 담긴 사진 많이 걸어놔요 행복을 전해줄거랍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예전에는 어느 집에 가든, 뭔가 질은 스튜디오 배경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체험 가능한 공간에 걸어둔 가족 사진, 추억의 사진들은 때로는 마음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다함께 모여 사진을 다시 찍어 집의 한켠에 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빈님의 글 덕분에 잊고 있었던 추억을 간직하고 아끼는 법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액자에 걸어 놓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별로 없어진 일이기도 하고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서요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옛날 사진들은 한장씩 넘기며 앨범을 보거나 몇몇 사진을 골라 액자로 걸어뒀는데 요즘은 핸드폰에 저장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학우님 말씀대로 방에 무언가를 많이 걸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서예 작품을 걸어놓고 싶습니다 검은 먹이 만들어내는 글자의 형상이 마음을 매료시키는 것 같아요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6
tuesday, pm 2:11 | 19일음
양지혜(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7일차

‘모두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니, 그러니 너만 잘하면 된단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위와 같은 주제로 고통받는 주인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특히 도드라진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 글을 보고 떠오르는 몇몇의 작품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예능에서도 이 문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스토리를 자주 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기대를 걸다. 뜻을 하나씩 풀이해 보면 분명 괜찮은 느낌이다. 기대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걸 수 있는 것이니. 그러나 잘못된 기대를 아이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아이나 부모에게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혹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본 적이 있는가? 부모는 분명 아이를 사랑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결과이다. 어느 순간, 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정말 화가 난다. 행복해질 수 있었던 아이인데 부모의 잘못된 기대로 엉망이 돼버렸으니. 따라서 기대는 진정으로 아이를 위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걸어야 할 것이다. 기대는 걸어도 좋다. 다만 당신의

기대가 당연한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아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10 💬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혜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 됐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끔은 기대보단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는 참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보단 지지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하는 선택을 항상 존중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제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해주시죠. 지혜님 덕분에 익숙해져 잊고있던 저희 부모님의 배려와 지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는데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영화보다 현실이 영화같다는 말이 와닿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기대를 걸지 않는 것도, 기대를 과하게 거는 것도 아이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상한 생각으로 끝나는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서원준 (중국학과)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걸다라는 표현이 자녀 양육에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주변 분위기와 경쟁에 휩쓸려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아이에게는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기에 보통 가장 상식적인 선은 기대는 걸어도 내색을 하지 않거나, 기대만큼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쳐주는 것이겠지만요. 하지만, 저도 제 결심대로 자녀를 양육할 자신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ㅠㅠ 부모가 될 나이에는 지금의 저보다 단단하고 주관있는 사람이 되어있길 바랄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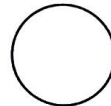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걸다가 실제적으로 많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기대를

걸다.. 누군가 기대를 걸어준다는게 참 의미있는 일 같아요. 지혜님 말처럼 적절한 기대를 해준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뒤틀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되느냐 부담이 되느냐는 한 곳 차이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거는 기대는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상을 반영한 스카이캐슬은 말한 것도 없고, 싱가포르, 나아가 최근에는 인도까지 많은 학원들이 붐빈다고 하니 맹목적인 기대와 욕심이 낳는 단면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운(사회학과) 적당한 기대는 의욕을 부르지만 과도한 기대는 안좋은 상황을 부르는 것 같아요..



2023/05/16

tuesday, pm 2:17 | 14읽음

김노연(사회학과)

#7일차 #걸다

걸다. 목적어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동사. 교수님의 말씀대로 걸다는 타동사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을 여행하는 도중 여러가지를 걸면서 살 일이 많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abc게임을 하며 각자의 손등(...)의 안위를 걸었고, 중학생일 때에는 아이스크림을 걸고 성적 내기를 하였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죽을듯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박히게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 당시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세상에 대한 회의감에 일찍이 빠진 어린 애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나를 상상하기 어려워한다. 대학에 들어오고 몇 달 내로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 수능 1달 전에 엄마가 보여주신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인터뷰 내용이다. 천재로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역시 여느 중학생들과 다름 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계속 피아노를 공부하며 피아니스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피아노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할 것인지. 그 당시 고민에 빠진 그는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다가 결론을 내렸다. 피아노를 치기로.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피아노에 바치기로 하는, 이른바 도박을 했다고 그는 말한다. 모 아니면 도였던 것이다. 그 정도로 무언가를 선택함에 따르는 무언가의 포기, 그리고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무섭게 직진하는 마음이 아마 천재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무언가를 '건다' 라는 것은 곧 무언가를 '포기'함과 같다. 그것을 담보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과연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걸고 무언가에 푹 빠져 노력할 수 있을까? 언젠가 일어날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 나는 작지만 꾸준히 내가 정한 일을 완수하고 나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그래. 언젠가 내 인생 전부를 걸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서.

😊 11 💬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노연님의 글처럼 무언가를 걸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 같아요. 사람들은 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곤 하지만 가끔은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다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확실하게 잡는 편이 현재의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큰 이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노연님도 저도 언젠가 내가 얻고자 함을 위해 포기를 해야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 때 하나를 포기하고 정한 선택이 옳기를 바랍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주재형(청각학과) 임윤찬 피아니스트처럼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피아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임윤찬 군은 뭘 해도 잘할 마음가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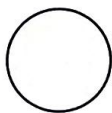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처럼! 인생 전부에 행운도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좋아하는 팬이라서 노연님의 글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언급되어 반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노연님이 글에서 써주신 그런 진로 선택의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재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재능 이전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태도가 더 존경스러운 것은 아닐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범인이기도 하고 담력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은 정말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태도가 인생의 한 시점에는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누군가 인생을 걸 만큼의 누군가, 또는 특정한 것을 만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 같아요

이유림(경영학과)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무엇가를 포기한다는 문장이 참 인상깊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부를 건 노력이라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생활을 중단시킬 목부상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경기기량을 위해 항상 연습과 분석에 매진했다는 서장훈 선수가 생각나네요(물론 지금은 은퇴하셔서 예능인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요)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6
tuesday, pm 2:46 | 15월음
장예진 (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걸다
“올인.”
지금 때에 모든 걸 걸었다. 지독한 확률 높음.

숨 막히는 싸움 속에 나에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도박은 기세다. 한 번 말리면 영원히 끝이다.

그의 이마 위 숫자는 '5'. 현재까지 나온 숫자를 계산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더 높을 확률은... 정확히 반반이었다. 시간이 부족해. 이번 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걸게 해야 한다.

“당신이 높은 숫자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그가 물었다. 겁도 없이 올인이라 당황한 건가? 당황 할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니라도 제발 그러길 바란다. 이제 내가 걸 수 있는 거라곤 지금 신고 있는 낱아빠진 양말밖에 없게 생겼으니까. 양말까지 걸고 나면 남는 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빛이겠지.

‘...싫어!’ 그것만큼은 싫었다. 이 의뢰에 실패하면 수술대 위에 해체되고 말 거다. 오랜 해외여행의 꿈이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얼굴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숨겼다. 감정을 숨기는 일은 오랜 나의 생업이었으니. 이것도 못하면 진작 죽었을 거다.

“감을 믿는 것만큼 도박꾼에게 독인 건 없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가 말을 덧붙었다. 이 정도의 거물이니 확률 계산쯤이야 이미 마쳤겠지. 그의 말이 맞았다. 스승님도 늘 말씀하셨다. 너에겐 운이 따라다니지만, 운이란 변덕스러워서... 스승님은 변덕을 믿었다가 죽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운을 믿고 도박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패에 대한 도박이 아니다.

그를 넘어오게 하느냐, 마느냐. 패가 무슨 숫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흔들림...

“확신이 아니지. 당신은 이 패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 아니면 걸텐가? 그 작품을.”

최근 친구들과 인디언 포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전 무언가를 걸며 도박하면 안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에 대해 떠올리며, 영화 '타짜' 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 9 💬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건다는 건 그 단어 자체만으로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앞에 도박이 붙었을 땐 절대로 접근해선 안되는 단어로 변하죠. 그래서인지 예진님의 글을 보면서도 흥미롭게 다가가기 보단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읽었어요. 혹여나 예진님 글에 재미를 느끼면 도박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예진님이 마지막에 소감처럼 글을 쓰지 않으셨더라면 저도 모르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 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아이스크림 내기 같은 건 괜찮다고 봐요 확률에 돈을 거는 순간 결국은 황망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니까요. 모두 한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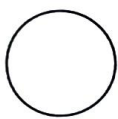
서원준 (중국학과) 오 이렇게 인용되네요 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읽었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글을 읽으면서 타짜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을 봤을 때의 긴장감을 떠올렸는데 마지막 코멘트에 타짜를 참고하여 작성하셨다고 하여서 반가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진님은 전공하시는 분야도 그렇고 스스로 기울이시는 노력이 있으셔서인지 글에서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유도하는데에 아주 능하신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마다 무척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글을 읽으면서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시점 서술자의 마음에 이입하여 그가 이번 일에 성공하길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예진님이 설득력있는 글쓰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글쓰기도 응원드립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도박에서도 걸다라는 의미를 쓰죠.. ㅎㅎ 재미있었어요

이유림(경영학과) 글을 읽으면서 영화 타짜가 떠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참고해서 쓰신거였군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배팅은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감을 주는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6

tuesday, pm 2:52 | 17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7일차#라이팅챌린지

'걸다'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매달아 놓는다. 고리에 끼운다 등 어떤 위치에 무언가를 매달아 두는 것을 뜻한다. 또 걸다 앞에 '목숨을 걸다', '인생을 걸다', '시간을 걸다' 하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을 내어 놓는다. 담보로 둔다(?)는 뜻이 된다. 두 가지의 뜻 모두 어떤 행동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그것을 걸만한 위치나, 노력, 시간을 내놓아야 한다. 즉 아무것도 없이는 동사의 뜻 '걸다'가 완성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의미에서 '걸다'를 보면 흔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 이번 일에 목숨을 걸었어', '1년을 걸었어', '인생을 걸었어' 등의 말을 하곤 한다. 나도 과거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두고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나, 노력, 나 자신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했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노력이나 시간 내 자신은 쓸모 없어지게 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해보면 그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내 경험, 깨달음, 휴식이 되었고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고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더 큰 노력을 걸고,

시간을 걸어 더 높은 것을 원하고 실패하여 실망할 것 같다.

무언가를 내놓는다고 해서, 걸어둔다고 해서 나 자신이 완전히 손해 보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거는 것을 포기하거나 망설일 때가 있다. 내가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공하면 너무 좋고, 조금 실패하더라도 나에게서는 다른 이름의 이득(경험, 깨달음, 인내)으로 돌아올 것이니 말이다.



10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정님 글처럼 그저 무언가를 건다고 해서 내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결국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열정도 함께 담은다면 그런 유정님 글처럼 성공하면 나에게 길이 펼쳐지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또 다른 배움을 통해 더 단단한 길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덕분에 건다는 것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 지 다신 한 번 더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어떤 것을 내놓을 각오가 있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시간과 자원을 투자(걸고)하여 얻어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올라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쓰러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려 노력한다면 이전의 실패의 경험이 훌륭한 양분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서원준 (중국학과) 마지막 멘트 너무 좋네요 잘 읽었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인생에 대한 뜻깊은 통찰과 따뜻한 태도가 보이는 글이라 읽으면서 저도 함께 용기를 얻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인생은 도박보다는 덜 가혹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기에 무언가를

걸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저희는 분명 배우고 얻는 것이 있기에 잃은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렇기에, 무언가를 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맞아요 당장은 실패한 것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보면 그 또한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참 어려운 것 같은 말입니다. 실패가 정말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저는 잘 못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도전은 언제나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될 순 없다."라는 어구를 자주 마음 속에 새기곤 합니다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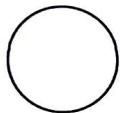
반으로 포개어 옷걸이에 매단다. 그리고 보니 그가 가장 오래 입었던 옷이다.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해서, 중요한 약속자리에서, 배우자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이번에는 목이 아니라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린다.

바지를 집는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바지의 주름은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만큼이나 주글주글하다. 바지도 옷걸이에 접어서 건다. 오래된 양복바지는 그가 힘들었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한번도 빠짐없이 버텼다. 손이 떨린다.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감정을 느낀다. 시간이 흐르고 눈물을 속속 닦는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기억들을 정리하고는 옷장 문을 닫으면서 한숨을 내뿜는다. "아—"

😊 11 💬 7



2023/05/16

tuesday, pm 4:23 | 19읽음

배성준(경영학과)

#7일차 #걸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나무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 그는 옷걸이를 애써 바로 펴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휘어버린 그의 인생과 같이 옷걸이는 비뚤어진 몸체를 일으켜 세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바닥에 마구 널브러져 있는 옷들. 발밑에 짜부라져 있는 넥타이를 접어서 옷걸이에 걸어 놓는다. 맥없이 접힌 넥타이가 걸리면서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으로 취업을 해서 신입사원이 된 날을 회상한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고 어머니는 그를 대견하다는 듯이 쓰다듬어주고는 선물이라며 넥타이를 하나 건넨다. 그리고 그는 그 넥타이를 신입사원부터 대리, 과장, 임원, 퇴직의 순간까지 달고 살았다.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온것을 삼킨다.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와이셔츠가 눈에 띈다. 와이셔츠는 곱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성준님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아빠가 생각났어요. 사실 아빠에게 애교를 많이 부리긴 하지만 깊은 대화를 한 적은 없어요. 그저 일상만 대화할 뿐이었죠. 그래서인지 성준님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아빠도 이런 심정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만큼은 아빠를 꼭 안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아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넥타이에 담긴 무게가 실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땀이 배인 옷의 옷걸이들을 볼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의미있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의미있고 감동 깊은 여운이 남아 인상 깊네요 잘 읽었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저는 아직 인생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성준님이 글에서 묘사한 인물만큼의

경험의 두터움과 무게를 경험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성준님은 어스럽게 잘 유추해서 글을 작성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매우 존경스러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세월의 허망함과 지금까지 겪어 온 일의 고단함이 느껴져서 저도 어쩐지 함께 슬픈 마음이 되었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겪은 다른 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공감의 요소가 되어 마음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많은 생각이 드는 동시에 먹먹해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정리되지 않은 옷장과 추억이 그 속에 쌓여있어서 정리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버거워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한 사람의 일생을 같이 되돌아 보는 글 같아요! 여러 추억들을 담은 옷들을 하나하나 걸면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해주네요 옷장에 옷을 걸면서 인생의 기억들을 정리한다는 문장이 와닿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05/16
 tuesday, pm 4:32 | 16읽음
 이동금(정치행정학과)

#7일차

7일차 키워드인 ‘걸다’를 보자마자 생각났던 뉘앙스는 ‘목숨을 걸다’이다.

어떠한 큰 시험이 있거나 무대를 서거나 큰 일을 해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해.’ 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해내기 까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뜻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인것 같다. 이 일에서 실패하게 되거나 실수를하게 되는것이 나의 목숨과 동일시 될 만큼의 일인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경험이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쩌다 한번씩 ‘목숨 걸고 해보자!!’라며 동기부여 하는것은 좋지만 인생을 너무도 숨막히게 사는것은 안좋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목숨을 걸어라’라는 말을 듣게되면 더욱 긴장이 되는편이다. 때에따라 어느정도의 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괜찮지만 너무도 긴장이 될 때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는것 같다. 나도 언젠가는 ‘목숨’을 걸 일이 오겠지?

😊 11 💬 7

주재형(청각학과) 긴 인생을 살아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러한 경험이 있냐고 여쭈면 모두 있다고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나 인생의 선택의 기로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 날이 오면 분명 비슷한 수준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모두가 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입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너무 비장하고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때로는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냥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건다거나 거창한 명제들이 붙다보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일단 해보자, 한 걸음 디더 보자가 장기적으로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금님의 글이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차근 차근 하나씩 하다가 준비된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걸 걸어보자, 정도의 마인드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박한 통찰이 담긴 글이 참 좋았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너무 긴장이 돼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과도한 긴장은 좋지 않지만,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목숨을 걸다.. 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저도 그냥 최선을 다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동금님 글처럼 목숨을 걸라는 말은 항상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 뿐인 내 목숨을 건다는 건 한편으로는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숨을 걸기 보단 그저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하죠. '항상 끈기있게 붙잡고 있어라.' 동금님도 저처럼 목숨대신 다른 걸 떠올려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면 안 될 것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초월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온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휘호를 쓰기도 하셨던 有志必成(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는 어구를 마음에 다시 새겨봅니다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5/16
tuesday, pm 4:44 | 18읽음
김유진

#7일차 #분홍신

걸다.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에게 모든걸 걸겠다는 문장이 떠오른다. 결의를 다지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사랑을 할때 하는 걸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 영화와 영화 리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댓글에 "나도 언제가는 영화처럼 서로에게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 있었다. 이 댓글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는 80억명의 사람이 살고 그 중 내 운명을 만나서 영화 속처럼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쯤은 해보고 싶었기 때문일까. 아이유의 분홍신의 가사 중에 "운명으로 친다면 내 운명을 고르자면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길을 고르지" 라는 가사가 있는데 딱 그 가사와 노래가 생각난다.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만난다는 가사말인데 나는 언젠가 만날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

😊 11 💬 6

주재형(청각학과) 내 모든 걸 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유의 분홍신도 정말 많은 뜻을 담은 가사가 보여요. 가사를 들으니 노래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정말 운명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읽었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그리고 보니 걸어도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물론 여기서는 걸다의 활용형으로 쓰인 것이지만, 뭔가 중의적인 의미로 걸다의 활용형으로 사용해도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챌린지에서 노래를 인용해주는 분들이 많아 그냥 듣던 노래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님의 글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다라는 표현은 희생과 적극성이 수반되는 동사인 것 같아서 저희의 삶의 많은 영역을 표현해주는 동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진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모든 걸 함께 걸 수 있는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림(경영학과) 타이타닉을 보면서 그렇게 단시간에 사랑에 빠지고 목숨을 건다는게 저는 한편으로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까 저도 항상 궁금하긴 한것 같아요. ㅎㅎ 아직은 잘 모르기도 하고, 운명이란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서 인가봐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사실 운명을 잘 믿지 않아요. 예능에서도 보면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아이사람은 나와 결혼할 사람이구나를 직감하고 실제로도 결혼에 성공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운명이 있을까 생각해요.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운명을 잘 믿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유진님처럼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 싶기도 해요. 내 운명을 맞이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거든요. 유진님도 저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덕분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05/16
 tuesday, pm 4:56 | 16읽음
 정예진 (생명과학과)

#7일차 #걸다

너와 내가 항상 하던 장난
 길을 건다가 발을 거는 장난

세차게 넘어지라는 장난이 아닌
 살포시 내 품에 안기길 바라는 장난

어느 날, 어느 때처럼
 내가 너에게 발을 걸었을 때
 넌 내 장난을 미리 알았다는 듯
 살며시 웃으며 피하던 날

다 알면서 나에게 당해줬던 걸
 새삼 깨달았던 날

나에게 발이 아닌 새끼손가락을 걸고
 너의 옆에 항상 있을게라며 약속하던 날

너와 나의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소중한

😊 12 💬 7

주재형(청각학과) 어릴 때는 작은 거에도 뭐가 그리
 웃겼는지 여러가지 장난을 많이 쳤더랬죠. 발을
 거는 장난도 남자애들끼리 종종했었는데 참
 추억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소중한 추억들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어요!

이유안(러시아학과) 걸다라는 동사를 통해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사랑이 담긴 장난이 애뜻함이 더해져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약속이 되는 흐름이 시에
 잘 담겨 있어서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뜻한 관계가 저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부럽습니다 ㅎㅎㅎㅎ

이유림(경영학과) 마음이 간질거리는 예쁜 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몽글 몽글한 느낌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예진님이 쓰신 시를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두
 사람의 사랑이 순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내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
 발을 건다는 게 저에겐 설렘으로도 다가 오네요
 ㅎㅎ 저도 언젠가는 이런 순수하고 알콩달콩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예진님 덕분에 저도
 모르게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게된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심지범(경영학과) 무엇을 걸수 있는 날들이 지속
 됐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2023/05/16
 tuesday, pm 6:03 | 15읽음
 김시현(러시아학과)

#7일차 #걸다

인생을 건다는 문장은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내걸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매우 절실해보인다.

인생을 걸 때, 우리는 주로 결단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의 소신과 도덕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게 한다.

인생을 건다는 말을 내뱉는 건, 우리의 내면에서 강한 의지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게 만든다.

인생을 걸 때,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주변의 세계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걸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상처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인생을 건다는 건 어쩌면 무거운 문장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뱉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과연 나는 설상 실패를 하더라도 죽기살기로 시도하며 인생을 살아왔나? 이정도면 괜찮지 않냐는 나만의 허상 속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이 글을 쓰며 다시한번 하게되었다.

😊 12 💬 9

주재형(청각학과) 임팩트가 큰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걸고, 라는 말이죠. 그걸 자기 힘으로 이루어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모든 걸 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해요. 머리 속 생각으로 모든 것을 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빠져드는 것만 같은 순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심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언제나 되로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을 택하는 편이고 소극적인 편이라

언젠가 시현님이 글에 적어주신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올 기회가,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통해 마음을 더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려요!

박진옥(사회학과) 인생을 건다는게 무거운 문장이지만 그만큼 비장한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선택으로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상처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비장함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사람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무거운 문장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인생을 걸어볼만큼의 멋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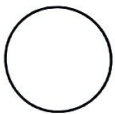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는 인생을 건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극단적인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매우 절실한 느낌이지만, 만약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후를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에겐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의 그만큼의 큰 결심이란 것을 알기에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시현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 인생을 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내린 답은 시현님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건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바친다는 것인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거든요. 내 삶을 바칠만큼 가치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걸어보자라는 말 대신 끈기있게 행동하자라는 말 되뇌어요. 포기보단 노력할 줄 아는 제가 되고 싶기에 마치 좌우명처럼 항상 입에 달고 살아요. 시현님도 가끔은 인생을 걸기보단 다른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제가 가진 삶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저도 내 인생을 걸만한 꿈들을 가져봐야겠어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인생을 건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화이팅입니다!
김한나(경영학과) 아직 인생을 걸만큼의 무언가를 찾지는 못했지만, 인생을 건다는 건 정말 무거운 문장인거 같아요! 그렇기에 저는 무언가에 인생을 걸겠다는 다짐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현님의 글을 읽고 인생을 걸다에 대해 좋은 인식과 용기를 얻고 갑니다!



2023/05/16
 tuesday, pm 6:07 | 21읽음
 최현영(법학과)

#7일차 #

대학생이 되어서 그 때만 할 수 있는, 안 하면 후회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다.
 그 중 하나가 축제의 꽃, 대학생의 꽃 치어리딩이다!
 나는 유니콘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설렘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이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치어리더로 활동한 지 어언 1년. 우수동아리대회로 데뷔를 했다.
 춤을 그리 잘 추지 못하는 내가 호기롭게 시작해 2주의 짧은 연습으로 첫 무대에 올랐다.
 심장이 튀어나올만큼 두근거렸다.
 조명이 팍! 켜지고 울려 퍼지는 노래와 환호성 속 무대의 막을 내렸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고 환호하고 그 안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매력에 나는 무릎에 머리가 들어도, 담이 와도 계속 치어리더로 활동 중이다.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나는 지금 희망을 걸고 싶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없이 하고 나오자고!!! 그리고 많이 보러 와 달라는 희망

😊 13 💬 10

주재형(청각학과) 무대에 서면 조명이 자신에게 비춰져 더 극적인 효과와 느낌을 받는 듯 합니다. 오늘 공연 즐겁게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와 글에서도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감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희망을 걸고 하는 멋진 공연 잘 마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멋진 순간들을 글을 통해 공유받는 느낌이라 너무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응원을 많이 많이 보내겠습니다.

최보경(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저도 유니콘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2학기에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거는 공연 꼭 잘 마무리하길 바랄게요

박진옥(사회학과) 정말 멋지네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다는게 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있을 공연도 눈부시게 빛나실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화이팅하세요!!

이유림(경영학과) 치어리딩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로 보고 해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ㅎㅎ 이번 축제에 다치지 않고 준비한 공연 잘 끝마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치어리딩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춤 잘추시는 분이 정말 신기하고 멋지더라고요 !! 환호성도 함께 들으며 치어리딩하면 정말 남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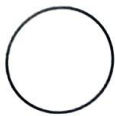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눈 깜빡하면 지나갈 20대의 찬란한 순간을 치어리딩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현영님의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매 순간을 빛나는 하루로 보내고 싶어도 결심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걱정과 귀찮음을 털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빛나는 20대를 만들어보자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긴 현영님에 비해 그저 말만 늘어놓는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ㅎㅎ 덕분에 저의 결점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심지범(경영학과) 아까 공연 보고 왔는데 다들 잘추시던데요!! 현영님도 남은 축제 잘 보내세요!! 글 잘읽고 갑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우와 멋지네요 화이팅입니다
~~!

정예진 (생명과학과) 오늘 공연 정말 잘봤어요 :)
공연을 보고 이 글을 보니 무대가 더욱더
인상깊어졌네요 ..



2023/05/16
tuesday, pm 6:52 | 21읽음
박진욱(사회학과)

#7일차 #걸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미쳐있다.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누구나 아파트를 사고
더 나은 주소, 아파트를 위해서 저마다의
노력을 한다.
아파트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 중한가지는
아파트는 이웃 필터링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매매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 옆집, 윗집, 아랫집 이웃들은 최소한 10억
정도는 소유하고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즉, 경제적 동질성이 있는 이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달동네에 사는지, 펜트하우스에
사는지에 따라 이웃의
경제적 동질성은 다르다.)

community 공동체
:땅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을
(->한 마을, 공동체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지기도 함)
아파트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공동체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강화된 공동체는 이익집단이 되기도
한다.

gated community “빛장 공동체”
다 걸어 잠근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강남의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 등의 경우,
입주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편한 길이
있다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으며, 어린 아이들도 입주인이
아니면 아무리 친구가
거기에 산다고 해도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체가 소위 말해 동네 물관리를 하게 한다.

빛장을 걸다, gated community
손가락이 몇개가 있는지,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이들은
어떤것을 잘하는지 등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살았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걸어잠근 채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파트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상해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강남에 apt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네에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강남 아파트끼리 꼭꼭 뭉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
community를 형성하는게 더 매력적인
것이다.
빛장 공동체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이를
쉽게 끊을 수 없다.

*공간과 일상의 사회학 김미영 교수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걸다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 13 💬 9

주재형(청각학과) 현대에 이르러서 너무 개인화된

한국사회가 된 건 아닌지 경계가되네요. 남들과의 소통에 빗장을 걸어잠그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오 걸다라는 동사를 많은 분들이 선택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걸다로 선택하셨군요. 독창성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빗장을 발견할 일도 걸게 될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빗장이 저희 사회와 공동체 사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진옥님의 글을 읽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이런 보이지 않는 빗장은 조금씩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거주하는 건물로 그 빗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 공동 공간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제가 어릴때는 아무 아파트 놀이터에 들어가서 다같이 놀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놀랐어요 물론 시설물이 망가지면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진 사회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아파트의 공동체 의식을 빗장에 걸어잠그는 것으로 표현하신게 인상깊습니다!! 아파트의 사는 사람들은 다 개인적 성향이 강한 거 같지만 특히 부자동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자부심이 강한것같아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빗장을 걸어 잠그다 라는 뜻이 있었죠!! 조금은 안 쓰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범 (경영학과) 더욱 사회는 계층 사회가 될거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진옥님 글처럼 어느순간부터 아파트에는 급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젠 가장 빈부격차를 잘 나타내주는 게 아파트가 되었죠. 좋은 의미를 지녔던 것도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변질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옥님의 글을 읽다보니 가끔은 과거에 이루었던 그 시절의 공동체가 그리네요. 아직은 그때처럼 돌아갈 길이

있겠죠? 저도 모르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당ㅎ
김한나(경영학과)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애기들이 아파트로 급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이 글을 통해 현실을 더욱 깨닫는거 같습니다! 빗장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닌 열고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2023/05/16
tuesday, pm 8:50 | 20읽음
박지원(사회학과)

#7일차 #걸다

걸다 걸다 말을 걸다
걸다 걸다 웃음을 걸다
걸다 걸다 마음을 걸다

걸다 걸다 주문을 걸다
걸다 걸다 네가 나에게
걸다 걸다 사랑에 빠지도록

이런! 나의 마법이 통하지 않아

그렇게 나는 오늘도 닿지 않는 너에게 주문을 걸고 있구나

😊 15 💬 9

이유안(러시아학과) 이렇게 걸다가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겹쳐서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어려워 도전을 못해봤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챌린지를 통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어떤 대상을 향해 걸고 닿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를 읽으며 어쩐지 조금 슬픈 기분이 되었네요. 마음이 전해지고 말이 걸어지고 주문이 걸리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걸다'의 다양한 쓰임을 알 수 있는 시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김시현(러시아학과) 걸다의 다양한 뜻이 담긴 멋진 시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아이유의 너랑 나 가사 중에서 두 눈을 꼭 감고 마법을 건다는 부분이 있죠. 시를 읽으며 아이유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었네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규(환경생명공학과) 미소를 짓게 만드는 시군요! 잘 읽고갑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ㅎㅎㅎㅎ 잘 읽고 가요
ㅎㅎ



심지범(경영학과) 나의 마법이 상대방에게 통했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걸다라는 뜻을 이용해 다양한 표현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색달랐어요. 어떤 내용일꺼 궁금하며 읽어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문을 걸었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시 같았어요. 간단하지만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를 읽으며 귀여운 생각들도 같이 떠오르네요 ㅎㅎ 시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중국학과) 다양한 쓰인새를 확인할 수 있네요 ㅎㅎ 잘 읽고 갑니당



2023/05/16

tuesday, pm 10:12 | 16읽음
김용후(법학과)

#7일차

#걸다

어떤 것을 건다고 하면, 물체를 어떤 장소에 떨어지지 않게 매달아 놓음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우리는 벽에 액자를 걸곤 한다. 하지만 건다는 행위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수많은 글, 사진, 영상을 SNS에 '걸고(게시, 포스트)' 있다. 일상으로 자리 잡은 SNS 게시 문화가 어떤 영향과 함의를 갖는지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SNS 게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의 '좋은' 모습만을 의도적으로 선별하여 걸고자 한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호화 여행, 식사, 명품, 고급 차량 등 타인의 부러움을 자아낼 만한 게시물로 도배된 SNS는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통념과 기준, 그리고 과시와 편향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아울러, 남들이 '매력적'이라고 칭하는 외모, 외양, 경제력 등이 표준이 되는 것처럼 관념을 형성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대상화한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부 이용자들은 SNS 페이지에 표시되는 팔로워 숫자와 '좋아요' 숫자를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끌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타인의 평가에 과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하락, 우울과 불안

등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사이버심리학, 행동, 소셜 네트워킹> 지에 수록된 영국 바스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개인의 우울과 불안 수준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게시물 속에는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외면적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타인이 만든 기준에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꿰맞추려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성 있는 소통과 연결을 이뤄낼 수 있다.

😊 13 💬 10

주재형(청각학과) post, 글을 게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자신의 피드에 글들을 거는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휴대폰 속의 세상은 분명 장점도 이점도 많지만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때로는 다른 친구들의 sns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울했던 적도 있는데 한 친구가 그건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여주는거다 그 사람들도 힘들고 우울할 때가 분명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 글을 읽고 sns의 장단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유안(러시아학과) 글을 게시한다는 표현이 있기에 '걸다'는 표현을 저희의 sns 사용 풍조를 설명할 때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고도 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주장하시려는 바를 잘 풀어낸 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sns를 그만두는 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용후님의 글을 읽으니 더 강하게 그만두는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만큼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춘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후(법학과) 이유안(러시아학과) 개인적으로 Catherine Price의 강연을 보고('how to break up with your phone'라는 책도 저술) SNS 및 스마트폰 의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의존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다인(법학) 맞아요 sns를 과하게 사용할수록 타인의 반응에 과민하게 느끼게 되는것같더라고요 글 잘 읽고가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가 좋아하는 해외 배우인 엘리자베스 올슨이 자신이 sns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잃어버릴까봐라고 대답해요. 즉,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다보니 내가 사는 현실을 잃어버리고 허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배우가 말한 것처럼 sns는 누군가의 허물일 뿐 진실이 아니기에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앞서 말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가 아니면 안된다는데 저는 이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sns 속의 내가 아닌 현실 속의 나를 마주침으로써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용후님 덕분에 sns의 사용과 관련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한나(경영학과) SNS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줄일 필요성을 느끼고 갑니다:)

SNS에서 좋은 모습들만이 아닌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과시와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내야겠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우와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ㅎㅎ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잘 읽고 가요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저도 약간 인생의 좋고 멋지고 예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새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깎아 내리는 모습에, 원래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아예 삭제해버렸던 일이있어요. 저 처럼 뭐 아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지(철학) 며칠 전에 새로 나온 아이들 신곡 알려지의 뮤비가 떠오르네요! sns 속 화려한 또래의 모습과 다른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는 내용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타인의 기준에 부응하려고 하다보면 정체성을 잃기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이 만든 기준은 환상일 뿐일테죠..용후님 덕분에 sns의 역기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5/16

tuesday, pm 10:51 | 17읽음

고다인(법학)

#7일차#걸다#옷을걸다

지난주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잡혀 입고 나갈 옷을 찾다가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 원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나름 계절별, 색깔별 구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쁠때 그냥 마구잡이로 걸어놓은 옷이 너무 많았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가지고있는 모든 옷을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입는 옷보다 오히려 손도 대지 않은 옷이 더 많다는걸 알게되었다. 세일한다고 사고 예쁘다고 사고 신상이라며 사고 갖은 이유로 무작정 구매한 옷이 이렇게 쌓여버린것이다. 손이 자주 가는 옷들은 정해져있는데 옷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사게되는게 문제였다. 안입는 옷들은 결국 버리게되니 돈도 낭비지만 환경오염에 앞장서버려 기분이 좋지않았다.

최신 유행에 맞추어 대량 생산으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패스트패션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덕에 우리는 예쁜 옷을 값 싸게 구매하게되었지만 버려지는 옷들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의류는 생산부터 폐기과정까지 단계별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그 양이 충격적이었다. 옷을 하나씩 옷걸이에 걸며 입지않는 깨끗한 옷은 따로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다주기로 다짐했다. 아름다운 가게나 굿윌스토어에 헌 옷을 가져다주면 세액 공제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하니 헌 옷이 가득 쌓여 고민인 학우가 있다면 이용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Mountains of clothes washed up on Ghana beach show cost of fast fashion

No one will take responsibility of waste left by the used clothing trade, but campaigners are trying to change that, reports Liam James

Wednesday 27 July 2022 19:21



(Miranda Cheung/Shutterstock)



12



9

김한나(경영학과) 저도 여름 옷을 꺼내놓고 정리는 아직 못했는데 그중에입지 않는 옷이 좀 있어요 요번에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를 찾아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색다르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사진을 보니 섬유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함을 느끼네요. 헌 옷을 그냥 버리지 말고 수거해주는 곳에 가서 말해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예전에 의류가 생각보다 버려지는 양이 많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나바다라는 게 유행했었죠. 매일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새로운 옷이라 원래 입던 옷이 쉽게 질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인지 항상 옷이 없다면 옷장을 한참 바라보던 제가 부끄럽네요 ㅎㅎ 다인님 덕분에 옷과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옷 하나를 생산하는게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하죠 저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옷을 사기 전 정말로 사고 싶은지, 필요한지, 무엇보다 자주 입을만한지 고민하고 구매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옷도 정말 좀 고심해서 고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간낭비+ 환경에 어쩐던 안어울리는 옷은 안입게 되더라고요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위와 환경을 생각하는 학우님의 깊은 생각에 감동하고 갑니다 따뜻한 마음은 멋진 옷보다 훨씬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저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마 전에 구제옷을 처음으로 구입해봤어요. 저렴한데 오염도 없고 좋더라고요! 요즘 구제옷 사이트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으니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조은지(철학)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kbs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버려지는 옷의 양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다인님 글을 읽고 그 다큐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불필요한 옷 소비를 줄일 것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굿월스토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 번 검색해 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23/05/16
 tuesday, pm 11:02 | 18views
 조인영 심리학과

#7일차 #걸다

걸다에 대한 목적으로 목숨을 생각한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이긴 하다. 나는 2년 전부터 낙방한 시험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자 한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비록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종강하고 나면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 준비를 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

나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혹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공부할 때 어쩔 수 없는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 문구를 기억한다.
 “손에 타버릴듯 뜨거울지라도, 담고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 것.”

혹시 시험을 준비하거나 곧 준비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문구를 남기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11 💬 6

서원준 (중국학과) 저도 곧 시험이 있는데 응원 받고 갑니다 ♡ 화이팅이에요!

주재형(청각학과) 내일 면접이 있는데 인영님의 문구를 읽고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영님이 사용하신 문구를 보며 저도 모르게 제 맘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열정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도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겨우 극복했지만 만약 이 문장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잘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 것에 감사하려고요! 인영님도 저도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글의 문구처럼 해쳐나가길 바라요! 인영님 덕분에 인생의 또 하나의 가르침에 대해 배워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이유림(경영학과) 멋진 문구네요 저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한 번씩 되뇌어야 겠어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수민(언어병리학과) 도전하는게 멋진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김용후(법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번의 시험 낙방을 경험했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고보니 좋은 경험과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우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저도 종종 생각하곤 하는 어구를 하나 남겨봅니다.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응원합니다



2023/05/16
tuesday, pm 11:31 | 17월음
강민지 (사회학과)

#7일차 #걸다

「목숨을 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신은 나에게 운동, 공부, 예술 하다못해 예의범절까지도 그 '목숨'을 운운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이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딱지가 되려던 찰나 또다시 벗겨졌다. 이것이 무한정 반복되었다. 18살이 된 지금까지.

「정신 안 차려? 그게 힘들어서 인생 어떻게 살래? 네 목숨을 거는 투지로 해나가야 할거 아니야? 참...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돼!!!!」 나는 수영선수이다. 그런데 요즘 운동이 힘들다. 원래도 힘들었지만 더욱 힘들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오늘 이틀간 연습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방에 드러누워 멍하니 허공만을 직시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것이다.

저 말은 녀두리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다. 그 후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누굴 닮은 거니, 저렇게 끈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어떡하냐, 제 친구들은 척척 잘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까지 완벽한 순서에 의한, 나를 향한 녀두리. 지긋지긋하지만 한편으론 익숙했다. 사실 이 익숙한 게 싫었다. 더욱 비참했다.

다음날, 나는 수영장으로 향했다. 연습이

끝나고 모두가 나갈 때 까지 나는 나가지 않았다. 혼자 있는 이 공간이 미치도록 좋았다. 얼른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갑지만 이내 적응이 돼서 따뜻하다 느껴졌다. 푸른빛, 무음, 자유,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물속이 좋았다. 하지만 수영선수라면 그것만을 좋아해선 안된다. 경쟁과 순위, 자존심과 능력을 좋아해야 한다. 이것부터가 나는 수영선수로서 실격이다.

19살이 되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수많은 명문 대학의 스카우터들이 오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집에서는 극성이 펼쳐졌다. 「오늘 아주 목숨 걸어야 해. 알지? 네가 낙오자가 될지 승리자가 될 지는 오늘 달렸어.」 그놈의 목숨. 그래, 나도 안다고. 그래서 8개월간 미친 듯이 훈련하고, 관리해왔다고. 특히 이 8개월 동안은 딱지가 앉지도 못했다. 내내 상처였다.

처참히 망했다. 물론 바닥은 아니었다. 중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3위 아니 적어도 5위 안에는 들었어야 한다. 집으로 가는 내내 당신은 1초도 안 쉬고 내내 녀두리를 했다. 익숙한 레퍼토리였지만 오늘따라 화가 치솟았다.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저 아래서부터 올라와 나를 집어 삼켰다. 물론 당신에 대한 혐오도. 오늘을 기점으로 당신과 말 자체를 섞지 않았다.

졸업식날이다. 나는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을 갔다. 못 갈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다. 모두와 인사를 나눈 후 집에 갔다. 점심을 먹는데 당신이 말했다. 「너는 인생 종친 거야. 목숨을 걸고 하라고 했는데....쫓...나약한 새끼. 그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시답지 않은 대학 가면서도 처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 인정한다. 나약한 거. 그런데 당신이

원데? 내 인생을 재단해서 마음대로 지껄이는 거야? 이 생각이 스치기가 무섭게 앞이 안 보였다.

몇 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가 낭자하게 주방을 덮고 있었다. 당신이 죽어있었다.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지만 어쩔지, 어딘가가 시원했다. 현장을 얼른 치웠다. 붉은 꽃을 입으로 뱉어낸 듯한, 와중에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의 당신까지.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이다.

그래, 그렇게 난 당신이 말하고 또 말한 '목숨'을 거는 짓을 당신을 향해 저질렀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라고 말한 게 아닐테지만.... 이때만큼은 당신의 말이 맞았음을 인정한다. 꼭 해내야하는 일을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 9 💬 3

이유림(경영학과) 주인공에 이입해서 읽으니 괜히 숨이 턱 막히네요 잘 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잘 따라주지 않을 때에 대한 비극이네요ㅜㅜ 소설 잘 읽었어요!
서원준 (중국학과) 감정이입 잘하며 소설 잘랐습니당



2023/05/16
 tuesday, pm 11:48 | 13읽음
 임수민(광고홍보학과)

#7일차 #결다

무언가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가? 넌 뭐 걸래? 난 여기에 걸래, 내 모든걸 걸었어 등의 말이 친숙하다. 뭔가 비장해보이고 긴장되는 순간일것 같다. 무엇을 건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그 선택의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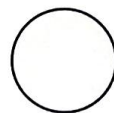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건 사람에게는 신뢰도가 더 올라가곤 한다. 자칫 도박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의지를 담은 말임은 틀림없다. 자기개발 혹은 동기부여 콘텐츠들을 보다보면 늘 나오는 말이 있다. 뭔가에 미쳐본 적이 있느냐, 모든걸 걸어본 적이 있느냐.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경험은 값지다고 말한다. 모든걸 건다...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결과가 두렵고 과정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다는 건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을 되돌아 보았다. 나는 무언가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가? 얼마나 걸어보았는가? 늘 두려움이 앞서 회피하진 않았나? 앞으로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마주하고 싶다. 두렵다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면 뭐든 걸어보자.

😊 10 💬 4

김수연(일본학과) 확실히 도박이네요.. 옛날부터 아니다에 십원건다~처럼 많이 썼던것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흔히 쓰진않지만 두려움이 커서 안쓰게 된것같네요.

이유림(경영학과) 모든것을 걸었다고 말할만큼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로 남은 것들도 많구요 조금 읽은지언정 한번은 뭐든 걸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주재형(청각학과) 저는 가장 크게 걸어본게 어릴 적 제 소중한게 여기던 팽이였어요. 그 팽이를 잃은 후로 제가 소중한게 여기는 어떤 건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응원 받고 갑니다 화이팅 !!!!



2023/05/16
 tuesday, pm 11:52 | 11읽음
 이민재 (경제학과)

#7일차

무언가를 건다는 것. 나에게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 내 것을 잃는다는 것이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내 무엇인가를 걸지 않다보니 그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던 것 같다.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택들은 나에게 몰입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인생또한 그저 그렇게 흘러가게 됐던 것 같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치러야한다. 이 대가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 개념을 부정하고 싶었다. 둘 다를 얻을 수는 없을까? 달콤한 부분만 먹으면 안 될까? 결과만 보면 안 될까? 하지만 잘못된 생각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고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드리는 중이다. 특히 헬스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다. 헬스는 근육에 고통을 줘서 근육을 만들어낸다. 이 고통은 직접적으로 내게 오고 이 고통이 없으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 헬스 1년차가 된 지금은 이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으면 아쉽다. 이제는 이 삶의 태도를 다른 부분에도 접목시켜보는 중이다. 공부를 할 때도 고찰의 과정이 빠지면 성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을 건다는 것은 인생을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 같다.

😊 9 💬 4

- 이유림(경영학과)** 학과 특성에 맞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한 글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주재형(청각학과)** 헬스 1년차가 되셨다니 그 끈기에 감탄하고 가요! 저도 헬스를 오래 하고 싶어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 이민재 (경제학과)** 주재형(청각학과) 오 헬스를 하시는군요. 근육에 정확한 자극이 오는지

느끼시면서 하시면 좀 더 흥미를 붙히실 수 있을 겁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
서원준 (중국학과) 기회비용 요즘 배우고 있는데 이해 잘 하고 갑니당



2023/05/16
 tuesday, pm 11:59 | 12월음
 임선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걸다 #

상위 1%가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다. 돈을 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돈에 관심이 생겼고, 왜 누군가는 부유할까, 이들의 특징은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관찰로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이름을 걸었다.'는 것이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유튜버, 사업가 등 모두 자신을 내걸고 일한다.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한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것,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단계로 여기고 싶다. 나도 내 무기를 키워 내 이름을 걸고 이 사회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부모 함께 얻을 수 있을까?

😊 9 💬 4

- 이유림(경영학과)** 이름을 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이름을 걸 그날을 응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김한나(경영학과)** 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이름을 걸었네요! 스스로를 가치있게 하려면 이름을 걸고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이름을 걸다에는 신뢰도가 높아지는거 같습니다 신뢰가 높아지면 부모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주재형(청각학과)**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건 자기의 명예를 건다는 말과 같이 들리네요. 이름값이든,

몸값이든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서원준 (중국학과) 맞아요 용기와 도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023/05/17

wednesday, am 12:08 | 32원음

김양선


#7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평소에 많이
쓰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걸다'라는
동사에 이렇게 여러 뜻과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경험을 나눈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인생을 걸다는 아직까지 버겁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걸고, 다짐하고, 성취나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는
행위, 무엇(목표)을 거는 행위가 의미있는
결과를 낳기를 바라면서... 축제로 번잡한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 15 💬 0



<http://band.bollogbook.com>

내 밴드의 게시판과 사진첩의 글과 사진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더보기 메뉴 > 밴드북 만들기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